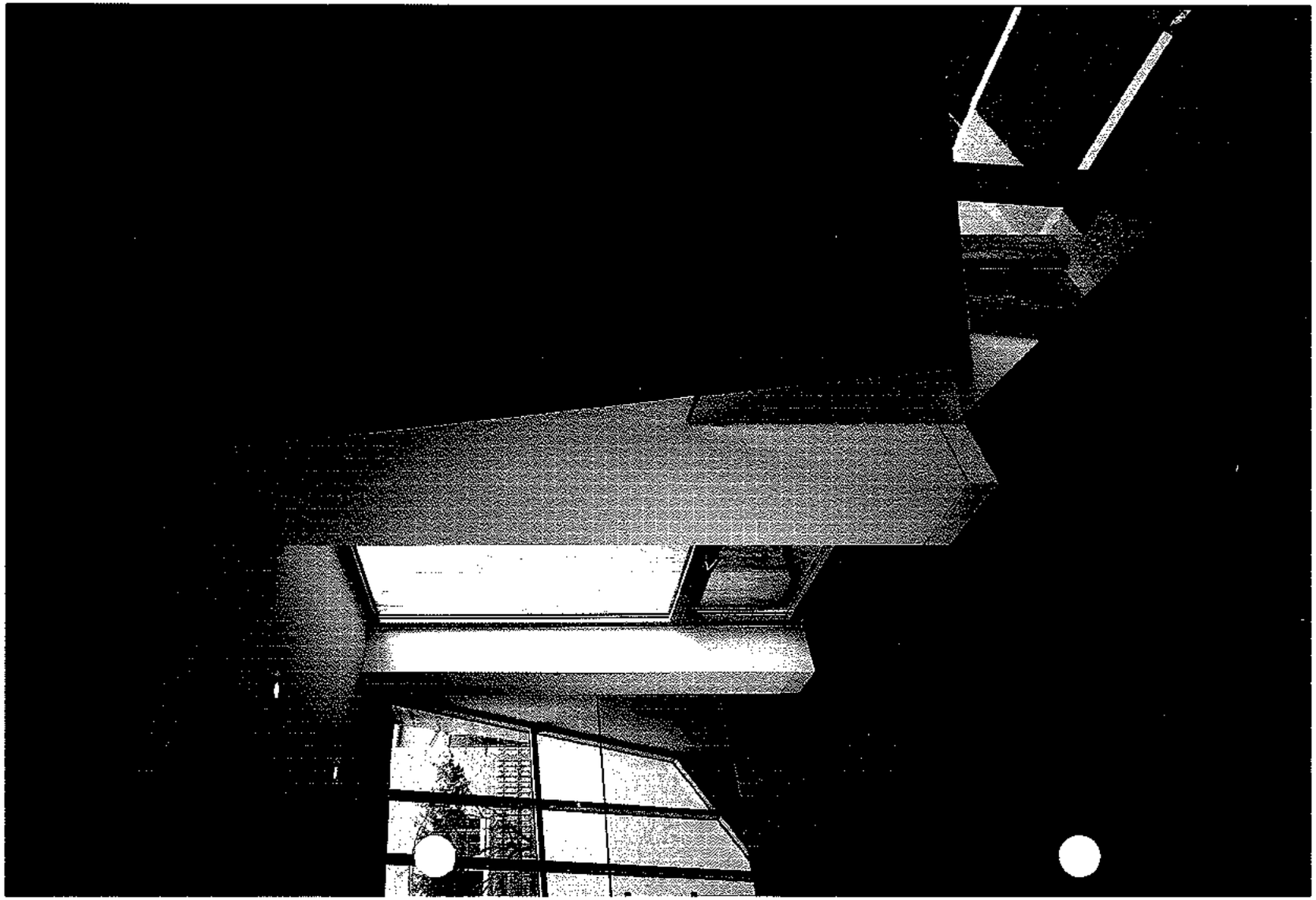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20 / April /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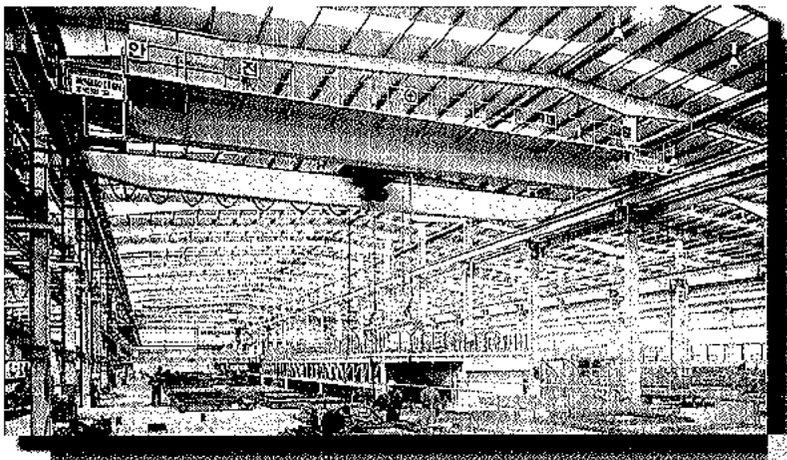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http://www.ki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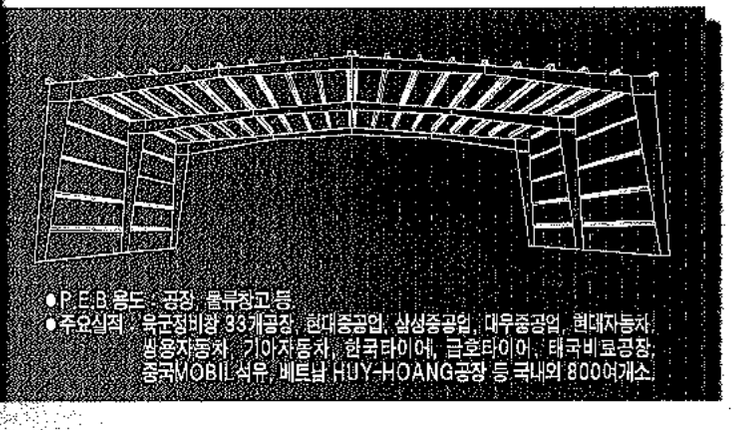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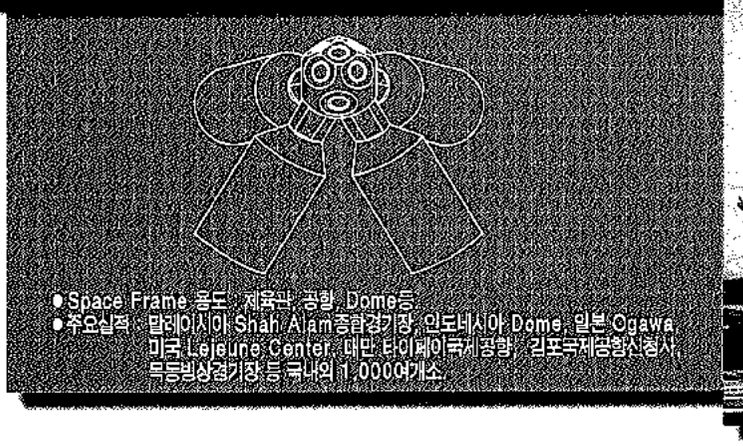
세계적인 한맥의 첨단기술

P.E.B & Space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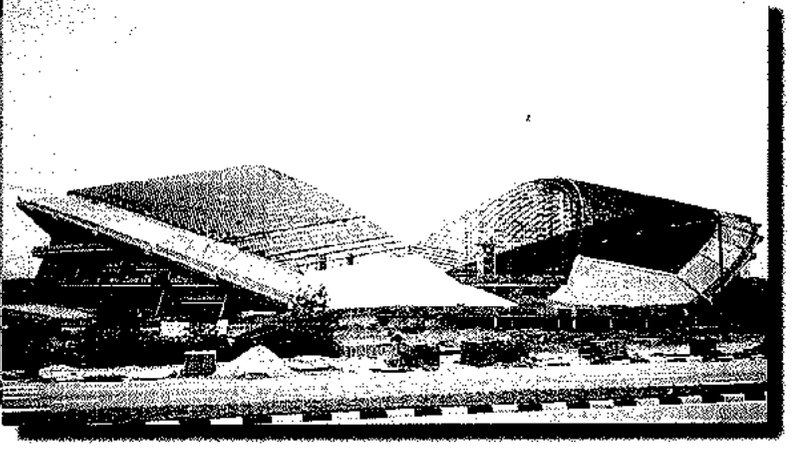




●P.E.B 용도 : 공장, 물류창고 등.
●주요실적 : 육군정비창 33개공장,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태국비료공장, 중국MOBIL 석유, 베트남 HUY-HOANG공장 등 국내외 800여개소.



●Space Frame 용도 : 체육관, 공항, Dome등
●주요실적 : 말레이시아 Shah Alam종합경기장, 인도네시아 Dome, 일본 Ogawa, 미국 Lejeune Center, 대만 타이페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확산청사, 목동빙상경기장 등 국내외 1,000여개소.



지난 20여년간 특수철구조물만을 개발하여온 한맥기술진은 Computer Software를 응용하여 3차원 구조역학의 P. E. B(Pre-Engineered Building System)와 **Space Frame System**을 자체개발, 대규모 **무주공간건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기존 철구조물에 비하여 30% 원가절감은 물론 현장조립공법으로 **공기단축**을 실현하였으며, 연간 7만여톤을 제작 · 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춘 Asia 최대의 특수철구조물 Maker로 외관이 미려한 혁신적인 철구조물을 세계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영업상담 (02)783-9999

기술제휴 : PASCOE BUILDING SYSTEMS, INC.

FOR MORE THAN 50 YEARS

특수철구조물의 개척자

한맥重工業株式會社
HANMAEK HEAVY IND. CO., LTD.

● 본사 · 공장 :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B-1 나-707
TEL: (031)499-0114(代), FAX: (031)498-0511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1-49(선기빌딩 4층)
TEL: (02)783-9999(代), FAX: (02)785-0030
http : //www.hanmeak.co.kr

아트필라의 ARP형틀은

노출 콘크리트 원형기둥의 상부 · 하부의 머리장식 모양으로 현상학 한 금속기둥 성형틀로 건축물의 하중과 미적감각을 동시에 표현하는 기둥성형틀입니다.

이런 기둥 보셨습니까?

노출콘크리트 원형기둥품(ARP형틀)렌탈 전문회사에 맡겨보세요!

독특한 건축물의 디자인

중세유럽의 모든 기둥양식을 원형 그대로 표현하거나 새로운 모양으로 디자인하여 독특한 모양의 건축물이 탄생됩니다.

간편한 시공방법

아트필라의 상부틀, 중부틀, 하부틀을 철봉조임쇠벨트로 간편하게 조립 · 시공하게 되어있어 시공이 간편합니다.

다양한 마감재 선택

라운드 콘크리트 성형기둥에 대리석페인트, 칼라스톤, 본타일, 유 · 무광코팅제 등 다양한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부분 변신

건축물의 포인트 부분인 기둥을 매년 독특한 갈라로 변화를 주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 시공사례 (퇴계원)

▲ 시공사례 (제주도)

아트필라의 적용대상 건축물

모든 건축물의 현관 및 아파트 현관 / 호텔 및 모텔 / 예식장 및 스포츠센타
일반주택 및 고급빌라 / 종교시설 / 콘도 및 가든 / 학교 / 백화점 및 대형 상가
휴게소 및 역사 / 기타 건축물의 내부·외부기둥

※ 자세한 내용은 www.artpillar.c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아트필라

원형 콘크리트 기둥품 렌탈 사업부
대표전화 : 02) 575-1077
http// : www.artpillar.co.kr

전국 지사 및 지역대리점 모집

상담문의 : 02) 575-0930
017-243-0522

세·계·최·초·의·독·자·모·델·로·대·한·민·국·을·대·표·하·는·주·차·기·가·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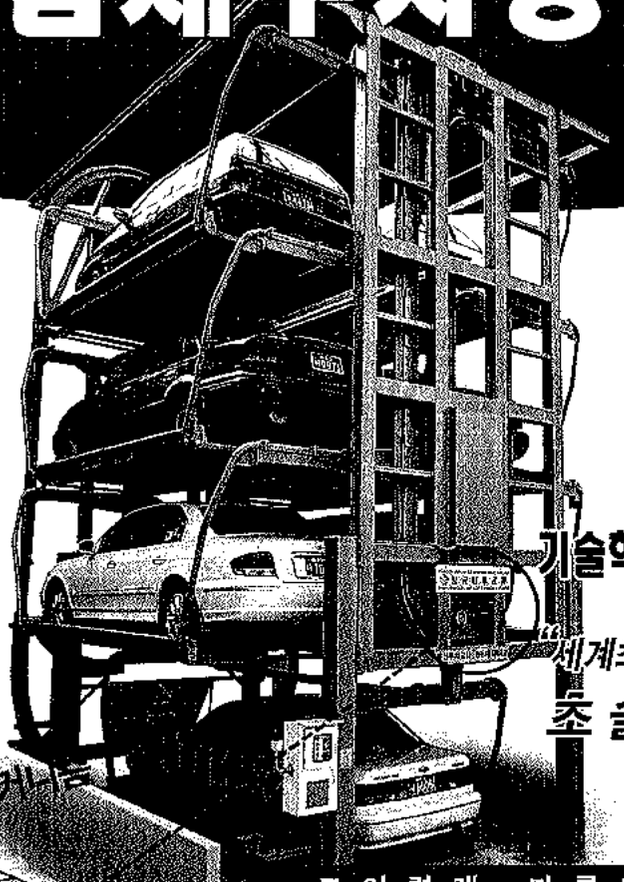
스카이파크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SKY PARK

PL법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현대해상화재

전문건설업등록업체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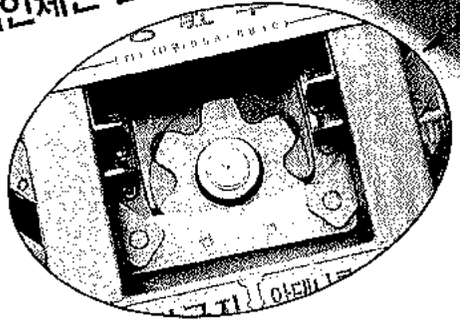


10年이상 쓸 수 있는 주차장치
"자신있습니다"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메커니즘



■ 이렇게 다릅니다

- 엄청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www.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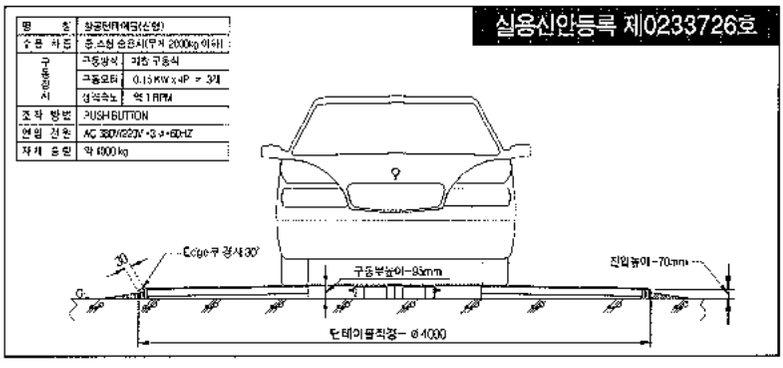
☞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사양(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 (最小)	주차기 길이 (最小)	소요높이 (最小)
SKY PARK-5	5 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 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 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 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 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 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 대	4570	6090	13060

신제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株)창공駐車産業
www.juchagi.com
한글도메인 : 주 차
SINCF 1989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전국대표전화 (상담 · A/S) 1544-3335
- E-mail : cgp210@kornet.net
- F A X : 054)973-0067
- 서울지사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67-29, FAX : 02)333-4442
- 부산사무소 : 051)784-6721
- 광주연락소 : 062)942-6923

디지털 프론티어-삼성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삼성생명 대출 특선!!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_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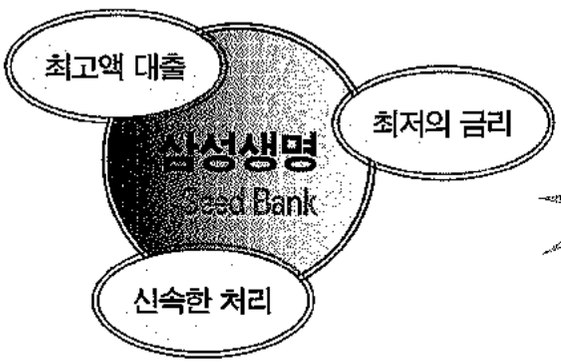
대출금액_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_ 연 6.4%~7.2%

기　　간_ 1년~5년(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_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창업자금 특별상담
- 담보대출 :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 6.0%~7.0%(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라이트 플러스 대출 : 최저 6.0%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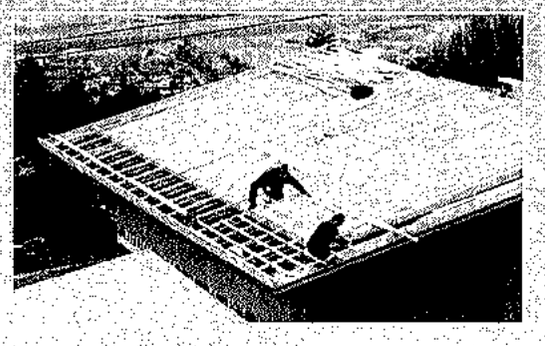
상담문의

삼성생명　강남 AM
Seed Bank

Tel_ (02)545-8853~4
Fax_ (02)545-4939
HP_ 011-9738-0087

내일을 지키는 힘 SAMSUNG LIFE INSURANCE

CE ISO 9001



탁월한 단열효과

명일폼테크 기계로 개발한 - **스타폼(STAR FOAM)**

스타폼(STAR FOAM)은 상압식 압출발포 폴리스티렌 보온 단열재입니다.

상압에서 발포해서 제조하므로 타공법에 비해 같은 체적내에서 독립기포의 수가 적고 치밀하여 단열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내습, 내수성과 탁월한 압축강도를 나타내는 최고급 품질의 난연성 방수단열재입니다.

1 우수한 단열성

상압발포 공법으로 생산되는 스타폼은 미세한 독립기포내에서 기체중 열전도율이 가장 낮은 불화탄소를 충진하였기 때문에 단열재중 가장 뛰어난 단열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기포의 미세한 기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로 인한 열전도율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2 내수성능

독립기포구조를 가진 스타폼은 압출보드 중 최고인 최대하중 60Ton/m2까지 견디는 다양한 압축강도를 지니고 있어 각종 건축물의 시공부위에 따라 알맞은 압축강도를 지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빌딩, 주택, 주차장, 활주로, 옥상층, 고속도로, 냉동창고 바닥, 아이스링크바닥 등 하중에 대한 부담이 있는 곳에 사용됩니다.

3 탁월한 흡습능력

다른 단열재와는 달리 미세한 연속독립기포로 형성된 스타폼은 흡수량이 거의 없어 기존의 단열재에서 쉽게 관찰되는 흡수나 흡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열효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냅니다.

4 자기소화성

난연제를 투입하여 불꽃을 제거하면 자기 스스로 소화되는 자기소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연재는 아니지만 불연재로 마감을 할 경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5 탁월한 시공 가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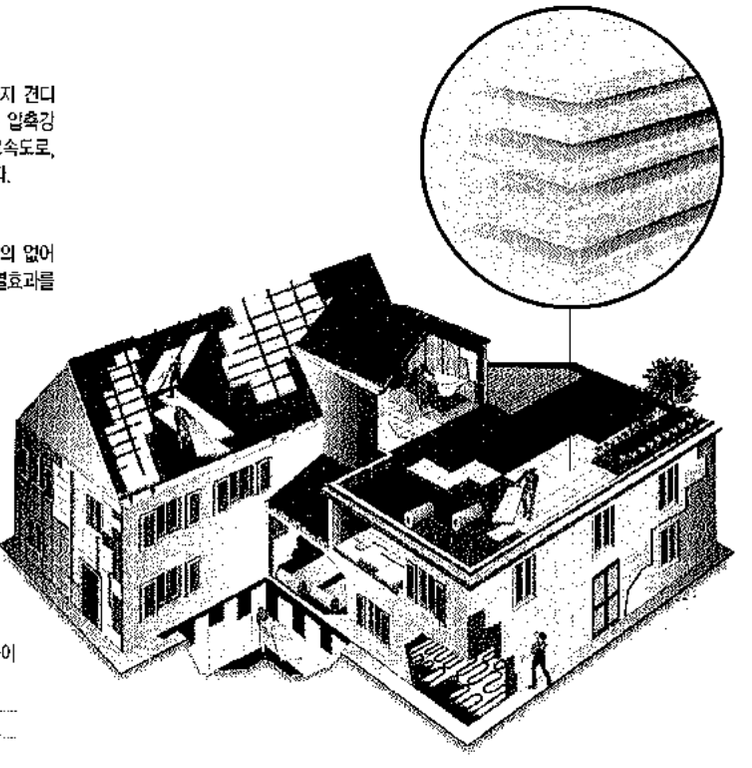
시공시 인체 유해물질이 없으며, 칼, 톱, 열선 등으로 쉽게 규격대로 절단되며 가볍고 강도가 높아서 작업이 편리하고 시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6 다양한 규격

두께 20-120mm 까지 생산 가능하며, 다양한 모서리 처리가 가능하여 시공이 훨씬 편리합니다.

① ② ③

스타폼(STAR FOAM)



本社 · 工場:韓國 大邱廣域市 達西區 月岩洞 927-3(城西工團 2次 2地區)
Tel :(82-53)586-3911(直通) 582-3911~4(代表) Fax :(82-53)582-3915
E-mail : myungil@chol.com Web-site : www.starfo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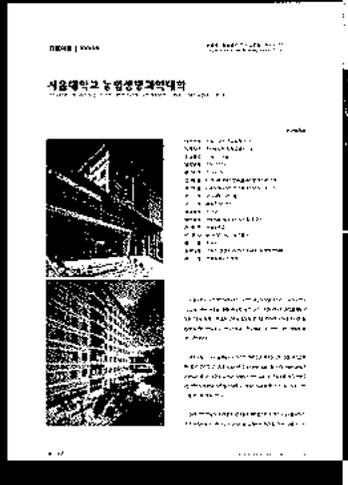
명일폼테크
MYUNG-IL FOAMT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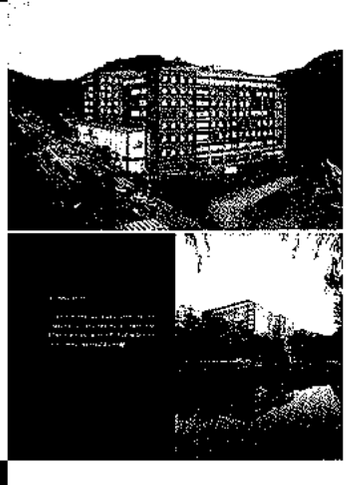
「건축사」는 회원 여러분의 "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는 회원 서로가 뉴스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작품과 관련된 소개는 물론 회원 활동과 건축계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 〈슬라이드 팔름 10컷 내외, 설계개요, 설계소묘 (200자 원고지 3~4매), 기본 도면(배치, 단면, 평면)〉
현상설계	최근 현상설계 경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2~3매, 주요도면 3~4매, 설계개요, 설계소묘 (A4 1매 내외)〉
계획작품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미준공 작품)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2~3매, 주요도면 3~4매, 설계개요, 설계소묘 (A4 1매 내외)〉
회원동정 및 기타소식	건축여행, 세미나 참가, 기타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항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 등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2매(분량 제한 없음)〉

원고마감 : 매월 5일(수시 접수가능)
보내실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 2동 1321-6
동아타워빌딩2층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지 편찬팀
(우편번호 137-857)
문 의 : 「건축사」지 편집담당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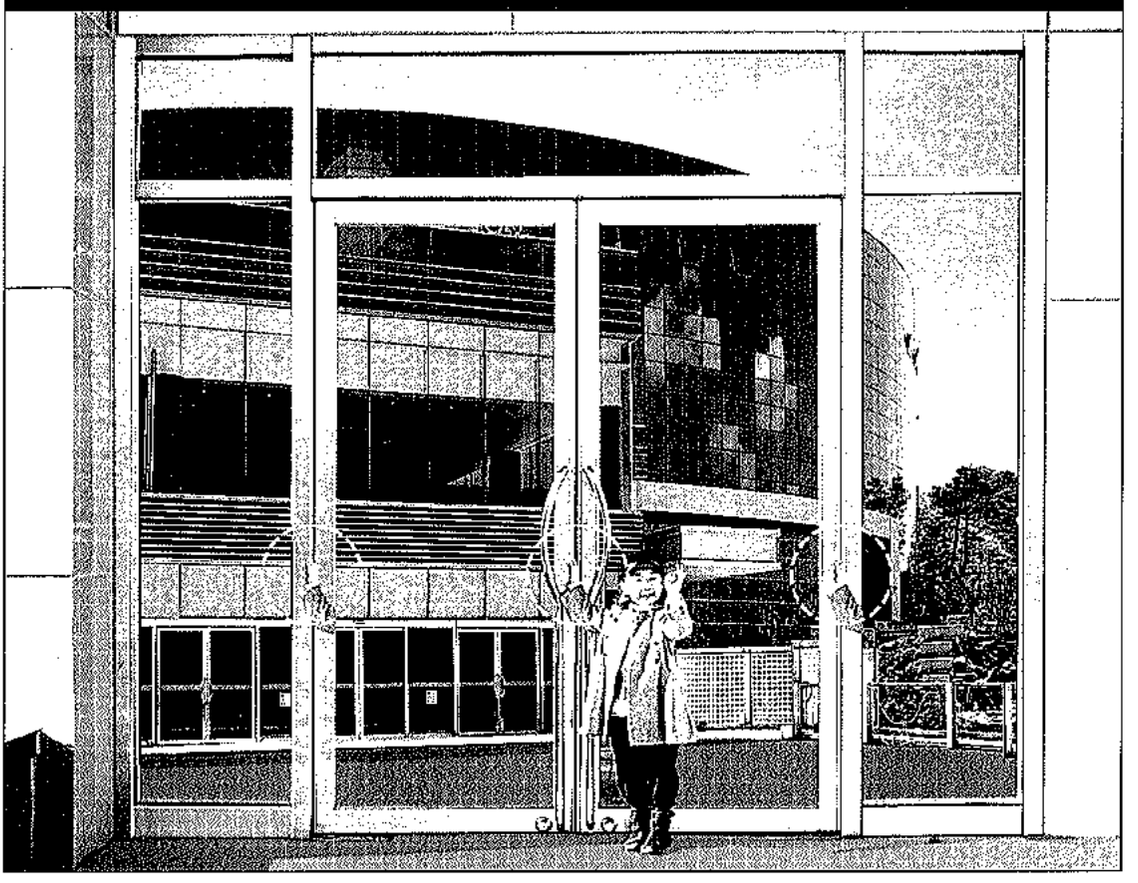


실용신안 제0003710호
의장등록 제2888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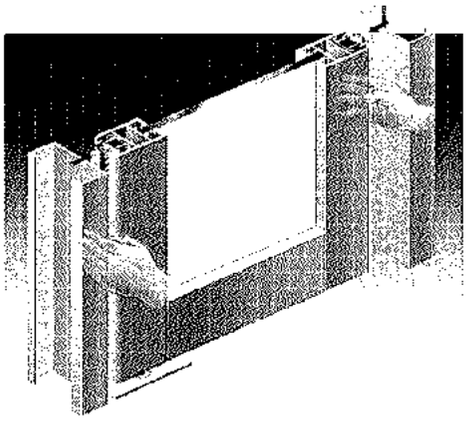
제조물 책임보험 2 억원 가입업체

세이프강화도어

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해 제작된 안전한 문, 세이프 강화도어! — 정우는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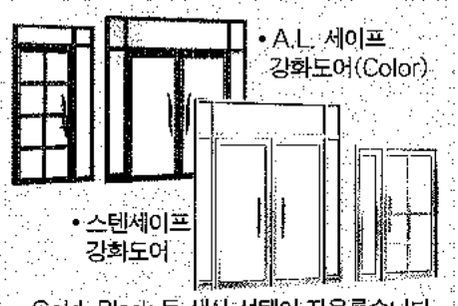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단면 상세도

사용시에는 방풍, 방음, 단열이 완벽하고 손가락이 끼었을 시에는 이송케이스가 유연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하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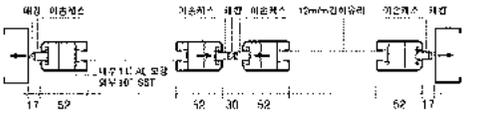
• A.L. 세이프 강화도어(Color)

• 스텐세이프 강화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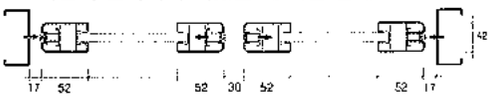
• Gold, Black 등 색상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평면 상세도 (홈페이지 실계 다운로드 참조)

□ 사용 상태도



□ 어린이 손가락이 끼었을 때 작동 상태도



설치 장소

• 오피스텔 • 공공건물 • 은행
• 아파트 • 학교 • 스포츠시설 건물
• 백화점(마트) • 병원 • 호텔

기존의 일반 강화도어는 안전사고 및 에너지 손실이 많아 수요가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 단가표: 한국물가 자료집 432p 참조
유통물가 자료집 387p 참조

□ 공장출고가격: 900×2100mm 기본, 투명유리
₩ 218,000(전국배달)

신자재 공모등록업체 인증 (현대건설 2003. 4)

어린이「손」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정우산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34-77
전 화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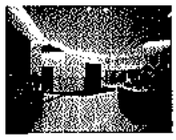
벤 처 기 업 등 록 업 체

대한건축사협회발행, 2004년 4월호 통권 420호

Contents

22

24


32

건축사
korean architect

차례 2004 04 420호

칼럼	건축을 꿈꾸는 자	이재림	12
건축만평		유원재	15
회원작품	Best Western Premier Incheon Airport Hotel	이영희 · 정영균	16
	서초 현대 슈퍼빌	김종국	26
	우면동스튜디오	임재용	34
	행복한 교회	박대웅	44
	전희동 빌라	이경훈 + 김이건축	52
작품노트	아란야(Aranja) 설계만-경기도 광주시 K사(寺)	조인숙	56
특집	건축의 문화 · 사회적 기능과 정부의 역할		62
연재	공간 클럽 - 11	이재훈	70
건축기행	평양 방문기 - 02	안길원	76
기고	고귀한 삶이 용솟음치는 「요한의 집」	민승열	82
	「설계보수대가기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관영	85
건축마당	협회소식		88
	건축계소식		91
	현상설계		100
	해외잡지동향		116
	보고서		124

발 행 인 이세훈
편 집 기 획 김진암, 정양순, 김종복, 민승열, 박영순, 손기찬, 윤삼기, 윤시덕, 이상린
취재 · 편집 홍보편찬팀(조한국 과장)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 편 번 호 137-857
전 화 대표 (02)581-5711-4
팩 시 밀 리 (02)536-8323
인 터 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 쇄 인 김종식 / 제이아트 (02)2269-7619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이홍식 팀장)

■ 월간 「건축사」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을 표시하여 편리하게 및 상업용을 금지합니다. ■ 본지의 기자들 기사나 사진은 투명잡지 및 복사를 금합니다.

42

51

55

Korean Architect

Vol. 420
April 2004

Column

Some People Who Dream of Architecture	Lee Jae-Rim	12

Cartoon — Yoo Won-Jai — 15

Works

Best Western Premier Incheon Airport Hotel	Lee Young-Hee & Jeong Young-Kyoon	16
Super Villa	Kim Jong-Kook	26
WOOMYUN- Studio	Lim Jae-Yong	34
Haengbokhan Church	Park Dae-Young	44
Yonheui Villa	Lee Gyeong-Hoon & Kimm and Lee	52

Design note

Design a Buddhist Temple in Kyonggi-do	Cho In-Souk	56

Special Issue

The Socio-Cultural Function of Architecture and the Role of Governments	62

Serial

Space amd Rooms	Lee Jae-Hoon	70

Architecture Travel

A Visit to Pyeong-yang	Ahn Kil - Won	76

Feature

"House of St. John" - A Place of Noble Life	Min Seung - Ryeol	82
Applying Fee Standards	Lee Kwan-Young	85

Architects' Plaza

Kira news	88
Archi-Net	91
Competition	100
Overseas Journal	116
Report	124

Publisher: Lee Se-Hoon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oon, Kim Jong-Bok, Min Seung-Ryeol, Park Young-Soon, Son Ki-Chan, Yoon Sang-Ki, Yoon Si-Deok, Lee Sang-Lee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art)

이재림 / (주)지담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Jae-Rim

건축을 꿈꾸는 자

Some People Who Dream of Architecture

꿈이란?

꿈이란 사람의 삶을 희망으로 채워지는 소중한 자원이다.

아울러 꿈이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가질 수 있는 권리이기에 시간과 함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다.

무릇 꿈이라 함은 사심 없는 신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래서 진한 감동이 전해지는 열망과 열정을 말하는 것으로 상향지향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전 투구하는 배타적 개념의 야망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꿈은 꿈을 꾸는 자가 현실과 맞서면서도 긍정적 시각을 잃지 않은 채 희망과 망상을, 포부와 허세를 구분해 낼 때 그리고 결과를 이웃과 공유하려 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즉 꿈의 결실은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화합과 나눔의 소산인 것이다.

꿈을 꾸는 사람들, 꿈을 잃은 사람들

조앤 캐슬린 롤링(J.K Rowling)은 「해리포터」의 작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젊은 시절은 순탄하지 못했다. 결혼의 실패와 연이은 실직 그리고 「수중에 돈이 생기기전에 자금 신은 신발이 맞지 않을 만큼 딸 제시카가 커 버리면 어떻게 하나?」를 걱정했을 만큼의 지독한 가난이 그림자처럼 늘 그녀를 따라 다녔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은 아마도 가난에 대한 고통일 것이다. 가난이란 가난 자체도 문제이지만 사람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고 때로는 파멸의 길을 걷게 하는 치명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빈털털이에 의지할 곳 없었던 그녀의 삶은 가난의 고통이 아니라 꿈을 이루고자하는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명시절 나는 실업자에 이혼녀였지만, 내 신세를 비관하지는 않았다. 해리포터 이야기를 쓰고 있노라면 마음이 저절로 영랑해져서 무일푼인 것도, 남편과 헤어진 것도 상관없었다. 내가 겪은 시련이 동화 줄거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해리이야기는 내 어린 시절 상상의 세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녀의 꿈은 어린아이의 그것처럼 단순하고 또 순수하다.

「해리포터」시리즈가 문학적으로 큰 족적을 남길 만한 수준의 작품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작품의 가치는 단순히 작품성을 논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해리포터스리즈는 작년 한 해 동안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이며 올해 이 이야기의 마지막편인 7권이 나오기를 전 세계의 독자들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상상의 나래를 폈던 그녀에 대한 세상의 평가인 것이다. 과연 그녀가 꿈꾸었던 상상의 세계가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될지 두고 볼일이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 그리고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웃처럼 평범했던 그녀가 가난을 벗삼아 감성을 지켜가며 꿈을 실현시키고 그 결실을 어린 이웃들과 나누는 과정을 보고자하는 것이다.

줄줄이 터지는 한국영화의 대박 소식은 온 나라가 어수선한 자금 상큼한 청량제처럼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다. 바야흐로 한국영화의 르네상스인 셈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제규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시나리오 작가로 출발한 순수 국내파 감독이다. 지금까지 그가 연출한 영화는 「은행나무침대」,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단 세 편뿐이다. 그렇지만 그의 영화를, 그의 이름 석자를 한번도 듣지 못한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디 우리들뿐이겠는가? 영화가 수출되면서 그는 이제 해외에서도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1999년 강감독이 비즈니스위크에 의해 〈아시아를 움직이는 50인〉에 그리고 2000년에는 「쉬리」가 기네스월드레코드에 선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조용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는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국영화의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하다고 한다. 그의 욕심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고자 현실적인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 출세 지향적 성향의 그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미련할 정도로 우둔한 꿈과 열정이 필요하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염두에 두지 않는 배짱이 있어야 하기에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태극기 휘날리며」를 지켜보는 동안 필자는 내내 자신의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

나의 꿈은 무엇일까?

내가 실현시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꿈을 실현시킬 열정이 내게 남아 있는 것일까?

상념 속에서 펼쳐지는 스크린의 장대함은 줄거리의 미흡함이 눈에 띌 때도 부자연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될 때에도 오히려 정겨움으로 다가왔다.

그의 영화에 대한 작품성을 논하는 것도 역시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다만 영화인 강제규의 꿈이 신념으로 이어져 하나씩 결과물로 탄생되는 과정을 보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필자 자신을 반성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싶다. 역시 이웃과 나누는 꿈의 결실이야말로 진한 여운을 남기게 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한국 영화 부흥에 헌신한 영화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계속될 그의 행보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자 한다.

구태여 정치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개혁이니 견제니 하며 각자의 꿈(?)을 구현하고자 사분오열하는 정치판의 모습을 보고 있자

면 명분의 당위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명분도 화합과 조화로움을 넘어선 순간 그것은 이미 타락한 이기심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변처럼 개혁과 발전이라는 꿈의 구현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일 뿐이다. 꿈을 잃은 자들에게는 화합도 없으며 감동의 순간도 없는 것이다.

이렇듯 꿈은 가장 극명한 화합과 나눔의 소산이었다.

건축을 꿈꾸자 =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자

사회적으로 부와 명성을 쌓은 사람은 많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지키며 그 꿈을 착실히 실현해 가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꿈꾸는 자가 되지 못한다하더라도 우리주변에 꿈을 현실로 구현해 나가는 동료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삶은 건강한 것이다. 건실한 토양에서 건실한 수확이 약속되듯 꿈을 이루는 것은 꿈을 이해해주는 이웃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꿈을 꾼 자와 더불어 결실을 나눌 권리를 갖는다. 이것 또한 화합과 나눔의 이치 일 것이다.

건축의 르네상스를 꿈꾸는 자는 누구일까?

필자에게 능력이 있어 주인공이 된다면 좋겠지만 누구라도 상관없다. 건축인 누군가의 꿈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건축인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며, 우리는 당당히 그 결과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를 기대하는 아이들이 있기에 작가는 희망의 글을 쓰는 것이며,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이 있고, 한 목소리로 스크린쿼터제를 사수했던 영화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감독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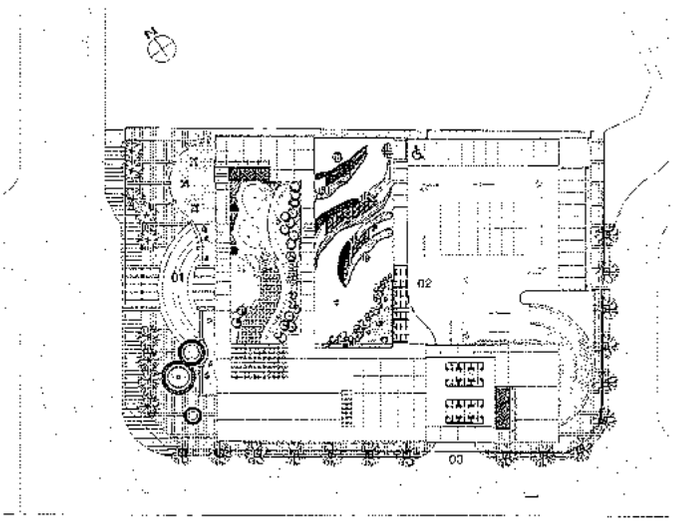
건축을 꿈꾸자.

건축을 사랑하는 푸푸한 후배들이 있고, 건축인을 동경하는 건강한 이웃들이 있으니 우리들의 꿈꾸기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영희 · 정영균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Young-Hee & Jeong Young-Kyoon

Best Western Premier Incheon Airport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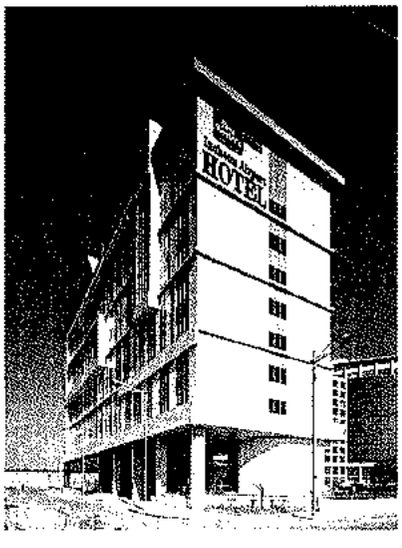
● 배치도



01_ 주출입구 02_ 부출입구 03_ 차량진출입

● 건축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 H3 부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항지구
대지면적	5,475㎡
연 면 적	20,903.23㎡
건축면적	2,419.99㎡
건 폐 율	44.20%
용 적 률	294.96%
규 모	지하 1층, 지상 10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외부마감	THK3 알루미늄패널 + THK30 화강석 + THK24 컬러 복층유리
시 공	(주)미석건설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조태용)



개발방향

이 프로젝트는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내에 있는 호텔이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 어떤 부류의 고객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였다.

공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풍부한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으나, 주위에 일급호텔들이 감싸고 있어, 주고객층을 비즈니스 및 항공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저가 고급호텔로서 1~2일 및 장기체류기간을 예상하여 각종 부대시설의 확보보다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계획하였으며, 대형회의실이나 연회장보다는 소규모 회의실과 비즈니스 센터가 있는 기능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비즈니스호텔을 계획하였다.

입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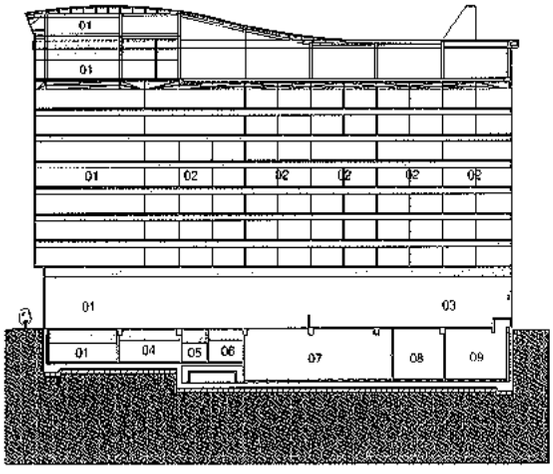
-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국제업무, 위락, 휴양기능이 공존하는 21세기 세계의 중심
- 인천항과 연계한 신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 경인운하 등 동북아의 종합물류의 중심
- 21세기 동북아의 중핵도시로 정보통신센

Best Wes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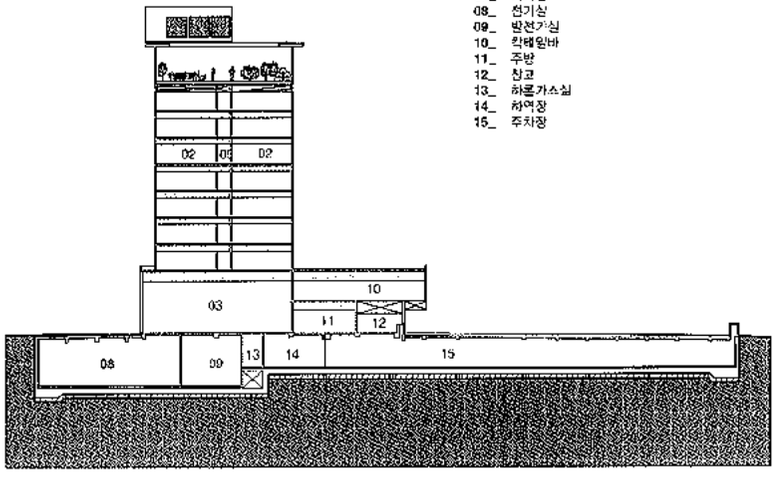
Lockheed
Airport
www.airport.co.

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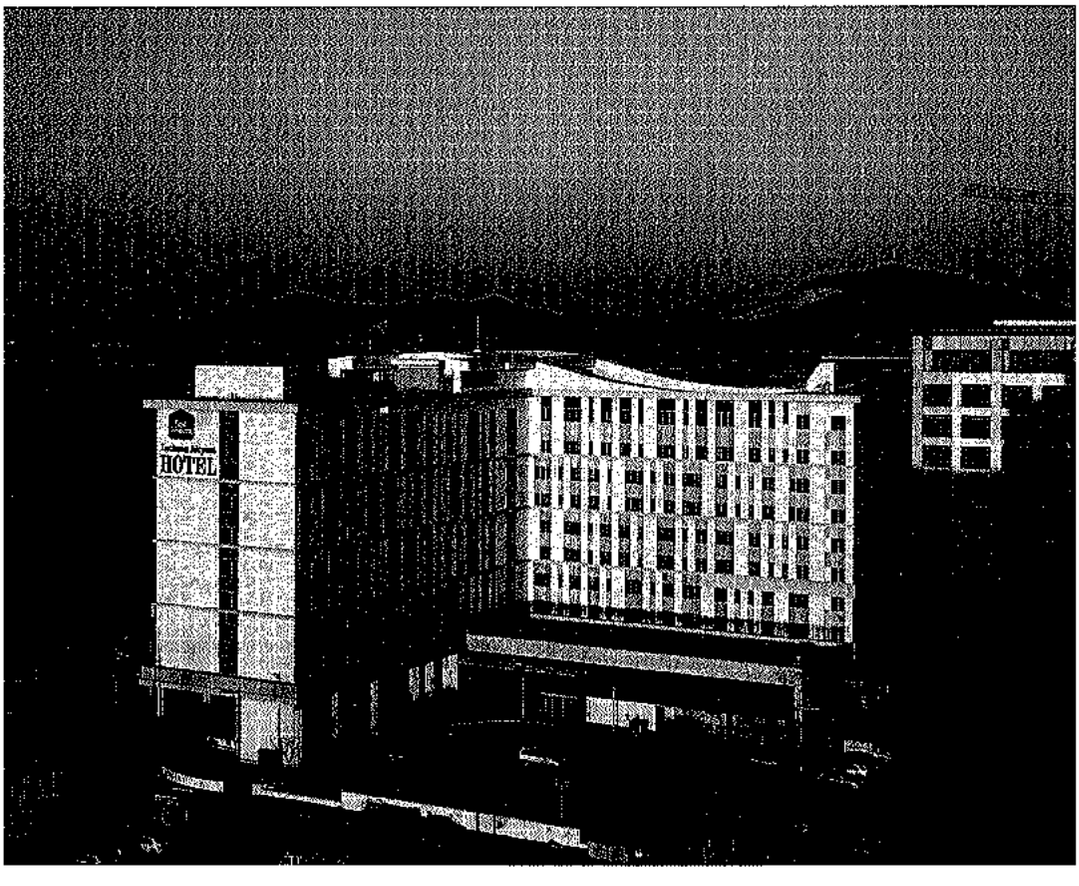
01_ ELEV.홀
02_ 객실
03_ 레스토랑 및 커피숍
04_ 업식당
05_ 복도
06_ 직원용식당
07_ 기계실
08_ 전기실
09_ 발전기실
10_ 락테일바
11_ 주방
12_ 창고
13_ 하론가스실
14_ 하역장
15_ 주차장



횡단면도



종단면도



터, 연구단지 등을 조성하여 첨단지식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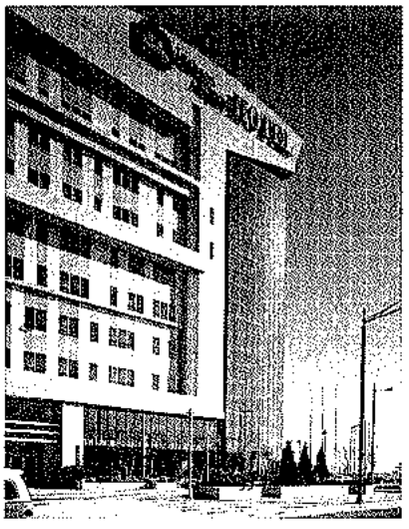
- 동아시아 항공노선의 관문역할과 함께 세계항공 네트워크의 허브기능

주변시설군

- 사업대지 IBC 지역의 중심에 위치
- 국제업무지역(IBC)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남단에 근접위치, 45만평의 국제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호텔, 위락, 판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지역으로 국내 및 국외 회사의 교역기회를 도모하는 한편, 다양한 오락과 문화시설 제공.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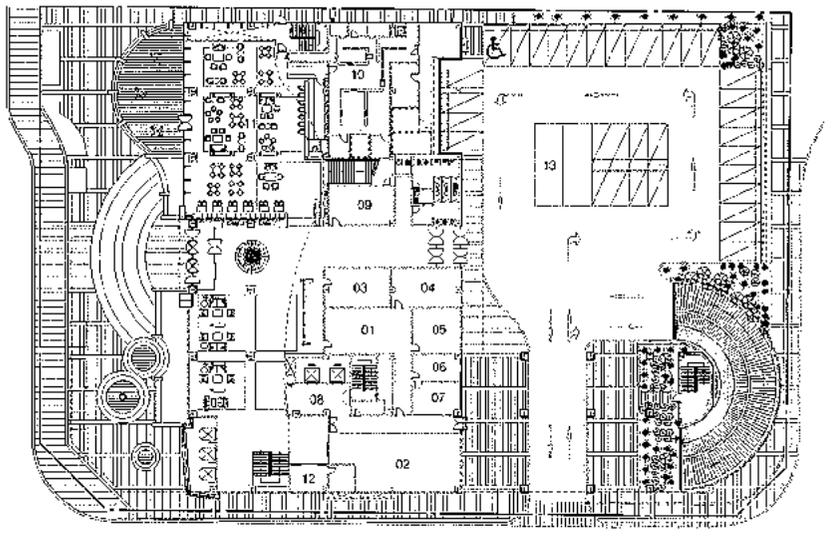
경쾌한 지붕구조물과 함께 상승하는 비행감을 부여하였으며, 풍부한 실내 조경을 통해 이용객에게 신선감과 쾌적감을 주도록 계획하였다. 로비에는 대형유리창과 2개층 오픈으로 대형홀과 같은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숙박객은 밝고 넓은 공간을 경험하여 비행의 경이로움과 흥분을 유쾌한 기억으로 간직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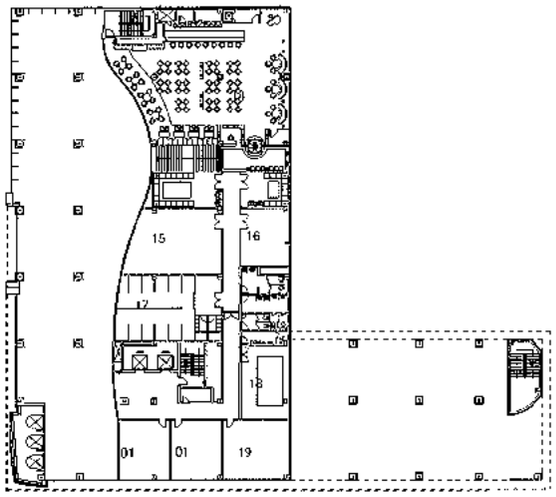
입면계획

알루미늄패널을 사용하여 비행기 모양을 형상화 했는데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인천공항내 랜드마크적인 요소로 조형성과 인지성을 극대화하였고, 유리와 패널의 반복에 작은 변화를 주어 기존 입면구성과는 차별화를 시켰으며, 현대적인 입면 디자인 요소를 조합하여 세련된 입면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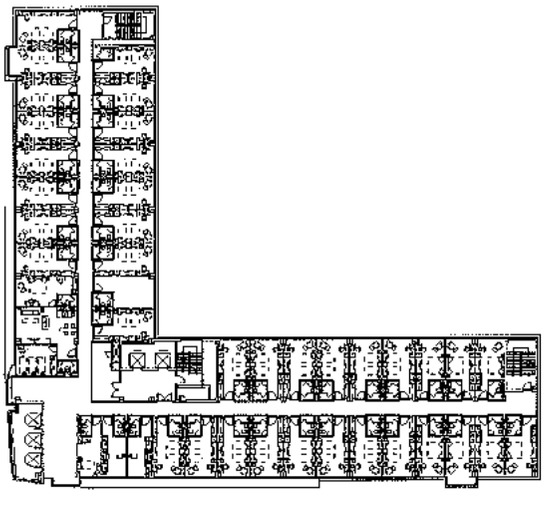
01_ 사무실
02_ 비즈니스센터
03_ 물품보관실
04_ 지배인실
05_ 경리실
06_ 교환실
07_ MDF실
08_ 직원용ELEV.홀
09_ 매점
10_ 주방
11_ 레스토랑 및 커피숍
12_ 예약실
13_ 대형버스
14_ 리테일샵
15_ 대회의실
16_ 소회의실
17_ 빌마사자실
18_ 분조실
19_ 사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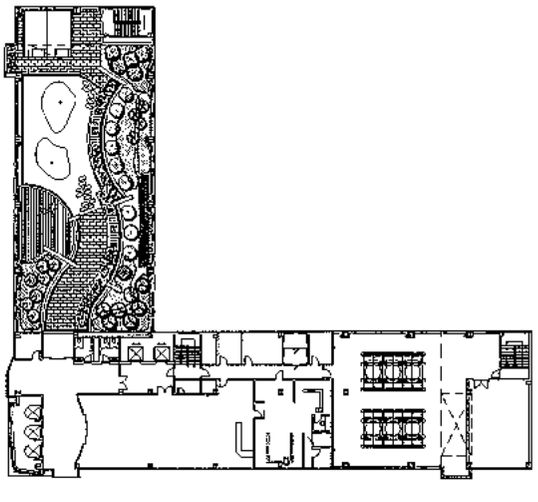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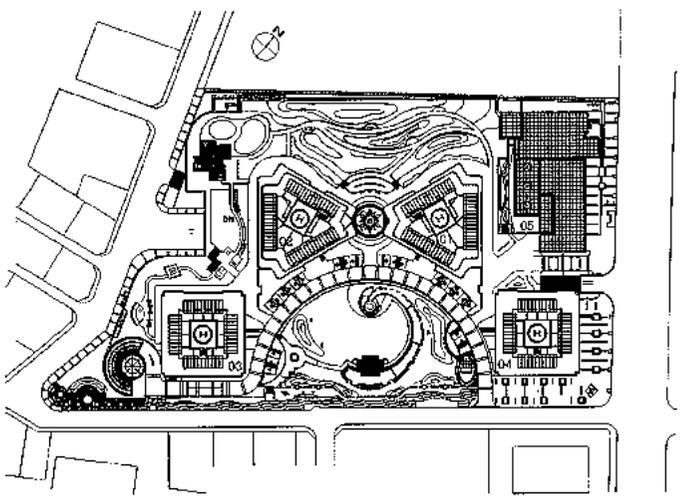


10층 평면도

김종국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by Kim Jong-Kook

서초 현대 슈퍼빌
Super Ville

● 배치도



01_ A동 02_ B동 03_ C동 04_ D동 05_ 오피스텔동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1외 3필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3종 미관지구
용 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28,009.2㎡
건축면적	6,981.52㎡
연 면 적	226,180.46㎡
건 폐 율	25.79% (법정 60%)
용 적 률	584.43% (법정 700%)
규 모	지하 3층, 지상 14~46층 (A동 : 46층, B동 : 37층, C동 : 24층, D동 : 22층, 오피스텔동 : 14층)
주차대수	세대수 : 공동주택 - 645대, 오피스텔 - 136대 총 : 1,954대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경량복합패널위 화강석마감, 알미늄 커튼월 24mm 컬러 복층유리
건 축 주	군인공제회
시 공 사	현대건설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촬영 : 채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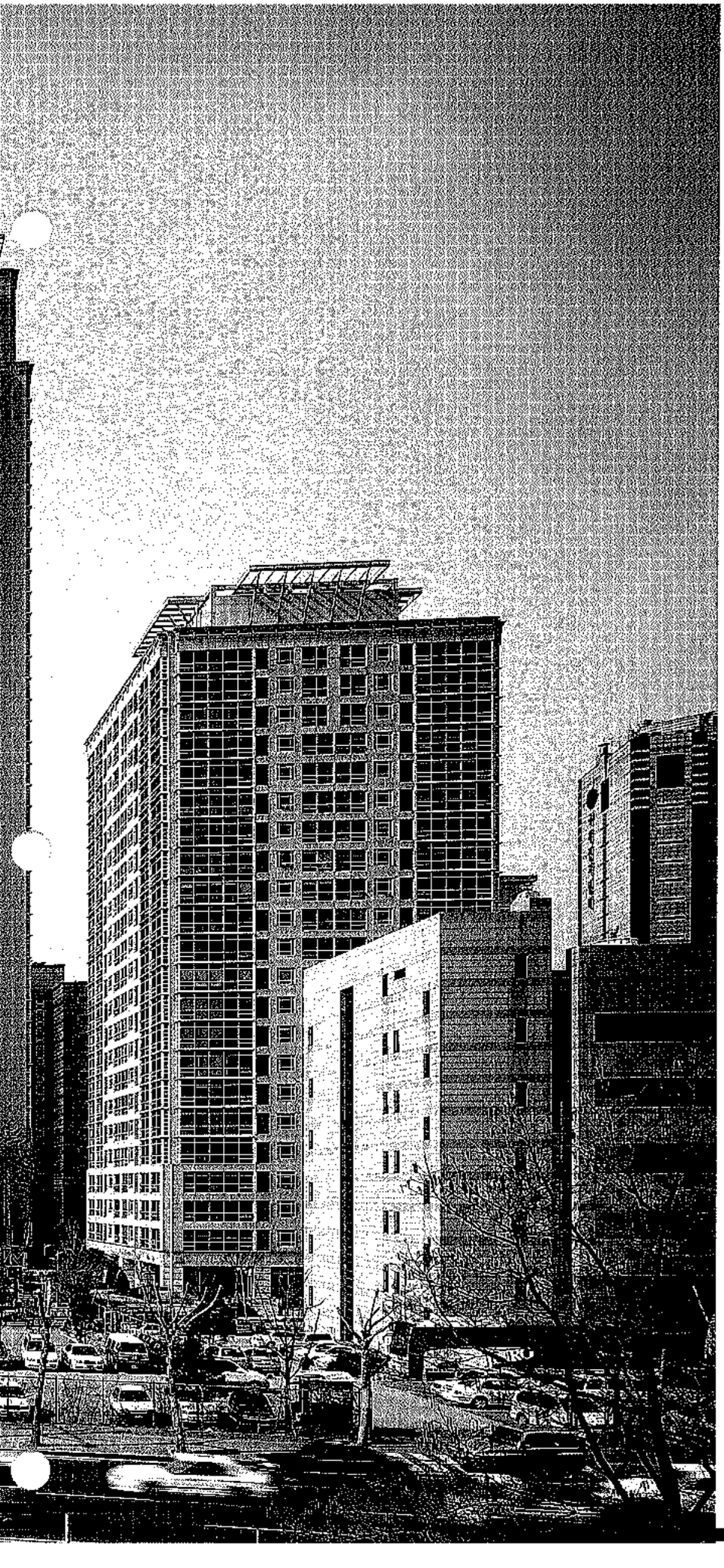
서울 서초동에 건립된 현대 슈퍼빌은 서울 남부의 도시경계인 우면산 기슭에 위치한 남부터미널 부지에 건립된 주상복합 단지로서 멀리 북쪽으로 북한산과 남산, 한강을 지나 남쪽으로 우면산과 청계산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남북방향 자연축 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따라 자연의 흐름을 잇고자 각 동을 남북방향에서 한 켜로만 배열하고 그 한겹의 켜에서 동간을 최대한 이격시켜 상징적 연장선이 부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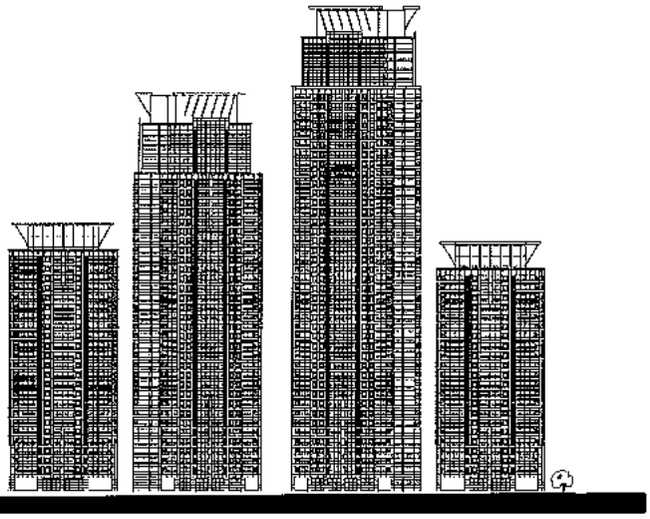
주동은 4개의 매스로 이루어졌으며 고층부 2개동에는 삼각형 형태의 매스가 사용되었고 각각의 매스가 남쪽을 향해 대지중앙을 반원형으로 감싸는 배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치에서 우면산을 향해 도심속 자연에 근접한 쾌적한 환경에서 최대의 일조권을 확보하며, 반대방향으로는 도시경관을 향한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삼각형의 매스형태는 주거에 있어 새로운 시도였다. 삼각형이 가지는 도형적 특성이 배치와 매스형태, 그리고 주거 유니트의 독립성을 강조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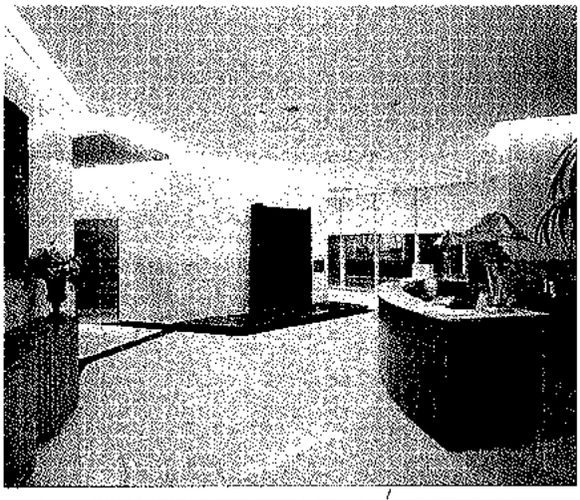
도시적 맥락을 유지한 Community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인근 남부터미널역과 단지 내부의 상가를 연계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였고, 단지 남측에는 공개공지를 제공하여 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상에는 비상차량동선과 장애자주차를 제외하고는 차량동선과 주차를 배제함으로써 보행, 휴게 및 녹지공간으로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공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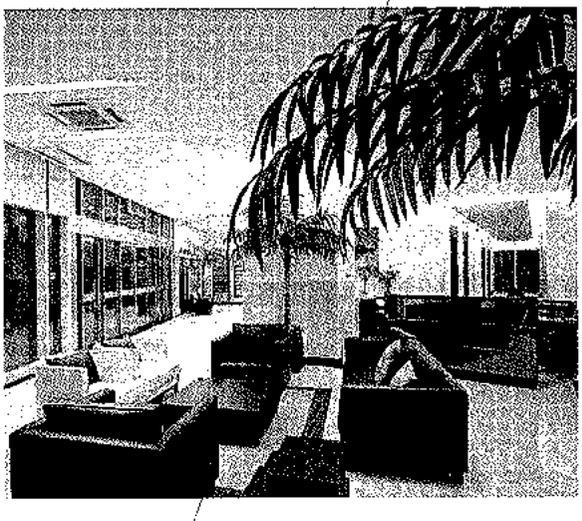
보행공간을 형성하여 문화공간으로서의 지상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별동으로 계획하여 동선의 혼재를 방지하고, 상호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다. 용도에 따른 분리와는 별도로 단일 단지로서의 통일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거와 비주거 각 동의 입면 패턴을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여 디자인하였다. 각 세대는 삼각형으로 구성된 매스를 통하여 각각 최대의 조망과 향을 제공하는 평면계획과 함께 동별 프라이버시를 유도하였다. 또한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위해 최상층 옥탑부분에 철골 프레임으로 강조 하였으며, 펜트하우스 부분의 매스를 셋백시켜 시선을 상부에 집중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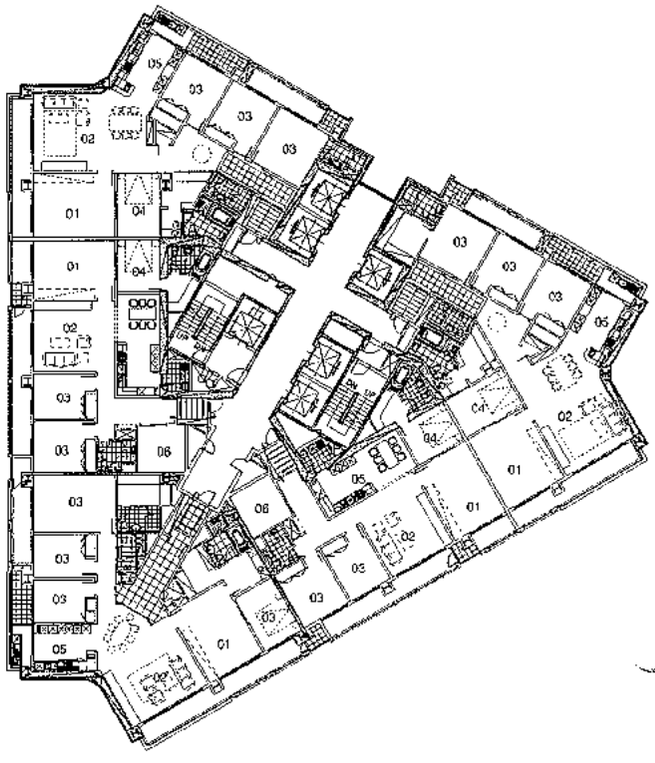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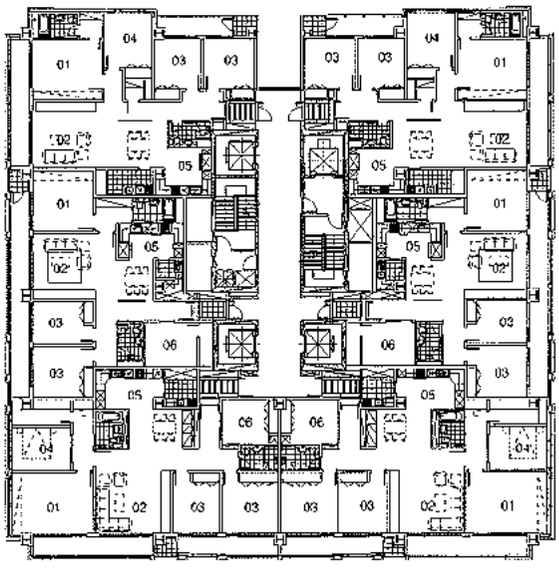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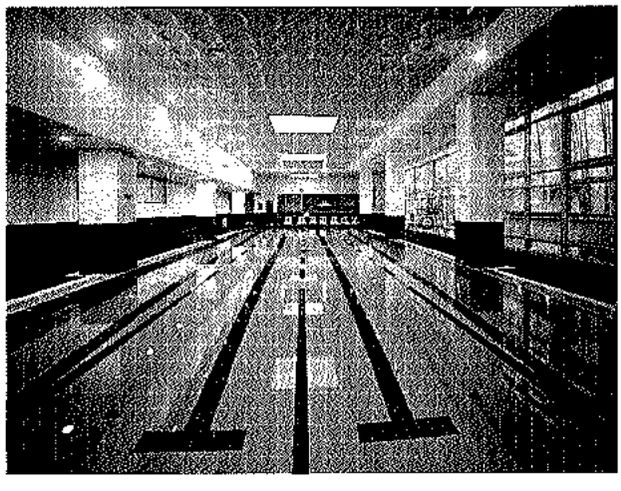
01_ 안방
02_ 거실
03_ 침실
04_ 침대방
05_ 주방
06_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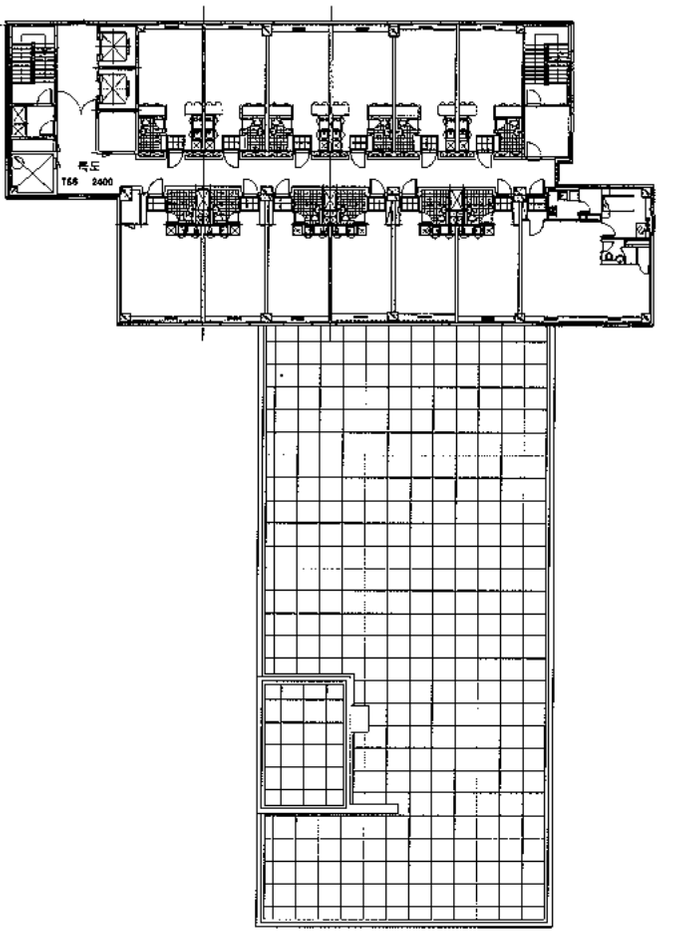


B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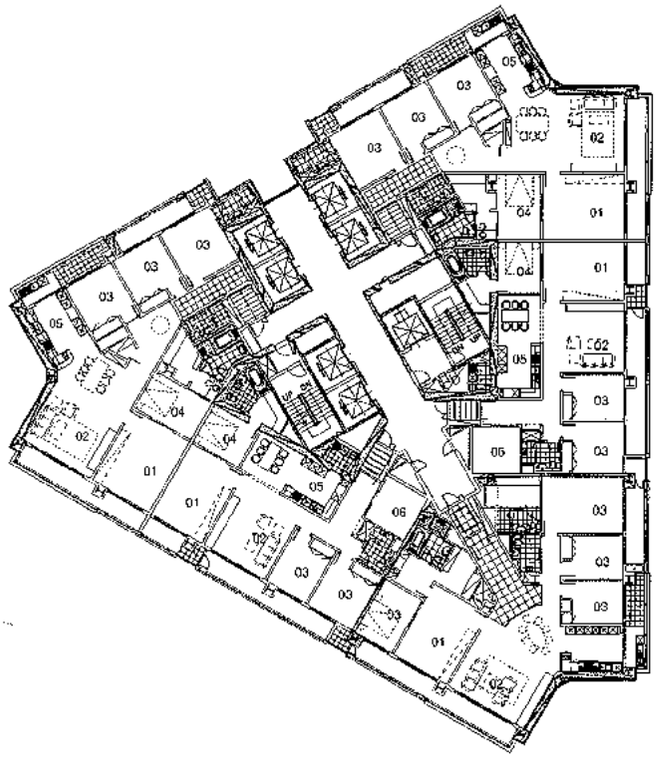


C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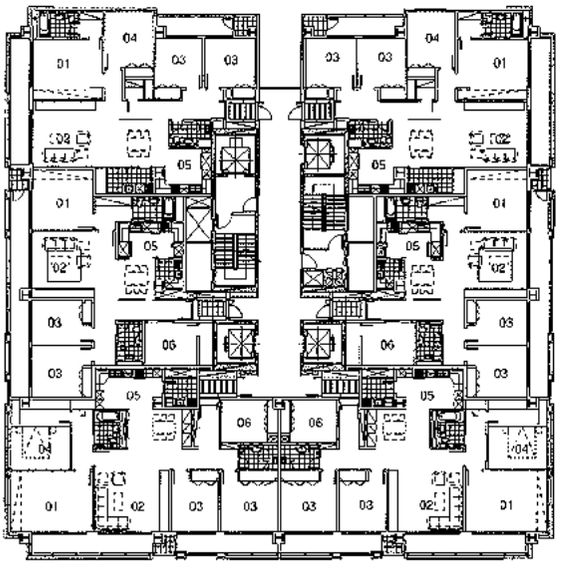




오피스텔동



A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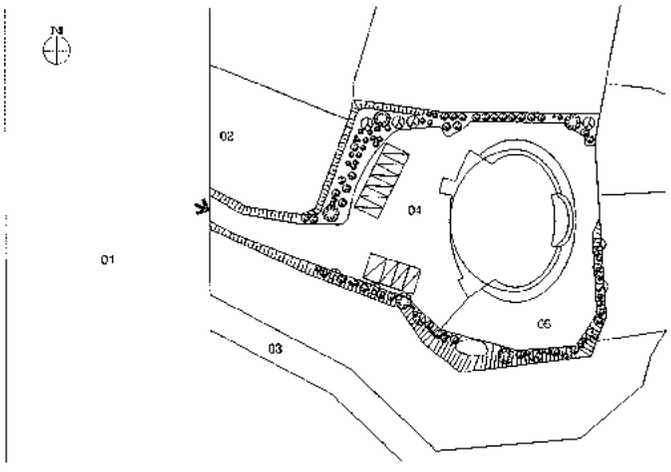
D동

기준층 평면도

박대융 / 종합건축사사무소 예가
by Park Dae-Yoong

행복한 교회
Haengbokh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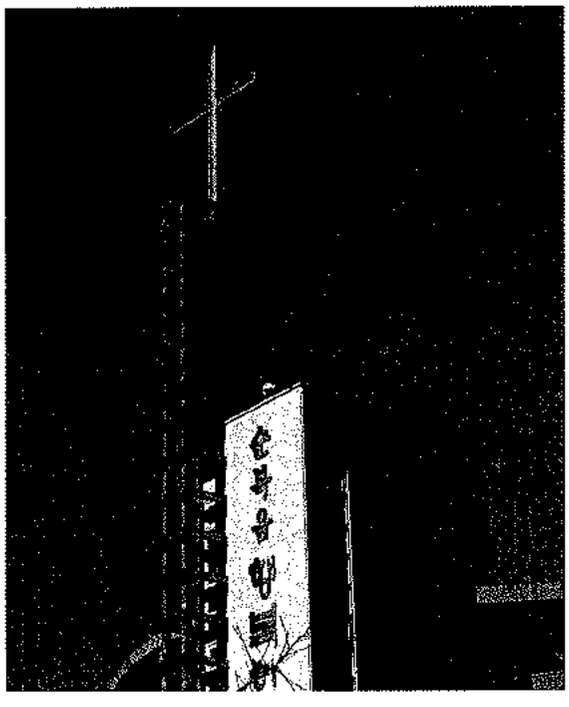
● 배치도



01_ 32m도로 02_ 32m도로 경계선 03_ 6m 현황도로 04 주차마당 05_ 잔디마당

●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북 충주시 교현동 74-2번지
지역지구	자연 녹지 지역
대지면적	2,553㎡
건축면적	474.83㎡
연 면 적	1,462.76㎡
건 폐 율	18.60%
용 적 률	54.17%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주차대수	13대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프롤로그

2002년 가을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계신 행복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건축 설계를 의뢰 받았다.

목사님과 대화 중에 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시는 목회 방향이 물씬 묻어나옴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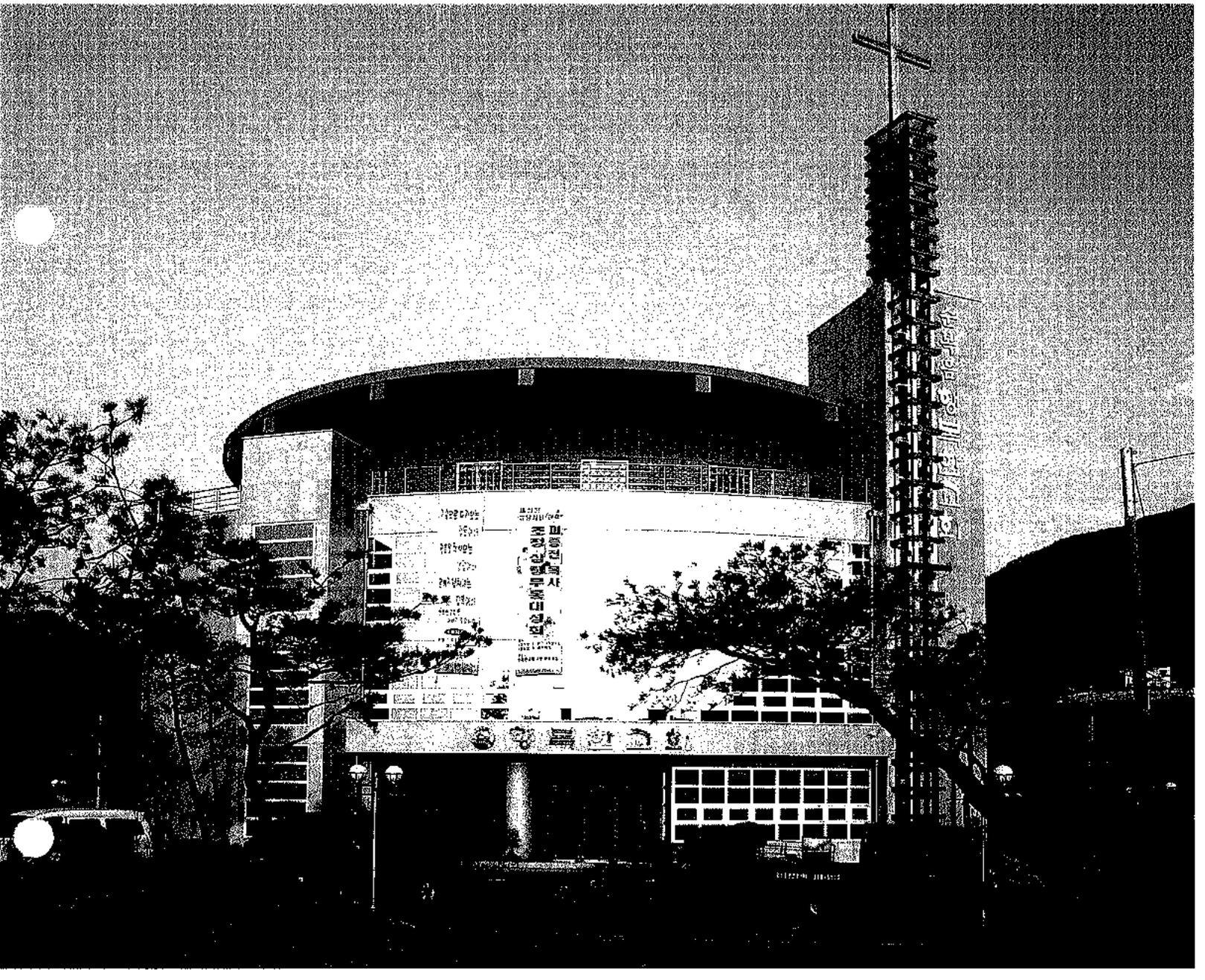
앞 교회는 광야 같은 이 시대에 무엇인가 표현하기 어렵지만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감, 목자와 양이 만나는 설레임과 즐거움이 넘치는 공간이어야 하겠다.

등산로 초입의 입지

충주 외곽지역 충주시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많이 이용하는 남산 등산로 초입의 과수원 부지를 농지전용하여 건축하게 되었다.

등산로 초입에서 정겨운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잠시



쉬어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쉽게 들며 나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열린 교회이면 좋겠다.

교회 건축의 본질 가장 영적인 건축물

교회 건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장 영적인 건축물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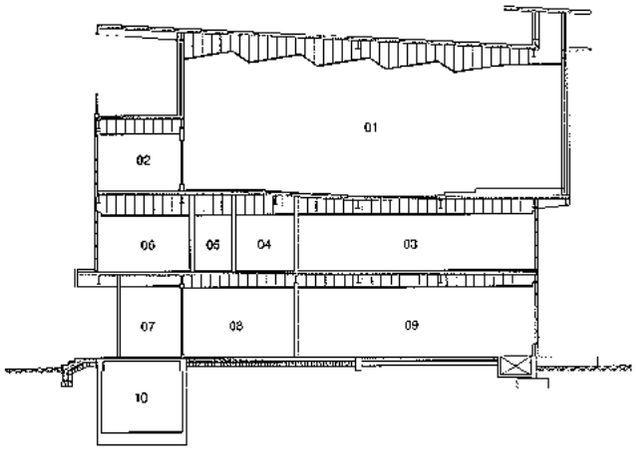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써 예배드리기에 좋은 공간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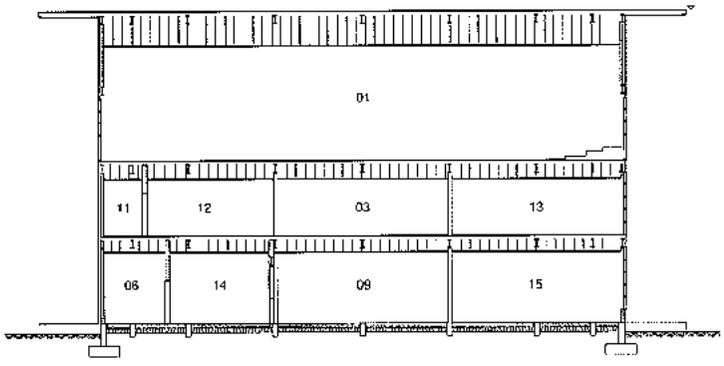
그 곳에 앉으면 푸른 초장 같고 맑은 시냇물 같고 기도하기에 좋은 설교 말씀 듣기에 좋은 공간이어야 한다.

타원형의 평면에 목사님과 교인들은 가깝게 대화하듯 말씀을 전하고 서로의 표정과 몸짓하나 공유할 수 있는 친근한 예배실, 강단에는 천장을 통한 빛이 은은하게 비추며 예배실 상부 고측창에서 밝은 빛이 비추며 양측면에는 한쪽으로 충주시내를 향해 열린 창과 한쪽은 남산 자락을 향한 열린 창이 마주보고 있으며, 예배에 집중하기에 좋고 맑고 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천정은 반사재를 사용하고 벽면은 흡음재를 사용하여 찬양이 아름답게 울리고 설교 말씀 또한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예배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01_ 대예배실
02_ 유모예배실
03_ 소예배실
04_ 북도
05_ 옥상
06_ 방
07_ 방송실
08_ 홀
09_ 다목적실(식당)
10_ 보일러실
11_ 화장실
12_ 창고방
13_ 휴양실
14_ 주방
15_ 욕키메





주단면도

한국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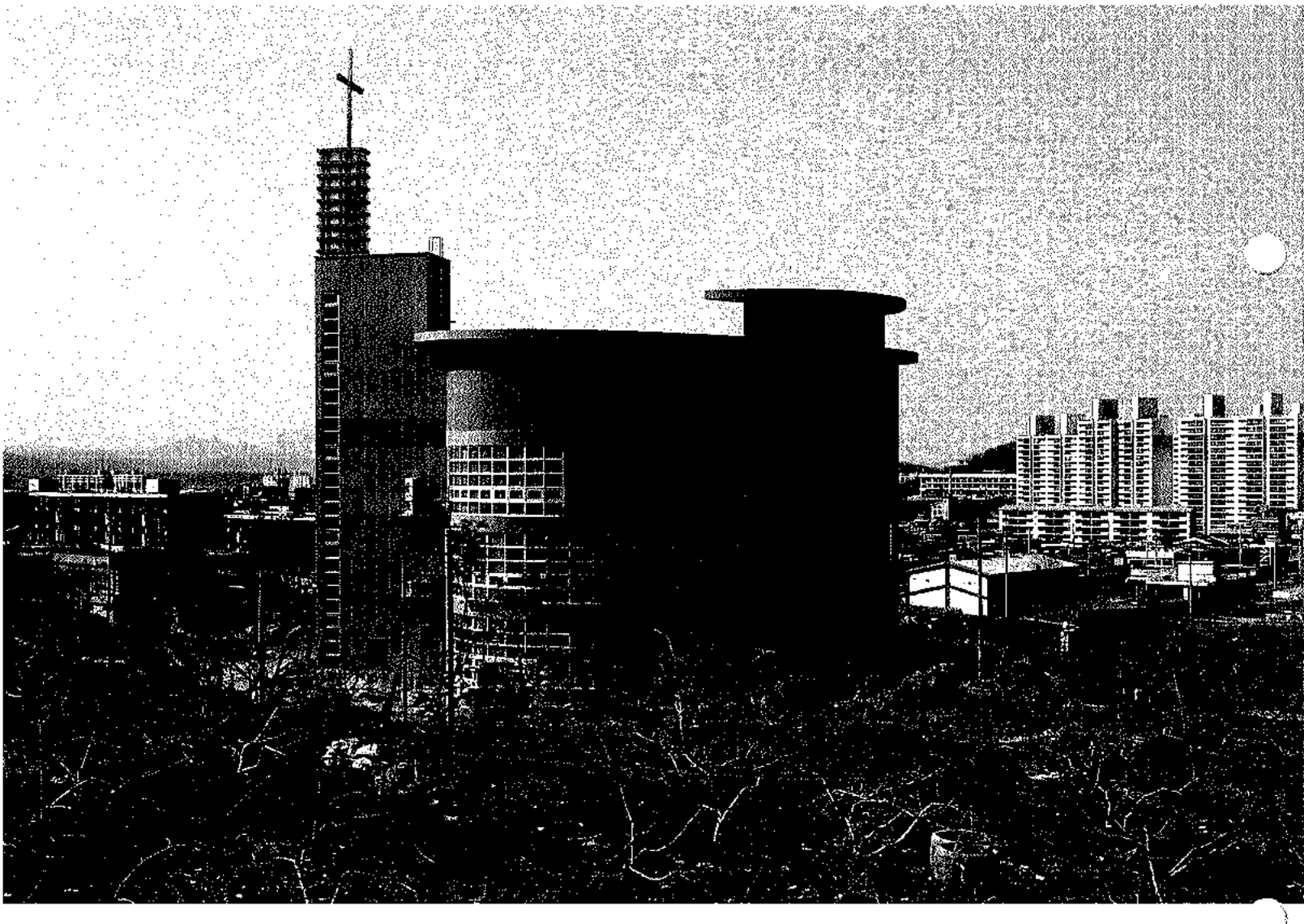
한국의 토착적인 건축언어인 전통가옥의 처마와 같은 이미지로 전면 지붕을 쭉 뻗어 날아 갈 듯한 처마를 마련하고, 그 하부에는 옥상 쉼터를 마련하였다. 이곳 처마 그늘아래에서 여름에는 주일학교 성경 공부도 하고 교인들이 삼삼오오 야외 테이블 주위에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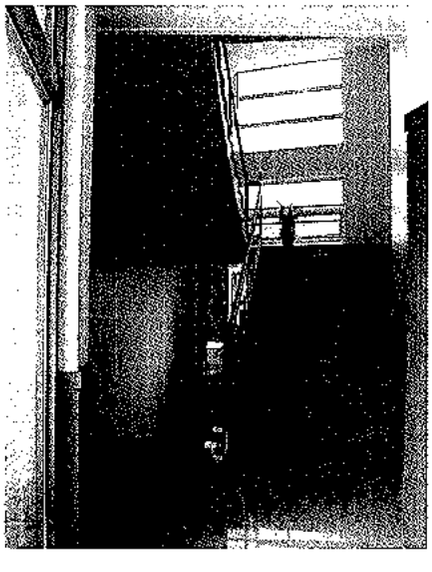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적벽돌로 외피를 감싸고 구조 부분은 수평띠로 강조하였으며, 주·부계단의 수직적 디자인 요소와 전면 부분은 노출 콘크리트로 계획하였으나 시공상의 문제로 화강석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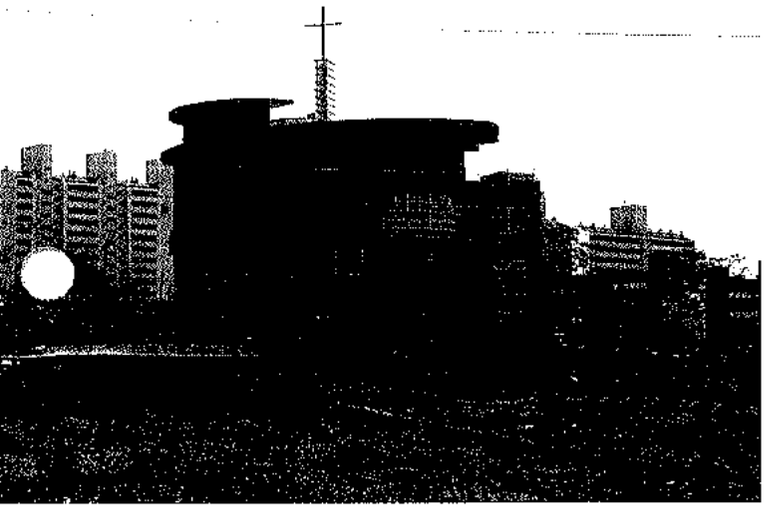
진입 마당과 주차 마당인 전면 마당 옆에 1층 친교실과 연결되는 안 마당을 마련하고, 둥근 타원형 건물 주변에 산책로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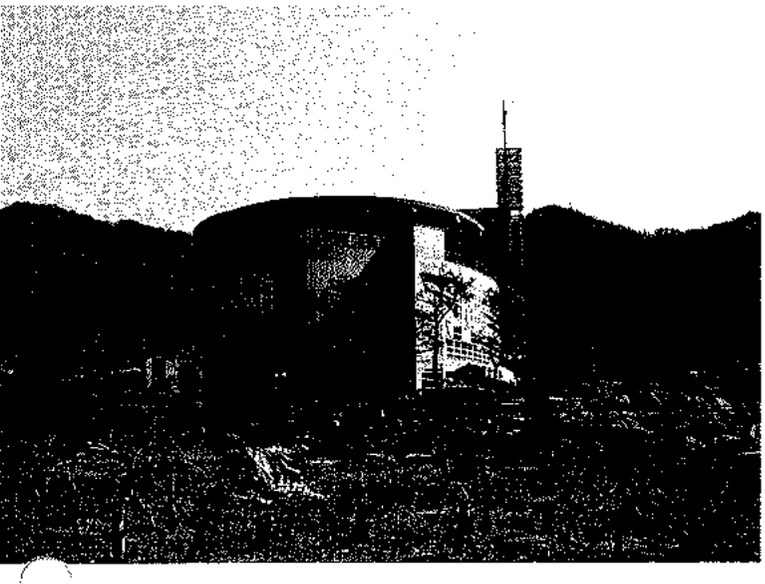
층별 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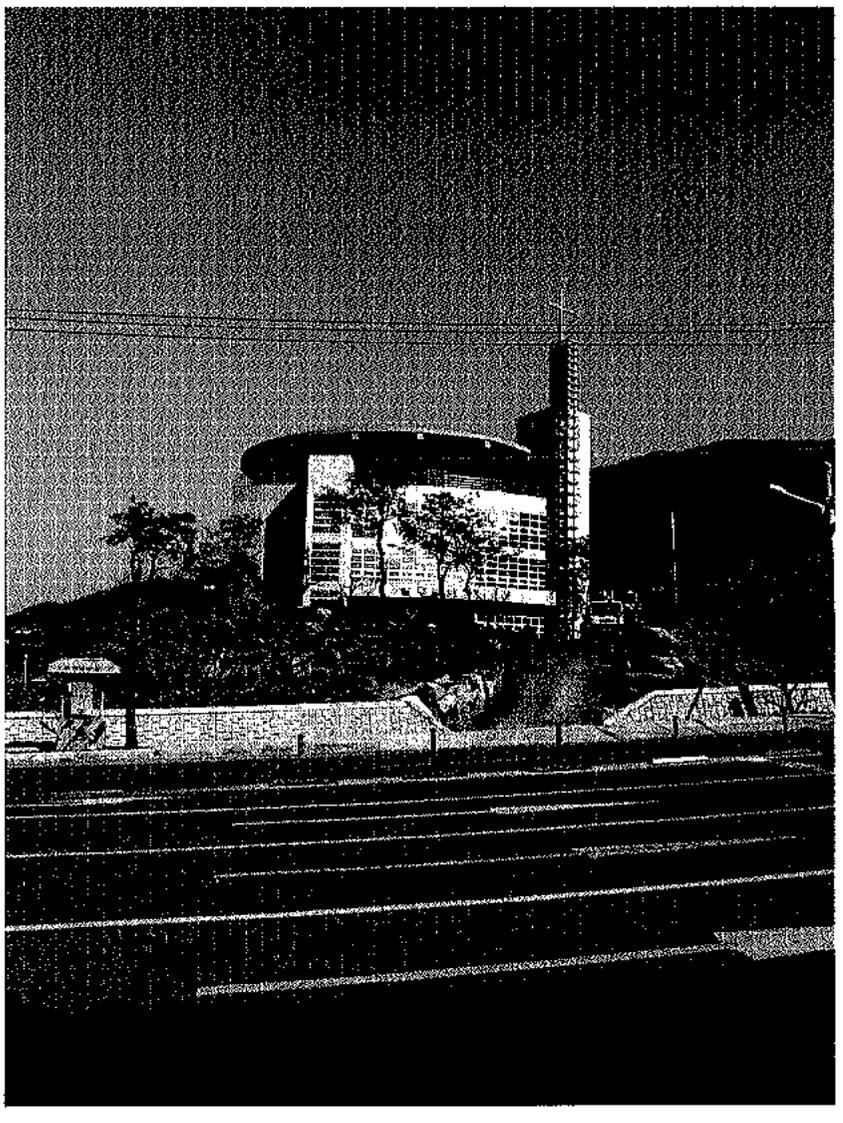
1층은 식당을 겸한 다목적실과 북 카페의 기능을 가진 친교실로 계획하여 지역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2층은 목양실, 소예배, 선교 사무실 등으로 예배 지원 및 행정실로 구성하였고, 3층은 예배실로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으며, 옥탑인 십자가 탑 하부에 조그만 기도 공간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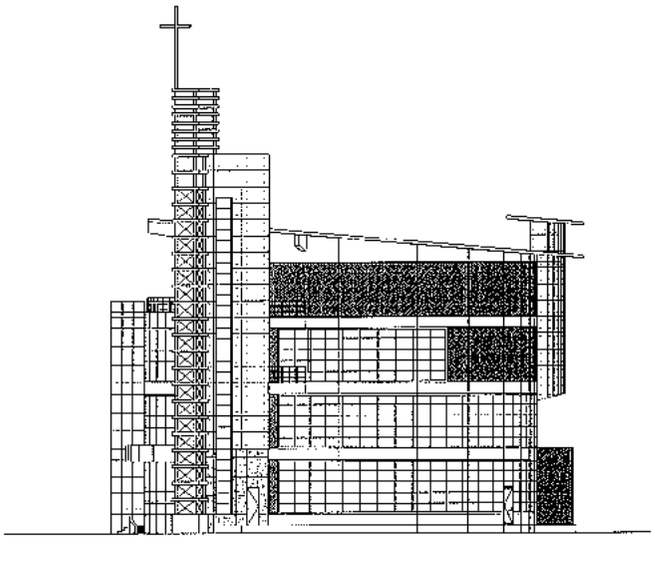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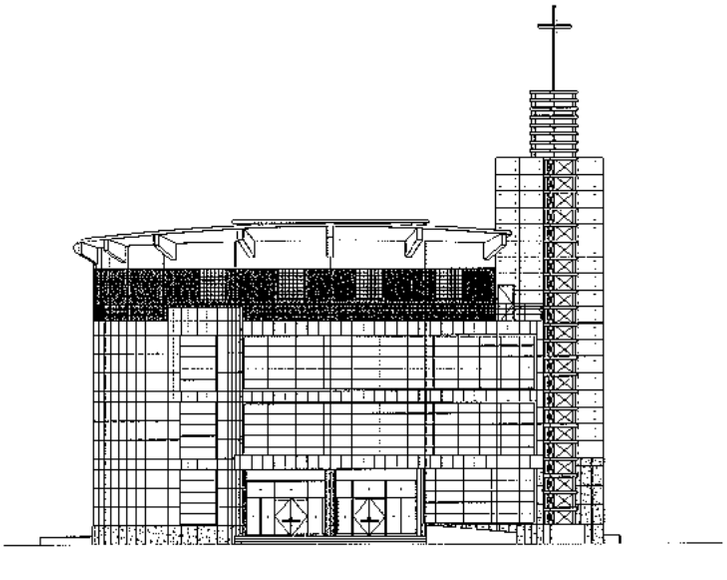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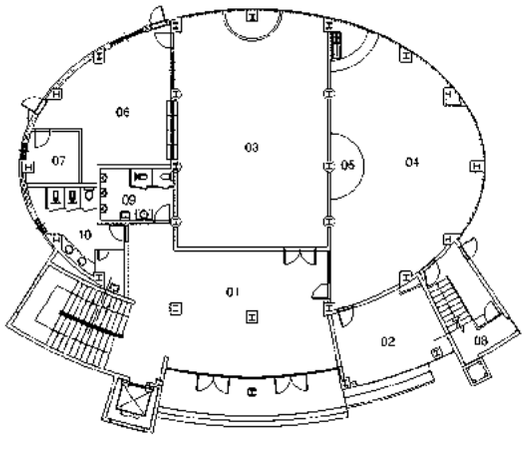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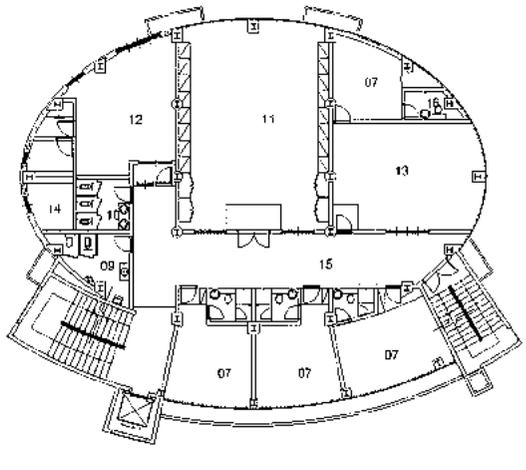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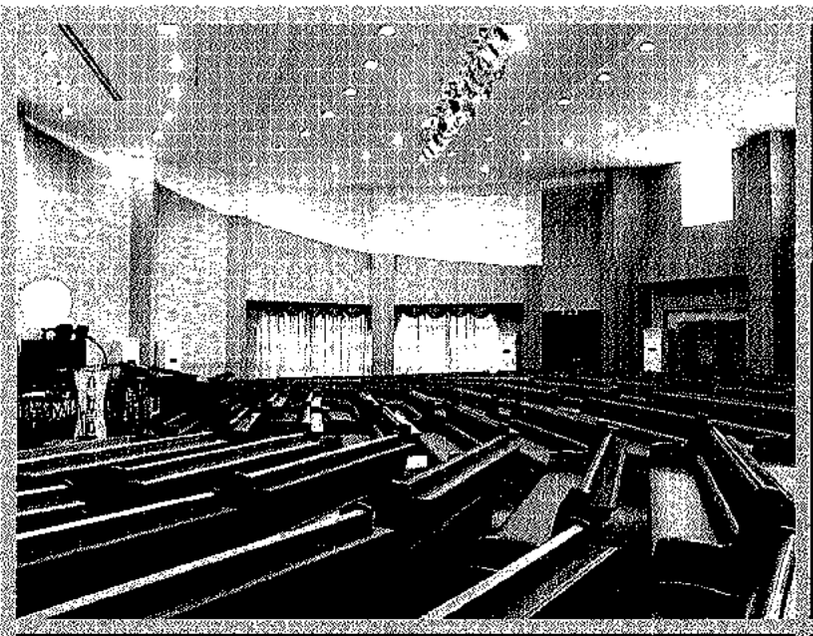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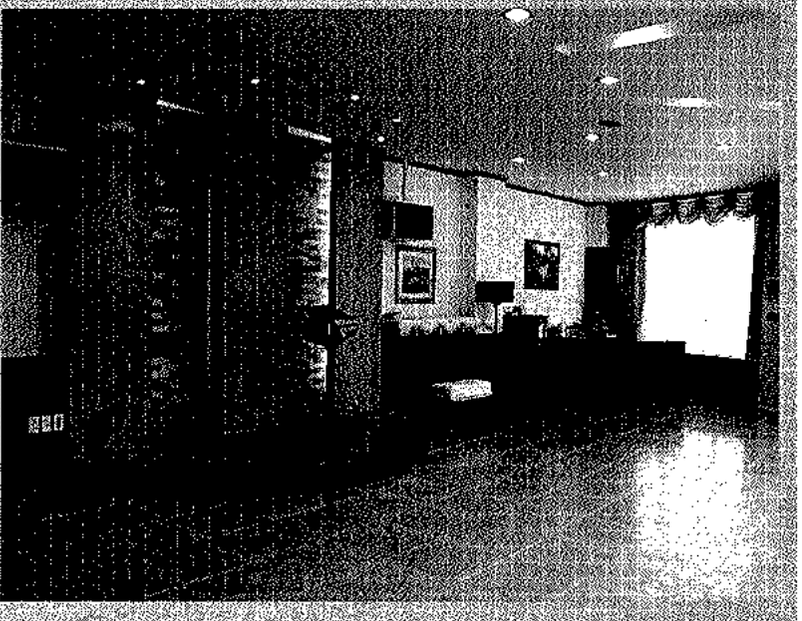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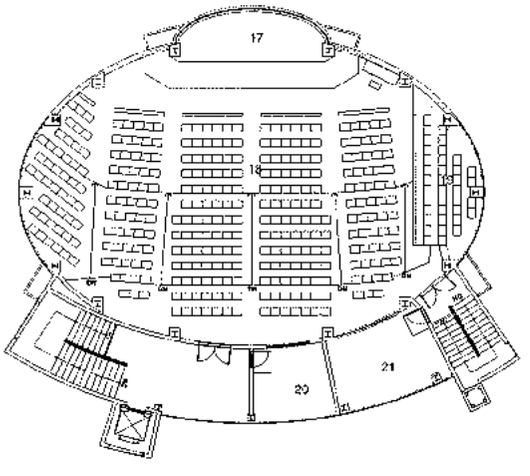
01_ 홀
02_ 사무실
03_ 대목적실(식당)
04_ 북카페
05_ 무대
06_ 주방
07_ 방
08_ 참고
09_ 화장실(남)
10_ 화장실(여)
11_ 소예배실
12_ 황토방
13_ 목암실
14_ 친래당
15_ 복도
16_ 욕실
17_ 강대
18_ 대예배실
19_ 성가대
20_ 방송실
21_ 유모실
22_ 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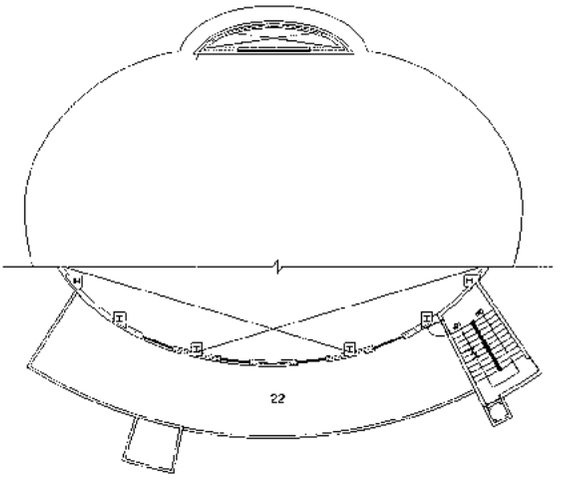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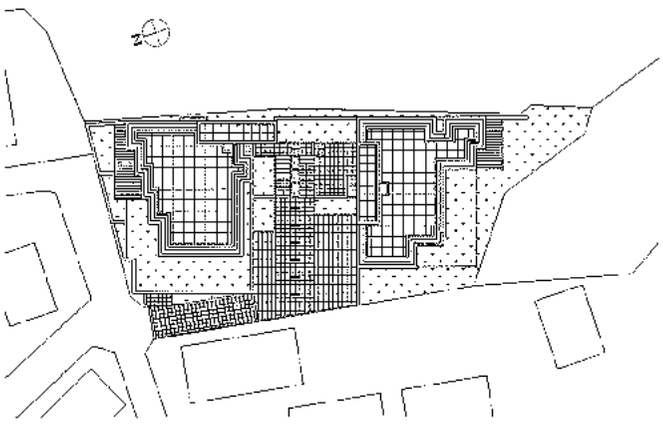


옥탑층 평면도

이경훈 / 단국대 교수 + (주)김이건축
by Lee Gyeong-Hoon & Kimm and Lee

연희동 빌라
Yonheui Vil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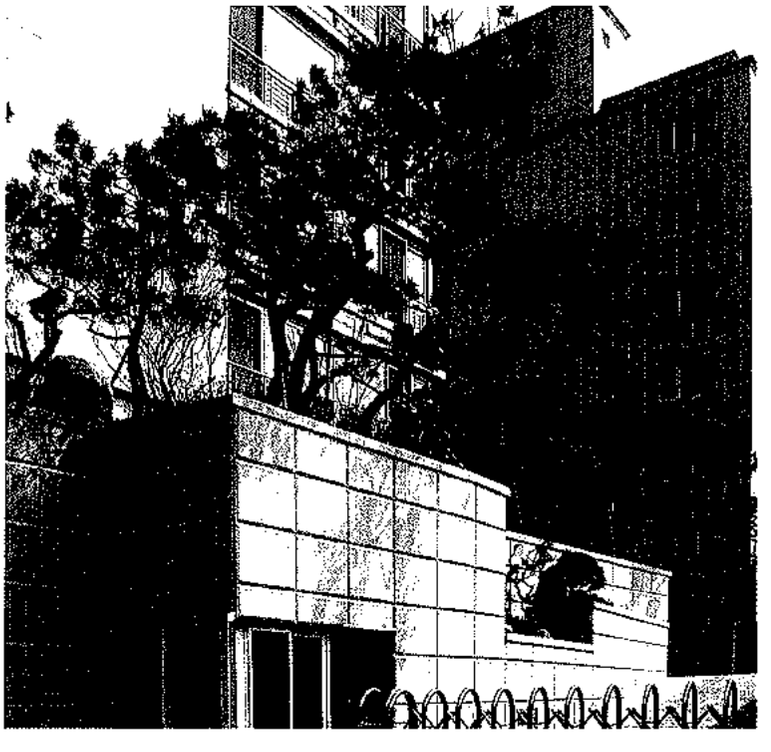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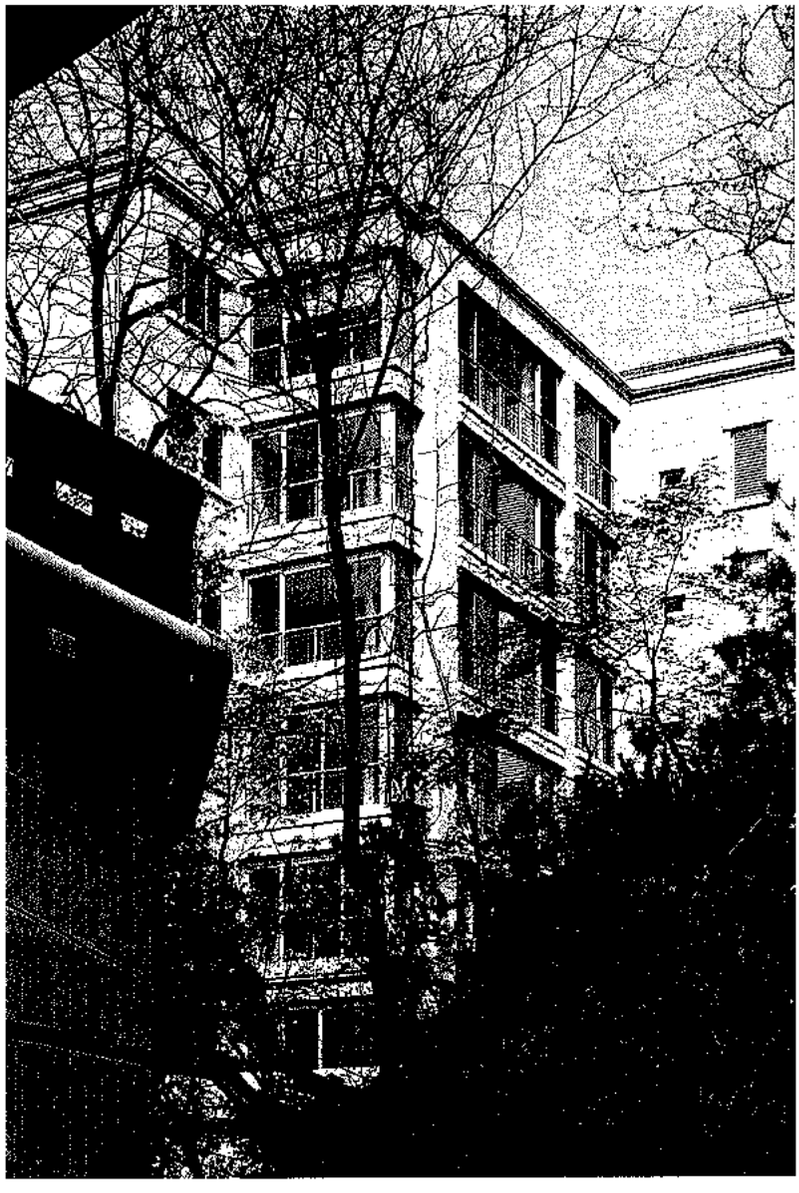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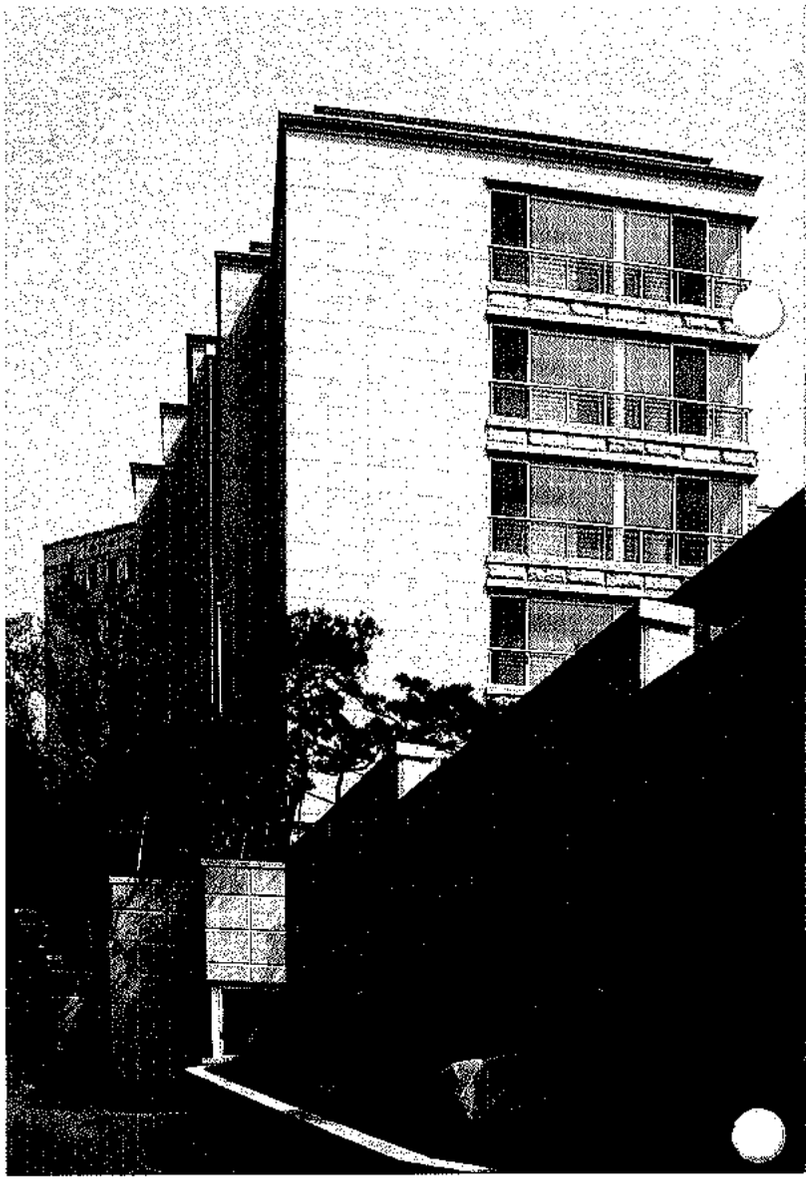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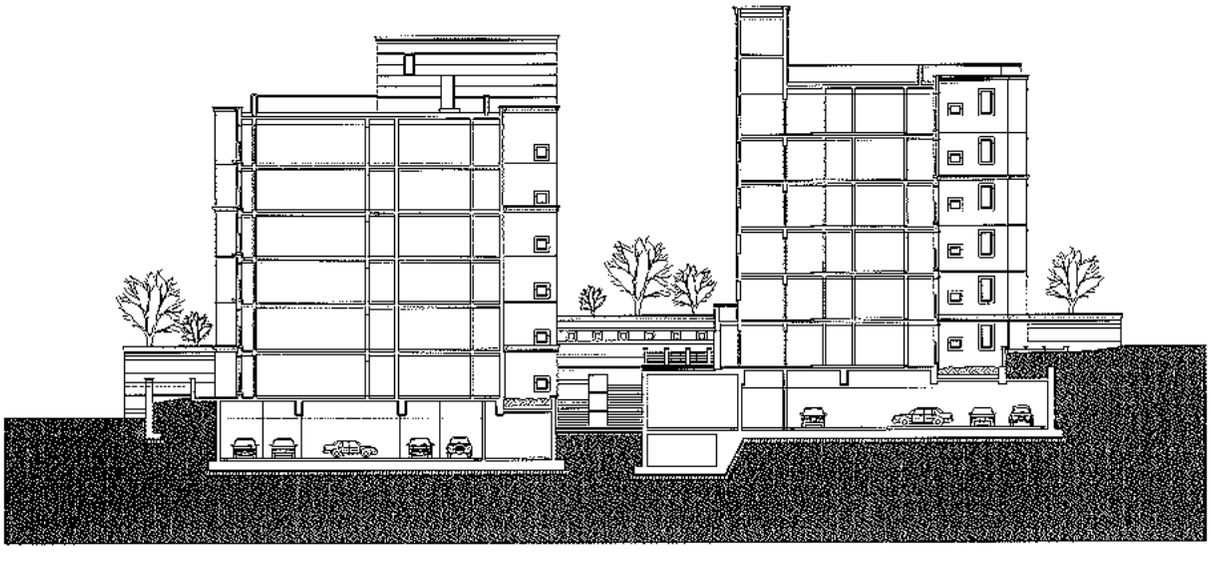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37-1, 38, 39-3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대지면적	1,475㎡
건축면적	485.94㎡
연 면 적	3813.84㎡
건 폐 율	32.95 %
용 적 률	196.48 %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1층 (주차장), 지상 6층 (공동주택)
주요마감	화강석
설계담당	이교창, 조성수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천승필, 김승호)

건축주와 친지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훼미리 타운 식의 공동주택을 위한 이 프로젝트는 흘러내리는 경사의 대지 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배경에서 요구된 일정 규모의 세대수 및 내부 프로그램은 중앙의 진입공간을 통해 양 쪽 주거로의 진입 및 연결을 시도하는 안으로 정리되었다. 세대간 단절을 불러오기 쉬운 일반 공동주택 배치에 비해 일정 규모를 갖는 진출입 공간의 공유는 친지들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본다. 주호는 공동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세대원들 간의 공간적 영역이 확보되도록 각 실들의 위치 및 규모가 디자인 되었다. 외부는 주변의 자연과 어울리도록 석재 마감하였으며, 특히 산쪽 학교 매스 또한 주어져 있는 조건이기에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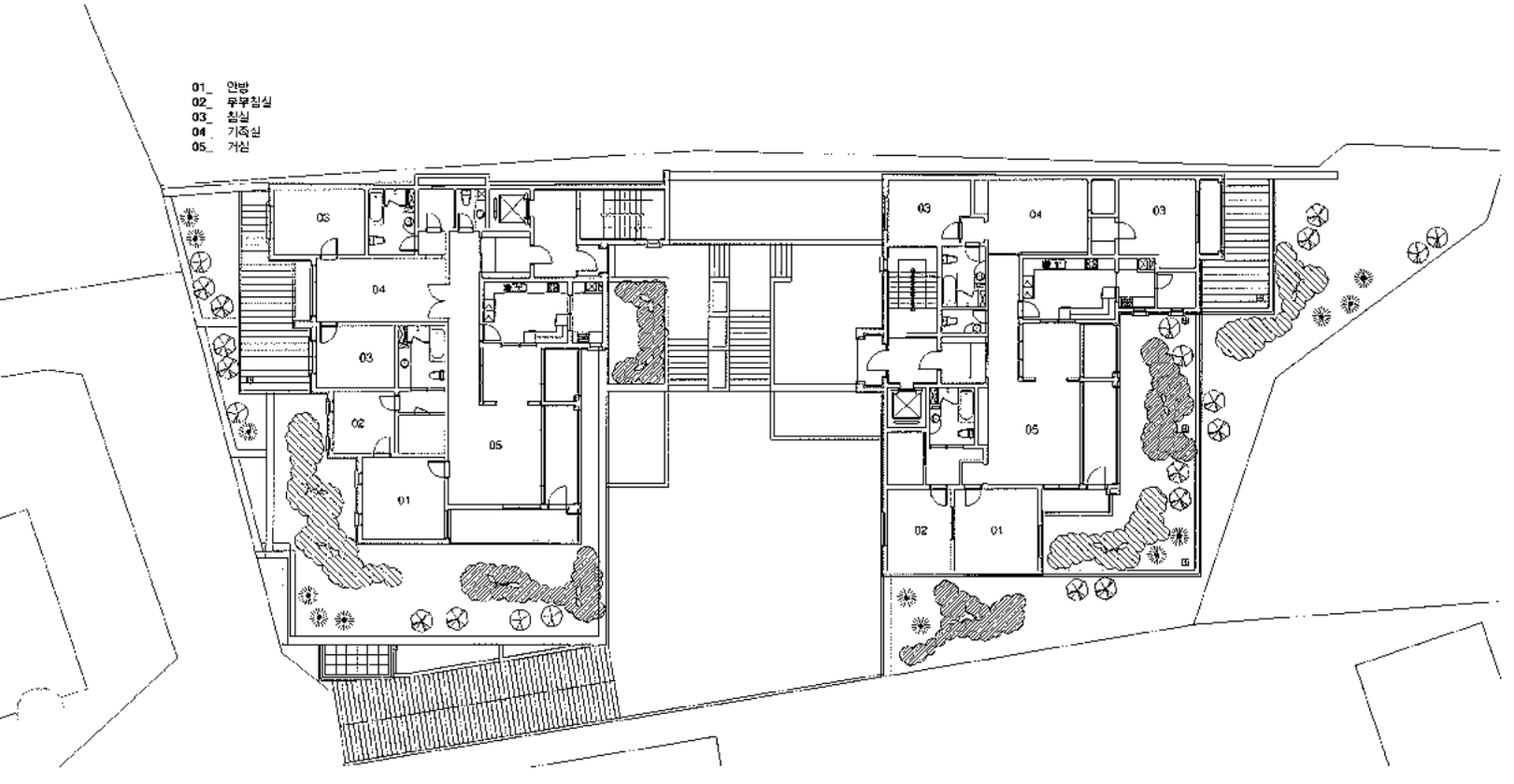






단면도

01_ 안방
02_ 부부침실
03_ 침실
04_ 가족실
05_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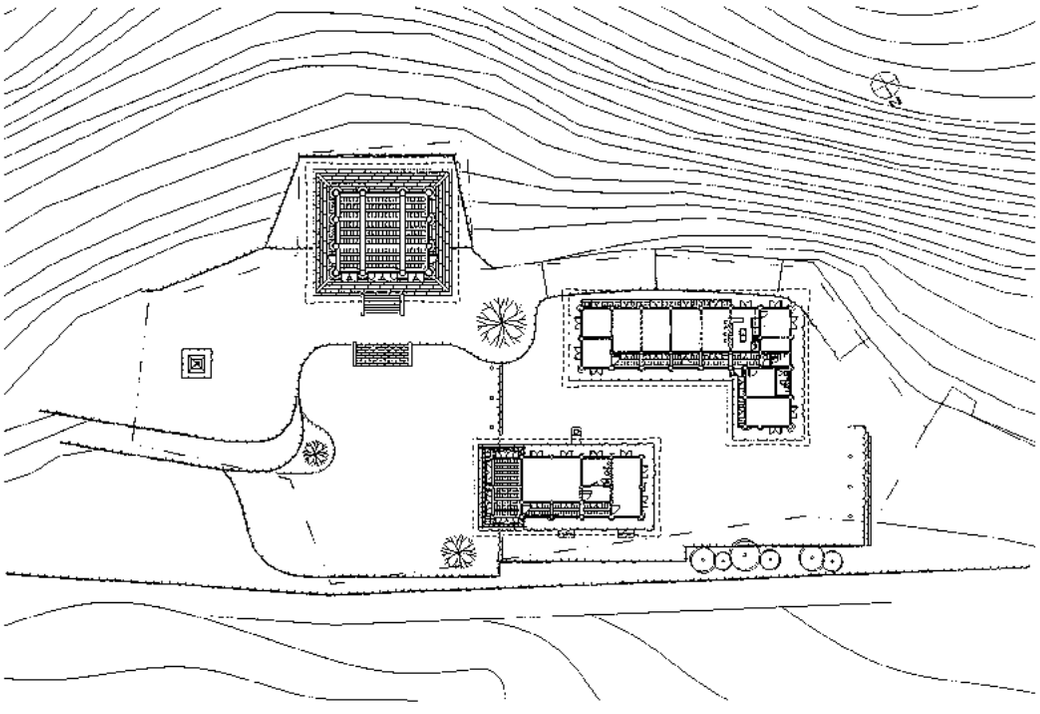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조인숙 /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by Cho In-Souk

아란야(Aranja)[1] 설계안-경기도 광주시 K사(寺)

Design a Buddhist Temple in Kyonggi-do



배치도

프로젝트와의 만남

2003년 여름 어느날, 누군가의 소개를 받은 O씨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종교부지에 사찰을 하나 신축하고자 하는데 전통건축을 잘 알면서 현대건축을 하는 불자(佛子) 건축사를 찾다보니 필자가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속으로는 이 분이 바로 알고 오셨구나 하면서도 어떻게 소개가 되었는지 몰라 아주 조심스럽게 대했다. 건축설계를 하다보면 우연한 만남은 많지만 끝까지 성사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자난 27년 간의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는 터라 반신반의로 방문객을 대했다.

어떤 건축을 원하는지? 건축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운영이 될만한 곳인지? 무엇보다도 설계비에 대해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는지? 적절한 설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속으로 무척 궁금했다. 꽤 오래 전에 무형문화재 대목장 전수자의 제자인 M대목(大木) 밑에서 전통 목수기법을 배울 때 함께 했던 분의 소개였다. 나름으로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왔다는 것을 알았다.

O씨는 스님을 대신하여 건축부분을 총괄할 분이었고, 확보된 대지 1,818㎡(550평)에 24평 정도(145㎡)의 아주 단아한 불전(佛殿)과 약 60여 평 정도(198㎡)의 요사(寮舍)를 전통 방식으로 짓되 현대적으로 짓겠다는 것이었다. 요사 중 20평 정도는 스님거처 및 다실 등 개인 공간이고 40평 정도는 대방 · 생활공간 등 공용공간이었다.

사실 수 년 전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포교사(International Dharma Instructor) 품수를 받을 때, 전공인 한국의 전통 불교건축을 서구에 알리는 일을 하겠다고 서원 했었으

1) Aranja(空閑處)란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사색하기 좋고 청정한 곳으로 개 짖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고 닭 우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릴 정도의 수행처(修行處)를 말한다.

나 그동안 이렇다할 일은 없었다.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서 발주되는 사찰관련 일은 종교나 전문분야에 관계없는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불자가 아닌 건축사들이 관여하므로 필자에게는 거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대지여건이나 사찰의 성격에 따라 현대건축과 전통양식이 조화된 사찰건축을 설계하리라고 늘 생각하면 터였다. 전에 불교사찰에 관련된 일을 몇 번인가 했으나 대개는 설계비를 못 받거나 그다지 좋지 않은 관계로 끝나 사찰건축 설계라면 은근히 거부감이 앞섰다.

현황 및 조건

현장답사를 마치고 업무순서를 정리하고 건축주인 젊은 스님을 만나 협의를 했다. 스님은 사찰건축의 문제점들을 잘 이해하고 계셨고 조경(造景)에 관해서도 상당한 조예가 있는 분이었다. 기본적으로 부처님 모시는 집(佛殿)은 아주 단아한 것을 원하셨고 스님 거처와 차(茶) 마시는 공간에 비중을 두셨다. 외부공간은 가능한 한 자연을 그대로 살리고 산야초(山野草)를 심으실 계획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빈 공간을 많이 두어 차츰 채워나갈 생각을 하고 계셨다.

대지의 현황

대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외 지역으로 평지가 아닌 산지(山地)였다. 남쪽(午)이 높고 북쪽(子)이 트인 남고북저(南高北低)이며 동쪽(卯)은 산자락으로 둘러져 있어 진입은 서쪽(酉)에서 하게되어 있는 고저의 차이가 큰 대지였다. 대지전체는 일조시간이 짧아 대체로 응달진 곳이라 배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건너편으로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좀 가까운 편이라 불전을 앉힐 만한 자리에서 축을 조금 틀어야 봉우리 사이로 시선을 멀리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산(山)의 형국을 보니 양옥이나 콘크리트 건물은 어울리지 않고 전통양식의 목조 건물이라야 조화가 된다고 판단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있는 도시지역이라면 주변 아파트 단지 등을 감안하여 전통양식이 아닌 현대식 건물로 하는 것이 조화롭겠지만 산지에서는 역시 목조에 기와지붕이 어울린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야 그야말로

'十年(십 년)을 經營(경영)하야 草廬三間(초려 삼간) 지어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淸風(청풍) 한 간 맡겨 두고,
江山(강산)은 드릴 듸 업스니 둘너 두고 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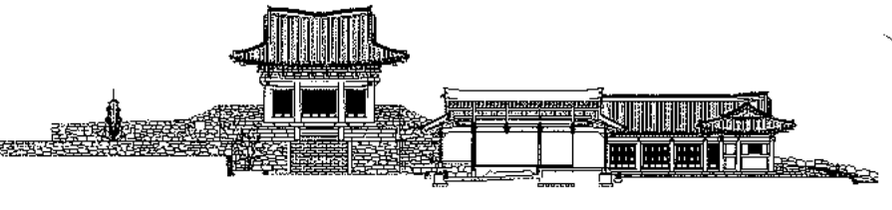
는 조선(朝鮮)조 송순(宋純, 1493~1583)의 시(詩) "십 년을 경영하야" 에 묘사된 자연관이 실감이 나지 않을까!

사실 사찰건물은 현대식이던 전통식이던 배치나 각 건물이 불교의 기본정신이 배어 있으면 그 양식이나 모양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건축사라면 아름다운 건물과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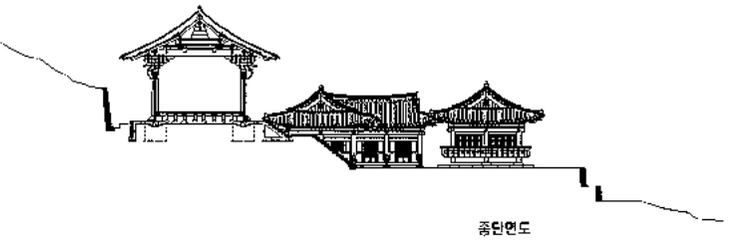
설계의 주안점

건물 및 외부공간 배치는 향(向) 및 지형(地形)이 허락하는 대로 건물을 앉히되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어 건물 및 공간의 위계를 설정하고 건물뿐 아니라 외부공간까지 연계된 수행(修行)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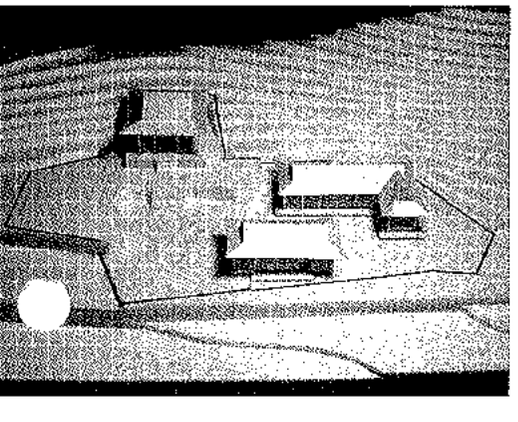
대지를 크게 3단(段)으로 하여 진입부분인 첫 단에는 요사(寮舍)를 앉히고 중간 단은 불전으로 가는 전이(轉移) 공간-마당-으로 하고 가장 높은 곳에 불전(佛殿)을 앉히기로 했다. 장차는 현(現)대지 아랫부분의 땅을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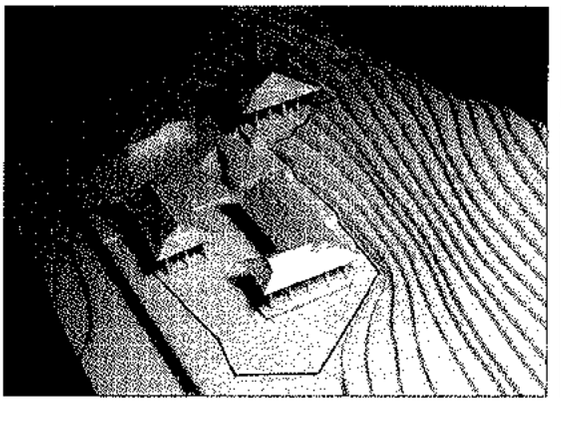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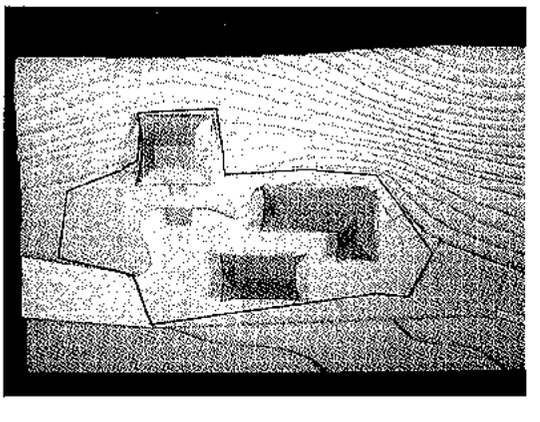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보하여 불전의 정면 축(軸)상에 누각(樓閣)를 두어 누하(樓下)를 통해 주(主)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되 우선은 서쪽에서 진입하도록 했다.

각 건물의 배치는 상하좌우로 3칸 또는 5칸 띄어서 주칸(柱間, 요사채 주칸인 9尺 기준)의 비례로 거리를 두었다. 한 칸이 어려우면 반 칸을 띄어서 전체 대지가 건물을 중심으로 나름으로의 비례를 갖도록 계획했다.

탑(塔)도 불전 앞마당에 두기보다는 가장 높은 단에 두되 불전 및 다른 건물들의 위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를 조금 줄이기로 했다. 그리고 각각의 공간구획요소로는 단(段)의 차이 및 조명을 겸한 낮은 돌기둥(石柱, Bollard)을 도입했다.

불전(佛殿)은 앞산의 봉우리를 보면서 약 15도 정도 축을 틀어서 배치했다. 건물비례에 맞는 충분한 지붕을 덮으려니 대지여건상 부득이 규모를 조금 줄여야 했다. 대신에 45cm~60cm 정도의 조그마한 부처님을 모시어 건물 내부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요사(寮舍)는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 지금의 배치로 결정했다.

처음의 안(案)은 스님 거처를 진입부분에 두어 피로티 공간으로 진입을 시키고 요사로 에워싸인 마당에 일조량을 확보하려 했었다.

그 다음 안은 스님거처와 대방을 한 채로 계획하였다가 다시 두 동(棟)으로 나누었다. 그 이유는 첫째, 층이 다르며 기능이 다른 건물을 연결하는 부분의 결구(結構)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성격이 서로 다른 기능은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다.

마지막 배치대안으로 두 건물을 일자(一字)로 배치하려니 필요면적에 따라 건물이 너무 길어 좁은 대지에 들어가지 않아 한 건물은 ㄱ자(字)로 하고 다른 하나는 일자(一字)로 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번 배치를 조절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애초의 요구사항과는 다소 다르지만 대지여건상 지금의 배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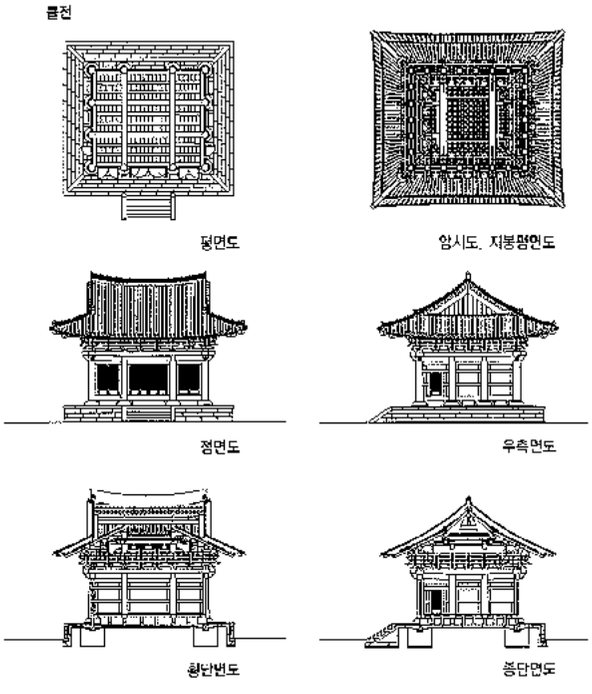
대지로 진입하는 부분에는 전통 석등 대신 현대적 감각을 살려 창의적인 삼보등(三寶燈)을 세우고 그 사이사이로 출입을 하도록 유도했다. 삼보등-위는 금강저(金剛杵 Vajira)를 얹고 아래 부분에 조명시설(火舍)을 한 높이 4자(尺) 정도의 8각석주(八角石柱) 세 개-은 사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에 귀의(歸依)하고 네 가지 서원(四弘誓願)으로 정진을 함으로서 불자로서의 마음을 다듬도록 유도했다.

금강저는 원래 천신(天神)들의 무기다. 부처님 가르침(佛法)을 수호하고 벽사(辟邪)의 의미가 있으니 삼보등(三寶燈)은 무명(無明)을 밝히는 등명(燈明)이자 불법을 수호하는 인왕(仁王)역할을 한다.

평면 및 단면계획은 각 건물마다 기둥의 개수나 건물 칸수에 불교의 기본적인 법수(法數)를 반영하고 용척(用尺)을 정해서 규모결정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외부공간 및 배치에서 활용했던 것과 같은 개념의 기둥과 벽의 숫자관계를 각 건물에 설정했다. 즉 외부공간에서는 기둥이 세 개 일때 공간이 네 개 만들어지는 반면에 내부공간에서는 기둥을 네 개 세우면 사이공간이 세 개 만들어지므로 공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흔히 고(古)건축을 실측하거나 복제하여 설계할 때 일제강점기의 관습대로 정면 몇 간 측면 몇 간 이라고 묘사한다. 불교건축을 전문으로 한다면서 아무생각 없이 정면3간



×측면3간이라고 하고싶지는 않다.

건물계획에 사용한 용척(用尺)은 다른 경우보다 조금 큰 1자(尺)=306㎜로 했다. 전체 규모를 개략 정하고 공포(栱包) 간격이나 기타 부재를 바탕으로 하고 건물의 칸 수 및 평면 비례를 정하고 나서 적당한 척도를 구하니 305㎜~306㎜ 정도가 산출되었다. 단면비례 등에도 계산하기 쉽게 306㎜를 기준척도(用尺)로 정했다.

불전(佛殿)계획

불전의 기둥은 모두 12개다. 각 면은 네 개의 기둥과 각각의 기둥 사이에 만들어지는 세 개의 칸(間)으로 구성하였다. 내부에 불벽(佛壁)을 따로 세우지 않고 불단(佛壇)도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전체 공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12개의 기둥은 12연기(十二緣起)·세 칸(間)은 삼법인(三法印)·네 기둥은 4성제(四聖諦)를 상징한다. 즉 불전은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예불하는 공간으로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성자체를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정신을 상징했다.

맞배집으로 했다가 다시 팔작지붕 구조로 하기 위해 대지 여건상 규모를 상당히 줄여야 했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가운데 칸(御間)은 12자로 하고 다른 주칸(柱間)은 8자로 하고 포(包)간격은 4자로 하였다. 지붕가구는 5포로 계획을 했다가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해 7포(包)집으로 구성을 했다. 처마는 겹처마에, 포의 첨차(檐遮) 끝은 교두형(翹頭形), 문(門)은 만(卍)살 청판분합문, 천장은 우물천장으로 설계했다.

불교에서 3(三)과 4(四)라는 숫자는 다른 어느 숫자보다도 많은 의미가 있다.

탐(貪)·진(嗔)·치(痴) 3독(三毒, three poisons)을 버리고, 계(戒)·정(定)·혜(慧) 3학(三學, three essentials of Buddhist training)을 배우고, 제행무상(諸行無常)·일체개고(一體皆苦)·제법무아(諸法無我) 3법인(三法印, three characteristics of existence)을 이해하고 불(佛)·법(法)·승(僧) 3보(三寶, the Triple-Gem)에 귀의하겠다는 의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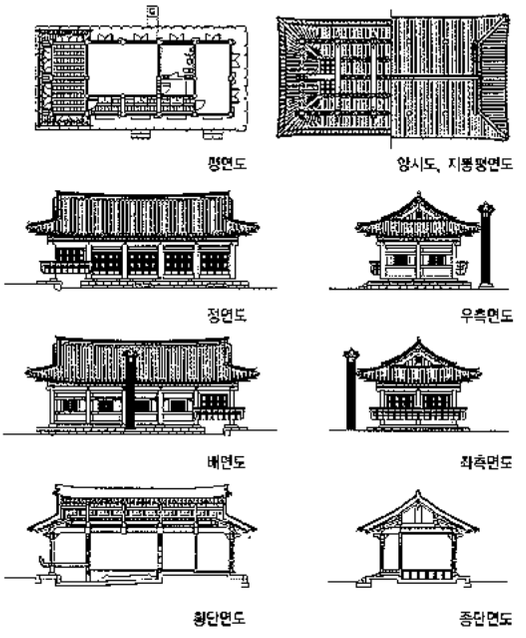
또한 네 가지 요소인 지(地)·수(水)·화(火)·풍(風) 사대(四大, four elements)에 바탕을 두고 헤아릴 수 없이 큰마음인 자(慈)·비(悲)·희(喜)·사(捨) 사무량심(四無量心, four sublime status)으로 타인을 대하고 보시(布施, 주는 것)·애어(愛語,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행(利行,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동사(同事, 상대의 처지에서)의 네 가지 마음으로 사섭법(四攝法, four acts of loving kindness)을 실천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인 고(苦)·집(集)·멸(滅)·도(道) 사성제(四聖諦, the Four Noble Truth) 진리를 깨닫겠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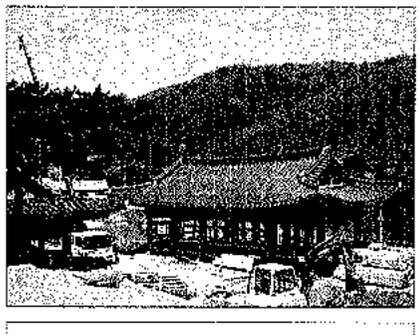
불전은 대웅전(大雄殿)으로 할 것인지 극락전(極樂殿)으로 할 것인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건물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불상을 새로 조성하지 않고 인연 따라 구하려하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에 따라 사바세계가 되거나 극락세계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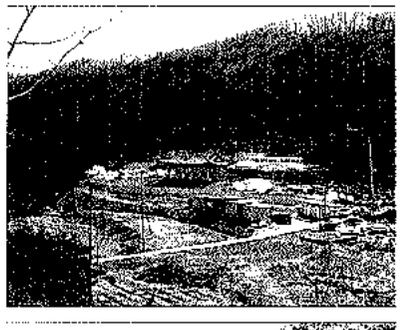
요사(寮舍)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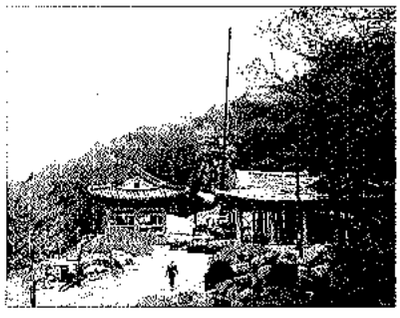
주지스님 거처인 작은 요사 정심당(正心堂)의 한 쪽에는 누(樓)마루를 꾸미고 다른 한 쪽에는 입식(立式) 다실(茶室) 고로청향당(高爐淸香堂)을 낮게두어 바닥의 높이가 서로 다른 음다(飮茶)공간을 만들었다.

요사채(1) 정심당









정면은 기둥 6개를 세워 다섯 칸으로 하고 측면은 기둥 세 개에 두 칸으로 하였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9자(尺)로 했다. 전체면적은 정면 5칸×측면 2칸=10칸으로 했는데 10(十)은 심우(尋牛, Ten Ox-herding)를 상징했다. 요사에도 기둥의 개수·건물 칸수에 불교의 기본적인 법수(法數)를 반영하였다. 내용은 지면관계로 생략한다.

큰 요사는 차밭을 뜻하는 명전선원(茗田禪院)이라 하고 진입부분 초입에 배치했다. 대방(大房)과 다실 및 종무(宗務)·공양간(供養間) 등의 생활공간이다.

불전으로 오르내리면서 가장 눈에 잘 띄는 후면(남쪽)은 여덟 개의 기둥으로 7칸을 구성하고 측면(서쪽)은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워 4칸으로 구성된 ㄱ자 평면이다. 전체면적 16 칸 반이며 기둥 수나 칸(間) 수는 수행에 관련된 법수(法數)를 상징하였으나 면적에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두 요사는 모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 전이공간-마루-을 두어 계절변화나 사용목적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하도록 구성했다.

입면계획도 용척 및 불교 교리에 맞도록 했다. 고(古)건축을 기존 유사건물의 짜깁기가 아니라 계획에 따라 설계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도면작성자가 설계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입면구성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조경계획에 있어 바닥포장은 각각의 기능에 따라 돌과 전돌 그리고 마사토를 활용하기로 했다. 식재(植栽)는 계절에 따라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교목에서부터 관목·산야초·이끼류까지 단계별로 시간을 두고 가꾸어 나가기로 했다.

고저의 차이가 있는 대지 경계에는 자연석을 활용하고 건물주위의 옹벽부분은 화계(花階)로 꾸며 시각적 변화를 주고 빗물처리를 하도록 했다. 작은 요사 옆에는 자정(自淨, self purification; 蓮은 스스로 물을 정화한다)을 상징하는 조그만 연당(蓮塘)을 마련하여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로 연(蓮)을 키우기로 했다.

목재는 요사들은 부재가 크지 않아 어려움 없이 육송(陸松)을 사용하였으나 불전은 부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요부위·주 구조가 아닌 부분 일부에는 북미산 소나무를 사용하기로 했다.

뒷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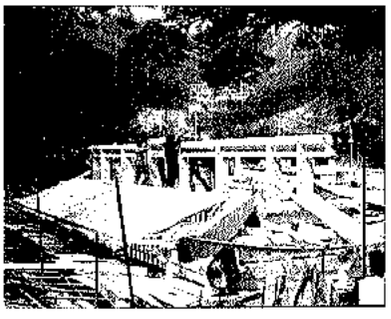
K寺는 한창 건립중이다.

건립과정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대개 지금 사정상 불전을 먼저 시공하고 다른 건물은 나중에 짓는데 이 사찰에서는 요사(寮舍)부터 지으면서 도편수와의 호흡을 맞추고 시행착오를 교정하여 시공상의 기법 등 문제점을 해소한 후에 완벽한 전각(殿閣)을 짓기 위해 불전(佛殿)을 가장 나중에 세우기로 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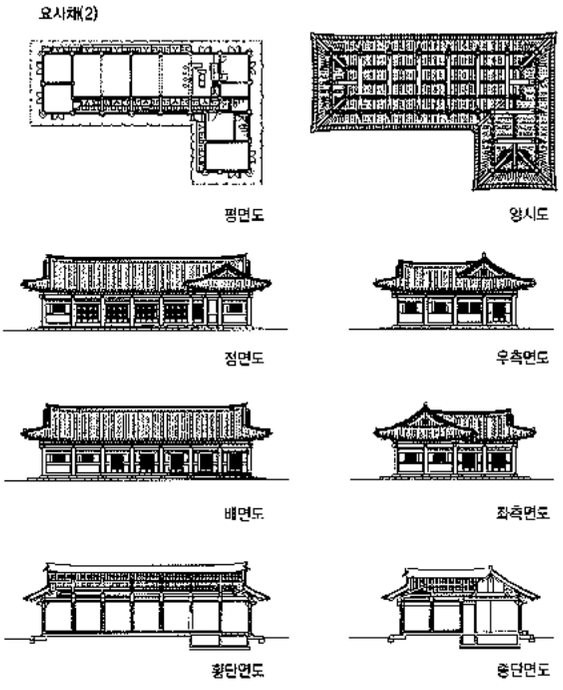
그리고 건물을 보통 남향(向午)으로 앉히는데 반해 이 사찰은 대지의 여건상 모든 건물이 북향(向子)을 하게 되었다.

또한 대개의 건물이 마당을 향해 앉아있는데 반해 이 사찰은 자연환경과 대지의 조건 때문에 마당을 등지고 있는 건물도 있다. 큰 작은 요사는 정면이 확 트인 북쪽을 향하고 마당은 등지고 있다. 작은 요사를 시공하면서 마루가 마당을 향한다는 고정관념에 대목이 내부기둥을 반대로 시공하여 하마터면 집이 앞뒤가 뒤바뀔 뻔했다. 물론 바로 잡았다. 큰 요사는 북면하고 있어 마당 건너 작은 요사의 등을 보게 되어있다.

건축을 총괄하는 O씨는 건축가는 아니지



요사채(2)



만 안목이 매우 높고 판단력이 출중하여 설계가 바로 되어야만 전각이 제대로 시공된다는 확신을 갖고 설계자를 믿고 진행하고 있어 고맙게 여기고 있다. 더욱 다행한 것은 건축 총괄을 비롯하여 대목이나 와공·석공들의 솜씨가 모두 좋고 성실하여 시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발주자인 스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시고 O씨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등 서로의 호흡이 잘 맞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개 고(古)건축은 목수가 일아서 하는 줄로 안다. 물론 목수가 대부분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역할이 다른 것이다. 건축사나 학자 스스로도 때로는 장인(匠人)인 기능자(技能者)와 기술자(技術者)의 역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장인의 기술은 존중하고 높이 평가할만하되 현대의 설비와 전기 및 조경 등의 전체적인 판단을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비례나 위계 등을 정할 때 장인들이 감각적일 수는 있지만 과학적이기는 어렵다. 장인은 장인의 역할·설계자는 설계자의 역할·기술자는 기술자의 역할이 각각 따로 있는데 혼동해서는 안된다.

설계에 관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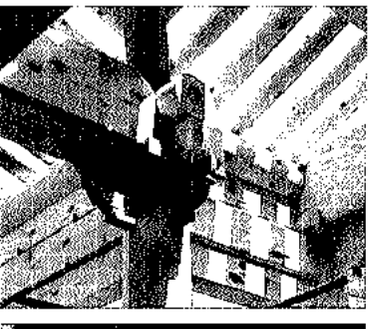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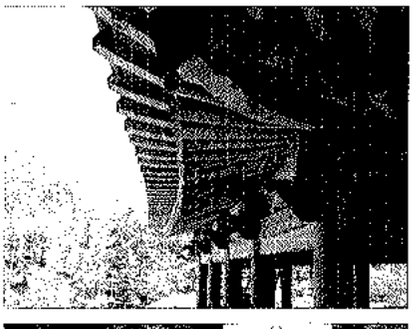
하나는 일반건축을 오래 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용기를 내어 소개를 하는 것이니 다른 많은 건축사들도 전통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설계를 창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개 고건축의 설계는 여기 저기서 따서 짜깁기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설계가 필요없는 줄 안다. 그러나 막상 해보니 생각할 것이 너무 많고 도면을 어떻게 그려야할지 조차 모른다. 한편 종래에 고건축 설계를 많이 해오던 사람들은 현대건축에 대해 너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 사실은 우리 건축이 기본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만들어내야 한다. 필자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건축을 접할 기회가 많아 스스로 배우고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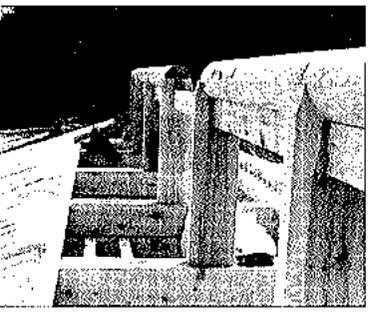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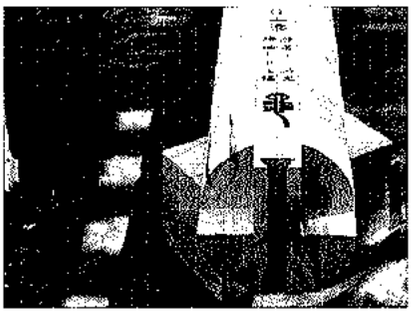
다른 하나는 과연 정체성이나 환경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를 반성해보자는 의미이다. 불교건축의 현대화가 속속 진행되고 건축상(賞)을 수상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돌아보자. 지금까지 형태가 옳던 그르던 과거의 것들-傳統이라고 하자-이 건축을 포함하여 의복이나 음식·생활습관 등 소위말해 한국의 문화로써 남아있는 곳은 불가(佛家)밖에 없다. 불가에서는 쓰레기 제로(0)의 음식규범이 있으며 의복은 자연염색을 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전통이 남아있다. 한편으론 지속가능(sustainable)한 디자인을 해야한다고 외치면서 부처님 집을 콘크리트로 짓는 것은 재고 또 재고 해야할 일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불교건축 연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자는 뜻이다. 건축설계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서양건축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고(古)건축 특히 사찰건축을 연구하고 저술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圖

설계 및 공사관계자

건축설계: 조인숙·라경현(다리건축)·장명학(무진종합건축)외 /
기계설계: 김경회((주)차림설계기술) /
전기설계: 박충서((주)성우설계) /
공사총괄: 오영기·김지영 /
토목: 오영철 / 도편수: 박수한·김철권·이금성 / 기와공: 강기중 / 석공: 이부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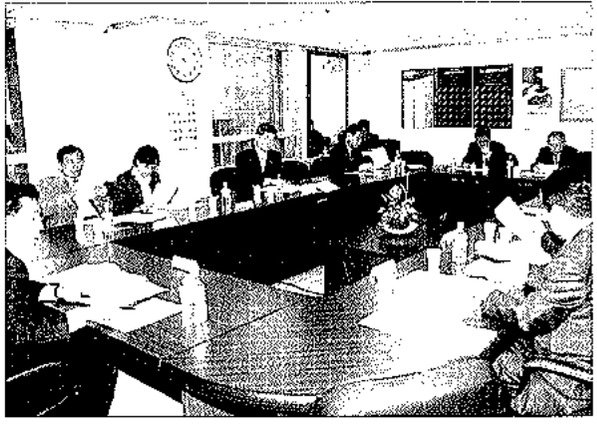
좌담

건축의 문화·사회적 기능과 정부의 역할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부당성 —

The Socio-Cultural Function of Architecture and the Role of Governments

우리 협회는 건축설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건축설계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 설계·감리시장의 무질서 등으로 인하여 과당경쟁과 덤핑이 만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에 있어서 공공성의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건축설계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능과 건축에 대한 정부 인식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 보는 좌담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일시 : 2004. 4. 12(월) 15:00 ~ 17:00
장소 : 우리 협회 회의실

□ 토 론 자

▶ 대한건축사협회
한 명 수 / 경기건축사회 회장, 사회
이 규 홍 / 대전건축사회 회장

▶ 대한건축학회
김 광 현 / 서울대 교수
이 선 영 / 서울시립대 교수

▶ 한국건축가협회
이 상 림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최 명 철 / (주)단우건축사사무소 대표

▶ 대한변호사협회
김 주 덕 / 법무법인태일 대표

한명수 : 우선, 2005년 세계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건축에 대한 국제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경쟁에 따른 국내 건축사의 현실에 관한 문제, 또 우리 건축이 문화적인 기능과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세계화·국제화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짚어보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지만,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는 협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돼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토론을 하실 때 참석자분들께서 비판의 강도를 낮출 필요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론 중 될 수 있으면 원론적인 내용이나 건축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요점분야에 치중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안까지 간단하게나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루하게 진행이 되다보면 요점에 대한 토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3분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에 앞서서 각자 한 분씩 말씀을 들어보고 토의할 주제나 내용이 생기면 함께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 오늘의 논지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련된 사안과 건축의 문화적 사회적 기능에 관한 사안이 각각 구체적이고 추상적이라서 사회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좌담회가 과연 어떤 성격의 좌담회인지 말하자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 및 절차 안에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축설계감리를 사회적, 문화적, 공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히 매매행위에서의 거래수단으로 이해하여 이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심각"

한명수 : 일단, 지금 토론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에 대한 문제는 우선 오늘의 주제에 대한 소제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설계와 감리에 대한 시장질서의 문란 내지는 건축으로서의 순기능 역할이 현재 상당히 퇴보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이라는 전제에서 비춰볼 때 정부가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해 개선해나가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축 설계감리를 사회적, 문화적, 공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하게 시장에서 매매행위로 일어나는 물건의 거래수단으로만 보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부터 건축 설계감리 시장과 그 순기능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좌담회는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표면에 대두가 되어 있는 바,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건축 설계감리에 관하여 각자 분야에서 보시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건축사가 우리나라 건축설계감리를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들 스스로가 굳건한 자리매김 하지 못해"
"일반 국민들이 건축분야를 도외시하고 국내 건축시장이 기초단계에서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며, 이번을 계기로 확실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

이규홍 :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우리의 역할과 생존에 관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건축사가 우리나라 건축 설계감리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굳건한 자리매김을 확실히 못해 왔고, 일반 시민들도 건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있지 못한 건축사가 담당하고 있는 건축설계감리 업무의 중요성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하되어 국내 건축시장이 기초단계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사회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건축주가 건축사의 역할을 도외시하는 가운데 건축사들은 과연 설계감리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금번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대응이 계기가 돼서 이 기회에 확실한 인식의 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명수 :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모두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상황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분야의 잘못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는지 나중에 다시 발표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이상림 건축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 큰 만큼, 앞으로 이를 이해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이상림 : 글쎄요.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서 이번 세미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좌담회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건교부에서 작년 2002년 10월 설

계감리 대가기준이 공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온 어떤 공공발주공사나 같은 정부기관에서도 그 설계 요율을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결국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회계편성기준에 관한 것과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그리고 건교부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예산회계편성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회계편성 기준에 관한 것은 건교부 고시에 비해 약 절반정도가 되고,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은 약 3분의 2정도 됩니다. 결국은 같은 정부기관 내에서 조차도 건교부에서 만든 안을 채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선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각 행정기관에서 일단 건교부가 만든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한 과징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기관들을 이해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좀더 수반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실제 상황은 이렇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서 설계사무소 신입사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건축사들의 연간소득수준은 각종 신문지상에서조차도 발표가 된 바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명수 : 보수대가기준에 관한 예산편성기준과 정부의 각 기관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바로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설계감리가 거래수단으로만 인식이 되는 것이 적합하느냐 그리고 문화적 가치 혹은 기준을 공정한 거래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설계를 문화적 접근, 예술적 접근보다는 상거래 수단으로만 보는 국가적인 시각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것을 추후 말씀해주시죠. 다음은 최명철 건축사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최명철 :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가 가장 주가 될텐데 어차피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건 시장경제이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건축물 자체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뭘 담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지켜야 될 궁극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하는 건축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지만, 지금 우리 건축사들은 건축의 공공적인 역할을 책임지는 선지자 내지는 지도자로서 평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수 : 건축 설계나 감리도 일단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한 가운데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있어서의 공공성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최명철 : 건축의 문화적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성이란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명수 : 건축물에 있어서의 공공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최명철 : 저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건축의 문화적 사회적 기능이 무엇이고,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극히 모호한 관점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토론이 한결 쉬워질 것 같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선영 : 설계비의 덤핑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각 나라의 건축사들 협의체는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덤핑으로 전문가적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만으로 그 협의체에서 제명까지 시키는 것으로 이를 지키는 노력을 합니다. 건교부 보수대가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우리나라 건축사들이 자신의 설계비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데이터가 모이지 않으면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보스톤 지역에서 프로젝트 계획서를 낼 때 보면 그 지역의 건축가들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설계비를 받는지가 정확하게 데이터로 마련되어 있어 건축주에게 들어 밀 때 훨씬 공신력이 있는 경우를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급여 데이터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진, 어느정도 급여를 받는 인원이 얼마간 투입되느냐를 설계비 책정시에 보여주는 것이지요. 단적으로 말하면 함께 상향평준화를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투명하게 자신이 받은 설계비를 밝힐 수 있을 때 서로서로 제대로 받는 체제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설계비를 올리자 보다 설계비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김광현 : 예를 들면, 아까 이상림 건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

대가기준 그거 왜 안 지키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건축사협회가 「검토」라고 하는 행위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조건 설계비를 올리자 보다 설계비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제 생각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시달리면서 속고 속이는 현실은 건축사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건축주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들이 사회적인 기능과 공공적인 역할에 열심이지 않으면 결코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건축이 문화적인 것이라고 떠들어본들 귀에는 들리지도 않고 실천이 안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화로서의 건축이란 이런 회의석상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실제의 현실에 돌아가면 별로 큰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의 시스템을 협회가 만들어 내줘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회원들이 그걸 준수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설계비는 적정하게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반대로 설계비를 적게 받으면 부끄러운 일로 인식하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집안에 있는 겁니다. 성서에도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말할 정도가 아닙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설계비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당하게 그 몫이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사무소를 대표하는 건축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등록하지 못한 사람들 이른바 앞으로 건축사가 될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그런 협회가 되어야 진정한 협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봉급의 수준이 얼마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사회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면 이를 만회해야 하는 데 빨리 힘써야 합니다. 많이는 못 받더라도 다른 직종에 비해 떨어지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수 : 김광현 교수님께서 설계감리비 보수에 관한 시스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회가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단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기 보다는 사회적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걸 국가에 설명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요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과거 설계라든가 보수대가기준이라든지 건축사 사무소 등록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소 고용인원은 어떻게 되고, 고용보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만 자율화다 민주화다해서 지금은 건축사 혼자 자기 집에서 건축사사무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주의 발상이고, 지금은 어떤 경우 핸드폰 건축사라고 그러죠. 전화로 설계 수주하고 하청사무소에다 넘겨 그 차익만 남기는 건축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문제, 여기서 과연 우리와 협회의 역할 및 관리체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국가가 관리해야 될 부분과 협회가 관리해야 될 부분의 충돌 문제, 또 정부에서 자율화라는 기준으로 협회를 임의가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건축사들이 가입하거나 말거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로 인한 이런 무질서와 난립은 법이나 제도상의 막연한 완화조치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원할 분야도 있을 것이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2005년 건축시장개방과의 문제로 직접 관계된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고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순기능으로 소화시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 건축사회 같은 경우에 95살 되신 분이 건축사사무소를 하십니다. 이거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분은 자격대여에 가깝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도화해서 바꿔나가느냐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율토론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림 :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문제가 작년 12월 18일자 신문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8개의 지부에 대해 처분을 했고 서울지부와 본 협회는 해당이 안돼 있습니다. 99년도의 카르텔에 의한 가격제한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범했기 때문에 처분을 한다 뭐 이런 조항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교부에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라 하여 2002년 10월 15일자로 건교부장관이 공표를 했고, 이 대가기준은 최찬환 교수팀에서 많은 준비를 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하고 과징금까지 물은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규홍 : 모든 건축사가 건교부에서 제정, 공표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다수 건축사들의 자신감 결여가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고하신 김수근, 김중업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작품의 완성이라는 생각으로 몰입하므로서 대가기준이라는 것을 논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설계비가 왜 자꾸 내려가느냐는 원인은 김광현교수님 말씀대로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만원 받으면 다른 사람은 8만원 받을 것 같고 점점 내려가서 4만원, 3만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은 최하입니다. 법에서 "설계비는 너희들 마음대로 받아라,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은 법대로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업자의 말만 믿고 기초조사부터 도면작성은 물론이고 심한 사람은 투시도까지 그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비용 전혀없이 무료로 해 준다는 것입니다. 건축주는 A, B, C, D안 무료로 제공받아 가장 쓸만한 것을 가장 싸게 설계비를 부르는 건축사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한명수 : 아까 이상림 건축사께서는 보수대가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보수대가기준을 정부에서 만들어 준 것은 건축물의 공공적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림 :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느 분이 해주실지 모르겠는데요. 건축사업무대가기준이 분명히 2002년도 10월에 공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부로 과징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중에 알아보는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가 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저희가 알았을 텐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건축사회에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졌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건축사협회 또는 개개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한명수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저희 대한건축사협회뿐만 아니라 전문가 관련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이 있었고,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사를 한 겁니다. 그쪽에서 설계비 제값 받기 운동을 했느냐 했을 때 관련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하고 결정되는 데까지 한 달이 안 걸린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진술기회 한번 주고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림 : 그렇다면, 9개 지방 건축사회를 뺀 나머지 건축사회들은 다 문제가 없다는 얘긴가요?

한명수 : 그렇죠.

이규홍 :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도 건축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번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규정상 시도건축사회에서는 총회자료 중 중요부분을 본회에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사업자단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회에 보관되어 있는 총회자료전체를 검토한 후 문제가 될 만한 건축사회를 추출을 한 것이 9개 건축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상림 건축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수대가기준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말씀 아닌가요?

이상림 : 아까 여쭤봤던 내용은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처과정이 어떠했는가를 알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이를 바로잡는데 접근하기 쉬울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형태로 대응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명수 : 그러니까 각 시도로 개별적으로 처분이 나간 이후에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문제를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설계비 문제, 어떻게 보면 설계비만 많이 받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 상향평준화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협회에서의 노력이나 일부분에 대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점과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시도지회에서 공공복리 차원에서 건교부 보수기준을 준수했으나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하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일"

김주덕 : 지금 설계감리가 덤핑화되어 있고, 건축문화의 부실문제,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과연 현 실태에 설계감리 비용이 적절한 것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보수기준을 내놓은 것을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 공공복리 차원에서 준수하려고 시도했는데,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하다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상림 건축사님의 자료를 보면, 건교부가 공고했던 대가기준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일 것입니다. 바로 해석의 문제지요. 사실, 건교부에서 공고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건교부가 공고한 이유, 배경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교부에서 제시한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참고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설계감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

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부작용과 같은 것을 빨리 검토해서 그와 같은 것을 법적으로 받쳐줄 문제가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덤핑·부실화를 초래하게 되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사고 같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없어져서 자기가 설계·감리한 것에 대해서 15년, 20년 무한정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건축사분들의 법적 책임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최명철 : 그래서 건축사들이 다른 직업인들에 비해서 수명이 짧다는 통계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옆에 계신 이상림 대표의 공간건축만 해도 김수근, 장세양씨 등 많은 애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스개 이야기로 하자면 이제 그러한 무제한 법적 책임 하에서는 차라리 일찍 죽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후후). 너무 경직된 이야기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나온 가장 큰 수확중의 하나는 건축사협회가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여한 적이 있어 기억하는데 과거 건축사협회에서 여러 사람의 각고의 노력 하에 95년 건축개혁(안)이라는 두툼한 보고서를 만들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무런 변화 없이 여태까지 10년을 보냈습니다. 올해에도 2004건축개혁 보고가 나왔더군요. 이세훈 회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런 작업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축사협회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김광현 : 어떻게 보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나온 이상, 이럴 때 도화선을 붙여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건축계 상황을 모르고 있는 중에 이런 조치가 나온 겁니다.

"건교부에서 대가기준을 공고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교부가 대가기준을 공고한 이유, 배경 등을 감안했어야"

김주덕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교부가 건축사업무대가기준을 제정한 과정, 배경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건축사협회가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결정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심리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버렸습니다.

이규홍 : 건축설계와 감리는 목적물의 안정성 및 경제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역사적 전통을 담아내는 문화의 토대이기도 한데 이런 중대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설계비 제값받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말 그대로 끝없는 경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난감할 따름입니다.

김광현 : 거래는 거래로써 이야기해야 합니다. 도면을 어느 정도를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정하는가를 전부 다 망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보통, 복잡, 단순과 같은 정도로 분류해서는 작업하는 양의 산정이 부정확합니다. 도면의 질이 어떠하며 어떤 단계에서는 무슨 도면이 빠진다는 것이 정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프로세스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단순, 보통, 복잡 등의 분류로 일의 양을 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한명수 : 지금 현실은 건축사가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는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영업행위를 사회에서 강요하면 안됩니다.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하면 설계보다는 영업을 해야 돼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변화나 개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건축계 상황 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부실건축물의 양산을 초래"

김주덕 : 건축설계는 현실적으로는 거래행위가 틀림이 없고,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부실건축물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불일치해서 지금 설계감리 업무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건축사법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법개정이 따라야 될 것이고, 부실공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공하는 사람들인데 시공하는 사람들이 부실하게 해놓고 책임은 건축사들이 진단 말이에요. 또한, 감리의 경우 감리권을 행사할 여건이 제대로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축법에 보면 설계자 감리자에 한해서는 '자기 책임 하에'라는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자기 책임 하에'를 강조해놓은 법조문은 대한민국에 이 조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설계감리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만 부과되어 있지 현실적으로 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책임보험이 제대로 정착되어 건축사 위험부담은 보험이 보장해주어야"

이선영 : 전문가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많은 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책임 하에'라는 부담에 걸 맞는 대우를 받고 위험부담은 보험이 받쳐주어야 하지요. 일을 끌어나가는 리더가 건축사임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적어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제대로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가져와서 설계비로 받은 것의 상당부분이 정작 엔지니어들에게 외주로 나갈 때는 엄격하게 엔지니어의 관행대로 주면서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건축사는 적게 받은 설계비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고, 세금은 건축사사무소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엔지니어를 포함한 얼마나 많은 제대로 받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가를 부각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명수 : 건축사업무에 있어서 사회적 기능과 역할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규홍 : 사회적으로 건축주들이 남의 아이디어를 쉽게 취득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공발주기관부터 이에 관한 아주 저급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건축설계분야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축주들에 대해서 건축사협회는 물론이거니와 전 건축인들이 부당하다는 의견표명을 해야 됩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감리가 부실해지면 건물이 충실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될 것입니다.

"상향평준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상대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사무소 개업 후 영업에 의한 손실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최명철 : 상향평준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를 접근한다면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설계 감리 용역비 대가기준이 과연 제값이냐 아니면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느냐 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정해져 있는 설계비 개략 평당 15만원 수준은 설계사무소 입장에서 원가계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적절하고 더불어 일정수준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체적인 수지타산에서는 열악하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한다면 수주를 위한 영업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것은 대부분이 현상설계지요. 현상설계에 10개 업체가 제출을 하면 여기서 한 업체가 당선이 되고, 나머지 9개 업체들이 사용한 투자비가 거의 당선된 업체의 설계수주비와 비슷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설계업계 전체로 봐서는 투자비=매출 총액이라는 악순환이 도출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업만 전담하려는 핸드폰 건축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설계발주방법과 수주전략인 영업부문의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건축사협회가 지금까지 건축사라는 업무를 해방 후 40, 50년 동안 법적인 허가행위를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하였습니다. 법적 대리인, 서비스업으로서의 허가행위 여기에 국한돼서 일을 하신 분들이 있고, 실제로 건축물의 제대로 된 설계에 매달려 도면을 만드는 사무소가 극히 적었다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현실적으로 분명히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향평준화할 수 있는지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한명수 : 결론적으로 의견종합을 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것과 건축 설계감리 상향평준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향평준화 방안이 각 분야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고, 외국에도 설계감리 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처분한 사례가 있는지 아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에 있어서 설계감리 거래와 관련해서 처분한 사례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까 원가개념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설계와 감리가 기술이냐 이런 관점에서도 봐야하는지, 말하자면 상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임에 분명한데 건축설계자가 기술자냐 이거죠.

김광현 : 기술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끌고 나가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무한경쟁을 하더라도 Bottom line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이상림 : 엔지니어의 경우 건축에 관계된 엔지니어들은 정말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토목에 관련된 엔지니어들은 상대적으로 좋죠. 좋다는 얘기는 정해져 있는 프로테지에 따라서 건축주들이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마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프로테지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으면 뭔가 손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헤쳐나갈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건축사 같은 경우 건축사에 대한 기능이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계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내가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안다면 분명히 그 대가에 대해서 지불을 하겠죠. 지하철 공사하는데 암반 1m에 따라 공사비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꼭 해야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돈을 얼마든지 주고 그 기준대로 줘도 아무소리 안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한경쟁을 하더라도, Bottom line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 의한 최

저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에 관한 것은 얼마든지 더 많이 받고 하는 이것은 개인 능력의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bottom line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에서 개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를 옭아매는 법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유와 노력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계량화해서 기준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죠. 현재 공표된 대가기준도 어느 정도 계량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건축사업무의 총체적인 데이터화는 결국 설계비를 확보해나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어"

김광현 : bottom line을 정하는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소 영업 실적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그런 자료를 토대로 반론을 제기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설계사무소에 경력에 따른 호봉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대기업마다 하고 있듯이 어느 정도에 어느 봉급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정확한 자료가 모이면 결국 설계비를 확보해 나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비를 받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결국 인건비입니다. 설계비가 낮은데도 일이 진행된다는 것은 인건비의 축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낮은 설계비가 낮은 임금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설계사무소의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낮은 봉급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결과적으로 좋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먼 훗날 좋은 후배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공부도 잘했고, 능력도 있으며 더욱이 본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설계를 하고자 하는데, 자기 앞길이 암담하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월급순위가 백몇십위라는 걸 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은 모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5년제, 6년제라며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현상이 만연된다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일입니다. 총체적인 데이터가 되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덤핑을 할 경우 설계도서 등록이 힘들게 되어 이러한 저작권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음을 압박, 서로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이선영 : 작가들처럼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도서를 등록할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특정 프로젝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설계비를 받고 하였는가 하는 사항이 기록으로 남겨져야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것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설계비를 받는 근거와 참조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하는 사항일 때 기준이하로 받는 건축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덤핑을 한 사람은 설계도서 등록이 힘들게 되어 그러한 저작권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압박을 주는 방향으로 서로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가 없이 하는 '검토' 행위는 노동력을 착취하여 결국 간접적으로 설계비를 약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김광현 : '검토'라고 하는 것을 조절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이라도 적게 하면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못벌면서 일을 많이 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검토를 등록제로 해서 그 전 사람에게 돈을 지불한 증명서가 있을 때 비로소 다음 사람이 일을 받아서 한다는 시스템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계도 없이 검토만을 반복한다는 것은 설계비를 낮추는 일이요,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규홍 : 김광현교수님께서 최근 본협회 홈페이지에 기고하신 건축사들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문제들을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탓할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자정의 노력내지는 이를 바로잡고자하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명수 :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건축사들이 우리 내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만 탓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협회에서 자정의 노력 내지는 이를 바로잡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해서 이를 기회 삼아 건축계 내에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또 상향평준화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설계비를 상향해서 받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쓰여지고 또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모든 문제들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고, 이 좌담회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해나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훈 /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교수
by Lee Jae-Hoon

공간클럽 - 11
Space and Rooms

건축공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며, 좋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기억해본다.
그다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어찌보면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 기능, 설비, 건축비의 문제에
매달려 좋은 건축공간이 가져야할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꿈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만이 만들어낸 건축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건축가의 꿈이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인이 건축적 삶을 사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래, 건축공간에 우선하여 형태적 유희나 재료의 표현, 프로덕션의 즐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 건축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잊허져가는 건축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일으키고자 공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공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던지려고 한다.
더러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소주제를 통해 건축공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주〉

목 차

1회
a. 공간은 하나인가요?
b. 공간의 증거
c. 공간은 없다

2회
a. architectonic space
b. 노자의 공간개념
c. 5차원공간

3회
a. 누구의 공간인가?
b. 얼어붙은 공간
c. 서랍속의 공간

4회
a.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b.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
c. 공간지놈지도

5회
a. 안티 중성의 공간
b. 시간을 넣은 공간
c.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6회
a. 공간의 밀도
b. 공간의 전이
c. 공간의 위계

7회
장면으로서의 건축공간

8회
a. 쉬운 공간만들기
b. 새로운 공간만들기
c. 게임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개념

9회
a. 공간의 구별
b. 공간의 대립개념

10회
a. 마음속의 건축공간
b. 언어속의 건축공간
c. 돈이 되는 건축공간

11회
a. 공간의 위치
b. 형태, 체계, 위치
c. 위치적 공간구성

12회
a. 공간속의 기둥
b. 시나리오 있는 공간
c. 창으로 본 공간

13회
a. 공간계획
b. 공간디자인
c. 공간문법

공간의 위치
Position of space

a. 공간의 위치문제

1983년도에 모설계사무소에서 진행하는 현상설계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현상설계의 주제는 은행본점의 신축설계였다. 당시 은행본점은 크게 두가지 기능군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본점으로서 은행 내부의 사안을 처리하는 부분과 지점으로서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기능구분에 따라 당시 건물을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의 두개로 구획하는 것은 기능적 이유 뿐만 아니라 형태적으로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방법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두 부분을 기정의 형태로 인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지울 수 있는가? 이들 두 부분을 어떻게 하면 대지에 잘 앉힐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설계의 쟁점사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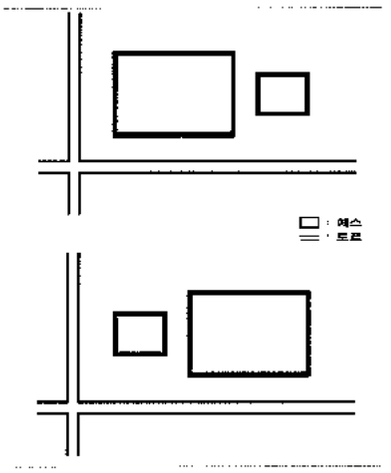


그림 1. 매스의 배치-2가지 경우

이에 대한 문제는 설계안의 최종 단계까지 남아있었으며, 결국 그림 1과 같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같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 두 개의 다이아그램을 추출해내게 되었다. 건물의 시스템과 기능적 관계 측면에서는 완전히 같고, 건물의 진입방법과 주변 건물과의 관계, 위치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이 둘이 설계의 마지막 단계에 도출된 것은 당시 필자뿐만 아니라 설계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켰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는 설계 초기단계에서 위치의 문제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못했는가? 건축물의 위치를 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하게 고려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건축공간의 위치 문제로 부각된다.

경영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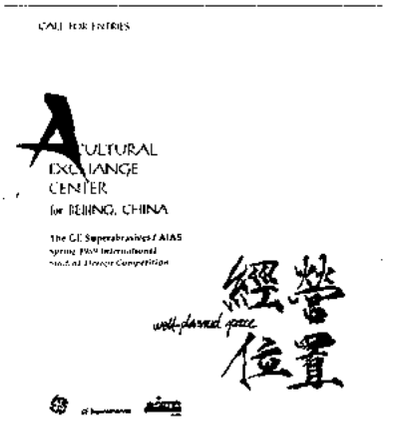


그림 2. 경영위치-현상설계 포스터

1989년 미국의 General Electric사에서는 중국의 북경에 문화교류센터(A Cultural Exchange Center)의 현상설계를 제안하였다. 당시 현상설계를 안내하는 포스터에는 주제로서, 영문으로 Well Planned Space, 그리고 한문으로 經營位置가 표현되어 있었다. Well Planned Space 는 경영위치를 미국식으로 번역해 놓은 것 같았다.

"잘 계획된 공간"은 그 자체로 건축물의 설계를 대표하는 어휘로서 건축의 목표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말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 번역이전에 경영위치의 뜻을 한문의 원래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그것은 본래 동양화를 그릴 때 화법을 설명하는 어휘로 "구체화하여 그 위치에 둔다"는 뜻이다. 어떠한 형상의 구체화된 모습이 제 위치를 찾아 앉혀질 때 그림은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 화법의 설명에 따르면 동양화 속에 표현되는 바위, 폭포, 나무 등의 모습은 화가들의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으며, 그림 그려지는 위치에 따라 적절히 구체화된 모습으로 자리를 차지한다. 물론 그림 그리는 방법의 전부를 대표하는 어휘로 볼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해 그림 그리는 하나의 수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현상설계에서 그 뜻은 건축으로 확대되어 쓰여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전 건축을 본다면 이와 같은 방식은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기와집은 수백년간 건축적 형상의 변화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된

그림 3. 그림 요소와 요소가 앉을만한 곳에 앉혀진 디테일로 적용된 동양화

모습으로 드러난다. 기둥과 도리, 서까래, 기와지붕 등의 형상은 목수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으며, 목수는 주인의 요구와 주어진 규모, 대지의 형상에 맞춰 기와집의 건축적 형상을 구체화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열한다. 그것이 건축의 핵심작업으로 해석된다.

경영위치, 우리가 이 의미를 건축에 적용하려 할 때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된다. 건축이 공간과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서양의 이론과 비교해도 형태적 사물이 구체화되어 공간의 체계에 맞도록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 의미는 일맥상통하며 공간과 형태가 서로 어떠한 상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건축설계의 중심이 됨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즉, 경영위치가 비록 그림 그리는 법을 설명하는 어휘이기는 하나 건축행위의 궁극적 목적을 대신하는 어휘라 하더라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b. 형태, 체계, 위치

형태는 대상물이 갖고 있는 치수, 온도, 조도, 색 등의 성능들을 말하는 것으로써 물리적으로 기술되는 내용들을 말한다. 일상적으로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며, 대상과 표현이 일대일의 대응되는 관계를 갖는다. 마치 학급의 전학생이 그들의 이름으로 각기 구별되는 것과 같다.

체계는 내적인 성능을 기술한 것이라기보다는 入/出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정보로써 위상적인 내용이다. 이것은 대상을 다른 것과의 관계로서 설명한다. 주택에 대한 체계는 이웃간의 관계나, 외적조건(동선, 소음, 전망 등)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체계는 형태를 관계로써 살피는 것으로써 형태의 작용원칙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술실을 예로 들어 볼 때, 수술대의 모양은 형태에 관련한 정보에 의해 정해질 수 있으나, 그것의 배열, 다른 것과의 관계는 체계에 관련한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환기를 위한 에어콘의 설치에 따라 수술대의 위치, 방향이 고정되며, 출입구, 다른 설비의 위치가 고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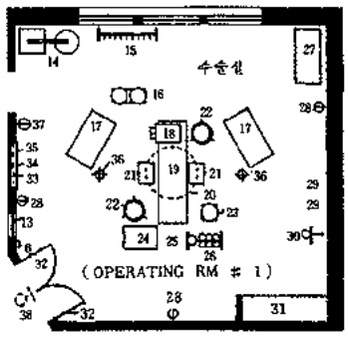


그림 4. 수술실의 수술대 배치체계

형태는 대상의 레벨에 따라 그 내부에 체계적인 정보를 수용하기도 하는 성질을 갖는다. 예를 들어 도시라는 대상을 두고 형태로써 언급할 때, 그 형태 내에는 도시인, 도시의 경제규모, 환경공해 등 그 내적, 물리적 기술내용과 도시 내의 에너지 공급체계, 교통망, 상하수도 체계, 도시의 스카이라인 등 그 도시의 체계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또, 도시는 농촌과의 인구이동, 식량공급 체계, 개발확산 등의 체계에 관련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도시를 포함한 지역의 형태적 정보가 되기도 한다. 즉, 형태는 그 내부에 부차적인 형태적 정보와 체계적 정보를 갖고 있으며, 또 다른 체계적 정보와 합쳐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게 된다.

형태와 체계에 대한 이러한 관계로부터 Heath는 디자인 과정이 형태적인 정보와 체계적인 정보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정보를 분리하여 건축공간의 구성과 연계해 본다면, 형태에 치중된 공간의 구성은 여타의 부분과의 관련성을 비교적 의식할 필요가 없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behavior setting을 들 수 있으며, 체계에 치중된 공간 구성은 구체적 형태와는 관련이 없이 논리적 관계를 설정하는 도시계획이나, bubble diagram을 들 수 있다. 여기에 Heath의 주장을 적용한다면 적절한 건축공간의 구성은 형태적 정보에 의한 단위공간의 형태와 체계적 정보에 의한 각 단위공간의 공간조직을 서로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주장이 성립된다. 이러한 주장은 건축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좋은 이미지의 경우를 적용하는 형태구성식의 디자인 과정에 주변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하는 논리를 제공해주며, 도상적인 연결체계, 논리구조를 위주로 접근하는 디자인 과정에는 형태적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범주에서 일반적으로 유용한 카테고리로써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의 분류는 일반적인 카테고리 이상의 심도를 갖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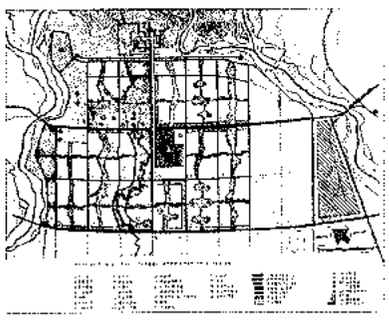


그림 5. 르꼬르뷔제의 찬디가르 도시계획안-도시의 형태속에 통신체계, 녹지체계 등의 여러 가지 체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F. L. Wright의 수많은 주택들에 대해 March & Steadman이 하나의 동일한 dual graph로 분석하고 있고(동일한 체계적 정보), 이들 주택의 거실이나 침실의 구성이 비슷한 크기와 성능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동일한 형태적 정보), Heath의 이론으로는 이 주택들이 전부 같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실제 이들 주택들에서는 서로 다른 공간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은 두 요소로 설명되지 않는 실제 공간에서의 경험을 변화시키는 다른 요소의 존재를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건축설계과정이 두 요소의 결합에 의해 가능하다는 포괄적 정의속에(결합의 무형적인 과정속에) 어떤 다른 과정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Heath로부터 한걸음 나아가 Bonta는 맥락 속의 사물의 의미형성에 대해 체계적(Systematic)인 것과 위치적인(Positional)것을 구분하여 카테고리화 함으로써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상황을 의미와 형태의 구조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건축공간 구성을 위한 인식 범주 확대의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그림 6.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조각(게오르크 콜베)- 그 위치이기 때문에 조각들과 건물은 특별한 값을 갖는다

c. 위치적 공간구성

Bonta는 언어학으로부터 유추한 그의 디자인 이론에 대한 주장에서 형태에 대응되는 의미에, 사전적(lexical)인 것과 구조적(structural)인 것이 있으며, 구조적인 것은 다시 위치적(positional)인 것과 체계적(systematic)인 것이 있다고 구분하고 있다. 그는 사전적인 것은 형태가 갖는 고유의 성질을 기술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Heath의 형태적 정보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체계적 의미에 대하여는 형태를 결정짓는(하나의 독특한 형태라고 인정하는)요인으로써 외부와 관련한 체계라는 것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장기말을 예로 들면서 기사의 말은 왕과 왕비의 말, 졸과 성곽의 말과 연결된 위계라는 체계속에서 크기나 모양의 경중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며, 장기의 말을 만드는 재료, 가격, 세공도 등에 의해서도 기사의 말의 모양과 특성이 정해질 수 있다는 가정에서 고유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논의될 수 있는 체계적 의미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사전적인 것과 체계적인 것은 Heath의 형태적 정보와 체계적 정보에 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전적, 체계적 두 의미는 실제적 상황의 조건을 생각지 않은 내용이다. Bonta는 상황조건을 제시하면서 위치적 의미를 찾아낸다.

즉 장기말이 장기통 속에 뒤섞여 있는 경우에 위치적 의미는 작용하지 않는다. 뒤섞인 장기말은, 예를 들면 졸의 경우, 그 개개의 특성은 사라지며 모두 같은 졸일 뿐이다. 기사나 왕 등의 장기말의 제반 문맥(context:여기서는 체계)을 생각할 때 졸의 존재가 드러날 뿐이다. 그러나 만일 장기말이 장기판 위에 놓여지게 되면, 각각의 장기말은 장기판의 구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각각의 장기말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의해 상대방의 말을 잡아먹을 수도 도피할 수도 방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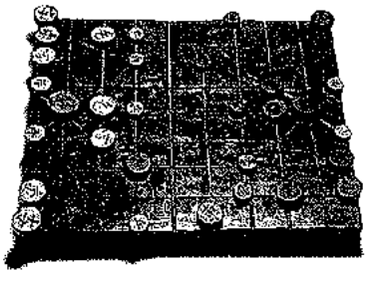


그림 7. 장기판에 놓여있는 졸- 같은 졸이지만 장기판 위에 놓여져 있는 위치에 따라 그 값은 전혀 다르다.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결국 장기 게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똑같은 모양의 졸의 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졸과 구별되기 때문에 위치적 의미가 더욱 중요해 진다. 위치는 실제 상황과 관련된다. 만일 게임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말을 인형처럼 열지어 세워 놓는다면, 그 나열된 순서 또는 나열된 모양에서의 위치에 의해서 그 장기말은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대상물(말)이 다른 대상물(말들)과 새로 설정된 위치관계를 만듦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Wright의 주택들이 같은 실의 성능이나

그림 8. 위치의 의미가 없어 바다에 떠 있는 보트들

그림 9. 위치의 의미로 흥미를 끄는 일본 교트의 돌의 정원

같은 dual graph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간의 체험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개실이 다른 실 또는 외부의 조건(나무, 향, 조망, 교회탑, 바람의 방향…)들과 새로 설정한 위치관계를 맺음으로써 그것이 조건화된 상황의 위치적 의미를 표출해내기 때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적인 상황속에서 대상물과 다른 대상물 사이에 설정된 관계에 관련한 의미, 즉 위치적 의미를 가짐으로써 대상물의 질을 분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전적 의미나 체계적 의미에 우선하여 위치적 의미가 공간분석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또 그러한 시각(범주)으로 보는 것이 사전적, 체계적 의미로 설명되지 않는 실제적 상황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리의 개선문을 예로 들어본다면, 사전적 의미로는 개선문과 그와 다른 것, 건물, 나무, 분수, 오벨리스크, 탑, 도로…등과 구별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체계적 의미는 개선문과 같은 부류를 다른 것과 구별되도록 하는 체계(예를 들면, 도로체계, 용도체계, 스카이라인 등)를 세워 그 체계속에 속하는 것들, 오벨리스크, 탑, 분수… 등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물론 어떠한 다른 체계를 세

워(예를 들면, 돌로 만든 재료의 것 등)그 체계속의 것을 구별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치적 의미는 그 위치(주어진 상황에 맞는 것, 예를 들면 파리에 입성하는 느낌이 강한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은 개선문으로 정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일 것이다. 바로 위치적 의미가 그것을 그곳에 위치하게끔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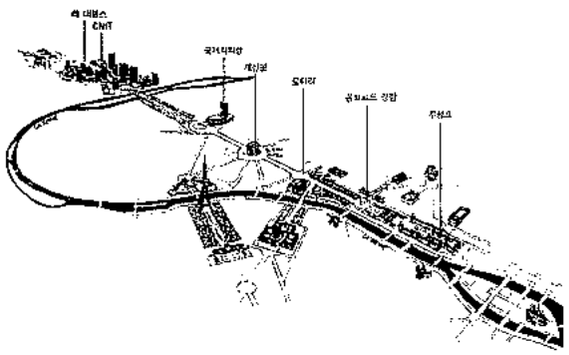


그림 10. 도시의 축을 따라 파리의 개선문으로부터 연결되는 그랑 알슈-그 위치에 그려한 모양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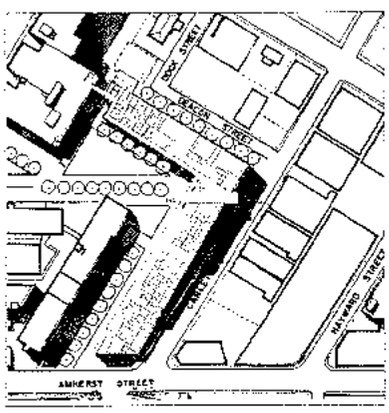
위치적 공간구성을 위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학교에 있어서 각 강의실(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구분 짓는 공간의 한 단위)은 사전적인 의미로써 좌석 수, 면적, 조도, 색상…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것을 결정하고 제공하게 되면 하나의 강의실로서 만족한 구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위 강의실은 학교 건물로서 충족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개가 묶여지고, 또 다른 기능실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때 체계적 의미는 각 실간의 동선관계, 설비체계, 면적크기 관계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즉, 각 실들이 다른 실과 갖는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이것은 bubble diagram 또는 dual graph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그리하여 각 실의 공간의 배분과 조직망이 구성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건축 공간의 구성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Wright의 주택들이 전부 같지 않듯이) 짜여진 장기판 속에서 한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의미를 발휘하는 장기말처럼, 형상을 갖는 평면 속에 실의 위치를 정함으로써, 그리하여 정해진 실의 위치로부터 부여되는 의미를 공간으로 처리함으로써, 건축공간의 구성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동일한 조직에 속하는 강의실들이 정해진 평면형의 중앙, 또는 끝… 등의 위치를 차지하며 놓여지면서 발생되는 의미 그리고 강의실들과 계단이나 화장실, 또는 다른 용도의 실과의 위치관계에서 발생되는 의미에 대해 건축적인 처리를 할 때 비로소 건축공간은 실제적인 상황에 적합한 건축적 구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건축물의 형태적 의미와 체계적 의미, 그리고 위치적 의미를 반영하는 건축물의 구성으로 가는 길이다.

위치적 공간구성은 위치가 정하는 상황판(장기판)을 무엇으로 정하는가의 차이에 따라 구성해야 할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상황판을 정해진 평면으로 놓고 본다면, 공간을 평면형에 위치시키는 문제는 평면속의 위치가 갖는 의미, 평면 속에 실들 간의 관계, 평면내의 다른 요소와의 위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예를 들면 편복도형 아파트에서 중앙에 있는 주호, 끝에 있는 주호, 계단실 옆의 주호는 서로 다른 위치적 의미(느낌)를 갖는다.) 그리하여 어떤 실의 특정 위치에의 배열을 요구할 것이다.(그리하여 선호하는 위치의 주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배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면내의 위치적 의미를 고려하여 평면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선호하는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면, 선호하는 위치의 다른 주호를 모색할 것이다. 건축가라면 그것이 선호하는 위치가 될 수 있도록 평면형을 바꾸거나 어떤 장치를 강구할 것이다.) 이것이 평면속의 개실이라는 위치적 의미를 고려한 공간구성일 것이다.

또 조직된 공간을 대지 위라는 상황판에 위치시키는 경우에는 대지와의 관계, 주변 건물과의 관계, 주변 환경조건 등이 위치적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떤 실의 특정위치에의 배열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배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평면형상의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대지속의 건물이라는 위치적 의미를 고려한 공간구성일 것이다.

이러한 공간구성의 층차적 단계는 지역, 도시로부터 대지, 건물평면, 개실평면…등에 이르기까지 위치를 정하는 상황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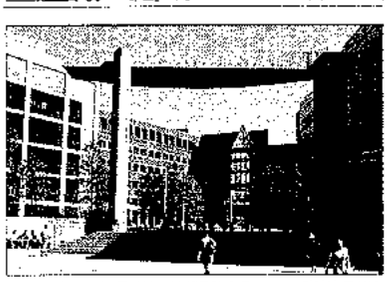


그림 12. 지오클리의 MIT 생물학 연구소 – 그 위치의 특성에 맞도록 건물이 조정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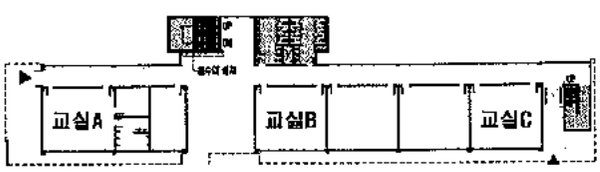


그림 11.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교실의 의미(출입구앞 교실, 화장실앞 교실, 복도끝의 교실)

그림 12는 MIT에 있는 Giurgola가 설계한 생물학 연구소 건물이다. 6층의 ㄱ자형의 단조로운 건물이지만 이 건물이 유명한 이유는 MIT 의 보행축과 전철역(kendall)을 잇는 보행로를 연결하기 위해 건물을 관통하는 통로를 살렸다는 점이다. 6층까지 open된 공간으로 시각적 초점을 이루며 설치된 아트리움형 통로는 건물과 통로의 축이 직교하지 않는다. 즉 외부에서 오는 통로의 축이 건물의 축과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관통하게 되어있다. 건물은 캠퍼스의 대지축에 맞춰 세워지고 건물밖의 통로가 건물을 직접 관통하게 만들면서 내부공간을 꾸민 것이다. 일반적인 건물이라면 일상적인 건물축과 통로패턴에 의해 형성되겠지만 이 건물은 그 위치(전철역과 캠퍼스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놓여져 있음으로 해서 그 의미를 살려 건물을 구성한 것이다.

일건에서 설계한 대덕 연구단지내의 '기초과학연구 지원센터'의 프로젝트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위치관계는 보다 명확하다. 이 시설은 연구와 지원기능의 복합시설이다. 지원기능의 연구 지원동과 연구부분의 연구동, 그 둘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과제의 중요한 목표이었다. 결국 그림 13과 같은 배치안이 최종안으로 선택되어졌다. 지원동과 연구동이 전면 주진입상에서 양쪽으로 대등하게 배열된다. 연구동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각자 독립된 이미지로서 보여질 수 있도록 형태화되었고, 원형으로 배치되어 상징적으로 중심 지원 시설로의 연관성을 표현한다. 최종안은 실제 다르게 지어지기는 하였으나 초기의 개념은 유지되었고, 건물의 세부적인 디자인에까지 영향을 주어 위치의 문제가 단순한 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원동과 연구동은 동일한 층수에 비슷한 건물길이로서 중심축으로부터 양쪽으로 동등하게 분할된 모습이지만, 연구동은 건물의 규모면에서 지원동에 비해 커, 전면 진입시 투시도 효과에 의해 연구동의 느낌이 우세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이러한 상대적 불균형을 막기 위해 건물의 재료와 창구성이 보완되었으며, 이는 실제로 두 건물의 위계의 형평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 진입시 건물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건물의 정면성이 상실되고 허전한 느낌을 줄 수도 있으나, 오히려 허공과 비어진 대지가 주요한 시각적 장면이 됨으로서 주변건물들을 통합하는데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는 허허벌판과 같은 원래의 대지와 나중에 지어진 건물들을 일체화 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많은 건물들이 자기중심적으로 건축되어 주변건물이나 대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배치는 위치에 맞도록 형성된 건물들의 관계에 하나의 답을 제안하였다고 생각된다.

인간의 삶의 가치를 다루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의 위치적 의미는 색다르다. 그림 15는 각국의 법정 평면도이다. 판사석과 피고, 변호인석, 기소자석, 배심원석 그리고 서기와 관종석은 기본적인 공간관계로서 법정안에 배치되지만 그들의 각각의 위치에 의해 형성되는 시선의 문제와 누구와 누구를 가깝게 위치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미묘하다. 공산국가의 법정에서 피고가 매우 삭막하게 자리하는 한편, 제네바의 법정은 증언대의 위치가 직접적이다.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정의 구성은 매우 정교해야 할 것 같다. 위치상으로 편파적이지 않아야 하며 공정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간의 위치적 의미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치적 공간구성이 우리의 생활속에서 특히 많이 경험되면서도,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또는 그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공간구성의 인식범주라 생각하며, 위치적이라는 것을 실제적인 평면상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이용에 있어서 마치 게임을 살아가는 인간을 보듯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건축공간의 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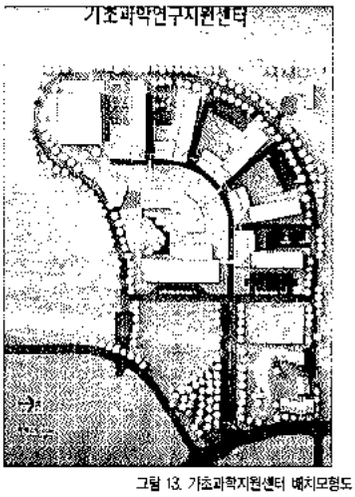


그림 13. 기초과학지원센터 배치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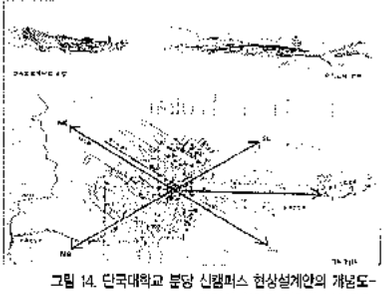


그림 14. 단국대학교 분당 신캠퍼스 현상설계안의 개념도-공간의 위치적 의미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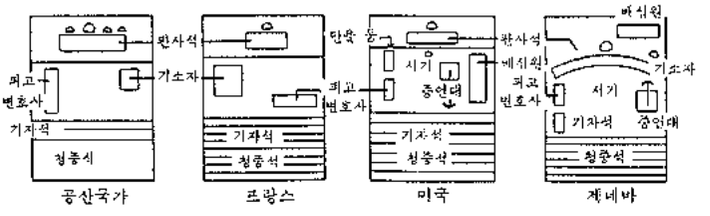


그림 15. 각국의 법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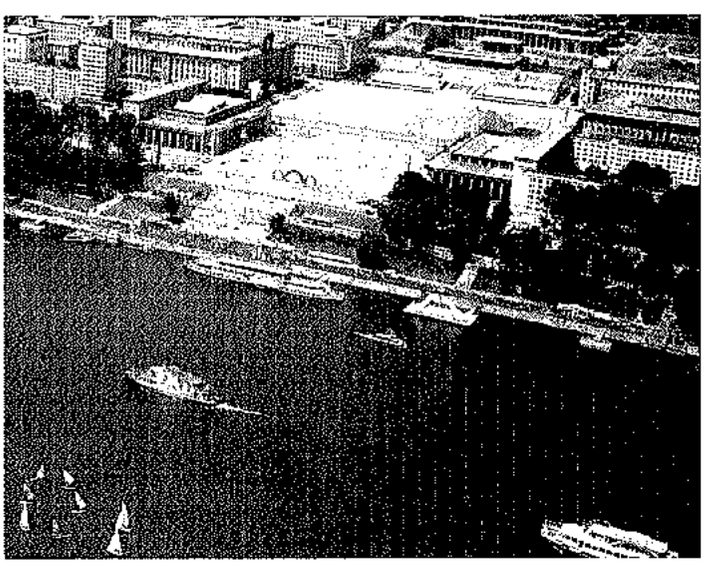
안 길 원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by Ahn Kil Won

평양 방문기 - 02

A Visit to Pyeong-yang

우리 협회 이세훈 회장과 안길원 전임이사 ((주)무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회장)가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식에 참석하고자 2003. 10. 6. ~ 10. 9.까지 3박 4일간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을 둘러보고 돌아왔다.

그동안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일부 소개된 바는 있으나 북한의 건축이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평양 방문기를 통해 북한 건축을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대동강변의 김일성 광장

10월 07일(둘째날)

아침 07시에 일어나 평양시내와 대동강변을 바라보는 전경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모란봉에서 본 평양시내 전경

호텔 22층에서 바라보는 아침의 전경은 일품이었다.

1,000여명의 일행이 몇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아침식사를 하고 8시 20분 평양 시내관광 첫번째인 민속공예 전시관에 들렀다. 이북인민들의 민속공예품들과 전통주류와 일차상품인 산나물, 개성 인삼제품 그리고 북측의 전경이나 평양시내의 전경을 담은 책자가 전부였으며 상품의 수준이 우리나라 70년대 초의 시대를 다시 보는 느낌이었다.

다음은 모란봉에서 대동강을 건너 평양시내를 조망할 수 있었으며 모란봉 정상의 「을밀대」는 역사적으로 가치 있게 잘 보존되어 있었고 평양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오늘도 화가 지망생 및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으며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을밀대

김일성 광장과 인민대 학습당

모란봉의 유치원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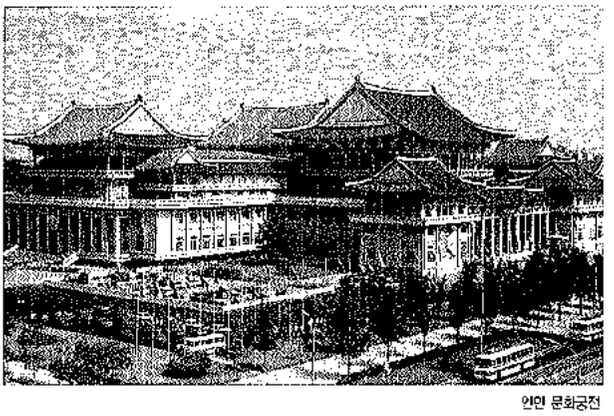
모란각에 들려 모란봉의 역사와 이야기를 안내원에게 들으며 언제나 개방되어 남측의 사람들이 관광 여행 할 수 있을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아쉬워 했다.

모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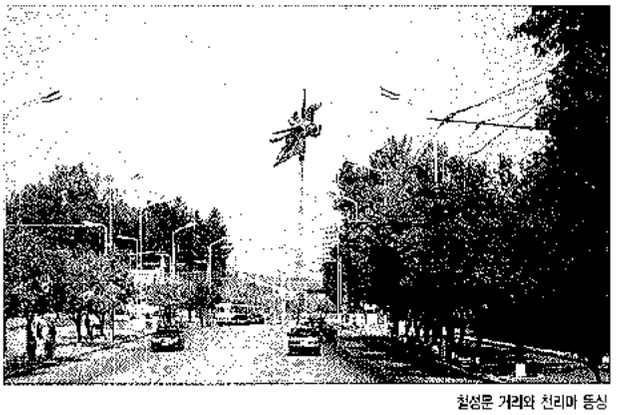
김일성의 나이 70세를 기념하여 1982. 4. 15일 건립된 개선문은 항일 승전기념으로 건립되어 평양의 명소로 잘 가꾸고 관리하고 있었다.

개선문

김일성이 탄생하였다는 만경대에는 김일성 일가가 5대째 살았다고 한다.



인민 문화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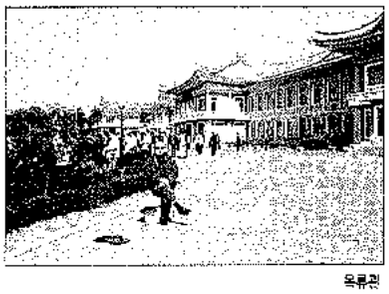


칠성문 거리와 천리마 동상

만가지의 경치를 볼 수 있다하여 만경대라 하였고 1912년 4월15일 김일성이 탄생하여 1925년 김일성 나이 14세에 집을 나와 만주 등지에서 독립투사로 활동하다가 1945년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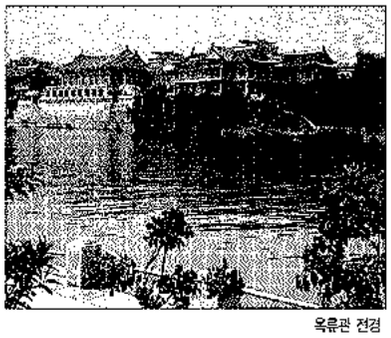
만경대 생가

세때 다시 만경대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며, 옛날 모습 그대로 잘 정돈되어 있었고, 인민들의 견학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중식은 평양에서 유명한 대동강변의 옥류관에서 녹두지지미(빈대떡)와 칠면조 수육과 냉면으로 가볍게 하였다.



옥류관

대동강변에 위치한 옥류관은 한옥건축 양식으로 1,000여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2층 식당으로 경치가 수려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옥류관 전면 대동강변에 반월도라는 섬이 있었고 그 섬에 51 경기장 등이 있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다.



옥류관 전경

개선문

대동강변 옥류교

건너편에 김일성 사상주체탑과 옥류교가 대동강을 가로질러 잘 정돈되어 있었다.

조선 TV방송탑(1916년 건립)

중식후 류경 체육관에서 체육관 개관을 축하 하는 남·북 친선 농구경기가 있어 우리

김일성 경기장과 릉라도 5월1일 경기장 원경

일행은 류경 체육관에서 여자농구 경기를 관람하고 이어 남자농구 경기를 관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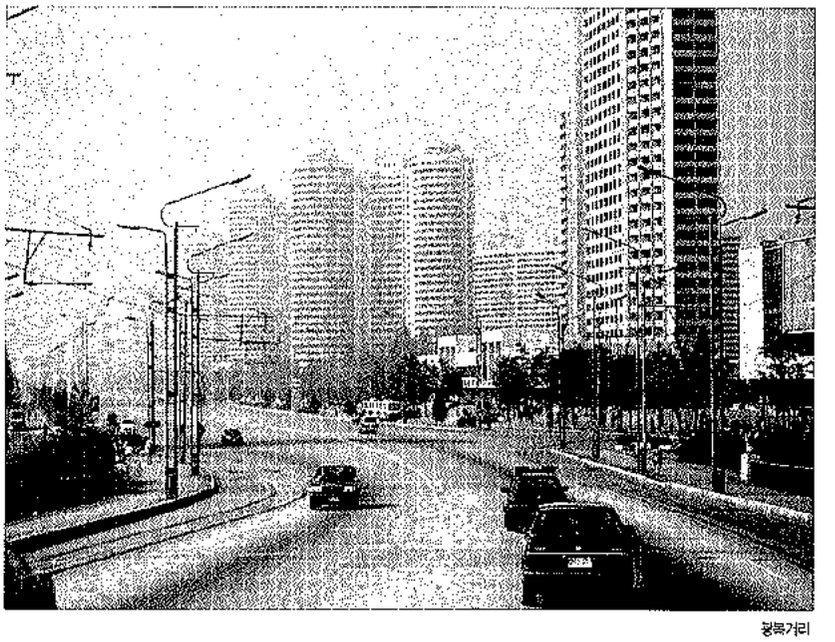
북측의 인민들도 많이 참석하여 12,000석이 만원이었고 경기중 양 팀의 응원과 함께 친선 경기인 만큼 남·북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다. 경기결과는 여자는 남측이 이기고 남자는 북측이 승리하였다.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에서 남녀가 하나 되어 30여분가량의 음악과 함께 남·북 남녀가 하나 되어 가벼운 율동과 춤을 추며 체육관 개관축제를 만끽하였다.

보통강변의 류경 체육관 개관기념 불꽃놀이를 구경하면서 평양하늘의 아름다운 불꽃이 무엇을 뜻하며 이렇게 성대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한 금번 행사의 주인공인 작고한 정주영 회장의 큰 뜻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다.

금일 저녁은 현대아산에서 첫째 날의 답례로 우리일행과 함께 하였다.

류경 체육관 실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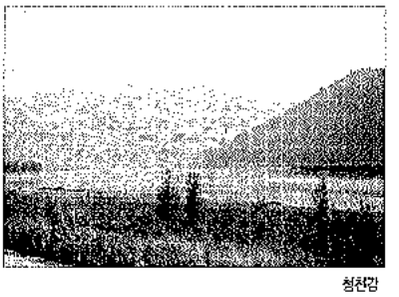
평북거리

10월 08일 (셋째날)

오늘은 각 조마다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을 신청하여 관광을 하는 날이다. 필자는 묘향산을 가기로 하여 아침 09시 묘향산을 관광하는 일행들과 평양에서 145km정도 거리에 있는 묘향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가는 거리의 풍경이나 평양시내의 거리들이 생소한 것뿐이어서 이곳의 정취나 인민들의 생활상이 궁금하여 차를 타면 눈은 항상 차창 너머로 두리번거리게 된다.

묘향산은 이곳에서는 향산 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으며 명산인 만큼 가는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었고, 청천강을 따라 묘향산 어귀에 들어 섰을때 명산답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청천강

묘향산 입구에 깨끗하게 잘 지어진 묘향산 호텔 2층에서 이곳 지방에서 자라는 민물고기와 버섯으로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김정일 국제친선 관람관과 김일성 국제친선 관람관을 인내원들의 열렬한 소개로 2시간정도 관람하였다.

묘향산 호텔

국제친선 관람관이란 김일성 부자를 상면하기 위하여 이북을 찾아오거나 두 부자의 생일이나 국가 경축일에 단체, 개인 또는 국가차원에서 선물한 모든 물건을 일목요연하게 연도별로 정리하여 지하에 큰 전시관을 만들어 전시하고 인민들이나 관광객에게 보여주며 김일성 부자의 위대한 지도력을 숭배하게 만드는 관람의 장소로 이용하는 곳이었다.

김일성 국제친선 관람관

이곳에는 남측에서 이북을 방문한 사람들의 선물이 별도로 전시되는 남측 전람실이 따로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이곳을 관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북에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김정일 국제 친선 관람관

묘향산에서 잘 보존되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삼배하고 보현사 주지스님과 함께 대웅전 앞의 탑돌이를 하면서 우리일행이 무사히 돌아가고 국가의 번영과 남북이 하루속히 통일되기를 기원하였다. 불심이 가득한 집사람과 같이 동행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고 동행한 이호웅 의원과 함께 경내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묘향산 보현사에서 사진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이 이번 평양 방문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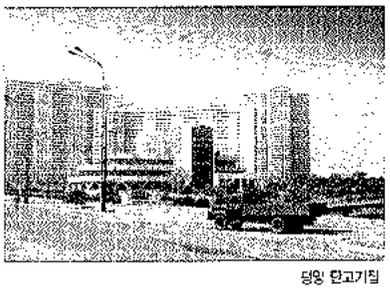
보현사 대웅전

묘향산 관광을 끝내고 북한의 어린 소년들의 요람인 만경대 소년학생 궁전으로 이동하여 어린이들의 취미나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는 어린 학생들을 돌아보고 공연장에서 우리일행 전체가 참석하여 1시간반 동안 여린 학생들의 동요 및 무용 등 어린이들의 여러 가지 공연을 감명 깊게 보았다. 평양에서 선발된 어린이들이 이곳 소년학생궁전에 와서 특별지도를 받아 미래의 북한 예체능계의 지도자로 육성하는 곳이 바로 만경대 소년학생 궁전이었다.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

평양에서는 철저하게 안내하는 곳 외엔 갈 수가 없고 모든 일정자체가 우리 일행과는 관계없이 이곳 북측의 계획대로 짜여있었으며, 평양시내의 뒷골목 같은 생활상을 볼 수 없어 많은 아쉬움이 있어 호텔에서 제공하는 저녁을 사양하고 평양 단고기를 먹자고 이틀 전부터 주문하여 오늘 저녁은 희망하는 사람을 모아 평양 단고기 집에 가서 평양의 밤거리도 보고 평양의 보통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어렵게 허락을 받아 평양 단고기 식당으로 갔으나 역시 철저하게 준비된 장소였고 아미 많은 안내원이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리 준비된 평양 단고기는 정말 일품이었다.

이호웅 의원과 함께한 테이블에서 평양소주와 함께한 저녁식사는 생애 몇 번안되는 멋진 만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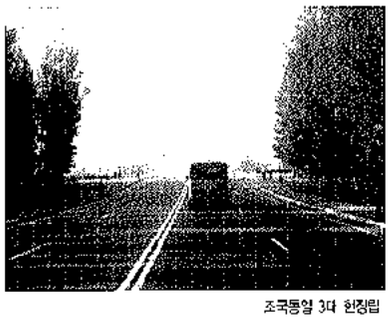

당왕 단고기집

창광거리

10월 09일(마지막날)

평양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아침식사와 함께 돌아오는 날이라 아침식사는 평소와 같이 호텔 1층 식당에서 부페식으로 자유롭게 하였다. 환송행사는 미인들로 구성된 취주악단과 호텔 전 종업원이 주차장 광장에 나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어 열렬하게 헤어짐을 아쉬워하였다.

그네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버스는 평양시내를 거쳐 개성으로 출발을 하였다. 평양으로 달려왔던 고속도로 평양 어귀에 조국통일 3대 헌장탑이 통일을 향해 서있다고 동승한 통시권 안내원 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일행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조국통일 3대 헌장탑

11시경 고려태조 왕건능에 도착하여 개성의 송학산 자락에 고려국을 창건하고 후일 3국을 통일하는 대과업을 이룩한 고려국의 태조 왕건능은 잘 복원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고려태조 왕건능

단군 5000년 역사에서 국운이 가장 왕성했던 고려 태조의 업적을 북한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왕건능을 잘 보존하면서 관람과 교육의 장으로 잘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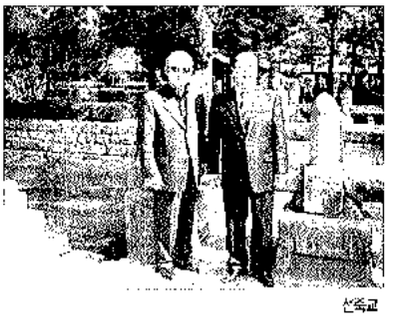
고려 박물관

개성이 고려시대 가장 융성했고 큰 도시로 발전하여 한때 70만 인구가 살았다고 고려박물관에서 안내원의 설명과 함께 옛날 고려시대 개성지도를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으며 고려시대 여러 가지 유물과 문물들을 역사기록으로 전시하는 고려박물관은 성균관에서 유생들을 교육시키던 곳을 개조하여 박물관으로 쓰고 있으며 옛날건물은 6.25때 폐허가 되었으나 박물관 입구에는 1,000년이 넘는 은행나무 및 느티나무가 그대로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아주 건강하게 고려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었다.

이곳 고려박물관 경내에서 곽밥(도시락)으로 중식을 하며 개성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었다.

고려 박물관내 은행나무 (수령 1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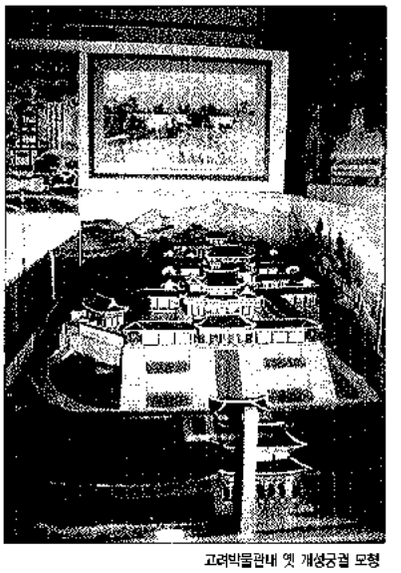
조선왕조시대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살해된 선죽교는 하폭이 5m 정도이고 수심이 50m 정도였으며 다리상판 화강석에 약간의 붉은 부분이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 살해될 때 흘린피가 그대로 돌에 배여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화강석에 붉은 끼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선죽교

이것을 마지막으로 3박4일의 평양 관람을 마치고 다시 개성시내를 돌아 북측의 군사분계선에서 출국심사를 받기 위하여 일행 모두가 하차하여 각 조별로 간단한 확인과 함께 모든 이북방문 일정이 끝나고 남측에서 온 버스를 타고 비무장 지대를 지나 남측 군사분계선에 도착하자 육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하는 현대건설 노무자들의 따뜻한 환영인사를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도라산 출입국 관리소에서 입국심사를 받았다.

북측에서 구입한 서적이나 CD 또는 유인물이 혹시 반입될 것 같아 가방을 모두 개방하여 정밀검사를 하였다. 이제 공식 절차와 일정이 끝나고 자유로를 따라 현대아산 사옥에 도착하여 해산을 하였다.



고려박물관내 옛 개성궁궐 모형

현대 아산만이 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북측의 실상과 체제를 약간이나마 엿볼 수가 있었고, 고향을 지척에 두고 갈 수는 없었으나 황해도 사리원 입구를 통하여 평양을 갔다 오면서 이곳에서 20km정도면 내 고향 장연에 갈 수도 있구나 하는 설레이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번과 같은 민간주도의 상호방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질화된 문화나 생활습성을 점진적으로 순화시키는 계기가 자주 있어야 하겠다. 50년이 지나면서 문화와 언어의 밑 부분까지 이질화된 동족의 통합은 시간을 가지고 차츰 해결할 문제인 것 같다. 성급한 통일이나 통합은 잘못하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결과와 함께 치유하기 힘든 동족의 비극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절제하고 성숙하게 남북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통일을 위한 준비는 국가적 차원에서 서두르지 말고 언젠가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한번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을 축하드리며 고 정주영 회장 영전에 고인의 큰 뜻을 국민과 함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민 승 열
(주)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by Min Seung - Ryeol

고귀한 삶이 용솟음치는 「요한의 집」

"House of St. John" - A Place of Noble Life

올해는 창업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완성된 건축물과 뜻을 이루지 못한 습작들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프로젝트를 접하면서 많은 정열과 시간을 투자한 작품들에 대해 큰 애착을 느낄 수 있었다. 초기 설정한 계획 목표대로 이용자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작품들은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 하나 있다. 천주교 인보회에서 운영하는 뇌성마비 장애아동의 재활시설인 「요한의 집」이다.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삼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50명 아동들이 10여명의 수녀님들과 30여명의 작원들의 도움을 받아 재활을 위한 힘찬 삶을 살고 있다.

어린 시절 필자는 소꿉놀이를 좋아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때 함께 놀던 친구들이 보고 싶어진다. 어릴 적 동심의 세계가 무척이나 그립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교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50이 넘어버린 건축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어린이들을 보면 귀여워서 말을 붙이고 나이를 묻고 장난치기를 좋아한다.

평소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은 터에 1990년 박병윤 신부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때 뇌성마비 장애 아동들과 노인들을 동시에 보살피는 사업계획이 추진된 것이다. 「요한의 집」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뇌성마비 장애 아동들을 가진 부모들의 나이는 젊지만 장애 아동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없고, 장애 아동은 감추어진 상태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불운을 겪는다.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날로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사회로 빠르게 변하면서 자식들과 부모 사이에 생기는 갈등은 커지기만 한다. 해결 방안으로 평신도는 뇌성마비 장애자관과 양로원을 건립하고, 성직자와 수도자가 장애 아동들과 노부모를 맡고, 어려움이 해결된 가정의 부모들은 열심히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환상적인 사업 계획이었다. 장애아동들은 장애자관에, 노부모님은 양로원에 모시어 부모와 가정을 떠난 뇌성마비 장애 아동들은 수도자의 도움을 받아 재활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노부모님들은 장애 아동들을 돌 볼 일감을 받고 동시에 자식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부모를 떠난 아동들은 부모의 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노부모님들은 여생을 봉사하면서 뜻깊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서울 봉천동 소재 삼육 재활원 시설을 견학하였다. 그 날 비뚤어지고 꼬여진 불쌍한 장애 아동들의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기억이 난다. 귀여워 해주던 보통 아동들과 비교해 보면 비참하고 불쌍하여 가슴이 떨리기까지 하였다. 그때 필자에게 용기와 희망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주저 없이 뇌성마비 장애 아동들을 위해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바치게 해 달라고 간구했고 하느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많은 관심과 연구만이 프로젝트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였다.

장애 아동들이 왜 태어날까? 원인은 수없이 많아 구체적으로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쾌락위주의 무절제한 생활과 부주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동들은 아무 의지도 없이 우리의 잘못으로 태어난 것이다.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하여 치르고 있다. 개인적 성향과 신앙이 결부되어 장애 아동들을 더욱 사랑하고 예뻐하게 되었고, 아동들을 위해 할 일들을 정리하였다. 나 자신부터 새로이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작품에 임하는 자세도 달리 가져 주도록 주지시켰다. 신부님의 강론 말씀 중 우리가 그 장애 아동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말씀을 명심하면서 살고 있다. 몇 가지 결심을 했다. 계획 목표라고 해도 좋을 성싶다.

첫째, 유럽지역 등 선진시설을 방문 후 설계를 하자. 국내 사례만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사회 복지 국가들의 사례를 둘러본 결과 정말 훌륭한 기능을 가진 건축물이었다. 일인당 소유 면적이 평균 20여 평이 되었다.

둘째, 수용이 아니라 재활을 위한 시설로 설계를 하자. 일반적 시설은 아동들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용은 정말 문제가 있다. 희망이 없이 그냥 목숨만 연명하는 밥만 얻어먹고 지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설계 및 감리는 봉사하자. 어려운 문제였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무실인데 설계와 감리를 봉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것으로 채워 주시겠지 라는 우둔한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결과는 정말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은 것을 채워 주심을 경험하였다.

넷째, 완공 후 시설 관리는 물론 재활의 성능은 나의 책임이다. 준공 후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갈까 궁금했다. 모든 것이 나의 책임임을 느껴야지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 같았다.

다섯째,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아이들 옆에 있자. 많은 인력과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한다. 후원자도 모집하고 아동들과 함께 살기로 하였다.

설정한 계획 목표대로 최선을 다한 「요한의 집」은 1994년에 완성되었다. 가정을 박탈당한 아이들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고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5세미만의 아기들을 위한 환경으로 시작하였다. 수용이 아닌 재활을 위한 시설인 만큼 여러 가지 시설들이 화려해 보이기까지 했다. 연면적이 1,500여 평으로 건립되었고, 수도자들의 깔끔한 생활로 인해 정리정돈이 잘된 집이다 보니 부족함이 없는 집으로 오해를 받는다.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은 남루하고 추한 곳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다. 어려운 모습이 보여야만이 굳어진 마음들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곤 하는가 보다. 그러나 재활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는 시설은 타 시설보다 훌륭하여야 하고 운영 경비도 많이 들어야만 한다. 인력도 많아야 하고 눈물겹도록 힘이 드는 것이다. 오히려 수용은 쉽다고 생각한다. 재활을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를 모금운동의 일부분으로 시작했다. 관심을 가진 가정과 장애 아동들과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다. 막연히 후원금만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한가정과 한 아이를 영성적으로 맺어주고, 그 아동을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것이다. 처음 맺어진 아동들을 지금도 계속 돌보는 가정이 많이 있다. 그동안 수녀님들과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재활의 의지로 아동들에게는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가정적인 건축물과 수용을 위한 건축물

홀 형태의 건축물로서 많은 베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지만 한 명이라도 가정의 중요성을 배려한 것이 좋았던 것 같다. 그러나 아동이 성장한 후의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아동들이 자라면서 행동반경이 넓어지다 보니 홀 부분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바닥 난방이 되어 있지 않아 거실과의 온도 차이에 의해 겨울에 감기가 많이 걸린다고 한다. 난방비 절약을 요구했을 때 좀 더 강력히 부인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혼자 휠체어도 타고

경사로와 핸드레일의 설치여부가 쟁점이

었다. 뇌성 마비 장애아동들이 어떻게 일어설 것이냐에 주안점을 두고 수직 동선은 엘리베이터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많은 면적과 공사비 증가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훌륭한 치료 도구임을 감안하여 설득하였다. 그러나 경사로 바닥에 난방 설치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난방 손실이 크다는 이유였는데 바닥 난방이 되어 있으면 더 좋은 치료 기구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절간처럼 조용하던 곳이 언어치료 결과 동대문 시장을 방불케 하고

방음을 소홀히 한 점이 아쉽다. 항상 말을 못하고 조용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함지르고 대화하고 노래까지 부를 줄이야.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고

물론 거실이 있고 방이 있기는 하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줄이야 기대 이상이었다. 또한 개인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준비가 안 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 치료 공간이 그렇게 중요할 줄이야

장애 아동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수 치료 공간이 있어서 잘 사용하여 왔지만 이제는 아동들이 수영도 하게 되었다. 조그만 수영장을 다시 만들어 수 치료와 겸용하고 있다. 물론 기존 수 치료 공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요한의 집」에 대자 2명이 있다. 그 중 양태권이라는 7살 아동이 있다. 지능은 좋지만 뇌성마비로 인해 걷기가 무척 어려운 아이다. 그러나 수녀님들의 보살핌으로 요사이 일어나기와 걷기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 무척 똑똑한 아이다. 그 아이는 날 보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전화도 자주 한다. 어느 날 그 아이와 대중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경험을 했다. 필자는 아버지와 같이 목욕탕에 가 본 경험이 없었고, 딸만 있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대중목욕탕에 가 본 경험도 없다. 태권이가 필자를 도와 준 것이다. 태권이 등을 밀어 주고 내 등을 밀어달라고 했다. 거울에 비친 태권이의 얼굴은 그야말로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었다.

어느 날 수녀님께 온 메일을 열어 보니 태권이가 보낸 메일이었다. 컴퓨터 부팅 시켜준 것과 메일 전송 이외에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 태권이가 메일을 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날 얼마나 보고 싶어할까!

「요한의 집」 아동들은 이처럼 많은 재활을 가져왔다. 보람이 크다.

10년 동안 경험해온 운영자들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고 싶다고 한다. 노후 된 일부시설은 보수해야 하고, 사춘기로 성장한 아이들을 위한 사적공간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한다. 자립생활이 가능한 아동들에게는 기능적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에 맞는 생활보조기구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바자회도 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도와준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한다.

그때처럼 용기와 희망이 다시 솟구치기 시작했다. 「요한의 집」 기능 보강을 위해 도와 달라고 나서고 싶다. 너무 고급스러운 집이라고 등을 돌리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한다. 재활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보강하여야 한다.

그동안 고귀한 인연으로 몸담아 봉사를 해오면서 많은 고심 끝에 용기를 내었다. 더 훌륭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보기 위하여 건축사로서 해야 할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싶다.

조용히 눈을 감는다.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 보고 싶다. 圖

요한의 집

이 관 영
(주)한일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 - Young

「설계보수대가기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Applying Fee Standards

머릿말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9일자로,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참고자료로서 건교부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을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 · 도에 통보하였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상설계비 산정기준으로 사용해오던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참고자료」와 건설교통부 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이 서로 달라, 설계보수요율 적용에 혼선을 빚어왔을 뿐 아니라, 건축사들로서는 적정한 설계비를 청구할 근거가 없어 성실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나아가서는 설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조차 불가능하였던 실정이었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필자가 실무에서 경험한 고충을 해소하고자, 관계부처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꾸준한 호소와 건의가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즉 문화재 실측설계를 겸하고 있는 필자는 지자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설계보수대가기준이 「건설교통부 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써 성실한 문화재 보존업무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참고자료」에 「건설교통부 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을 채택하여 줄 것을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해 왔던 바, 드

디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설교통부 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을 예산편성지침의 참고자료로서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그간 협회차원에서도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참고자료를 건교부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오던 중이었으므로 이번 조치로 사실상 협회의 요구가 관철된 셈이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설계비의 현실화에 보다 가까이 함으로써 더욱 성실하게 용역업무수행에 임할 것과 설계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건축문화창달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오 또한 새로워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설계비 제값받기운동」과 관련한 일부 시도건축사회의 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에, 이 기회를 빌어서 「설계보수대가기준」의 운용방식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업무보수대가의 변천

최초의 건축사 업무 및 대가 기준은 1963년 제정된 건축사법 제 26조에 의거 건설부가 정한 「건축사 업무 및 보수대가기준」으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사용되어 오던 중,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법)에 해당된다하여 건축사법 제26조가 삭제됨과 동시에 「건축사 업무 및 보수대가기준」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건축사 업무 및 보수대가기준」의 폐지는 비단 「보수대가기준」의 폐지에 그치지 않고, 기준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보수대가에 상응하는 성과물(설계도서)의 종류와 범위까지 함께 폐지되는 결과가 되어, 건축사 업역의 위축은 물론, 성과물의 질량을 가름하기도 어려워졌다.

「건축사 업무 및 보수대가기준」이 폐지됨으로써,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예상설계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의 부재로 적정한 예산추정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건축사가 제시한 설계비의 다과를 비교할 기준이 없어 우선은 손쉽게 최저가격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설계비 덤핑과 그에 따른 설계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됨으로써 급기야 고객의 신뢰를 잃고 마는 악순환이 거듭되게 되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단체의 경우 예산편성기준이 될 「건축사 업무 및 보수대가기준」이 없어 행정자치부가 별도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왔으나, 적정한 대가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혹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설계비를 지불하려해도 설계비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없어 설계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업무에 대한 보수도 일반시장원리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혹은 결과물의 성과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하겠으나, 일반 상품과 달리 업무의 범위와 성과물의 질량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특히 건물의 규모와 기능이 복잡해질수록 설계자와 발주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업무보수를 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처럼 「건축사 업무 및 보수대가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요구에 따라 부득이 건축사법을 개정, 제26조를 부활하여 건설교통부가 정한 「건축사 업무 및 보수대가기준」이 공고되었다.

건축사법에서 「건축사 업무 및 보수대가기준」을 건설교통부가 제정·공고하도록 한 것은 대한건축사협회와 같은 건축사 관련 단체에서 보수대가 기준을 정하면 그 요율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객관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고, 나아가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우려마저 있기 때문에 정부기구로 하여금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보수대가의 운용

「건축사 업무 및 보수대가기준」은 건물의 종류와 공사비에 따른 설계비요율 뿐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성과물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명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요율이 고정된 「정가」가 아니라 발주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성과물의 질량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설계비도 함께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사 업무 및 보수대가기준」은 일반 「관허요금」과 다르다. 대부분의 「관허요금」은 국가경제안정을 위하여 「정가 혹은 가격의 상한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건축사 업무 및 보수대가기준」에선 기준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설계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똑같은 계약조건에 의한 업무라 해도 각 사무소의 기술력과 경영능력에 따라 업무보수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규모와 종류의 건물이라도 계약조건에 명시한 성과물의 질량에 따라 설계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업무보수의 결정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건축사 업무 및 보수대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대신 계약조건을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함으로써 정해진 업무보수에 상응하는 업무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정해진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보수를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시한 업무보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사 업무 및 보수대가기준」은

훌륭한 비교기준이 될 수 있다.

요즈음 물의가 되고 있는 설계비 덤핑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즉 「덤핑설계」라고 의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기준에 제시된 요율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터무니 없는 「저가수주」가 확실하다면, 「덤핑설계」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설계비 덤핑」은 필연적으로 설계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실한 건축으로 이어지므로 결국은 설계자와 발주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건축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우리들 스스로의 장래를 위하여서도 「설계비 덤핑」의 유혹은 단연코 뿌리쳐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설계비 덤핑」을 막기위하여 일방적으로 「건축사 업무 및 보수대가기준」의 준수를 강제하거나, 집단적으로 결의를 하는 것은 「건축사 업무 및 보수대가기준」의 의의에도 어긋날 뿐 더러 공정거래법상의 독점규제 및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업무보수를 정하는 데는 설계자(건축사)의 이익뿐 아니라 소비자(발주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맺는말

모처럼 「건축사 업무 및 보수대가기준」이 부활되었고, 나아가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참고자료로서 건교부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을 반영하기로 한 이 시점에서, 아무쪼록 기준의 운용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마찰이 없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첨 부]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 %)

종별 / 도서의 양 / 공사비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전통건축양식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11.83	9.86	7.88	10.75	8.96	7.17	9.68	8.06	6.45	14.79
1억원	11.11	9.26	7.41	10.10	8.42	6.74	9.09	7.58	6.06	13.89
2억원	8.87	7.39	5.91	8.06	6.72	5.38	7.26	6.05	4.84	11.08
3억원	8.09	6.74	5.39	7.36	6.13	4.90	6.62	5.52	4.41	10.11
5억원	7.58	6.31	5.05	6.89	5.74	4.59	6.20	5.17	4.13	9.46
10억원	6.48	5.40	4.32	5.89	4.91	3.93	5.30	4.42	3.54	8.10
20억원	5.97	4.97	3.98	5.42	4.52	3.62	4.88	4.07	3.25	7.45
30억원	5.76	4.80	3.84	5.23	4.36	3.49	4.71	3.92	3.14	7.20
50억원	5.65	4.71	3.77	5.14	4.28	3.42	4.62	3.85	3.08	7.06
100억원	5.50	4.59	3.67	5.00	4.17	3.34	4.50	3.75	3.00	6.88
200억원	5.33	4.44	3.56	4.85	4.04	3.23	4.36	3.64	2.91	6.66
300억원	5.29	4.41	3.53	4.81	4.01	3.21	4.33	3.61	2.89	6.61
500억원	5.19	4.32	3.46	4.72	3.93	3.14	4.24	3.54	2.83	6.48
1000억원	5.10	4.25	3.40	4.63	3.86	3.09	4.17	3.47	2.78	6.37
2000억원	5.03	4.19	3.35	4.57	3.81	3.05	4.11	3.43	2.74	6.28
3000억원	4.95	4.13	3.30	4.50	3.75	3.00	4.05	3.38	2.70	6.19
5000억원	4.88	4.07	3.26	4.44	3.70	2.96	4.00	3.33	2.66	6.10

주 :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협회소식_ kira news

2004년도 시·도 건축사회 정기총회

본 협회 16개 시·도 건축사회의 정기총회가 지난 3월 12일 경북건축사회를 필두로 개최되어 200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안)승인, 신임임원 선출 등 주요안건을 의결, 처리하였다. 각 건축사회별 총회 부의안건사항 주요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4. 3. 24(수)
* 개최장소 : 협회 대강당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075명 중 473명 참석
* 의결내용
  - 2003년도 수지결산서(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대의원 개선의 건
    - 개선대상 대의원의 25%는 집행부에서 75%는 지역건축사회에서 선출키로 결의함
  - 임원개선의 건
    - 간사 : 강희달, 김윤, 문숙경, 박찬정, 방인대, 신춘규, 이상영, 전재우
    - 감사 : 조충기
  - 기타사항
    - 회관지분확보 특별대책위원회에 본 협회와의 회관대지지분 협상, 소송 등의 모든 권한을 위임키로 결의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4. 3. 25(목)
* 개최장소 :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 참석인원 : 재적회원 755명 중 311명 참석
* 의결내용
  -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의적립금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대의원제 도입의 건
    - 부결
  - 임원선출(간사 6인, 감사 1인)의 건
    - 간사 6인 : 간사6인에서 7인으로 안을 변경함과 아울러 당해 간사1인에 대한 보선을 포함하여 회장 당선자에게 위임키로 함(민성기, 이동주, 노상철, 김정관, 강대화, 윤희수, 이만희 선출)
    - 감사 1인 : 이기원
  - 대의원 선출(17인)의 건
    - 김신재, 이재진, 이동주, 노상철, 강대화, 김정관, 박재평, 이봉춘, 민성기, 정태복, 오천복, 배성지, 김은범, 황석규, 정성규, 박철수, 이경호

울산광역시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4. 3. 26(금)
* 개최장소 : 문수월드컵컨벤션센터 르브르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88명 중 144명 참석
* 의결내용
  - 2003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수지 예산(안) 중 사업비(항) 홍보비(목)의 부기사항을 수정키로 하고 원안 승인
  - 임원 선출의 건
    - 간사(8인) : 배기업, 허재영, 황종원, 김상철, 주형국, 이경태, 김상호, 이근우
    - 감사(1인) : 윤승훈
  - 대의원 선출의 건

- 아동일, 이병술, 배기업, 이우찬, 최광식, 손진락, 김종민, 신삼복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4. 3. 16(화)
* 개최장소 : 대구파크호텔 2층 무궁화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601명 중 399명 참석
* 의결내용
  - 2003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특별적립금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 도무찬
    - 감사 : 송창섭
    - 간사 : 김종윤, 김진식, 박병희, 이기혁, 이종환, 이택봉, 임해석, 최혁준
    - 대의원 : 권영해, 김종윤, 김진식, 김희영, 도원회, 박동우, 박병희, 송창섭, 신동출, 심두용, 이종환, 이택봉, 정연오, 정원수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4. 3. 16(화)
* 개최장소 : 로얄호텔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89명 중 138명 참석
* 의결내용
  - 2003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04년도 회비납부기준(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회관건립계획 추진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의 건(회장, 간사 5인, 감사 1인)
    - 회장 : 이무열
    - 간사 : 임창희, 차용복, 한기욱, 홍상의
    - 감사 : 강종오
  - 대의원 개선의 건
    - 강종오, 김상욱, 김영배, 송기준, 유재복, 임창희, 정창규, 한기용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 개최일시 장소 : 2004. 3. 23(화)
* 개최장소 :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72명 중 142명 참석
* 의결내용
  - 2003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선출(개선)의 건
    - 간사 : 김곤, 김권수, 마재원, 신정철, 정상채
    - 감사 : 문출성
    - 대의원 : 강남구, 강석훈, 강찬수, 김금진, 양관식, 양동협, 정명철, 정원석

강원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4. 3. 31(수)
* 개최장소 : 속초 호텔설악파크 대청봉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95명 중 81명 참석
* 의결내용
  - 2003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04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강원도건축사대회 개최일시 협의의 건
    - 차기 임원 및 지역회장 합동회의로 위임함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간사 : 김창기, 박인광, 전태휴, 신윤극, 박준영, 전영수
    - 감사 : 김종길
    - 대의원 : 홍명식, 박병진, 전찬홍, 노광현
    - 지역건축사회장 : 김종식(춘천), 이종근(원주), 최재석(강릉), 임기섭(속초), 이경규(삼척), 김찬일(영평정태)

경기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4. 3. 18(목)
* 개최장소 : 경기도건축사회관 6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932명 중 267명 참석
* 의결내용
  - 2003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추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03년도 일반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본 협회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 및 집행부에게 위임
  - 임원 개선의 건
    - 감사 : 김태익
    - 간사 : 박유석, 한부성, 이경준, 하선호, 안중배, 오준석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4. 3. 25 (목)
* 개최장소 :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05명 중 116명 참석
* 의결내용
  - 2003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03년도 업무대행수수료 결산(안) 승인의 건
    - 안건 삭제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세입·세출 총예산 314,762,000원을 세출항목 상호조정하는 조정(안) 승인
  - 임원개선의 건 (간사 3인, 감사 1인)
    - 간사 : 박인식, 이상훈, 최재문
    - 감사 : 손근익
  - 대의원 선출의 건(2인)
    - 이기수, 이철호

충청북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4. 3. 26(금)
* 개최장소 : 명암타워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20명 중 91명 참석

* 의결내용
  •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의 건
    – 감사 : 신동안, 김원식, 윤해상, 장명숙
    – 감사 : 구창서
    – 지역회장 : 정세영, 강경구, 주금택
    – 대의원 : 강계식, 김이구, 양철호, 권오준, 오정교, 정철영

충청남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4. 3. 24(수)
* 개최장소 : 온양그랜드호텔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85명 중 74명 참석
* 의결내용
  • 2003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0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의 건
    – 감사 : 장민호, 최종옥, 박병규, 김재광
    – 대의원 : 김두진, 손영만, 조긍호, 조형호, 김종표
    – 감사 : 고봉택
  • 충남건축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원안수정 가결

전라북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4. 3. 24(수)
* 개최장소 : 전북건축사회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16명 중 79명 참석
* 의결내용
  • 2003년도 수지결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선출의 건
    – 감사 : 김정두
    – 감사 : 최영배, 한병진, 김성수, 이진희, 김주식, 정수환, 정영철
    – 대의원 : 문상식, 최영배, 한병진, 김성수, 이진희

전라남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4. 3. 23
* 개최장소 : 무등파크호텔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40명 중 83명 참석
* 의결내용
  • 2003년도 수지예산 결산(안)
    – 원안대로 승인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당초 총예산액에서 4,320,000원을 삭감한 196,511,256원으로 수정승인
  • 임원개선의 건
    – 감사 : 국원식, 차영식
    – 감사 : 김정현
  • 대의원 개선의 건
    – 대의원 : 노경윤, 이명동, 탁기봉

경상북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4. 3. 12(금)
* 개최장소 :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02명 중 195명 참석
* 의결내용
  • 2003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의 건
    – 감사 : 한정우, 소석규, 김준식, 임영호, 우종식, 오희순, 성문용, 장학선
    – 지역회장 : 임송용(포항), 서종률(경주), 김용택(구미), 김구진(김천), 이영만(안동), 임세기(상주), 전상훈(경산), 권석진(칠곡)
    – 대의원 : 김영길, 김태웅, 김국태, 최용달, 임송용, 이영기, 서종률, 김민성, 김영철, 임영호, 정용호, 이진희, 이광우

경상남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4. 3. 24(수)
* 개최장소 : 창원 인터내셔날 호텔 5층 그랜드볼룸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69명 중 219명 참석
* 의결내용
  • 2003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 · 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04년도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감사 : 신종복
    – 감사(4인) : 강남규, 김진수, 문철수, 정창화
    – 지역건축사회회장(7인) : 이재석(통영), 윤주관(김해), 이홍순(거창), 김대연(양산), 백창복(거제), 문재옥(사천), 주재근(진해)
    – 본 협회 대의원(13인) : 하성규, 김정욱, 김정한, 노명환, 박성주, 배준기, 설병렬, 유수태, 윤주관, 이동준, 정석채, 주재근, 최광호
    – 본회(경남) 대의원 : 지역건축사회에 위임

제주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4. 3. 24(수)
* 개최장소 : 제주KAL호텔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08명 중 55명 참석
* 의결내용
  • 2003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04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운영

규정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간사 : 고성천, 문태순, 이동기, 김영식
- 감사 : 강문종
- 대의원 : 강성현(서원), 김영식, 박정복, 조길홍

2004년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총 1,448명 접수, 전년보다 7.4% 증가

지난 3월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6일간 접수한 2004년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1,448명이 접수를 하여 '03년 1,348명 대비 7.4%, '02년 1,199명에 대비해서는 20.8%가 증가되었다. 건축사예비시험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등 4과목에 대한 객관식 선택형으로 오는 5월 9일(일) 서울지역에서 실시하게 된다. 한편, 예비시험 합격예정자는 5월 19일 발표하고,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합격예정자로부터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제출 받아 6월중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6월 22일 예비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건축사예비시험을 합격하고,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금년 9월중 실시예정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우리협회 세무 · 회계정보 개설

우리협회는 세무 · 회계에 대한 회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세무 · 회계정보를 개설하여 지난 4월 2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이 정보는 정회원이 로그인하여 "참여광장 -> 세무회계정보"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코너에서 서비스하는 내용은 ▲세무 정보 : 회계 및 세무와 관련하여 각종 세무 신고 방법, 예규, 국세 행정의 방향과 세법 개정 내용 등 회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상담 사례 :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상담결과 중 중요한 사항

한편 상담신청은 회계 및 세무에 대한 민원상담으로서 질의 및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자만 확인할 수 있으며, E-Mail을 게재한 경우에는 E-Mail로도 회신내용을 통보해준다.

2004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 2004년 5월 9일 (일)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구 분	건 축 사 예 비 시 험
시 험 시 간	10:00 ~ 12:40 (160분간 연속실시)
시 험 과 목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시 험 방 법	객관식 4지 선다형

시험장소

시 험 장 소	소 재 지	교 통 안 내
홍익대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72-1	• 지 하 철 : 2호선 홍대입구역6번출구 - 도보7분 • 일반버스 : 103, 131, 139, 361, 588 • 좌석버스 : 1003, 129-1, 915-1 • 공항버스 : 601(서교호텔 앞) - 도보 7분

※ 시험장(홍익대학교)은 주차시설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30분 - 1,500원 / 초과 10분당 500원, 2시간 초과시 2배부과)

건교부, 『건축서비스팀』구성 · 운영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최근 웰빙(well being)열풍 등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과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건축민원의 상담 및 안내를 전담하는 『건축서비스팀』을 구성, 지난 3. 31일부터 질높은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서비스팀에서는 단순한 법령질의와 진정 또는 조사가 필요한 민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내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간 건설교통부내 건축민원은 연간 평균 1만여건(부내 최다)을 처리함에 따라 폭증하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건축서비스팀 운영으로 민원인은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행정부서(건축과)는 새로운 행정수요인 건축환경 · 문화 및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 등 정책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등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지속적인 고품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서비스팀은 건설교통부 1층 종합민원실 안에 건축민원서비스 전담공간을 설치, 건설교통부(건축과) 직원 3명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대한주택공사와 대한건축사협회 직원 2명 등 총 5명이 건축민원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문의: 02-2110-8437(기존 건축과 2110-8172)

건축 설계 · 감리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모든 감리는 설계건축사가 담당해야 한다" 주장

대한건축사협회가 용역 발주하여 연구중인 "건축설계 · 감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대한 중간발표가 지난 4월 6일 대한건축학회에서 있었다.

이재훈(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방철린(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한명수(대한건축사협회 경기회장) 씨 등 3명의 발표자가 주제 발표를 한 이날 토론회에는 1백여 명의 건축관계자들이 참석, 설계 · 감리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제일 먼저주제 발표에 나선 이재훈 교수는 미리 조사한 '설계 · 감리 관련 설문'에서 답변자들이 설계 · 감리의 가장 큰 문제로 덤핑 등 설계감리 시장의 무질서를 꼽았고, 4층이하 2,000㎡미만 소규모 건축물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며, 조사검사제도는 국가의 사무이나 현행과 같이 건축사가 수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소형건물의 문제는 무면허 영세시공업자들의 실명성 및 기술력 부족에서 발생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형건축물 시공면허제도 및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방철린 가협회 부회장은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축법의 상위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다루어지는 감리는 설계자에게 모두 환원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설계 · 감리 업무는 설계자에게 모든 분야의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조사검사 업무는 국가주관 부서 또는 건축사를 지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며, 모든 감리는 설계건축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말로 결론을 맺었다.

끝으로 발표한 한명수 건축사협회 경기 회장은 "감리는 설계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도록 건축사법에서 통합 규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감리의 단계별 세부내용을 재정비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공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 건축물에서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신축 아파트, 스프링클러 · 소화기 의무화

내년부터 신규 건축되는 아파트는 세대별 자동식소화기와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행 소방법령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 및 관리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재정하는 내용의 행자부 소방법 체계에 대한 규제심사안을 지난 9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의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심사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는 전층에 세대별 자동식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설비를 구비하도록 규정했다. 규개위는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선 연면적 5천㎡ 이상일 경우에만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학원, 목욕탕, 비디오소극장, 영화상영관, 지하역사 등도 다중이용시설에 포함해 비상구 및 제연설비 설치, 실내장식물 불연재 사용,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비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가스를 사용하는 숙박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에 대해선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유소내 부대시설에 대한 면적도 50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이외 연면적 100㎡ 이상 학교신축시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 스프링클러 · 옥내소화전 설비 및 1천m 이상 지하구 포함 공사 감리자 지정,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의 연 1회 종합정밀점검,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 압반탱크저장소 건립시 지질?토목 등의 전문기술검토 등도 의무화했다.

반면 규개위는 소방시설 구조원리나 공법이 특수한 신기술에 대해선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설계 · 감리업체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 부분승인제도 도입해 완공전 사용도 허용키로 했다.

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로 화재위험이 낮은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해 일률적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스프링클러와 물분무소화설비 등 기능이 유사한 시설에 대해선 하나의 설비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규개위는 "새 기준은 내년 1월 이후 신축허가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시설물에 대해선 2006년 5월29일까지 관련 설비를 구비토록 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 관련협회를 중심으로 그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차빌딩내 백화점 · 영화관 별도 부설주차장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주차빌딩에 입주하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영화관, 예식장 등은 입주 주차빌딩 이외에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월 2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에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마트, 영화관, 전시장, 예식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이들 시설 이용자로 인해 일반인들의 주차장 사용이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해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6월말 이전 입주 시설물은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 없다.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주차장전용건축물에 입주한 운동시설, 업무시설, 1 · 2종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부설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주차장 건설촉진을 위해 그동안 주차장전용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30% 범위내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했다.

개정안은 또 2년마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 이면도로 주차환경조사를 실시해 주차시설 수급대책을 마련, 시설확충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설된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사무실면적, 설비,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정하고 부실한 보수를 한 업체에 대한 등록 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명시했다.

생태아카데미

생태건축연구소와 숲연구소에서 2004년 3월 31일부터 2005년 2월 말까지 각과정 60강 내외로 생태건축전문가과정과 숲생태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는 4월 6일까지이며, 이론은 생태아카데미교육장에서 실습은 이천교육장 등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이윤하(생태건축연구소), 남효창(숲연구소), 구승회(동국대), 한필원(한남대), 이승복(연세대), 성종상(서울대), 김현수(건설기술연구원), 이태구(세명대), 이건호(건기연), 이응직(세명대), 윤종호(한발대), 톨스텐 쉬체(독일건축가), 정남호(에너지기술연구원), 김미선(에기연), 백남춘(에기연), 김홍식(명지대), 조남호(솔토스건축사사무소), 이정재(동아대), 장동민(청운대), 김이호(건기연), 조인철(풍수건축가), 이해욱(우송대), 황대권(생태공동체운동센터), 양병이(서울대환경대학원), 홍석종(생태건축가)

신청방법 및 문의: 생태건축연구소(02-745-3051, www.ecoarch.org)

2004 원도시 아카데미 세미나

원도시건축이 주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가 주관하는 '2004 원도시 아카데미 세미나' 일정이 발표됐다.

참가대상은 건축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무료 공개강좌)이고, 강의는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원도시건축 지하 1층 홀에서 진행한다.

이 행사의 코디네이터로는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원장), 우동선(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씨가 참여하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문의: www.wondoshi.co.kr, 02-543-4977

- 05/14 연극 / 윤정섭(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무대미술/연출)+이종호(메타건축)
- 06/11 미술 / 안규철(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조각가)+정기용(기용건축)
- 07/09 음악 / 장재호(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음악테크놀로지/작곡가)+김한(asylum건축)
- 09/10 도시구조의 건축 / 김영준(김영준도시건축)
- 10/08 현상학적 미학의 건축 / 김준성(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객원교수/힘마건축)
- 11/12 건축적 풍경 architectural landscape / 김종규(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maru건축)
- 12/10 비움의 건축 structuring emptiness /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기오헌)

상하이 국제 건축박람회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상하이 신국제전시센터에서

아시아 최대규모의 건축 박람회인 제9회 상하이 국제 건축 박람회 (9th International Building & Construction Trade Fair 2004)의 국내 참가 업체 모집이 성황리에 마감되었다.

12가지의 건축전문 박람회가 분야별로 동시에 개최되는 이 박람회는 올해 행사부터는 상하이 신국제 전시장 (푸동) 의 전시홀 2개가 추가로 증축되어 총 7개의 전시홀(80,000sqm/코엑스전 전체전시장의 약 3배규모)에 약 2,000여 이상의 업체가 출품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사를 방문하는 관련 전문인들도 100,000여명 이상으로 대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번 행사에서는 중국 건축 시장의 적극적 진출을 위한 국내외 업체들의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또한 중기청 지원과 여성 경제인 협회의 주관으로 10개 부스의 국가관 행사를 하여 참가비를 지원하였다. 한국 참가 업체는 국내 개별 참가 업체와 국가관 행사 참가 업체를 포함하여 총 30여 업체로 참가규모가 약 800 sqm에 달한다.

개별참가 업체로는 코스텔/신한 세라믹/마가/동화 산업/순일 산업/오공/명화금속/대연/에덴바이오 벽지/동신 포리마/NJ(기승 금속)/엔비넷/워터 웍스 유진/바이켐/윈스 피아/백조 싱크/동원세라믹/승광/LG 등이 있으며, 여성 경제인 협회 주관 국가관 참가 업체로는 무지개 세븐/재창 산업/세진/정선 대리석/한영 휴테크/유리터/이화 테크/코파르/디세븐/포조피아 등이 참가한다.

문의: SBA Korea(전화: 02-708-4080/
Email: sbakorea@sbaltd.com/
(mailto:sbakorea@sbaltd.com/)
담당: 최혜영)

호서대, 2004봄학기 공개 건축세미나

호서대학교 건축학·건축공학과에서 2004학년도 1학기 공개 건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공개 건축세미나 'Colloquium'은 특강프로그램으로 매학기 3번의 외래 강사를 초청하여 건축 제 분야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사회 예비인으로서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유념하여야 할 내용 등을 강의한다.

- 3월 30일(화) 오후 4시 / 영화 이야기 / 박광춘(영화감독)
- 4월 27일(화) 오후 4시 / 대공간 구조시스템 / 최준식(단구조 소장)
- 5월 25일(화) 오후 4시 / 비움의 구축 /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한양대 건축대학원 특강

한양대 건축대학원에서 특강시리즈를 마련, 행당캠퍼스 신소재 공학관 318호에서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열린다.

문의: 02-2290-0258
www.hgsa.hanyang.ac.kr

- 5월 6일 오후 4시/Digital Synectics/이철재(호서대 디지털문화예술학부)
- 5월20일 오후 4시/Interactivity in Architecture/최진원(연세대 생활과학부)
- 6월 3일 오후 4시/디지털건축의 존재론적 화두/이명식(동국대 건축공학과)

sa 2004 summer workshop

- 프로젝트 대상: 목포
- 기간: 2004. 07. 31 ~ 08. 07(7박 8일)
- 여름워크숍학교장: 승효상(이로재)
- 코디네이터: 서혜림(힘마건축)
- 참가대상: 국내외 건축학과 및 관련학과 3학년이상 재학, 휴학생 및 졸업생(선착순)
- 모집예정일: 5월17일 ~ 6월 15일까지
- 문의: www.saschool.or.kr/02-969-6970

2004 Interior Design Weekend Tour

한국실내건축가학회가 주최하는 인테리어 투어가 열린다. 투어는 디자이너 배대웅, 박민철과 함께 인천공항 교통센터, 하얏트 호텔, 카페 M!!, 헤이리와 파주출판단지를 돌려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신청 마감은 4월30일(금)까지이고, 투어는 5월29일(토) 진행한다.

참조: www.kiid.or.kr

'정보화 시대의 미래 주택' 국제 학술심포지엄

연세대학교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는 5월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정보화 시대의 미래 주택(Future Houses in the Information Age)'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심포지움은 4부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 "변하는 사회, 환경 그리고 생활양식", 제2부 "유비 쿼터스 홈을 향한 지능형 주택과 디자인", 제3부 "미래를 향한 예측" 등으로 나누어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02-3147-1192 www.medr.org

제1회 도코모모 코리아(DOCOMOMO Korea) 디자인 공모전

한국근대건축 연구와 보존을 위한 실천적 단체 도코모모 코리아(회장 김정동)가 'POST 신촌역 2004' 라는 주제로 근대건축 문화유산인 신촌역과 광장 그리고 그 주변의 보존과 재생 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보존 혹은 개발의 상충적 문제가 아닌 상호보완적 접근으로서의 재생과 활용을 통해 근대 건축물이 계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해 본다. 코디네이터는 김정신(단국대학교), 김종현(배재대학교), 김태우(홍괄코디, 디자인그룹 아리건축), 이주연(공간지 주간)씨가 맡는다.

참조: www.docomomo-korea.org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디자인 전

오는 5월 어린이날을 전후로 40일간 어린이들을 위해 새로운 디자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재미난 '잡'을 선보이는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디자인' 전이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어린이들에게 시각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감각적 체험을 권유하고 직접 뛰어놀 것을 제안하는 이번 전시의 공간디자인은 건축가 서혜림, 김준성(이상 힘마건축)씨가 맡았으며, 전시주체인 어린이의 눈높이와 상상력을 주시하고 디자인을 모듈화 하여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물 부문에서는 다양한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가 함께 소개되며,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적인 디자인 교육자들을 초청하는 강연과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

전시는 4월16일부터 5월25일까지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 1, 2전시실에서 펼쳐진다.

문의: 02- 580-1539
www.designgallery.or.kr

국제현상공모 「낙동강 에코센터」

세계건축가연맹(UIA) 승인…세계 건축가의 작품 부산에 유치
도미니끄 페로 외 5명 유명건축가 심사 위원으로 참여

부산시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건립키로 한「낙동강 에코센터」가 국제건축공모를 통해 설립될 예정이다. 올숙도 생태공원 내에 1천평 규모로 건립될 에코센터는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 · 기획전시장으로 낙동강 일대의 생태연구시설 및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다. 2004부산국제건축문화제의 첫 신호탄이 되는「제3회 부산국제건축공모전」은 2001년 제1회 공모전(부산용두산타워)을 세계건축가연맹(UIA)의 승인으로 치루어 낸 데 이어 국내에서는 드물게 두번째 UIA승인을 받았다. 특히, 앞으로 부

산국제건축문화제가 실시하는 공모전은 기존 아이디어공모전과는 달리 실제 대지에 건축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세계 건축가의 많은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공모분과위원회 강병준 위원장(인제대학교)은 "이는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을 부산에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부산의 도시·건축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첫 출발점이 되는 이번 공모전은 에코센터를 위한 최상의 건축적 디자인을 선정하여 당선된 건축가의 작업이 에코센터를 통해 주어진 대지와 인근 지역 내에서 자연적이고 친숙한 환경을 창조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또한 UIA가 추천한 생태부문에 권위있는 세계적 건축가 5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엔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지하캠퍼스 설계자로 선정되어 국내 건축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도미니끄 페로(프랑스 Dominique Perrault)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생태건축부문에 권위 있는 건축가 그리고리 버기스(오스트레일리아 Gregory Burgess)와 리스 엔 쿠투어(미국 Lise Anne Coutour)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의 김종성, 김준성 건축가도 함께 심사에 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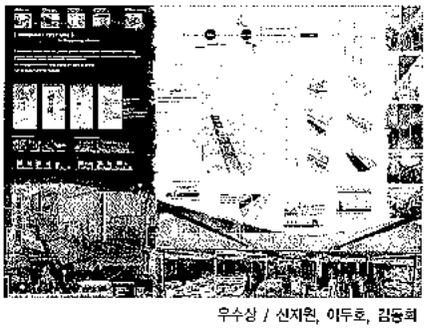
공모전은 오는 5월 17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으며, 최종 심사결과는 7월 25일 발표, 당선자에게는 2만달러(2천5백만원)의 상금과 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총 133억원의 공사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인 낙동강 에코센터는 올해 12월에 착공되어 2005년 말 완공 예정이다.

문의: 051-888-4760 www.biarc.org

국제현상공모「도시의 축제 Celebration of Cities」결과 발표

우수상에 신지원 이두호 김동희(동아대 건축학과)

UIA에서 지난 2003년 10월말 도시의 취약한 환경 개선과 건축가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도시의 축제 Celebration of Cities」를 주제로 개최된 공모전에서 우리나라의 신지원, 김동희, 이두호(동아대, 공동작품)씨가 제4지역 학생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부평시장의 일상적 축제」를 주제로 하여 사람들의 활발한 움직임과 한 시장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담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 부산의 부평시장이 가진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프로토타입으로 정비하고, 다른 주변 환경과 프로그램에 맞도록 변형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29개국이 참가해 경쟁을 벌인 이번 공모전은 부문별로 하나씩 대상이 선정되고, 각 지역별로 총 5개의 우수상과 2점 씩의 가작이 선정되었다. 부문별 대상은 모두 이탈리아가 차지했다. 선정된 작품들은 오는 2005년 7월 4일부터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UIA 총회 때 전시된다.



우수상 / 신지원, 이두호, 김동희

UIFA(세계여성건축사연맹) 제14차 총회 개최

- 일자: 2004년 9월 1일부터 5일까지
- 장소: 프랑스 툴루즈
- 공식홈페이지: www.uif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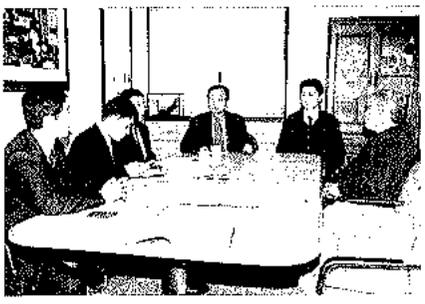
○○○소장을 ○○○건축사로 부릅시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사의 위상제고와 상호존중을 위해 현행 ○○○소장으로 통용되던 호칭을 ○○○건축사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0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9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6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6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 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3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5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6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6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5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8 · 오산건축사회/(031)375 85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8-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 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6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0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6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56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53)852-373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63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5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1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9-5501

일본 구마모토 아트플리스 관계자, 우리협회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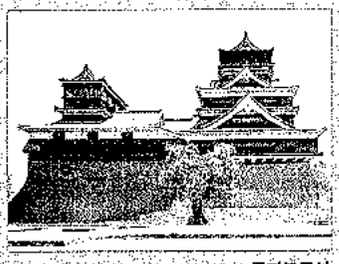


일본관계자와 환담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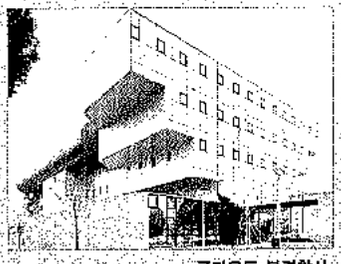
지난 3월 5일 일본 규슈지방 구마모토현(熊本縣)의 건축과와 교통부 소속 공무원 2명(마에다 나오키, 나카가와 히로부미)이 우리협회를 방문하고 본 협회 이관영 국제담당이사와 김지덕 국제위원회 자문위원과 환담했다.

이번 방문은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에 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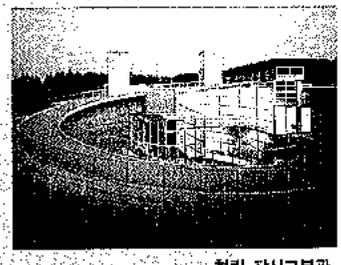
구마모토 아트 폴리스 주요 참가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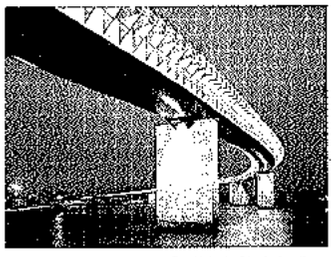
구마모토성



구마모토 북경찰서
• 준공 : 90년 11월
• 사업주 : 구마모토현 경찰본부
• 설계자 : 시노하라 가즈오 타이코 설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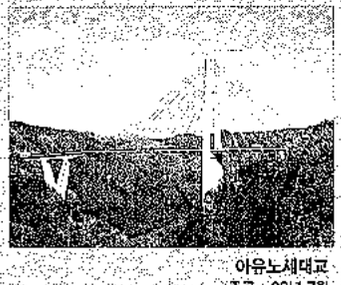


현립 장식고분관
• 준공 : 92년 4월
• 사업주 : 구마모토현
• 설계자 : 안도 다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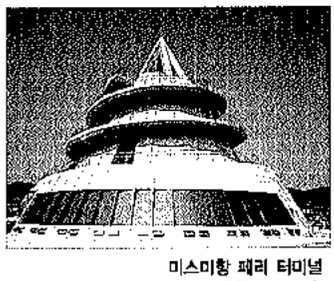
우시부카 하이야 대교
• 준공 : 97년 8월
• 사업주 : 구마모토현
• 설계자 : 렌조 피아노, 피타 라이스, 오카베 노리아키, 미에다

가호쿠마찌 아트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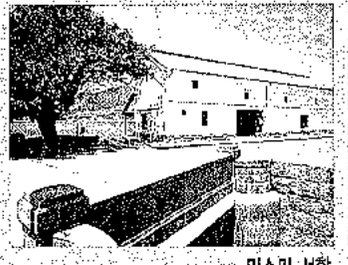


아유노세대교
• 준공 : 99년 7월
• 사업주 : 구마모토현
• 설계자 : 오노 미요코, 중앙기술 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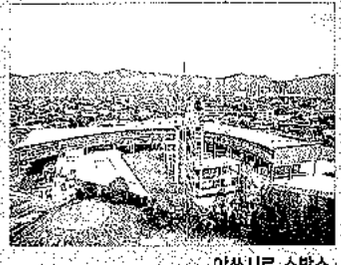
유노마에 안화미술관 · 공민관
• 준공 : 92년 11월
• 사업주 : 유노마에마치
• 설계자 : 가쓰라 히데아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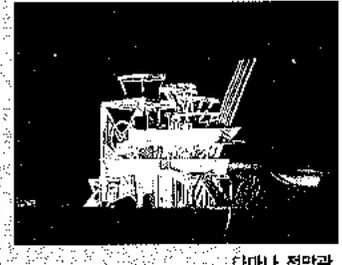
미스미항 페리 터미널
• 준공 : 90년 2월
• 사업주 : 구마모토현
• 설계자 : 요 쇼에이



미스미 서항



야쓰시로 소방소



다마나 전망관
• 준공 : 92년 9월
• 사업주 : 다마나시
• 설계자 : 다카사키 마사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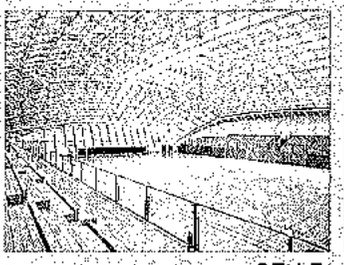
현영 호타무보 다이이치 단지
• 준공 : 91년 8월
• 사업주 : 구마모토현
• 설계자 : 야마모토 리켄

여 설명을 듣고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현내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건축물들을 보존하면서 후세에 문화적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창조하는 사업으로 1988년부터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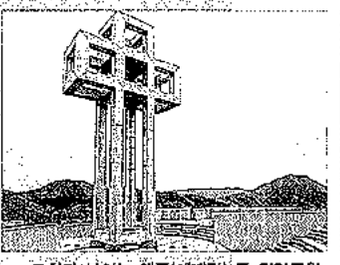
이 사업으로 구마모토현 전역은 관광 명소가 되고 있고, 구마모토현(熊本縣)의 자연, 역사와 풍토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뛰어난 건축물, 다리, 공원을 만들어 윤택한 생활환경을 실현하고 있다. 이들의 건축물 등은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뛰어난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설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구마모토 아트 폴리스에 흥미를 갖고 구마모토현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문의: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무국(+81-96-383-111)
http://www.artpoli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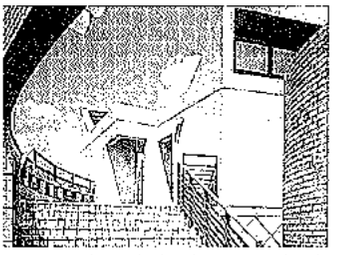
아쓰시로 시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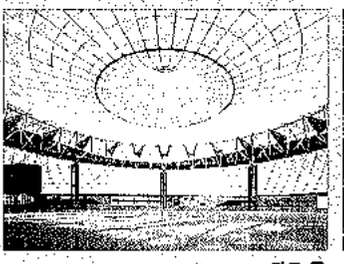
오구니 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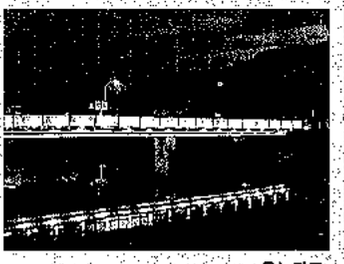
교회가 보이는 채플(예배당) 종 전망공원
• 준공 : 93년 3월
• 사업주 : 기와우라마치
• 설계자 : 우메다 마사노리 스테이스 디자인 설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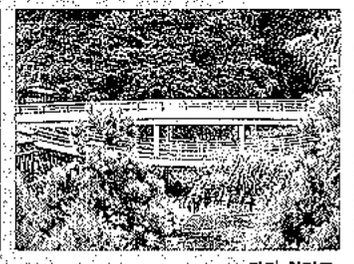
구마모토시 가미에즈코 호반 화장실
• 준공 : 89년 5월
• 사업주 : 구마모토시
• 설계자 : 히다 아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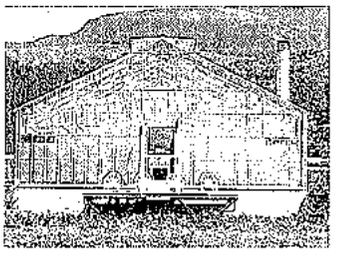
파크 돔



유노카교
• 준공 : 91년 3월
• 사업주 : 아시키타마치
• 설계자 : 기시 와로



마미 하리교
• 준공 : 95년 6월
• 사업주 : 소요마치
• 설계자 : 아오키 준, 중앙기술 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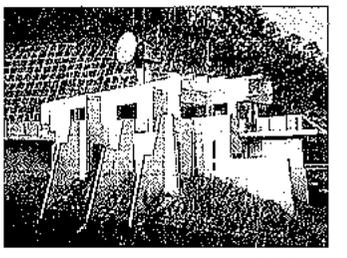


꽃의 온천관
• 준공 : 93년 11월
• 사업주 : 우부오미촌
• 설계자 : 워크 숍

이시우치땀 자료관
• 준공 : 93년 3월
• 사업주 : 구마모토현, 미스미마치
• 설계자 : 이리에 게이이치

쓰나기 물산 갤러리
• 준공 : 92년 5월
• 사업주 : 쓰나기마치
• 설계자 : 기타아마 고지로

교류센터 "이즈미"
• 준공 : 97년 3월
• 사업주 : 이즈미촌
• 설계자 : 다케다 고지, 로코스 설계동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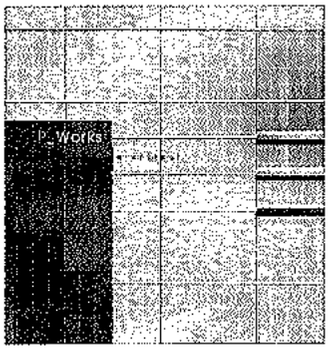


이시우치 댐관리소
• 준공 : 91년 2월
• 사업주 : 구마모토현
• 설계자 : 아오키 시게루

신간

P_ works

이 책은 건축가 박종석(대상건축, 대구)의 작품집이다. 그에게 Prologue이고 건축의 Program, 생각의 조각(Part of Meditation).... 이다. 그의 작품 속에는 그의 생각들이 곳곳에 묻어져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실린 작품들은 그의 대표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의 일부분을 담아낸 것이다. 그의 생각의 부분이 담겨진 것이다. 이 책은 태창철강사옥, 동성로 패션몰, 시네월드컵 자동차 극장 등의 완공작과 Miz 여성병원, 신홍 건설 사옥 등의 계획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종석 지음/100쪽/1만5천원/비온후(051-464-4115)

건축기획(일본건축학회편)

근래 들어 건축기획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마땅히 이에 대응할 만한 적절한 서적이 많지 않아, 이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건축기획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나 실무자들에게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건축학회편/최준영 이명권 번역/248쪽/1만2천원/가문당 발행

韓國의 空間

이 책은 건축전문 사진작가인 임정의 씨가 촬영한 작품들을 토대로 제작한 작품집이다. 민가, 정자, 서원 등 여러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되었으며, 150여 건축물이 소개되고 있다. 답사 전에 사전조사용으로 볼 만한 책이다.

임정의 지음/46배판/344쪽/3만원/도서출판 발언(02-929-3546)

정회원(월정)회비 납부안내 및 징계예고

본 협회 제38회 정기총회('04. 2. 26)에서 정회원(월정)회비를 장기 미납한 회원에 대한 징계처리 안이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회비 장기미납회원들께서는 미납회비를 조속히 납부하여 회비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총 회 의결내용 ('04. 2. 26)	가. 징계대상 : 본 협회 정회원(월정)회비를 5년(60개월)이상 장기 미납한 회원 나. 징계종류 : 제명 다. 징계방법 및 미납회비 처리 - 총회개최일('04. 2. 26)현재 5년 이상 정회원회비를 장기미납한 회원은 3개월간의 회비납부 기한을 주고, 그 이후에는 정관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제명처리 - 제명처리 된 자의 미납된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손처리 라. 관련근거 : 정관 제55조제1항제3호 〈참 고〉 2003년도 회비장기미납자 제명 - 제명인원 : 103명(서울 101명, 경기 2명) - 제명사유 : 5년(60개월)이상 회비 장기미납자 - 제 명 일 : 2003. 8. 9
미납회비 납부안내	○미납회비 납부기한 ('04. 5. 25) - 총회 승인일('04. 2. 26)부터 3개월 이내 ○개인별 회비 미납금액 확인 및 납부 - 회원의 소속건축사회 회비수납 담당자에게 미납개월수 및 미납액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건축사회에 납부하면 됨
참 고	○제명 또는 퇴회한 자는 정관 제11조제4항에 의거 본 협회가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경조비지급규정 제5조에 의거 폐업회원 에게 지급하는 폐업위로금 혜택 없음 ○회원 신상정보(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회원이 협회에 변경사항을 미신고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중원 청소년 수련관 100
KBS미디어센터 104
경기도 영어마을 110
서울 시립아동병원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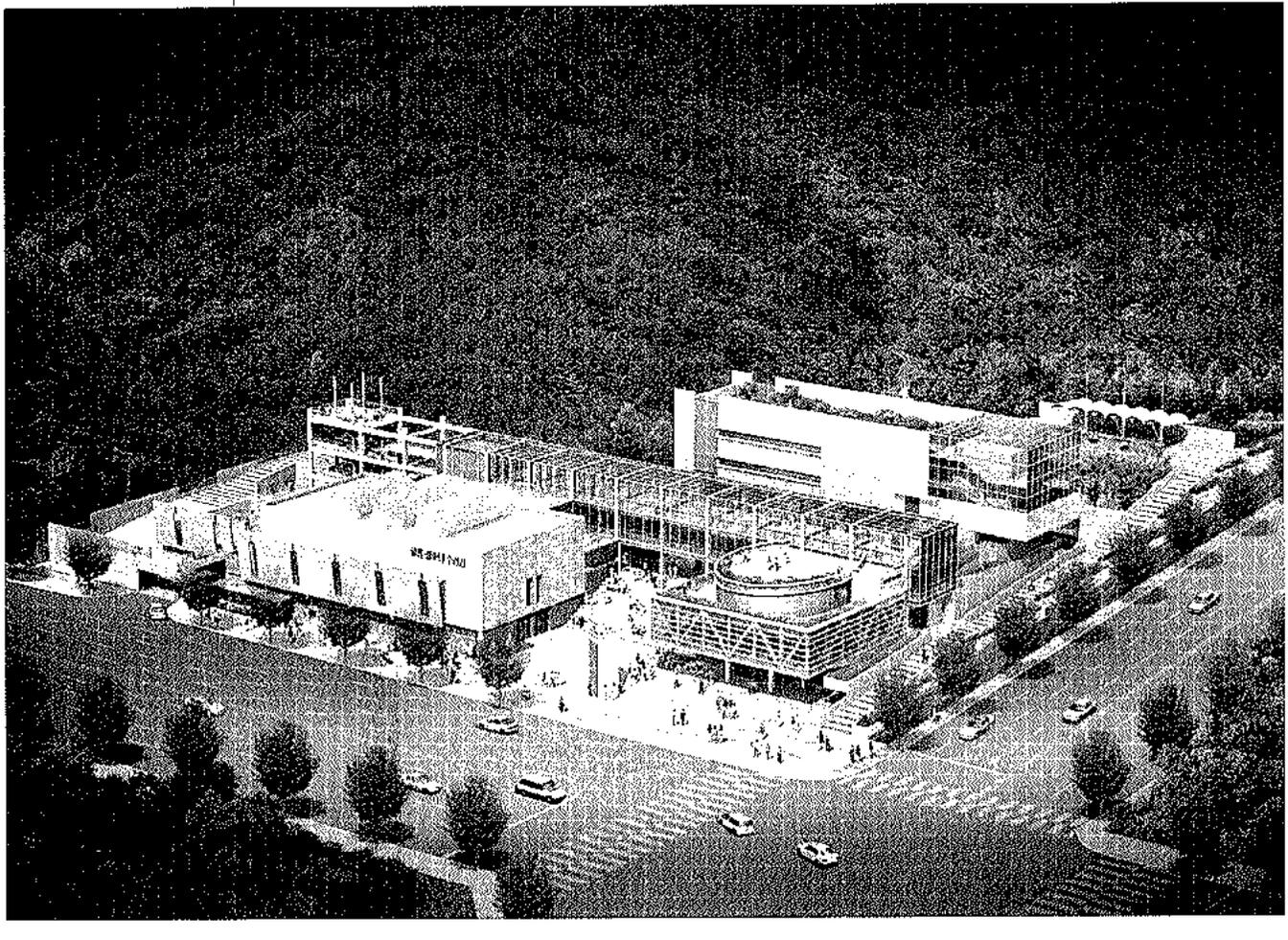
중원 청소년 수련관
Jungwon Youth Training

당선작 /도시환경건축사사무소(김종술) +
이 영(경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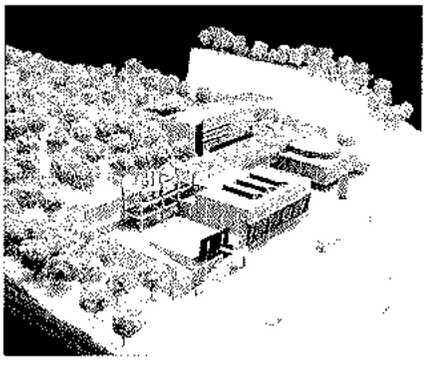
대지위치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1번지 등 3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공원용지저촉
대지면적 15,000㎡
건축면적 2,479.25㎡
연 면 적 9,863.70㎡
건 폐 율 16.53%
용 적 률 32.42%
규 모 지상 3층, 지하 2층
주차대수 총 54대(장애인주차 4대, 버스 2대, 프로그램주차 14대 포함) (법정 30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외부마감 화강석 물갈기, 알루미늄 커튼월, 일부 노출콘크리트, 베이스패널
설 계 팀 강기식, 박창권, 이상모, 성경희, 정용욱, 이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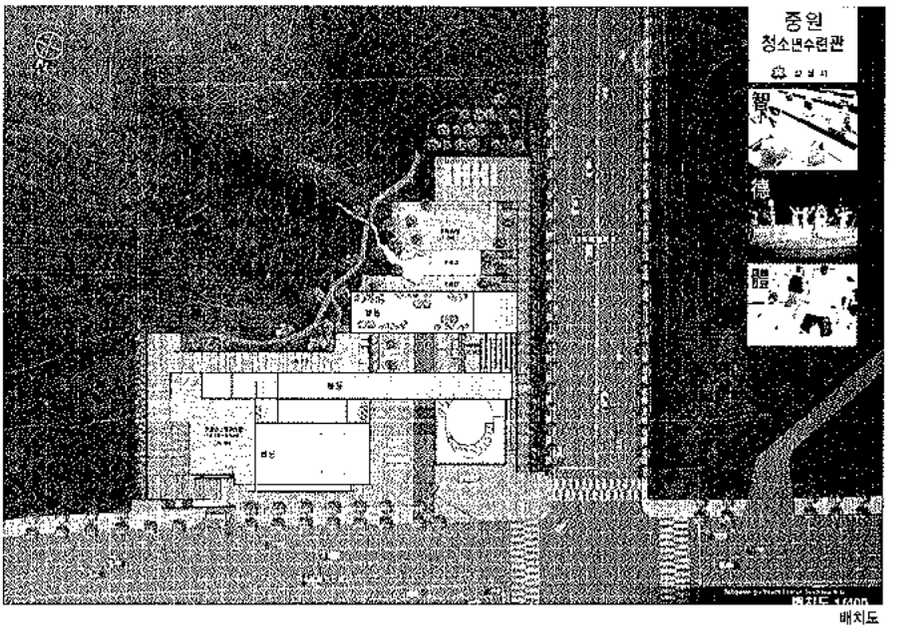
설계목적 및 설계전제

- 21세기 문화·정보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성남시 위상 반영
- 새로운 청소년문화의 장으로서의 복합문화공간의 창출
- 성남시 중원구의 문화적 허브 역할 수행
-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의 수요 및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
- 지(智)·덕(德)·체(體) 영역의 모음과 연계 모색
- 청소년들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적극적 반영
- 자연녹지축의 연장과 기존 자연환경의 보존
-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공간의 단면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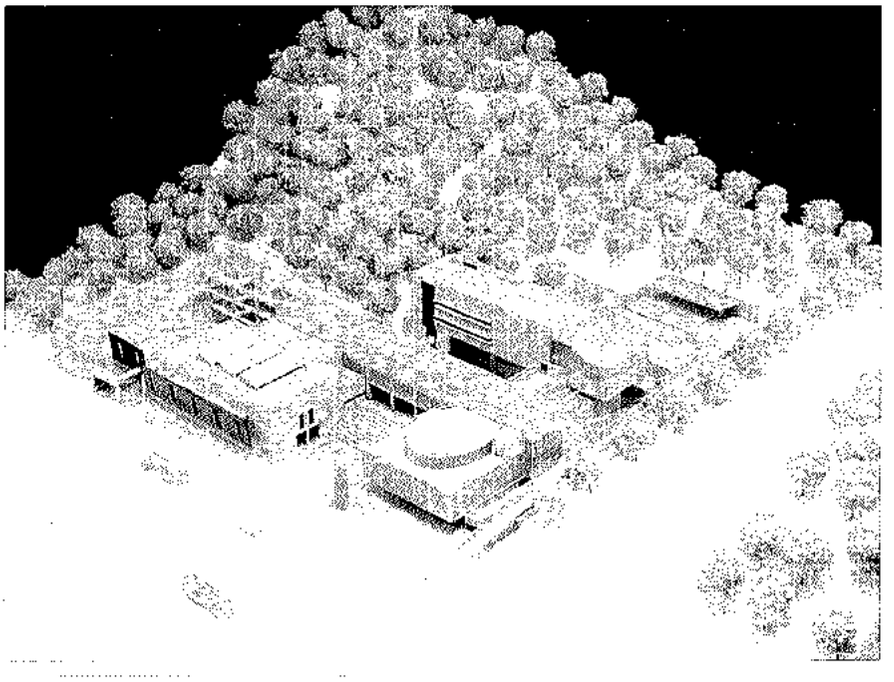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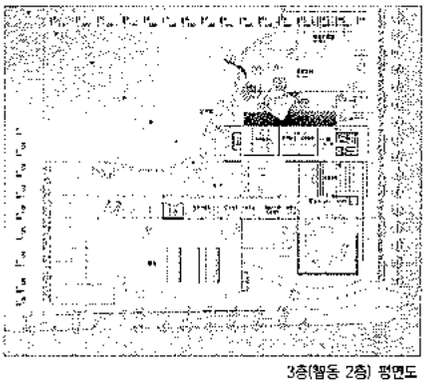
- 청소년 활동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공간 조성
- 시각축과 공간의 물리적 이동축에 따른 공간 경험 극대화
- 지역 사회 개방 가능 시설물의 활용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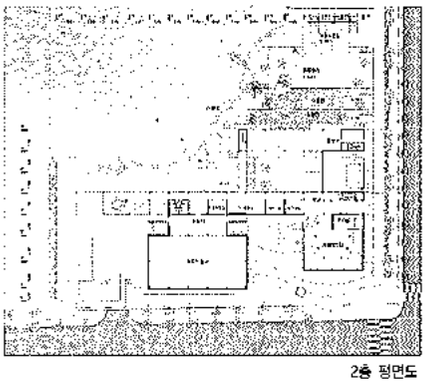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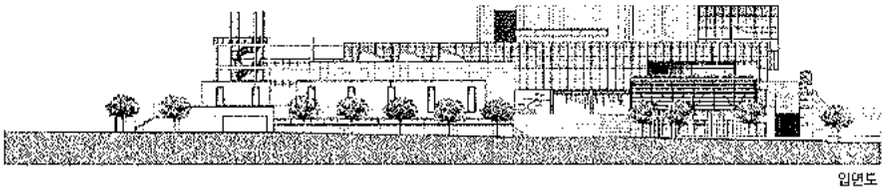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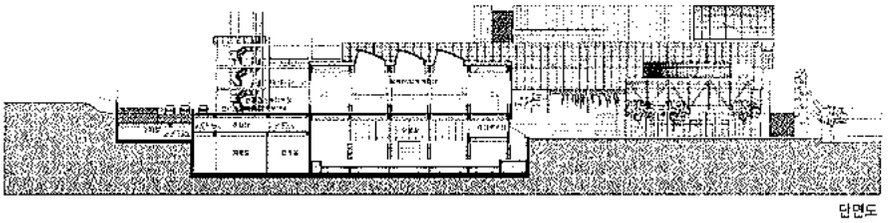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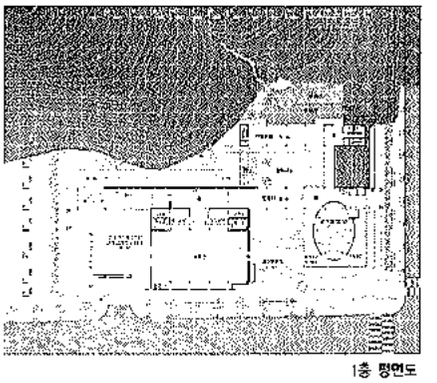



3층(체육 2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층 평면도

중원 청소년 수련관
Jungwon Youth Training

우수작 / (주)단원건축(오정환) +
여영호(고려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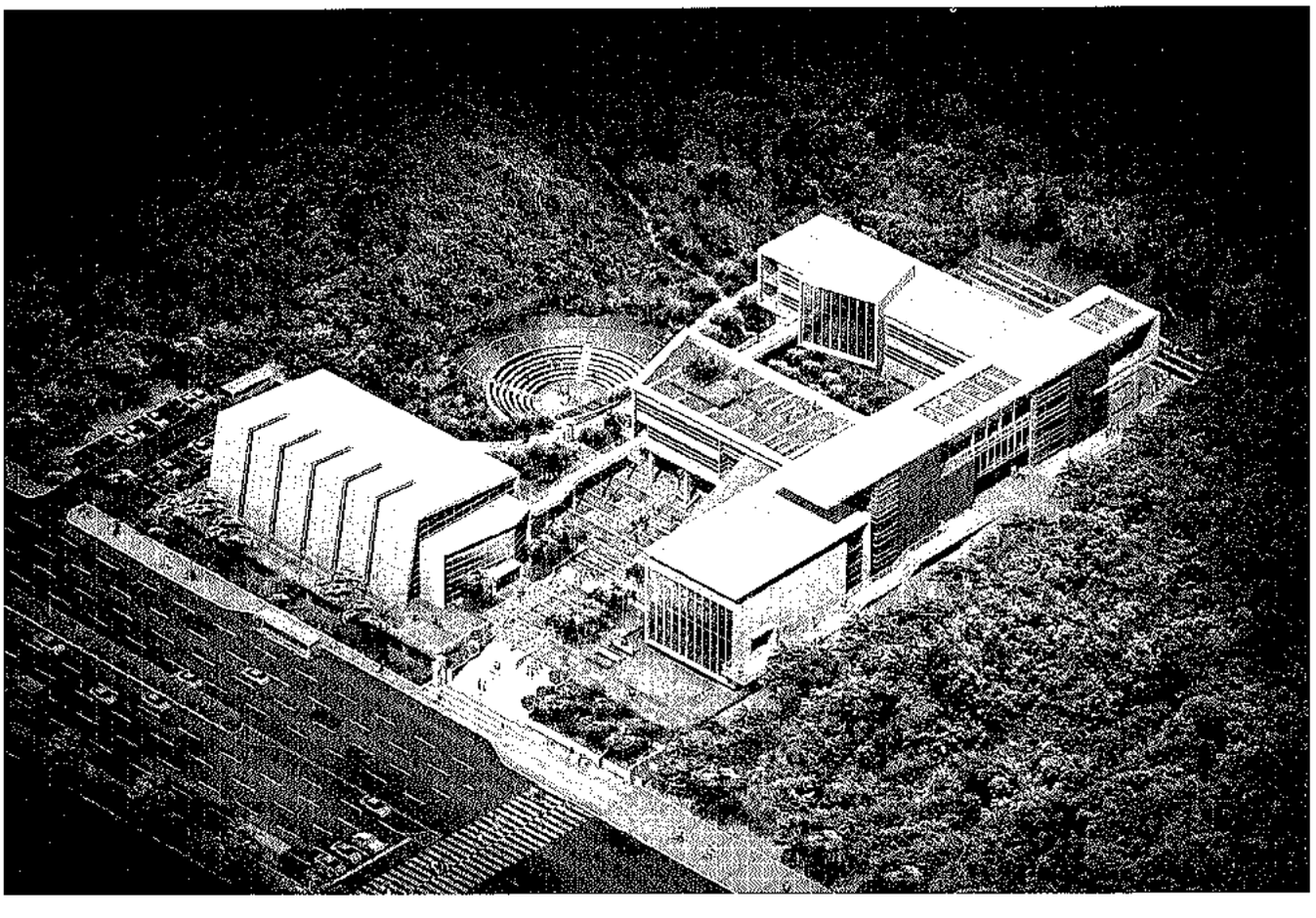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241번지 3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대원근린공원)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청소년수련관)
대지면적	15,000.00㎡
건축면적	3,642.02㎡
연 면 적	10,760.57㎡
건 폐 율	24.28%
용 적 률	42.50%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규 모	지하 2층, 지상 3층
외부마감	알루미늄복합패널 + 알루미늄커튼월 + 적삼목패널
설 계 팀	정학회, 윤기원, 김덕호, 이현기, 이학린, 윤정희, 이태영, 박장옥, 이정옥 고려대 – 홍근표, 차지웅, 박성희, 박혜원 , 정지영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는 청소년 수련관을 성남시의 사업목적과 부합되게 중원구 하대원동의 자연녹지지역 및 공원지역에 교육연구 및 문화복지시설의 용도로서 계획하였다. 가까운 곳에 대원 근린공원이 있는 계획 대지는 남동 측의 산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경사지로서 전면 50미터 도로를 접하고 있다. 계획 대지면적은 3,479평으로서 지하 1층과 지상 4층의 건축 규모로 총 연면적 약 2,763평으로 계획되었다.

주요시설로는 체육시설, 첨단문화공간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수련시설, 업무관리시설 및 청소년 전용도서관 등이 요구되었으며, 부대시설로는 야외휴게공간 및 지하 주차장 등이 요구되었으나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소요실 별 지침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아 설계자 임의로 기존의 수련관의 실례를 분석 판단하여 세부 프로그램과 소요실에 따른 구체적 면적을 마련하였다.

계획대지는 전면 도로측이 북쪽을 향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부터 전면도로 측으로 경사가 이루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지에 청소년 수련관의 배치가 정면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가지도록 하면서도 대지 내와 각 건물 내에 남측으로부터의 일조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사항이였다. 다음으로는 계획대지의 서측으로는 향후 30미터의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데 먼 장래로 예상되지만 30미터 도로가 생길 경우 이 도로부터의 정면성도 확보하여 주는 것이 또 다른 주요 사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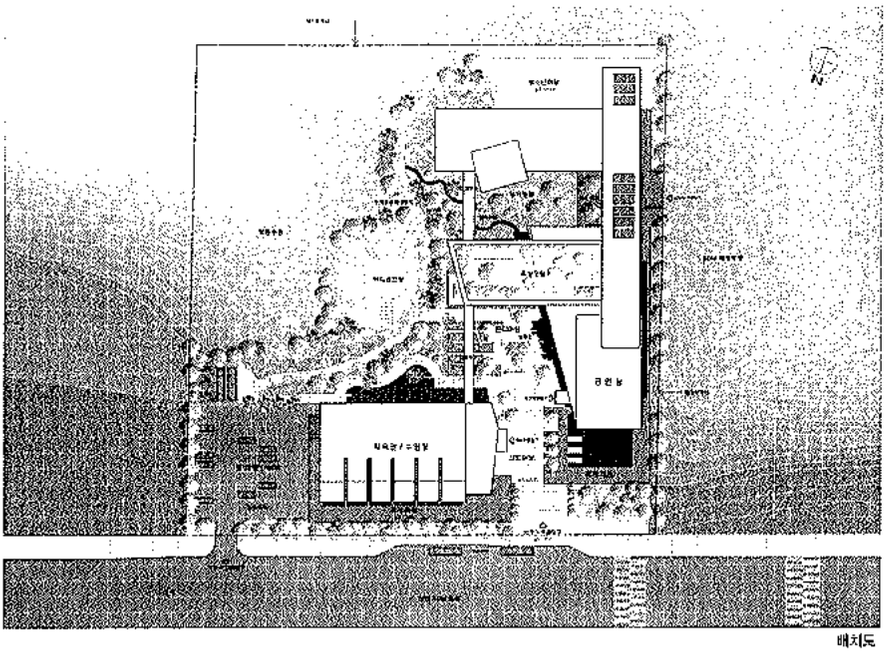
이러한 대지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목적을 기초로 본 프로젝트의 방향은 자유롭고 다양한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설 위주의 계획보다는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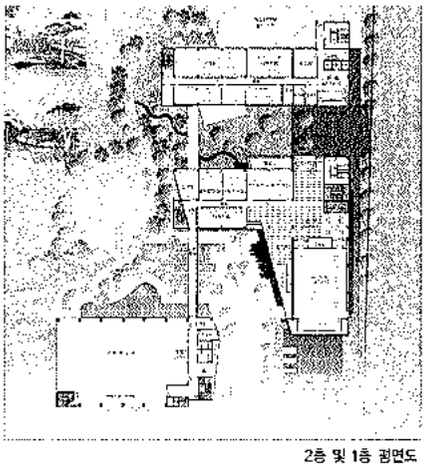
의 다양한 수련 활동을 수렴할 수 있는 유동적인 공간계획을 우선 목표로 두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적극적인 디자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련활동의 특성이 고려될 수가 있도록 각 프로그램의 성격과 기능을 영역화하여 독립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더불어 각 프로그램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될 수가 있도록 개방적인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것을 기초로 먼저 대지와 주변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지내의 완만한 경사지와 주변녹지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에 따른 5개의 기능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첫째는 체육관과 수영장, 둘째는 공연장, 셋째는 첨단문화 복지시설, 넷째는 교육연구 시설, 다섯째는 관리 및 사무시설로 분리하였으며, 특히 체육관과 수영장은 수련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을 고려한 용도로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기가 용이하도록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면도로변에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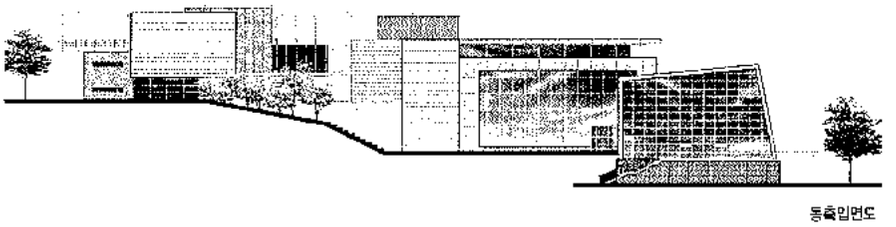
공연장과 첨단문화 복지시설은 대지내의 조경과 경사지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면서 전면도로 측의 넓은 광장이 진입부가 되도록 조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면도로의 진입광장으로부터 동측 보존수림이 조망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실의 개방감과 정면성이 유도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야외공연장은 산자락의 경사지를 따라서 최대한 주변의 녹지를 이용하면서 첨단문화 복지시설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였다. 교육연구 시설은 공연장 및 활동공간인 첨단문화 복지시설과는 연결되면서도 기능한 소음에서 보호되도록 남측 후면부로 배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조량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그리고 관리 및 사무동은 교육연구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이 연결되는 중간 부분에 배치하여 관리와 행정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차후 대지 서측에 생겨날 30미터 계획 예정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정면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지 서측에 배치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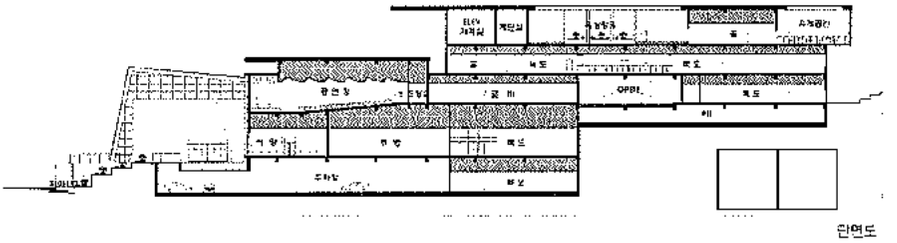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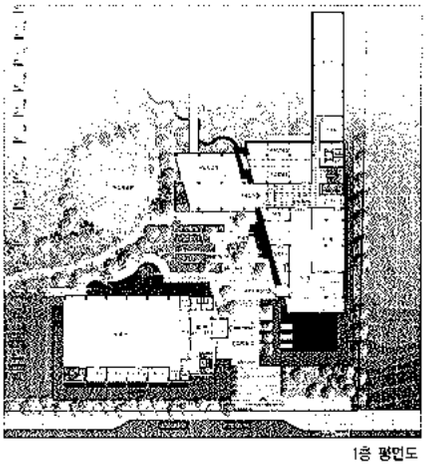
2층 및 1층 평면도



동측입면도



단면도



1층 평면도

KBS 미디어센터
KBS Mediacenter

당선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정영균 · 금두연)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509-7번지(E3-1)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대지면적 4,514.00㎡
건축면적 2,706.94㎡
연 면 적 44,941.18㎡
건 폐 율 59.95%
용 적 률 606.26%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상 21층
주차대수 441대
외부마감 THK24컬러복층유리(LOW-E)+컬러알루미늄패널(일부목재마감패널)
설 계 팀 김시형, 김 상, 박희준, 최은석, 조 일, 류무열, 류제희, 구자해

이는 TV스튜디오, 방송아카데미, 콘서바토리, 업무공간을 아우르는 일종의 컴플렉스(complex)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우선 개별 프로그램의 자생력과 그들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질서를 하나의 프로젝트에 조합하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했다.

애초에 우리가 골몰한 것은 3,000평에 이르는 주차시설도 4,000평에 이르는 오피스면적도 아니었다. DMC에 관한 다각도의 연구와 상암지구 내 수많은 프로젝트의 경험으로 인해, 도시전문가들이 원하는 도시맥락(Digital&IT축-보행전용로-벤처오피스와의 반응 등)을 규범으로 보장하고, 완성될 2년후 미디어센터의 힘있는 창조적 미래상을 그리는 것이 주어진 한달 동안의 목표였다.

촌각을 다투어 변하는 첨단미디어 세상에 2년 후의 새로운 미디어 센터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건물외부 디자인에 쏟아붓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아까울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해 타 업체 결과물과의 확연한 차이가 그 엮어진 프로그램에서 드러날 것이다.

KBS미디어 센터는 밀집한 첨단DMC 도심 속에서 미디어의 세계에 침잠한 현대인의 욕망에 부응한다.

우리의 KBS미디어 센터는, KBS미디어가 사용하는 건물(center)이 아닌, DMC라는 도시의 매체(medium-media) 자체가 되도록 묘사하였다. 이로써 DMC 내에서는 미디어의 창(window)으로, DMC 밖 멀리서는 지정학적 관문(gate)으로 인지될 것이며, 어둑해질 무렵엔 망망대해에 한 줄기 드리워진 미디어 빛의 흐름처럼 DMC의 하늘을 횡단하듯이 읽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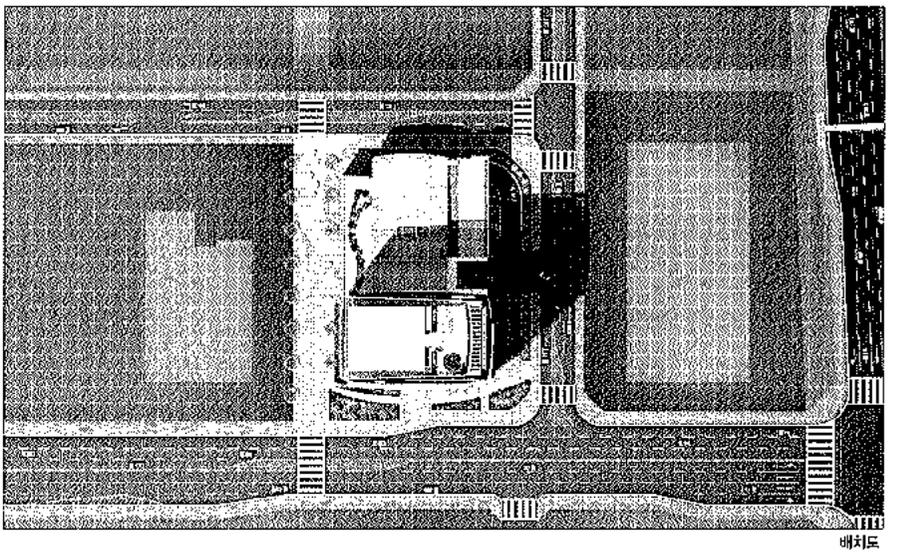
DMC의 합리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흡룡한 방송제작-아카데미-콘서바토리-업무공간들이 KBS미디어 센터 내에 묶여져 있으며, 이들은 뛰어난 통제 아래 개별성과 더불어 유연성을 지니도록 과감한 아트리움과 대화하도록 삽입되어 있다.

첨단이란 이름의 모양새는 하루가 달리 대체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굳이 첨단 DMC 내에 첨단 미디어시설을 꾸미려는 옵션을 포기하고, 그것이 아날로그이든 디지털이든 (주)KBS미디어가 세상을 향해 미디어 시설로서의 강력한 메시지전달을 할 수 있게끔 의도했다. 이는 Mediascape와 Mediaware라는 일관된 기조 아래, 마치 조경(landscape)이 인간이 서있는 대지를 감싸고 뒤에서 받치며 공존하듯, tech-scape/eco-scape/data-scape/ubiquitos-scape라 구상된 4가지 mediascape이 미디어 센터 내외부를 관류하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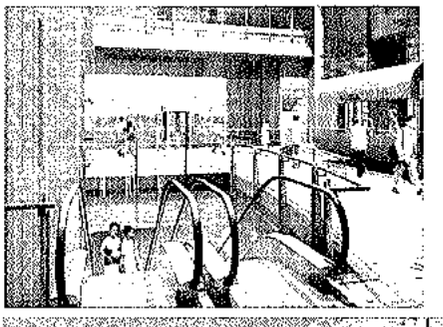
이러한 첨단/친환경/정보/복합스케이프의 맥락은 서로 연속성을 지니며, 이중스킨을 포함한 여과된 장치적 요소로 미디어 센터에 스며든다. 즉 제반문화와 협상된 미디어 아이덴티티와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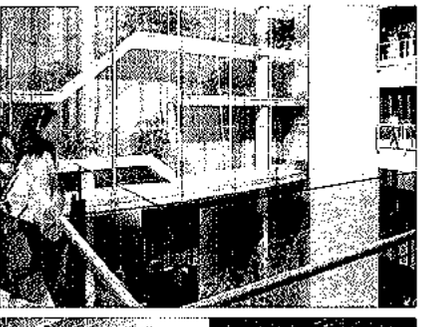
종 스케이프들의 상호작용은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으로 이루어진 저층부 및 지하의 느슨하게 루즈한 여유공간에서, 수익극대화를 위해 타이트하게 짜여진 고층부 및 지붕의 헬리포트와 홀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방문객들을 새로운 3차원적 경험으로 이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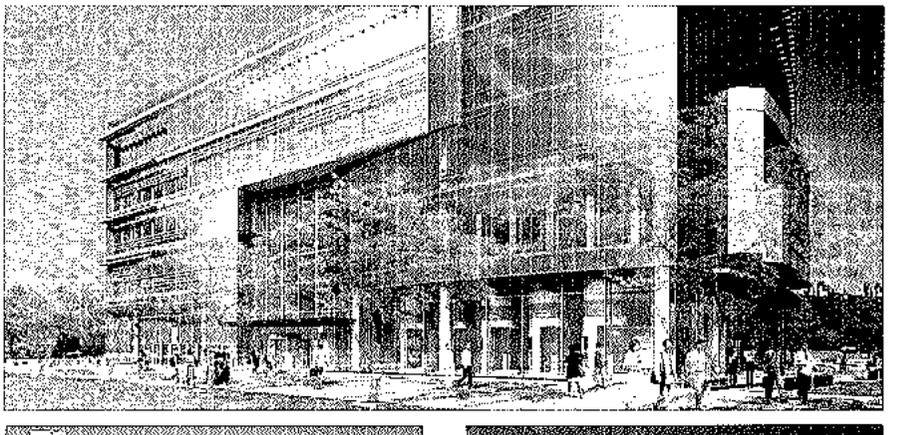
벤쳐오피스와 쌍을 이룬 트윈그린샤프트(twin green shaft)는 도시의 사이공간 이벤트 보행로를 더욱 즐겁게 만들 것이며, softedge/software로 이루어져 친근감을 주는 미려한 곡률 및 내부공간의 위계 및 방향을 결정짓도록 플러그 인 되어있는 아트리움(plug-in atrium) 또한 DMC지구 주민들에게 바쳐진 KBS미디어 센터의 현실가능한 유토피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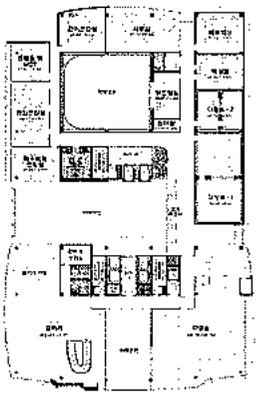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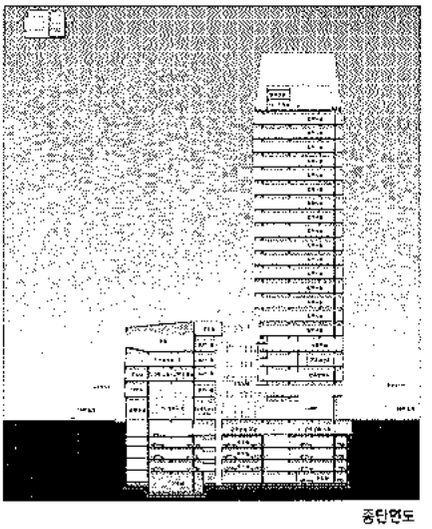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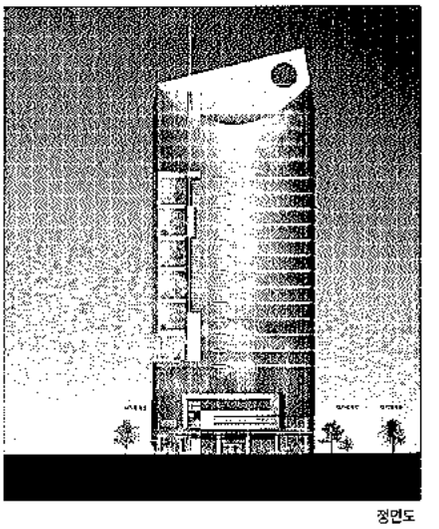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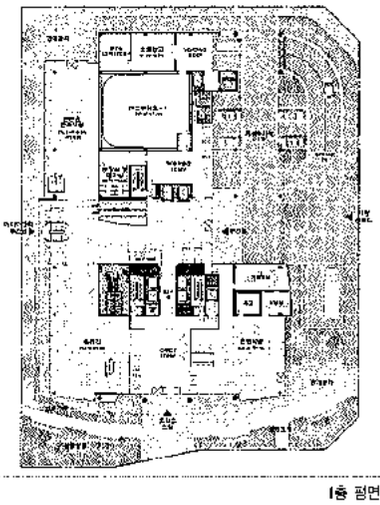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중단면도



정면도



1층 평면도

KBS 미디어센터
KBS Mediacenter

우수작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안길원)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509-7번지(E3-1)
지역지구	DMC계획구역 / 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지면적	4,514㎡
건축면적	2,590.26㎡
연 면 적	43,679.98㎡
건 폐 율	57.38%
용 적 률	599.88%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5층, 지상 21층
주차대수	372대
외부마감	THK24 알미늄 패널위 볼소수지도장, THK24 컬러복층유리
설 계 팀	이순환 본부장, 최창섭, 이태열, 윤동환, 심상철, 남무식, 배수웅, 윤여훈, 정길현, 강지호, 노재권, 윤지승, 김정섭, 박종윤

계획의 배경

- 세계적인 영상문화콘텐츠 전문 기업위상 확립
- 21세기 방송의 지적 생산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
- 미래 방송인력 양성의 중추적 역할 담당
- 국제 비즈니스 지원 및 고급임대수요 창출
- 콘텐츠 전문기업 이미지 창조

– 메탈과 그라스를 이용한 하이테크 디자인 추구

– D.M.C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 구현

- 첨단 인공지능 사옥 신축

– O.A FLOOR, MDF, IDF, 인테나, BIS설치

– 화상회의 지원가능한 IBS기반시설 설치

– 입주자의 자부심을 고양하는 공급임대 오피스 구축

- 미래 방송 교육의 메카

– 미래 방송환경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 선도

– 방송인력 양성 및 교양교육의 모범으로 계획

배치계획

– 도시축에 의한 차량 접근 주출입구와 보행접근 부출입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계획

– 차량접근자에게는 효율적인 짧은 동선, 보행접근자에게는 감성적 건축공간 제공

– 임대오피스 동선 및 미디어 센터 동선의 효율적인 조화와 분리

– 옥외 선큰을 이용한 편의시설 및 식당 동선의 분리

– 임대 오피스의 매봉산 경관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전면 남향배치

대지이용계획

– 업무지역과 택지개발지구, 공원과 연계하여 시민의 편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 미디어센터와 수익시설은 각기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되 서로 유기적인 동선체계 구성

* 오피스, 미디어센터, 공용공간, 외부광장, 녹지, 주차공간으로 크게 구분

* 채광 및 조망을 고려하여 오피스를 남향으로 배치함으로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외부동선계획

– TV제작공간, 아카데미공간, 콘서바토리공간, 사무공간은 동선 구분하여 계획

– 아카데미와 콘서바토리는 교육생의 외부출입 동선 분리, 내부동선과 화장실 배치 효율적 계획

– 1층 보행자 주진입은 남측과 북측에서 이루어지며 동측은 부출입을 계획함

–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구간에서 이루어지며 VIP차량 DROP OFF와 방송차량은 1층에 배치하고 나머지 지하주차동선은 램프를 IN/OUT 구분하여 차량 동선을 원활하게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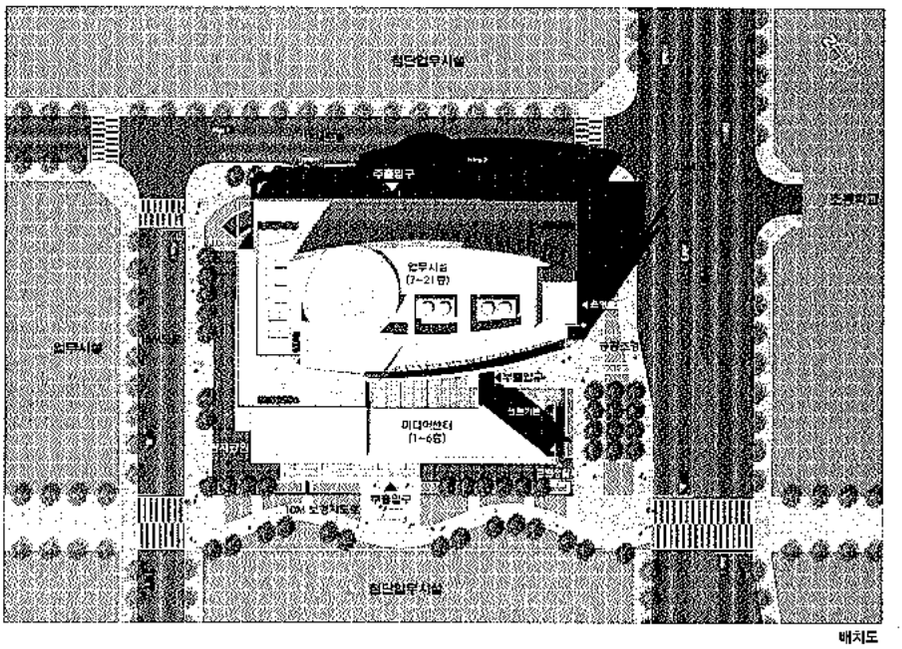
평면계획

– 지상1층 : TV제작공간은 TS-1을 중심으로 소품창고, 분장실 및 대기시로가 화물엘리베이터를 배치하여 물품하역 및 연기자 동선이 효율적으로 형성되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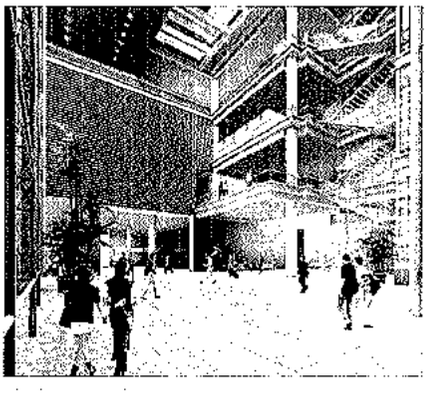
– 지상2층 : TV 제작공간이 중심이 되는 층. 폐쇄되는 공간이 많은 실 배치를 완화시켜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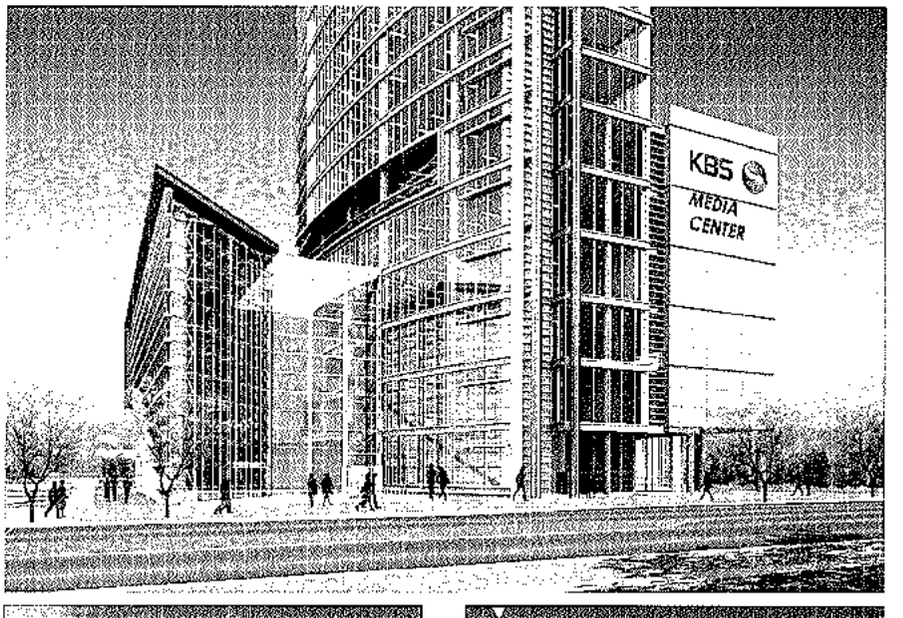
OPEN 공간을 두어 다양한 공간감을 줌. TV 제작공간은 TS-1상부를 오픈하고 상부벽을 투명한 재질로 마감하여 추후 견학동선을 고려

- 지상3층 : 방송아카데미 공간이 중심이 되며, 특수 강의실 ZONE과 일반 강의실 ZONE을 층 구분하여 동선을 분산시켜 동시 사용을 최적화
- 지상5층 : 콘서바토리가 중심이 되는 층으로, 연습실은 각실 간의 차음 및 전향시간을 고려한 마감재를 사용하고 오케스트라 연습실과 합주실을 같은 ZONE에 배치하여 이동동선을 최소화
- 지상6층 : 임원실이 중심이 되는 층으로 별도의 홀을 두어 대기 및 홍보전기 기능을 두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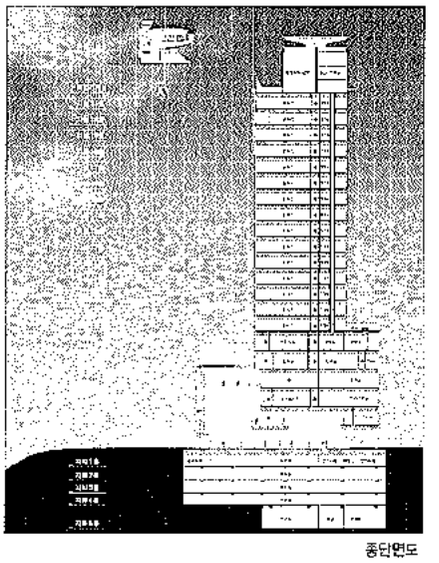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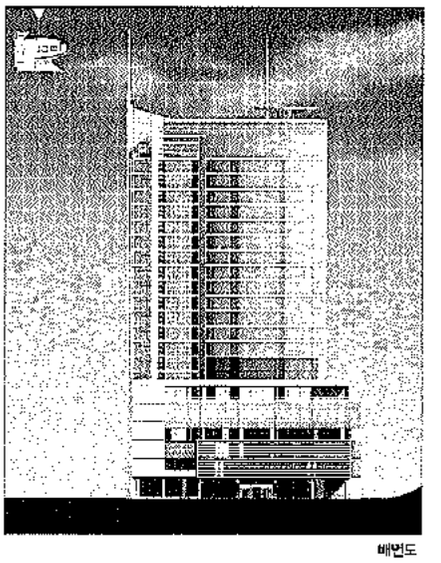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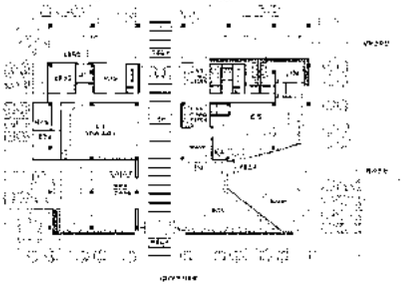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종단면도


배면도


3층 평면도

KBS 미디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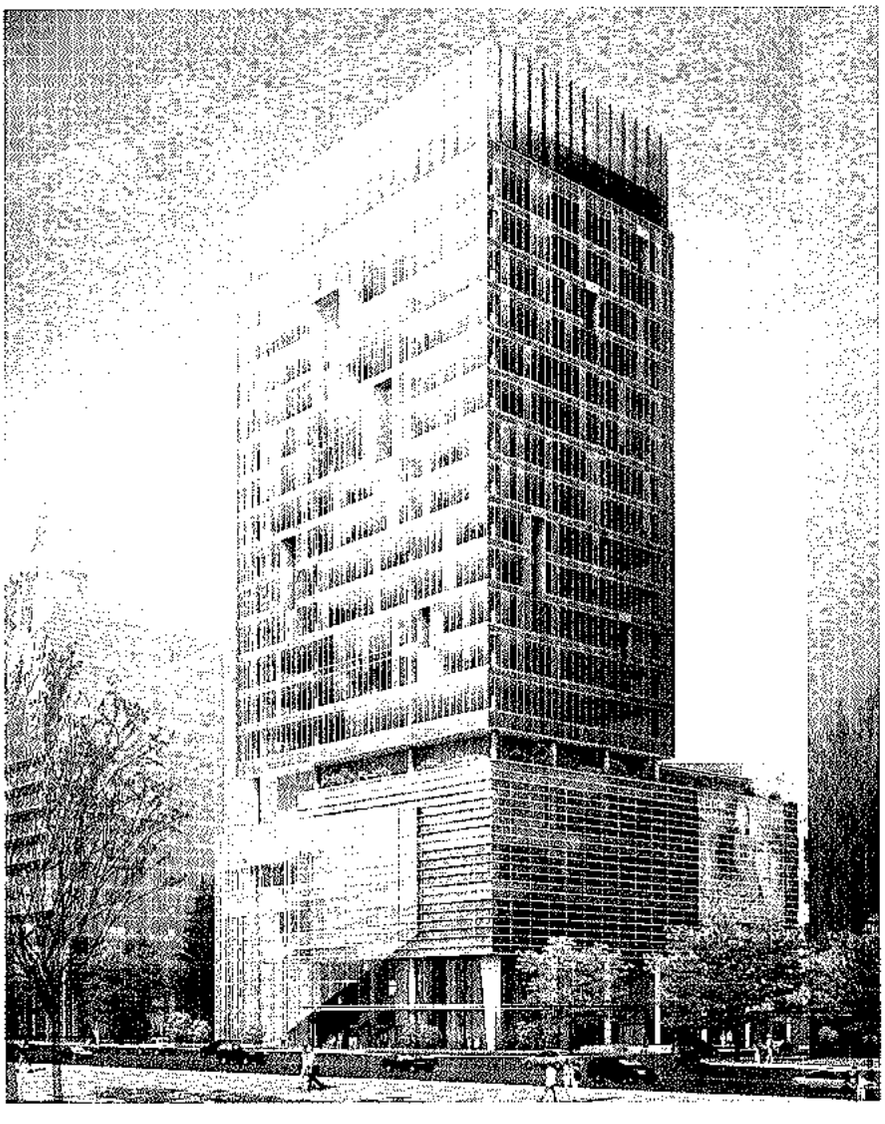
작가 / (주)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지호 · 조정호)

대지면적	4,514.00㎡
건축면적	2,707.95㎡
연 면 적	44,154.19㎡
건 폐 율	59.99%
용 적 률	600%
규 모	지하 5층, 지상 20층
구 조	지하 SRC조 / 지상 철골조
주차대수	계획 364대 법정(311대)
외부마감	외벽 : 금속패널, CRC보드, 복층유리 지붕 : 평지붕, 창호 : 커튼월
설 계 팀	이태민, 정성준, 원신희, 이정승, 조인영, 황경하

PROLOGUE

하이테크건물이란 또 얼마간의 하이테크일것인가 보이는 것들에 의해 만들어진 하이테크란 현 순간 기술의 수명과 함께 소멸되어질 과거의 흔적에 불과하다.

DMC내 새로이 지어지는 KBS미디어센터는 단순히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적응하는 건물이 아니라 마치 마로니에 공원 주변의 건물이 대학로를 만들어 내었듯이 단순히 복합기능의 총제가 아니라, 이를 위하여 비물질화된 건축적 기술을 총동원한 새로운 하이테크 건물을 제안한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KBS 미디어센터가 TEXT-의미-로서의 건물이 되기를 바라고 DMC의 사랑방이 되기를 원한다.



DMC의 사랑방

교육, 제작, 판매 등 다양한기능을 지닌 건물로서, 그 특성을 활용한 DMC내 사랑방을 만듦으로서 단지 내 중심이 되는 건물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늘 새로운 미래지향적 시도와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를 볼 수 있는 MEDIA WALL을 제안하고자 한다.

- 디지털미디어의 새로운 역사의 타임캡슐
- 학생자신의 표출이 DMC내 새로운 제안이 되고, 건물의 활력이 되는 공동체의 장
-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사랑방

City in The Building

건물 안에 도시가 있고 자연이 있고 형태가 있다. 좋은 건물은 자유로운 사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COMMUNITY형 새로운 OFFICE PLAN을 제안
- 고층 오피스의 그린을 이용한 외관은 사무실 환경에 자연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특색있는 건물의 외관을 창조
- 지상층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중심으로 흐르는 자연은 지하층의 근생으로 연결됨으로서 지하의 접지성을 높이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이루어지는 에너지 절감형 건물을 제안한다.
- 중층부의 TV제작센터 전용정원, 오피스 ZONE의 비즈니스센터 전용정원 등 다양한 레벨을 지니는 옥상정원 다양한 이용자의 적정크기의 휴먼 스케일화된 정원을 제공한다.
- 옥상의 다목적강당의 지붕을 활용한 옥상정원은 옥외 공간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NEEDS를 충족시킨다.

랜드마크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사면이 정면인 건물

- 입지현황 : 어느 방향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가로변
- 각기 다른 가로의 특성을 따라 저층부는 접근자의 특성 (Walking/Driving, 목적성/비목적성)에 따른 입면의 구성.

-고층부는 원거리 시각에서의 사면이 정면이 건물로 구성.

- 내부의 투영에 의한 오브제가 아닌 TEXT로서의 건물 : DMC의 특성을 표현

변화하는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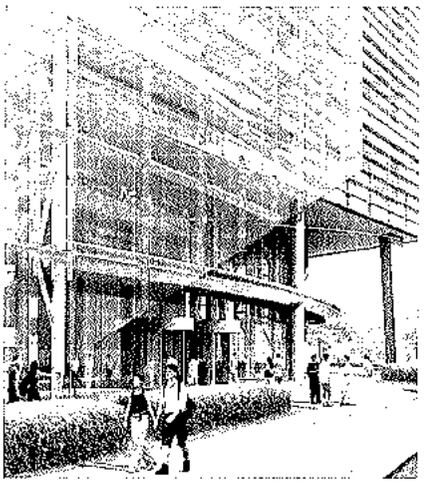
하드웨어로서의 건물은 고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정되지 않는 변화하는 건물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리는 이러한 표현에 좋은 재료이며, 첨단 기술에 의해 그 효과는 극대화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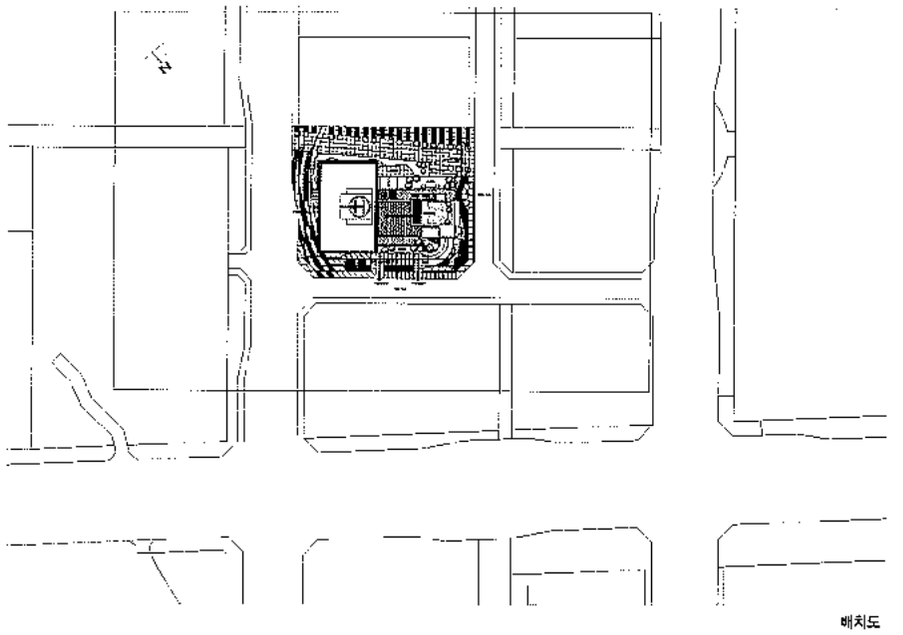
- SCREEN GLASS (가변투과 유리)활용 다양한 변화를 극대화.
- 기존의 SOLID 재질에서 구현하였던 다양한 방법을 유리를 통해 구성함으로 새로운 첨단 이미지 부여
- 이동시각, 정지시각, 계절,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건물을 만드는 경제적 디테일 활용.
- 유리의 투명성, 컬러, 실크스크린 등 첨단 기본들을 활용하여 물질과 비물질의 중간적 존재를 만들어 냄으로서 영역을 모호하게 하고 유통시킴으로서 공간의 확대를 극대화하고, 매체-미디어-로서의 특성을 강조

효율적인 오피스 플래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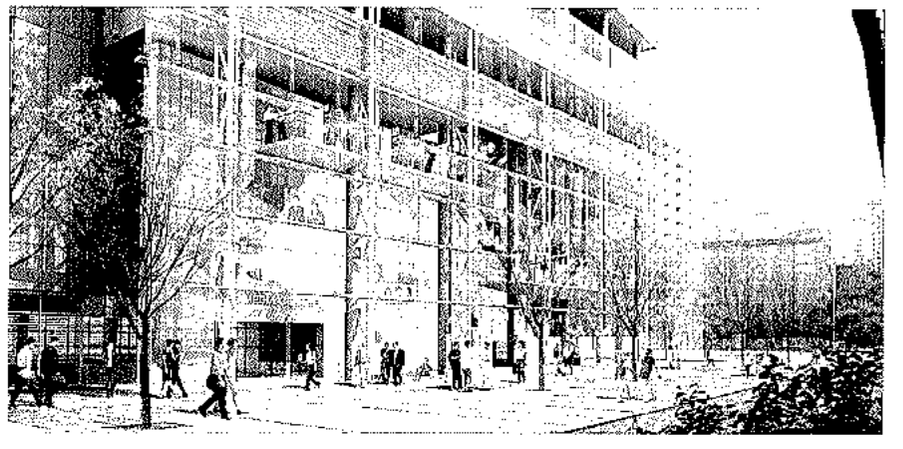
효율적이고 다양한 임대가 가능한 사무실 PLA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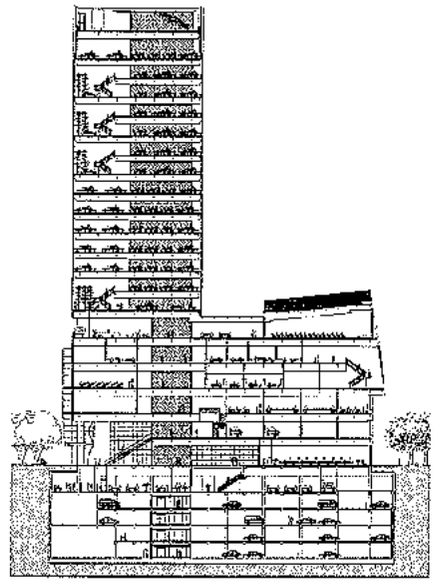
- 구조적으로 경제적이고 자연채광이 가능한 13.5M 적정폭을 기준으로 사무실을 구성.
- 다양한 분할과 통합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사무실 임대가 가능케 함으로서 임대효율을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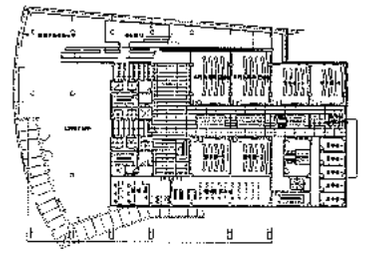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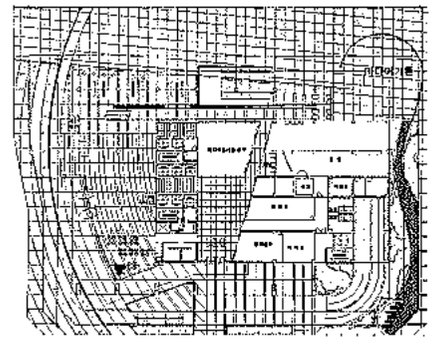




단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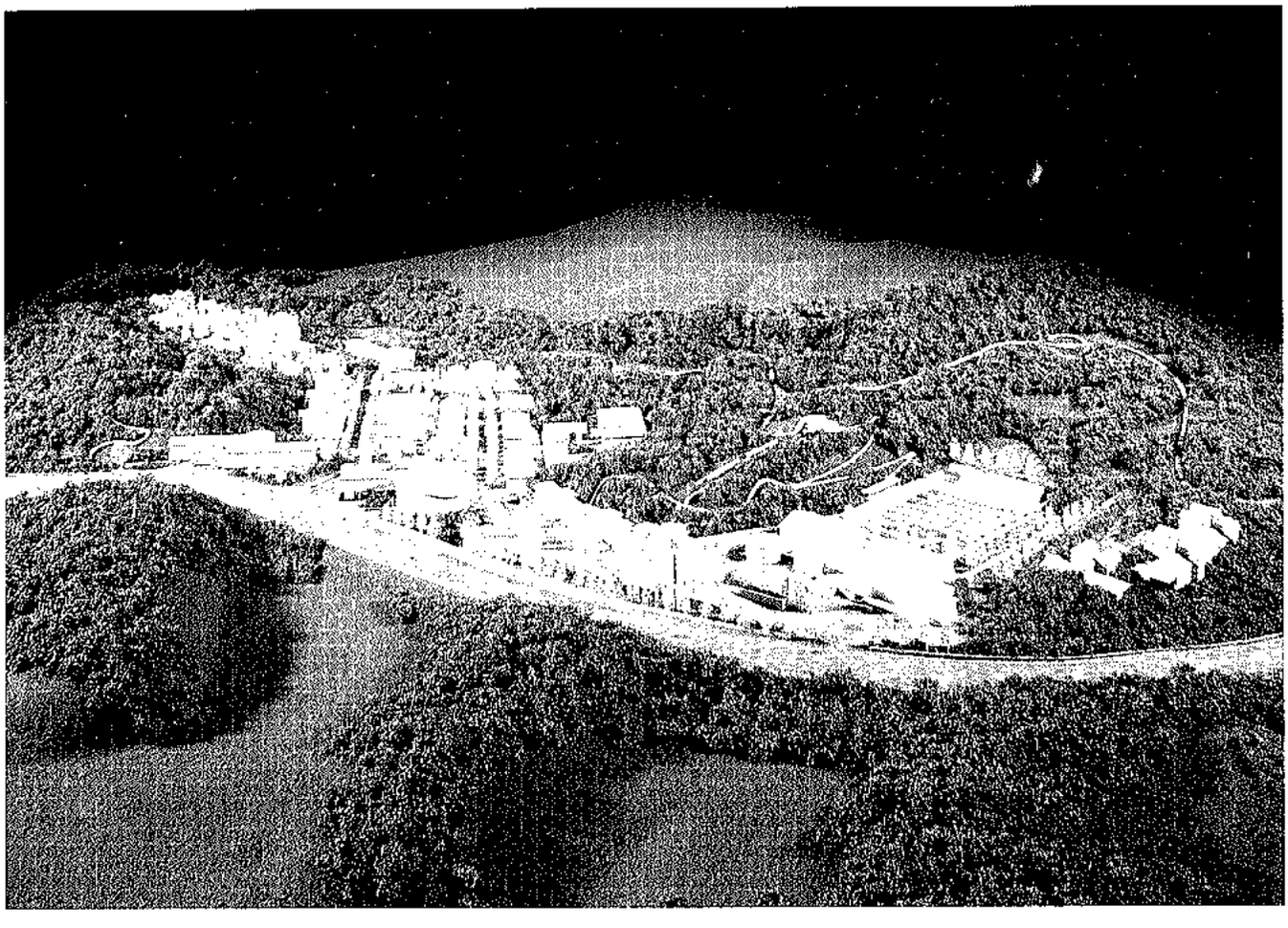
경기도 영어마을
Gyeonggi Province English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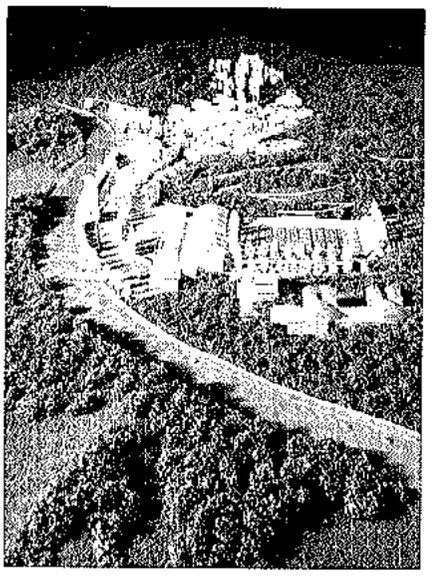
당선작 / 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심재호) + 테제 건축사사무소(유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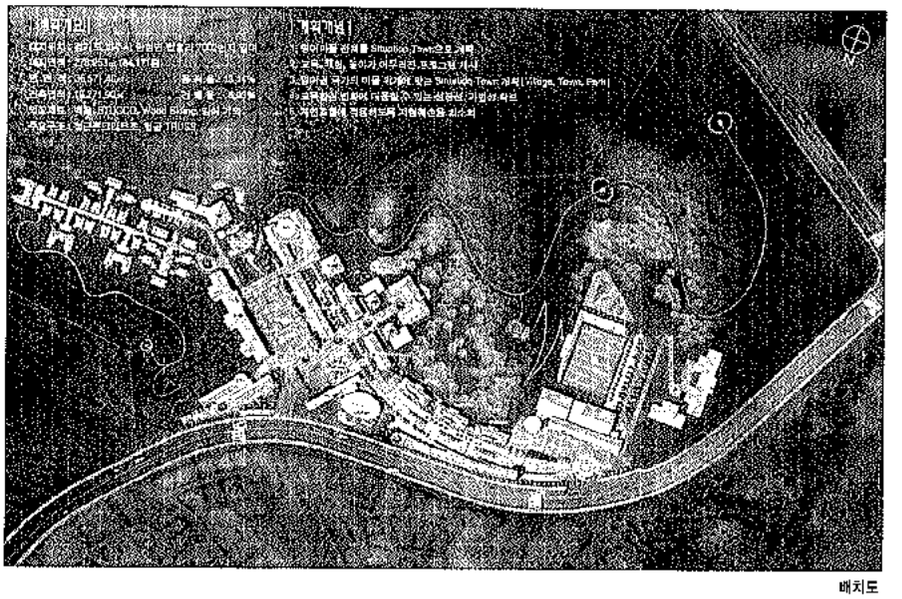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7002번지 일대
대지면적	278,253㎡
건축면적	19,271.90㎡
연 면 적	36,571.40㎡
건 폐 율	6.93%
용 적 률	13.14%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TRUSS
주차대수	400대
외부마감	벽돌, STUCCO, WOOD SIDING, 양식기와
설 계 팀	원형준, 김석원, 손기영, 서제성, 신용성, 신정훈, 손남일, 유승원, 도영주 (범건축) 변문수, 이정학, 유천복 (테제건축)
참여단체	정일구조(구조), 세아엔지니어링(기계), 전기설계협안(전기), 청아엔지니어링(토목), 민조경(조경)

계획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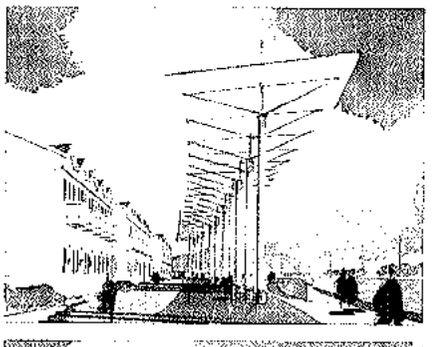
- 영어마을 전체를 공간적, 시각적, SITUATION TOWN으로 계획
- 숙소동 : 숙박 SITUATION
- CIVIC CENTER, 도서관 박물관 SHOP: 생활 SITUATION
- 외부체험관 : 활동 SITUATION
- 공연장, 전시장 : 문화 SITUATION
- 교육(Education) · 체험(Experience) · 놀이(Entertainment)가 어우러진 3E 프로그램 제시로 개념을 극대화 하고, 생태환경(Environment)이 배려된 영어마을 계획
- Education : 단기, 중장기 프로그램제공 → 영어구사능력배양
- Experience : 직업별, 기능별 체험학습, 일반인을 위한 견학 → ENGLISH THEME PARK
- Entertainment : 스포츠, 레저, 문화시설도입 · 체험과 놀이가 복합된 교육프로그램
- 영어권 국가의 마을 위계에 맞는 SITUATION TOWN계획(VILLAGE, TOWN, PARK)
- VILLAGE : 주거시설, 교육시설
- TOWN : 공공시설, 상업시설
- PARK : STUDIO, 외부체험관, ECO PARK
-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성, 가변성 확보
- 자연흐름에 적응하도록 지형훼손을 최소화
-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낮은 건물군
- 지형훼손의 최소화로 공사비 절감
- 도시성과 자연환경이 하나가 되는 영어마을 계획
- 일관된 푸른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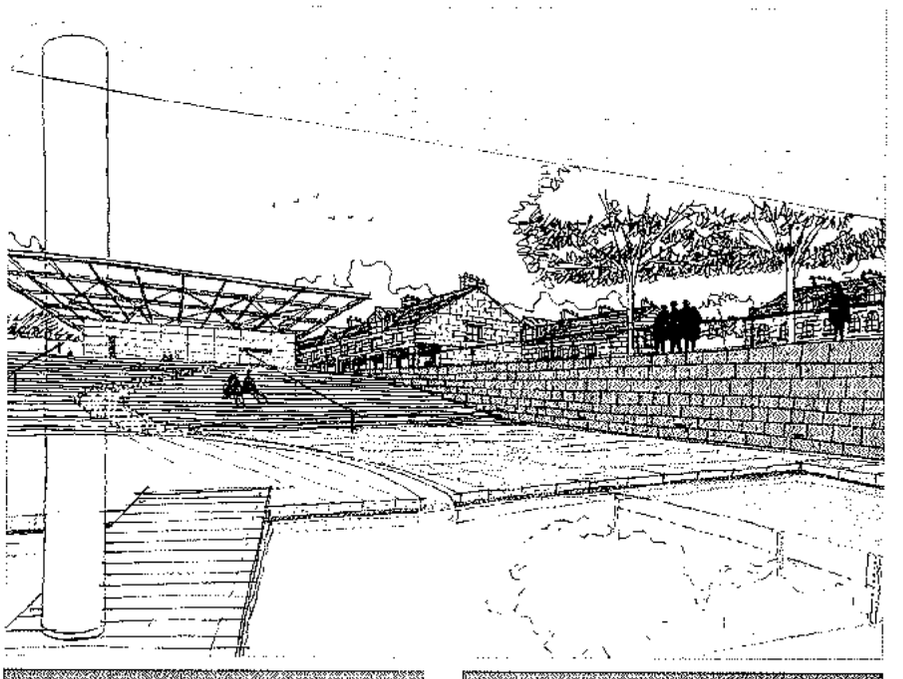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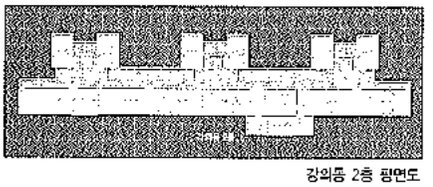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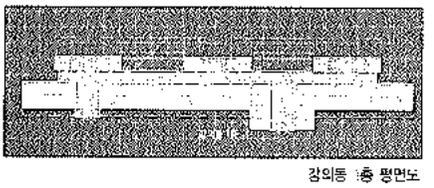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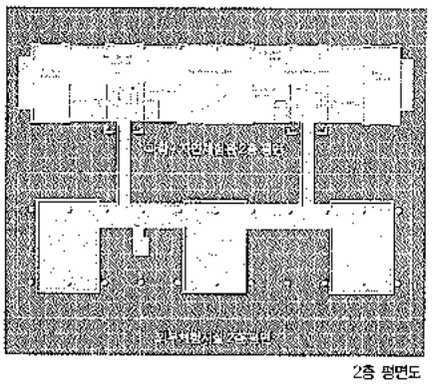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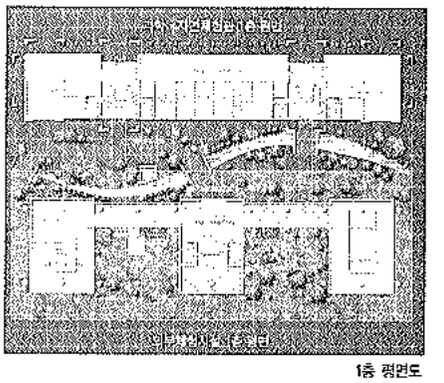
강의동 2층 평면도



강의동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입면도

경기도 영어마을
Gyeonggi Province English Town

우수작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림+ 서해천)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700-1, 700-2 번지 일대
지역지구 관리지역, 개발촉진지구 / 군사시설 보호구역
용 도 휴양, 운동, 숙박, 연수, 교육, 관람집회 시설
대지면적 278,253㎡
건축면적 16,601.1㎡
연 면 적 36,727.2㎡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주차대수 405대
설 계 팀 이현종, 박창배, 강경욱, 전진곤, 김광수, 양희진, 임정국, 김경선, 이보람, 이동건, 이주한, 이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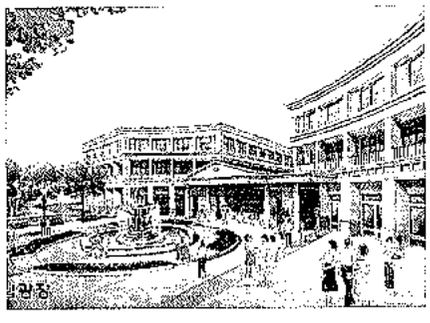
이번 영어마을현상설계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의 설정과 그에 부합되는 배치계획 그리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대응하는 기능존의 배치계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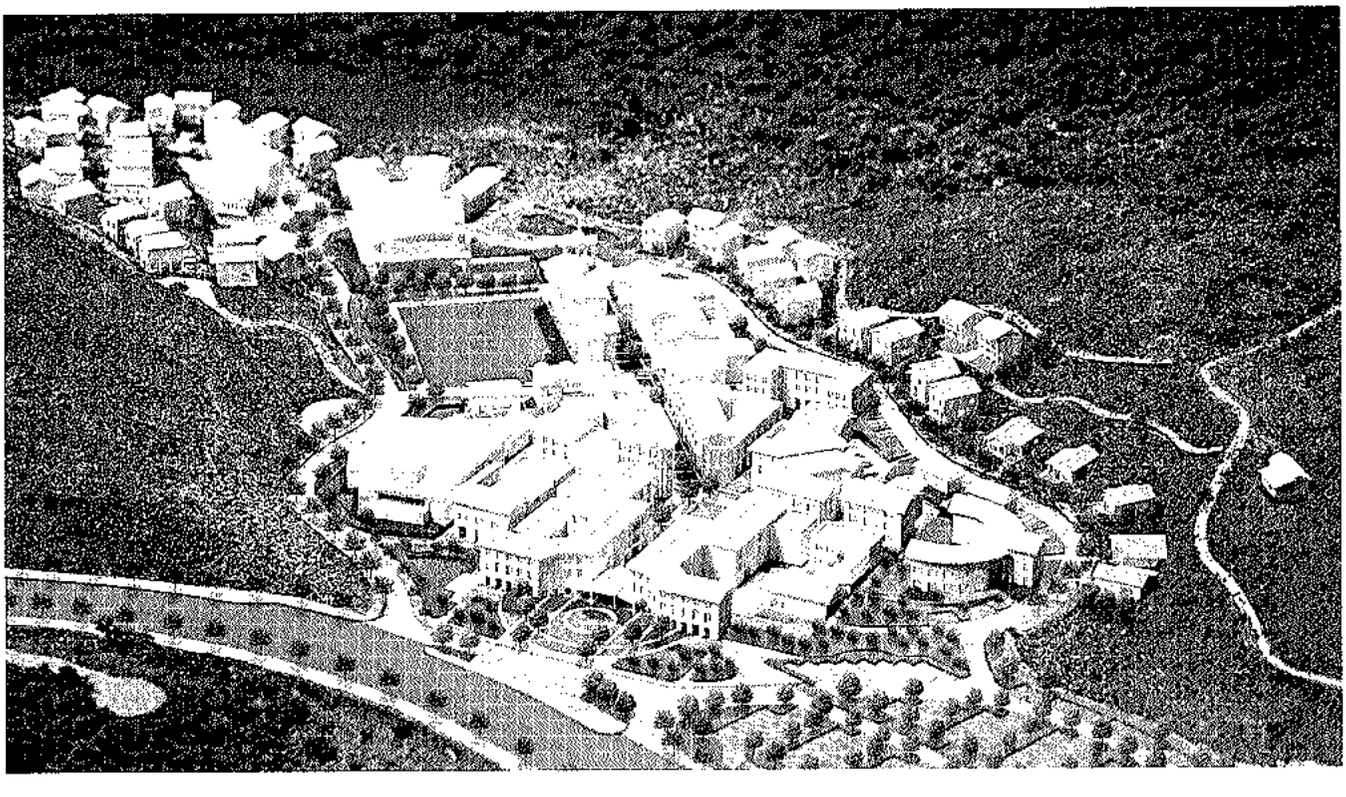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영어마을이 어떤 프로그램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화두였고 많은 시간을 투여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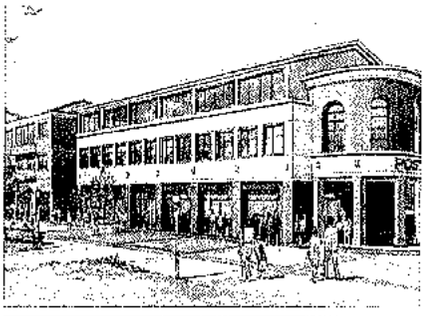
우리팀은 본 프로젝트의 전제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단순히 말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 권국가의 문화를 실제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습득하여야 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설계의 주안점으로 삼은 것은 각각의 생활을 상황(situation)별로 정의하고 그에 맞는 테마가로를 조성하며, 교육생들이 실내강의실에 갇혀 있지 않고 외국의 어느 타운을 연상하며 입체적인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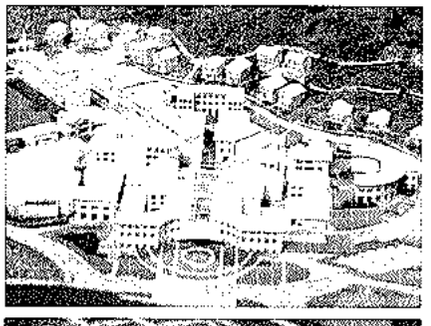
로데오거리, 브로드웨이거리, 노팅힐테라스 등 지명에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실제 교육프로그램과 일치되도록 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갖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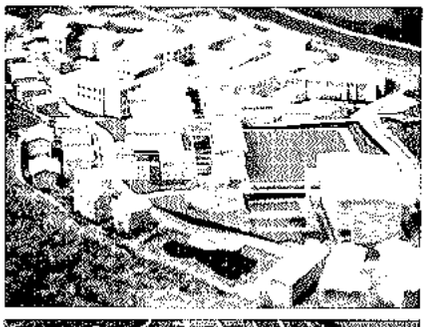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높은 영어교육열을 고려하여 주말에는 가족단위의 체험방문객들과 + 기존 교육생들의 교육프로그램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각각의 존이 독립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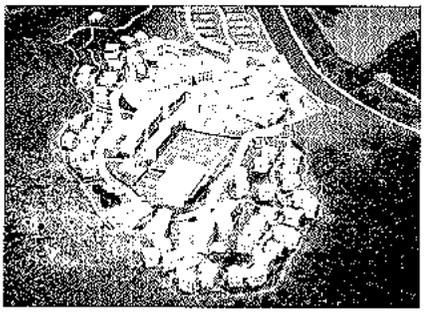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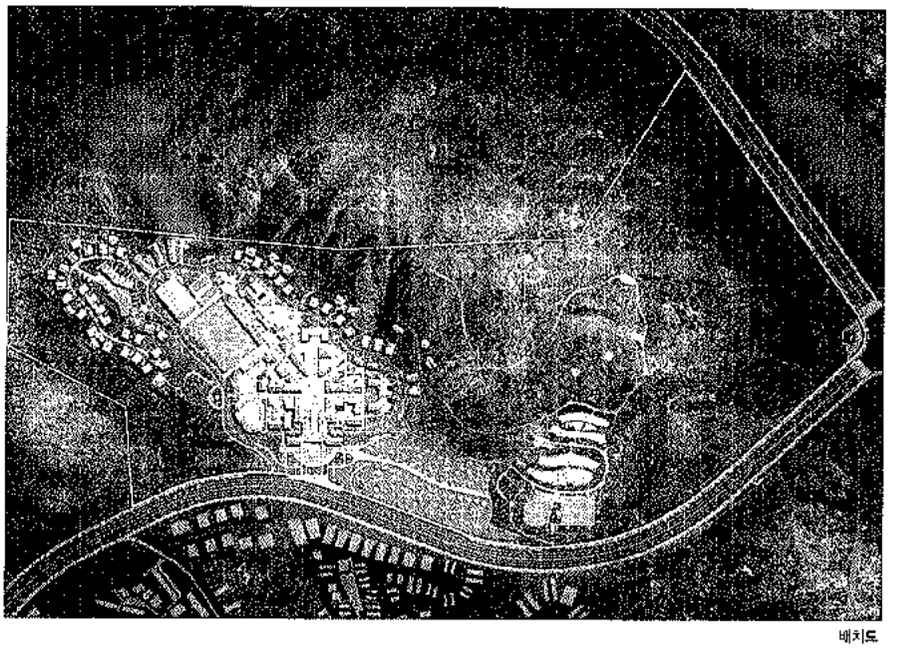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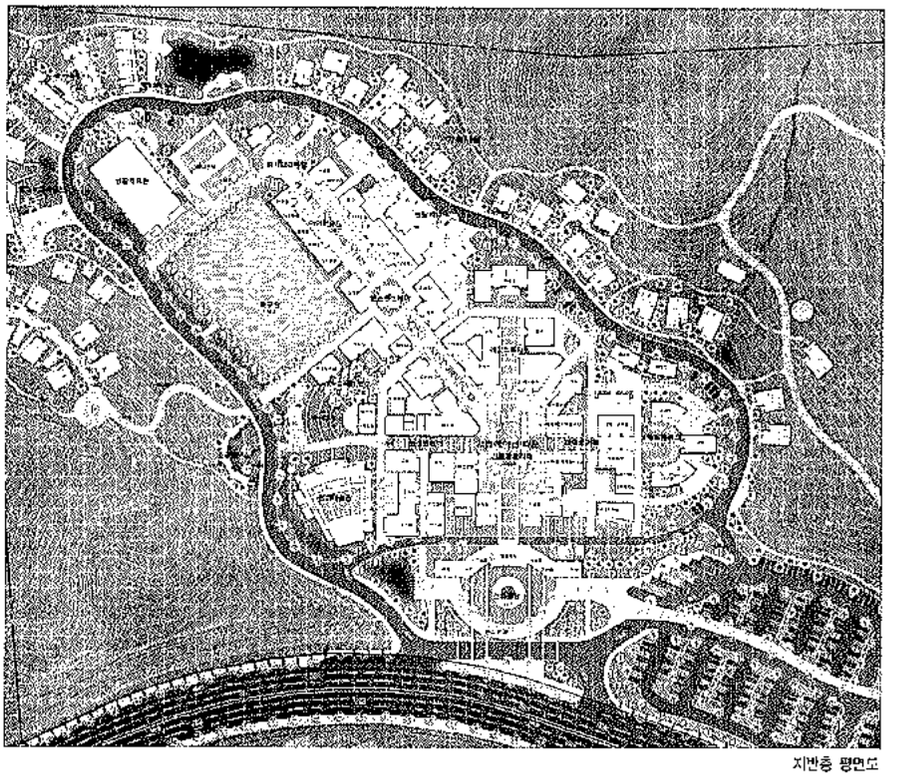








배치도



지반층 평면도

입면도

서울시립아동병원
Seoul Metropolitan Children's Hospital

당선작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주)본디건축사사무소+(주)유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양내원(한양대학교 교수)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6-7일대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 공원, 종합의료시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용 도 의료시설(병원)
대지면적 46,421㎡
건축면적 3,442.45㎡
연 면 적 14,483.59㎡
건 폐 율 7.42%
용 적 률 31.20%
구 조 철근콘크리트,경량철골구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6층
주차대수 137대(법정 135대 이상)
외부마감 붉은벽돌 치장쌓기, 압출성형 시멘트판, 목재 사이딩, THK18 복층유리 커튼월

배치개념

량동선 중심

배치 프로세스(Zoning)

• 병동부

– 대지특성을 고려하여 장기만성환자 위주의 병동부를 동측에 위치

– 병동부와 연계하여 1층에 공급부 배치

• 외래부/주간치료센터

– 서측에는 왕래가 많은 외래부, 주간치료센터, 단기급성환자병동, 관리부 위치

– 진입과 연계하여 주간치료센터 독립배치

외부공간 (Landscape)

• 보행동선

– 2층 데크상부는 대지의 레벨차이를 이용하여 보행동선 중심

• 차량동선

– 1층 데크하부는 차량진입동선과 연계하여 차

옥외공간 (Outdoor Space)

• 마당

– 도시를 향한 조망을 통해 도시의 간접경험 형성

– 소음과 먼지로부터 병동부 영향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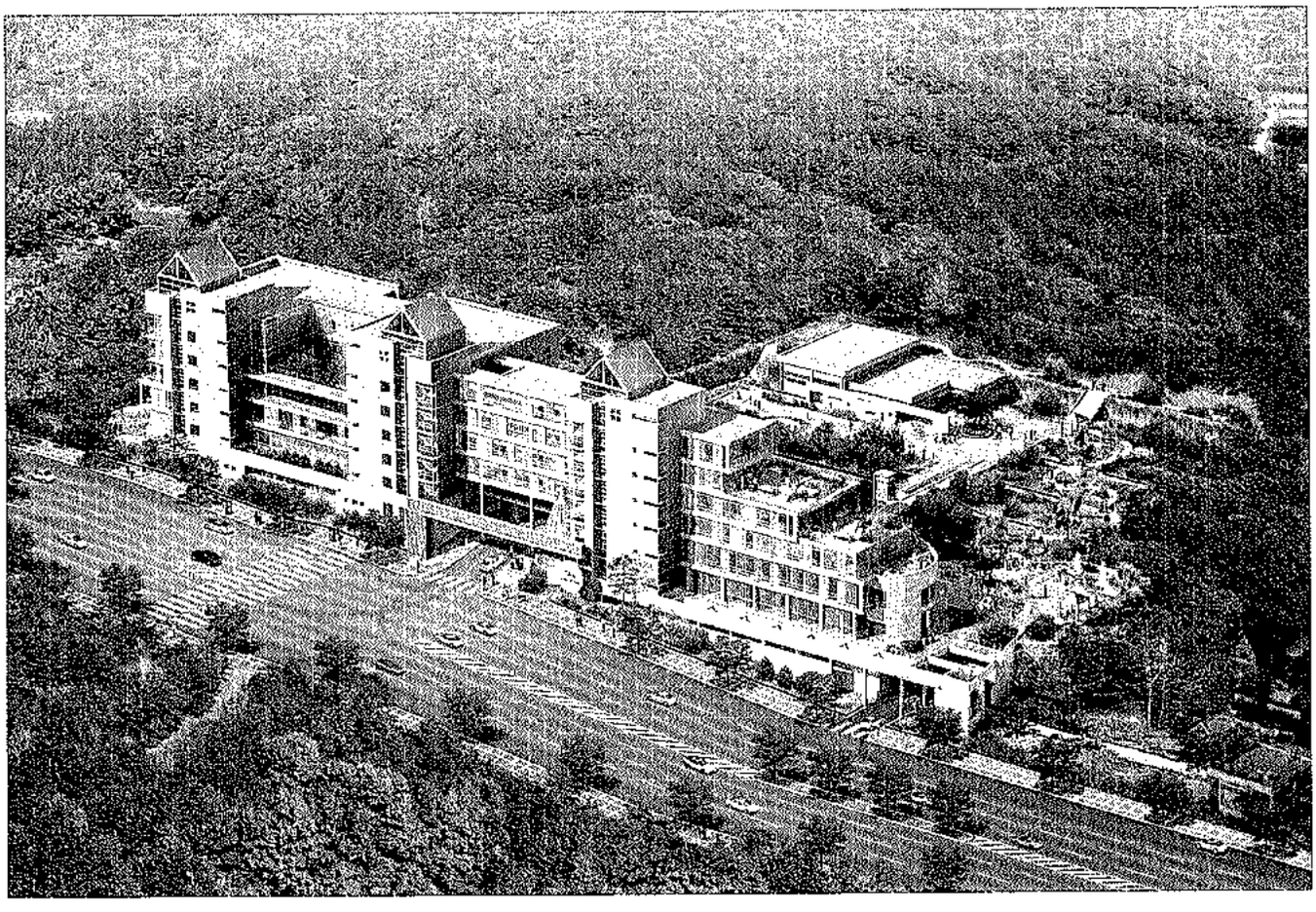
• 계단식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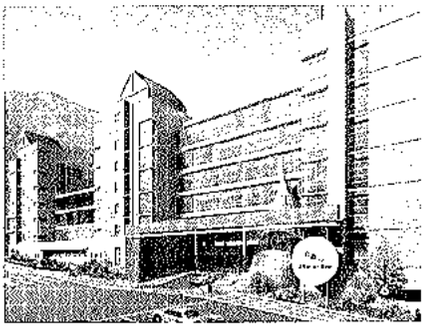
– 주변지형에 순응하여 안전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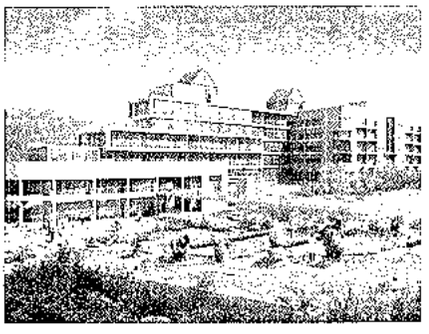
– 다양한 옥상정원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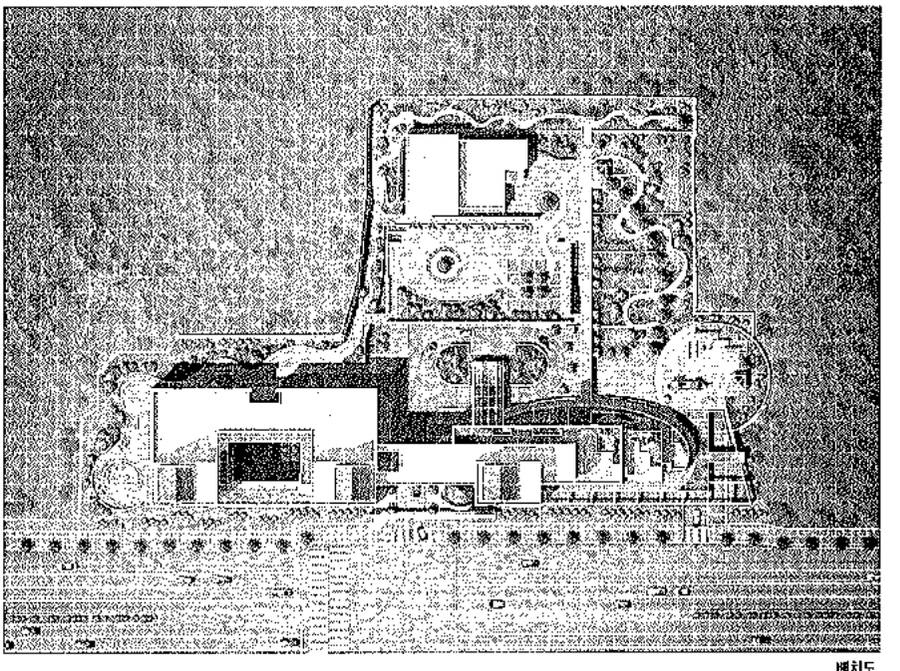
향후발전계획 (Speciality)

• 향후 증축을 고려한 배치계획에 의해 서측에는 주간치료센터와 치과발달센터의 수평확장, 병동부는 수직확장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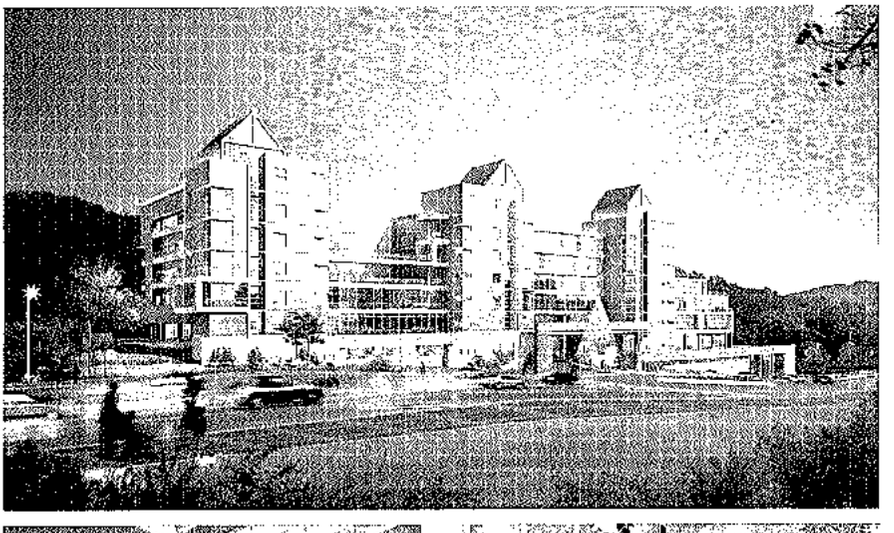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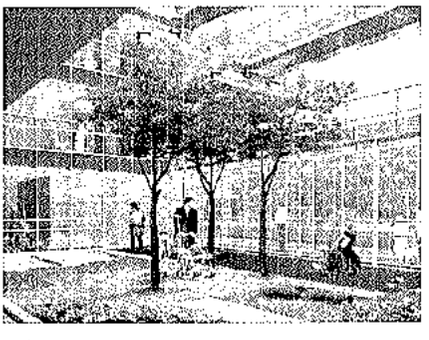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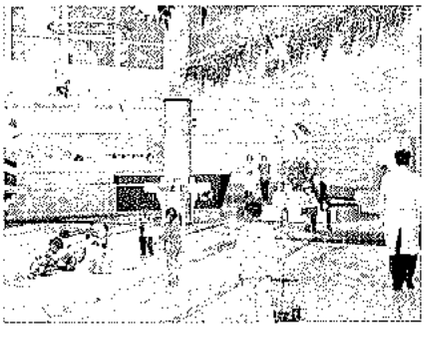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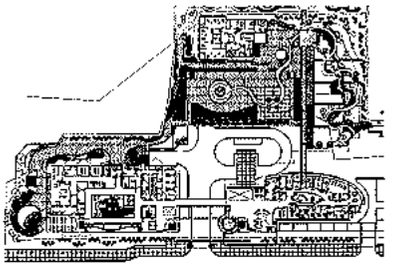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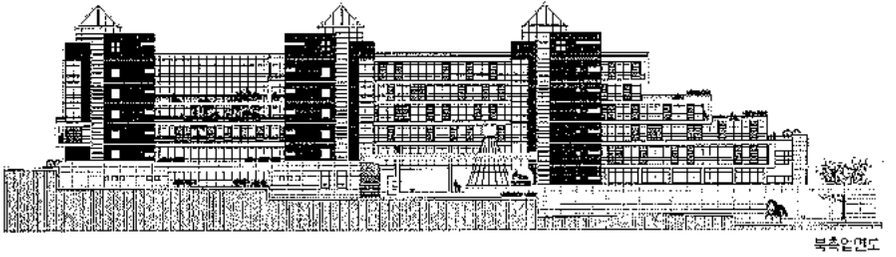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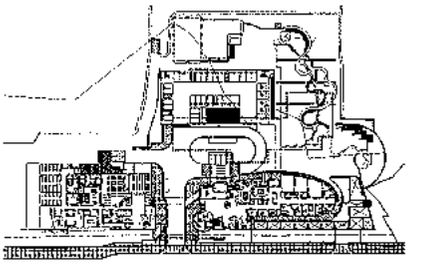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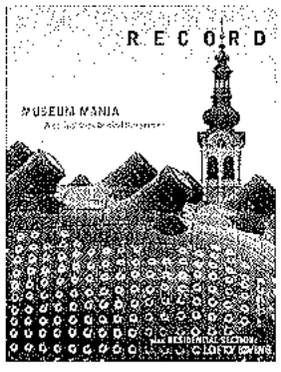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rchitectural Record
건축문화

Architectural Record

2004년 1월



박물관이 집중적으로 다뤄져서 최근 미술관 건축에 대한 책을 펴낸 Victoria Newhouse와의 인터뷰가 실렸으며, 최근 완공되는 미술관의 경향이 과도한 자본과 유명 건축가들의 현란한 형태유희를 비평한 글과 함께 Peter Cook의 Graz시 미술관과 그 밖의 도시들의 여러종류의 박물관 및 미술관 건축이 소개되었다. 또한 각 거주자의 개성이 충분히 반영된 뉴욕의 로프트 하우스 4작품이 자세히 다뤄졌다.

■ 예술과 미술관- 건축역사학자 Victoria Newhouse와의 인터뷰

Newhouse는 최근 미술관에서 예술이 어떻게 전시되고 인지되는가에 대해 고찰한 책 "Art/Power/Placement"을 출간하였다.

AR: 당신의 책에서 미술관에서 관람객이 설치작품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그러한 주제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VH: Yoshi Tanaguchi의 Museum of Modern Art(MoMA) 증축안은 나로 하여금 미술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도록 자극하였다. 그것은 미술관이라는 시설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Jackson Pollock의 전시가 1998년 뉴욕, MoMA와 그 이듬해 런던의 테이트 갤러리에서 열렸는데, 각 미술관에서 전시된 동일한 작품이 너무나 다르게 보였으며,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깨닫고는 매우 놀라웠다. 런던에서는 풍부한 자연광 아래서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반해, 뉴욕의 MoMA에서는 인공조명에 의존하였다. 또한 전시 시퀀스에 있어서 뉴욕의 경우는 작가의 후기 작품은 경시되어 관람객이 감상을 놓치기 쉽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런던에서는 작품감상의 시퀀스에 클라이막스가 있었다.

AR: 요즘 미술관들은 공장이나 창고건물을 개조하여 쓰는 경향이 많은데, 이럴 경우 채광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것을 해결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VH: Dia: Beacon은 오래된 나비스코 공장을 개조한 것으로서 북측으로 나 있는 클리어스토리 창과 일반적인 측창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미술관에 빛을 유입시키고 있다. 예술가들은 종종 어떤 큐레이터나 건축가보다도 작품의 설치에 뛰어난 감각을 가졌다. 1940년대와 50년대 예술 중흥기의 뉴욕, Betty Parsons는 그녀의 갤러리 작품설치에 예술가를 고용하기도 하였으며, 신 고전주의 조각가인 Bertel Thorwaldsen은 그의 작품을 전시할 코펜하겐 미술관의 디자인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 작업에서 그는 빛의 사용에 대한 전형을 마련하였는데, 전시공간에는 수평성(측창으로부터 오는 빛)과 수직성(천창으로부터 오는 빛) 모두 필요하다고 하였다.

AR: Peter Zumthor의 Kunsthaus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채광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VH: Bregenz의 Kusthaus는 Louis Kahm의 Kimbell 미술관과 같이 독창적으로 빛을 사용한다. 층간의 외벽으로부터 유입되는 빛이 유리 천장판을 통해 걸러져서 들어오는 방식으로서 고루 확산되는 빛은 작품 감상에 있어서 완벽하다. 그러나 Kimbell과 마찬가지로 마감의 재질로 인해 문제점이 발견된다. 거친 콘크리트 마감은 빛을 흡수해 버리며, 유광의 테라조 바닥은 빛을 반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유화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작품의 감상에 문제를 일으킨다.

AR: 라스베가스의 베네치안 리조트에 위치한 Koolhaas의 Guggenheim Hermitage가 작품의 전시에 문제점이 있다고 당신은 지적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VH: 이동가능한 갤러리의 파티션과 작품의 배경벽을 코르텐으로 마감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 선택은 작품의 배경으로서 가장 잘못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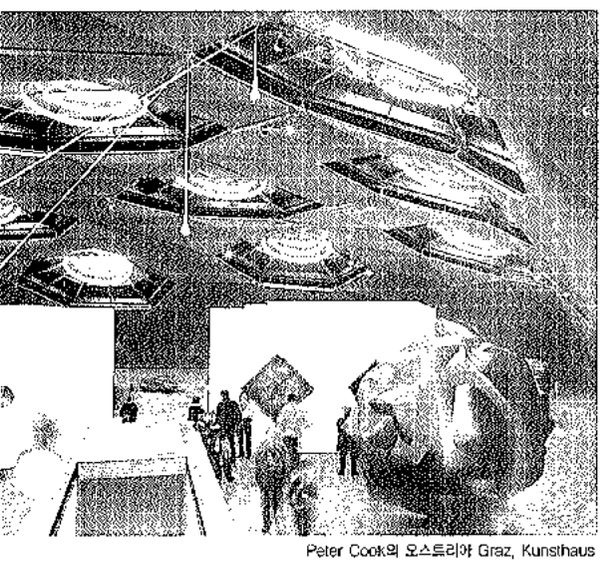
Koolhaas는 벨벳과 같고 윤이 나는 느낌을 가진 이 재료의 선택이 Hermitage에서 보이는 회화와 대비되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근대적 어휘의 복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흥미로운 주장은 그렇게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라스베가스의 Gugenheim 미술관은 라스베가스처럼 매우 팽키하고 키치적이다. 작품은 검은 벨벳으로 덮인 벽에 걸려 있으며 카펫의 무늬는 지나치게 화려하다.

그 밖에 작품의 프레임, 배경 벽의 색과 재질 그리고 벽의 적정한 길이 등에 대한 그녀의 고찰이 인터뷰에서 잘 밝혀졌다. 또한 작품의 스케일과 건축의 관계, 건축 전시회에 대한 평가, 작품 관람을 위한 이상적인 음환경에 대한 내용도 소개되었다.

■ 건물유형연구-박물관

▶ Peter Cook의 오스트리아 Graz, Kunsthaus

Peter Cook과 Colin Fournier가 결성한 Spacelab은 독일의 엔지니어링 회사와 조인트 벤처로 이 미술관의 현상설계에 공모하여 당선되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에 나올법한 18세기 파스텔 색상의 바로크 건물이 밀집한 작은 마을에 착륙한 이 친근한 외계물체는 반짝이는 아크릴 표면에 푸른색 버블로 뒤덮여 있다. 이 푸른 버블은 아키그램의 교과서와 같은 것으로 1961년 그들은 이 푸른 버블을 plastic과 skin이란 단어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또한 건축가들이 "Communicative Display"라 부르는 것으로 파사드가 건물 내부의 상황을 암시하는 막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러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925개의 원형 형광등이 외부 스킨의 안쪽에 부착되는 방법으로 현실화 되었다. 각각의 등은 컴퓨터로 제어되어 켜지고 꺼져서 외벽면 자체가 저해상도의 흑백 화면이 되어, 단순한 사인이나, 애니메이션 필름 등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다. 겉으로는 매우 비싼 건물로 보이지만, 유리대신 아크릴을 사용하고 일반 형광등의 활용으로 매우 경제적으로 접근하여 진정한 팝 미학을 드러내고 있다.



Peter Cook의 오스트리아 Graz, Kunsthaus

▶ Gluckman Mayner의 일본 동경, Mori 아트 센터

이 미술관은 Roppongi Hills의 오피스 타워 53, 54층에 위치한다. Roppongi Hills는 동경이 아무리 고밀도이며 혼돈스러운 도시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무나 거대하다고 비판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도쿄 디즈니랜드에 한해동안 25만명이 방문한데 비해, 지난 해 5월 개장한 이래, 이 다용도 복합시설에는 약 26만명이 다녀갔다. Gluckman은 이 시설의 문화적 장소로서의 아이콘적 요소를 필요로 하였다. 오피스 타워의 1층에 약 60피트 높이의 파빌리언이 이와 같은 이유에서 설치되었다. 파빌리언의 글라스 콘을 통하여 방문객은 쇼핑아케이드로부터 Mori 오피스 타워에 이르는 브리지로 연결된다. 일단 오피스타워에 진입하면 52층까지 곧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의해 미술관에 이르게 된다. 52층에 도달하면 방문객은 이 층의 L자형 갤러리로 통하거나 위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아트리움으로 연결된다. L자형의 갤러리가 비교적 정적인 분위기를 이루는 반면, 미디어 아트를 전시하는 반투명한 글래스 박스의 전시공간은 2개층 높이의 공간을 관통하여 역동적인 전망대 역할도 한다. 이 곳에서 관람객들은 도시를 관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물의 커튼월에 투사되는 새로운 미디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Gluckman Mayner의 일본 동경, Mori 아트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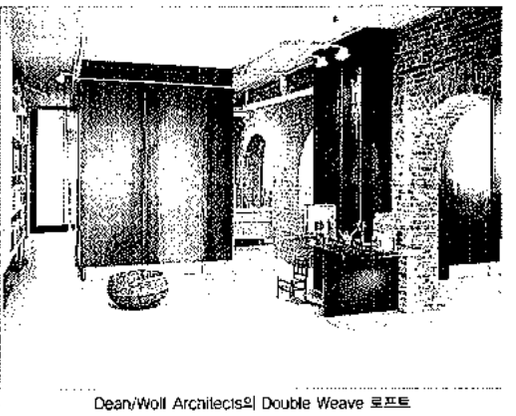
그 밖에 ▶ Weiss/Manfredi의 미국 Ithaca의 Museum of the Earth ▶ Renzo Piano의 미국 달라스, Nasher 조각 센터 ▶ Takaharu & Yui Tezuka의 일본 Matsnoyama 과학 박물관 ▶ Allied Works Architecture의 미국 St. Louis 현대 미술관 ▶ Flores+Prats Architects의 스페인 Majorca, Mills Museum of the Balearic Islands 등이 소개되었다.

■ 뉴욕의 로프트 하우스 리노베이션

뉴욕의 로프트는 매우 다양하게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제는 이전의 보헤미안적 색채는 없어지고 다소 부르주아적이 되어 버렸으며, 점점 다양화되어 스테레오 타입도 없어졌다. 거주자의 편의에 따라 새로이 새겨지는 검은 석판과 같이, 오픈 플랜의 융통성 있는 내부공간에 자유롭게 거주자의 취향과 편의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 Dean/Wolf Architects의 Double Weave 로프트

로어 맨하탄에 인접한 Tribeca에는 아트갤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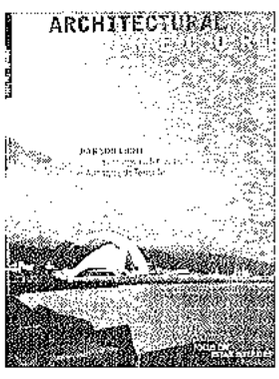
Dean/Wolf Architects의 Double Weave 로프트

리, 공업건물, 레스토랑 그리고 상부에 로프트하우스를 가진 3층 규모의 상업건물이 모여 있다. 이 지역의 로프트 하우스는 25피트 너비인데 이 건물은 그 두 배 너비로서 붉은 벽돌조 지지벽이 중앙을 가르고 있다. 이 벽은 아치형으로 개구부를 두어 공간의 중심이 되는 동시에 거주자 부부의 반대되는 취향이 결합되는 매개가 된다. 건축가는 디자인하기에 앞서 예술가와 음악가 부부인 건축주에게 이 로프트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도록 했다. 한명은 장식품등이 가득 찬 그림이었고, 그의 부인은 간결한 빈 공간을 나타내었다. 건축가는 두 상반되는 취향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것을 디자인의 출발로 삼았다. 때로는 상반되는 요소의 균형이 그 두개가 그냥 합쳐져 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중앙의 조적벽과 이를 가로지르는 벽의 유희에 의해 상반되는 재료와 프로그램을 수용한다.

그 밖에 ▶ Murphy Burnham & Buttrick의 Fifth Avenue 로프트 ▶ Rogers Marvel Architects의 펜트하우스 로프트 ▶ Eric Steel의 Chealsea Steel 로프트 등이 소개되었다.

Architectural Record

2004년 2월



이번 호는 3년 단위로 실시되는 AIA의 건축설계회사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소개하여, 현 미국의 건축설계업계의 상황과 그 전망을 알아보았다. 신작으로는 다원적 의미를 전달하는 조각적인 형태로 유명한 Santiago Calatrava의 오페라 하우스와 Foster and Partners의 학문간 교류를 조성하는 오픈플랜의 연구동, 바로크적 공간과 빛을 만들어낸 Richard Meier의 로마 교회 등이 소개되었다. 역사적 건축물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재생시킨 프로젝트가 이번 호 건물유형 연구의 주제이며, 최신 상업시설 인테리어가 특집으로 다뤄졌다.

■ 2003 AIA 건축설계회사 조사

건축가들의 현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알아본다. 이 조사는 1988년 이후 매 3년마다 AIA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9,620개의 AIA가입 회사 중 8,237개 회사를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의 미국 경제 성장률은 4%인 반면 건축회사의 성장률은 2%로에 그쳤다. 이는 비주거부분 건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6년에서 1999년의 전례 없는 경제 호황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던 설계 사무실들은 최근 3년간의 불황에 대한 자구책으로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으로 특화를 하거나 돈 많은 신흥 기업들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옮겨서 개업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설계회사와 불가분의 관계인 건설업계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설계회사들이 2%대의 성장을 기록한 것은 조경, 도시설계, 전통건물 보존,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의 다양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래픽이나 조명 등 계획단계에서 무료로 컨설팅해주던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웹사이트 디자인, 제품디자인, 브랜드 컨설팅 등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꾸준히 주거부분에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비 주거부분의 경기하락과 무관하게 건축설계업계가 양호한 성장을 이루었다.

회사들은 인원 축소, 임금 동결 등의 방법으로 비용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단독개업 건축가가 늘었으며, 이들은 주거시장으로 눈을 돌려 사업을 이끌고 있다. 일인 설계회사가 늘어난 반면 5명 내지 9명 직원 규모의 소규모 회사는 감소 추세이다. 이러한 소규모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원 일인당 수익만으로는 사무실 임대료, 임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 컴퓨터, 직원 의료보험 등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작은 사무실 등은 소도시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소도시들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개발도 위축되며, 큰 도시의 대규모 설계회사와 경쟁할 경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도 한다. 또한 패스트푸드 체인 등은 이미 개발된 자체 건물 모델이 있으므로 작은 규모의 설계회사들에게는 더욱더 그 일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직원 10인 이상에서 90인 미만의 설계 사무소는 일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특정 분야에 집중하거나 두 가지 경향을 다 보인다. 이러한 중규모의 사무실은 대형 사무실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프로젝트에 대응하면서, 대규모 사무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직원 100인 이상의 대형 사무실들은 다양한 건물 유형 디자인에 필요한 전문성과 마케팅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좋은 실적을 얻었다. 미래에는 어떠한 건물 유형이 많이 지어지게 될지 예측하기 위하여 뉴스 및 건축 외부의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 분석하고 있다. 2002년에는 의료시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시설이 전체 건축시장의 42%를 차지하였다. 또 다른 큰 시장은 상업시설이었으며, 업무시설 건설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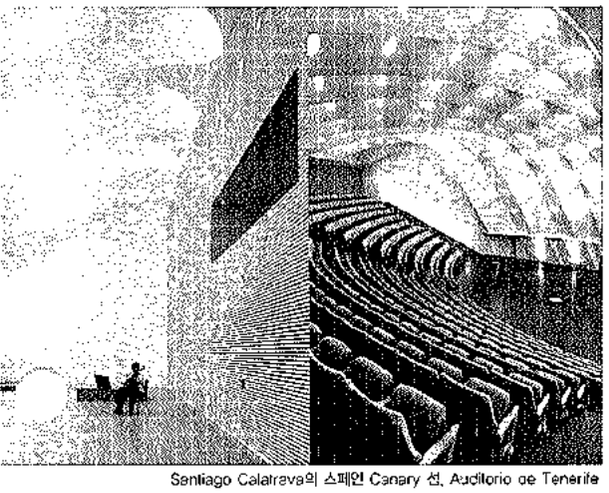
설계비에 관해서는 현재 프로젝트 수는 적은데 비해 그것을 수행할 사무소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깎이고 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수록 제안서 작성업무는 더 많아지고 있다. 직원 140인 이상의 대형 사무실은 전체 프로젝트의 약 50%정도를 경쟁을 통해 수주하며, 반면에 작은 사무실들은 고정 건축주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79%정도를 수의 계약한다. 제안서는 고정된 수수료를 받고 수행되거나, 투입된 작업을 시간당 계산하여 청구되기도 한다. 설계수수료를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로 계산하는 것은 점점 감소추세이다. 건축주는 그들이 사용하는 돈이 정확하게 어떠한 용역을 위한 수수료인지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 신작소개

▶ Santiago Calatrava의 스페인 Canary 섬, Auditorio de Tenerife

이 새로운 오페라하우스는 그 형태가 불러일으키는 상상적인 이미지로 인해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거대한 눈과 같기도 하고 해안에 부딪히는 큰 물결과 같다. 그러나 그것은 형태에 국한된 것이고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는 이것의 건축적 역할에 달려있다. 이 75만불짜리 프로젝트는 산업항만이었던 이 지역을 문화지구로 바꾸려는 지역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공학자이자 건축가로서 수련을 쌓은 Calatrava는 감성적이면서 이성적인 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복합적인 기하학의 심원한 매력에 빠진 바로크 거장 Boromini에 관심을 가졌다. 이 음악당은 달걀모양의 평면을 가지며, 바로크 건축과 같이 조소적인 접근으로 정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운동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다양한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형태를 선호하였던 Calatrava는 설계 시에는 이 섬의 지형에 영감을 받아 형태를 잡은 것이다. 1600석의 교향악당과 428석의 실내악 연주홀로 이루어져 있으며, 98피트 높이의 이중 콘크리트 쉘이 각 음악당을 음향적으로 독립시키는 기능을 한다. 외장재는 콘크리트와 깨진 타일 두 종류가 사용되었으며 유사한 색상이지만 다른 텍스처로 태양광에 따라 변화하는 시각적 유희를 선사한다.



Santiago Calatrava의 스페인 Canary 섬, Auditorio de Tenerife

▶ Foster and Partners의 캘리포니아, Clark Center

이 시설은 학문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대지는 스탠포드 대학 캠퍼스에서 사람들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곳에 선정되었다. 중앙에 기능적인 코어를 두고 연구실과 사무실이 둘러싸는 일반적인 연구동 배치에서 탈피하여 중앙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원을 위하여 완전히 비워졌으며, 기존의 가로로부터 사람들을 흡입하는 틈이 되었다. 연구실 레이아웃은 닫힌 형과 열린 형으로 구분된다. 보다 특수한 작업 환경과 격리된 공간이 필요한 연구는 닫힌 형으로 건물의 코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배치되었으며, 그 밖의 연구실은 오픈 공간에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팀을 짜서 연구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이 열린 형 평면은 각 작업이 보이면서 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연구자들의 기술과 꿈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 밖에 ▶ Richard Meier의 로마, Jubilee 교회 ▶ Fumihiko Maki의 동경, Asahi TV 본사 등이 소개되었다.

■ 건물유형연구– 재활용 건물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역사적인 건축물이 아직도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여 그 장소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재생시켜 사용하고 있는가가 이번 호 건물 유형연구의 주제이다. 여기 소개하는 3개의 건축물은 모두 도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으로서 공공기금에 의해 재건축되었다. 마드리드 남부에 위치하고, 1912년에 세워진 맥주양조장은 맥주 생산이 중지되고 공업지역이던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새로운 기능의 수용이 요구되었다. 도시의 문화적 중심지로서 고문서 보관서와 도서관이 제안되었으며, Mansilla+Tunnon은 이 건물을 도시의 한 블록을 차지하는 작은 캠퍼스로서의 도서관으로 바꾸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영국의 Bath는 1세기 고대 로마인들이 지은 최초의 공중 온천이 세워진 곳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 Bath시의 정부와 민간 개발업자들은 유적으로 남아있는 Georgian Bath House를 부활시킬 건축가로 Nicholas Grimshaw를 선택하였다. 그는 기존의 두개의 온천 건물에 새로이 1개동을 증축하였는데,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직육면체와 원통형의 순수한 입방체는 온천 휴양지로서의 명성을 다시 이어가려는 도시의 상징적 의미를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Mineapolis의 제분공장은 1991년 화재로 파괴되었다가 재개발 계획에 의해 MillCity Museum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세 개의 프로젝트는 기존의 구조물과 새로운 건축적 프로그램을 잘 융합시키고 있으며, 도시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Foster and Partners의 캘리포니아, Clark Center

■ 인테리어– 상업시설 및 쇼룸

이태리의 타일 생산업체인 Bisazza는 모자이크 타일 및 그 밖의 제품의 샘플을 전시하는 대신 직접 쇼룸의 인테리어 마감에 사용하였다. 패션 디자이너 Anna Molinari의 샵과 밀라노의 Divina 클럽의 인테리어에서 타일을 사용하여 멋진 작업을 해온 Fabio Novembre는 역시 반짝이는 모자이크 타일을 가지고 화려한 쇼룸을 만들어 내었다. 2004년에 150주년을 맞는 Louis Vuitton의 동경 샵은 Jun Aoki, Auerelio Clementi, Eric Carlson의 공동작업으로서 전통이 있는 명품 생산업체의 역동적인 건축적 시도를 보여준다. 중가의 여성 의류 및 악세서리 판매업체인 Max Studio.Com은 전 미국에 걸쳐 이 각 도시의 중심지에 일관된 외관의 약 50개 대리점을 가지고 있다.

(번역 / 전산영)

건축문화

2003년 12월호

12월호에서는 두 개의 특집이 꾸며졌다. 첫 번째 특집은 '20세기 건축 모델 카달로그'로서 20세기의 여러 작가들의 건축성향을 유형화하여 카달로그처럼 꾸민 것이다. 두 번 째 특집은 해외의 설계사무소나 교육기관에서의 현장 경험을 소개한 것으로 'going overseas'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선진국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며 자신의 위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일본 건축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집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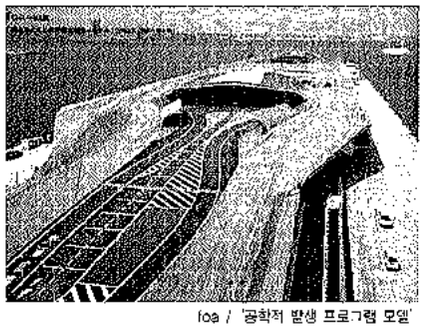
■특집1: 20세기 건축모델 카달로그2

이번 특집은 지난 2001년 10월호에 게재된 「20세기 건축모델 카달로그」의 속편이다. 역사적 사실을 주로 다룬 종래의 특집과는 달리 이번 특집은 20세기의 건축 아카이브에서 앞으로의 건축을 촉발할 수 있는 모델을 추출하여 논하려 하였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재생산하기 위한 카달로그로 활용해주기 바란다'는 편집자의 의도가 써있지만 과연 이와 같은 유형화와 목록화가 얼마나 의미를 지닐지는 미지수이다.

장 누벨의 작품

수록된 건축모델(유형)으로는 알바 알토, 이태리 미래파, 쥬세뻬 떼라니, 미스 반 데르 로에, 아돌프로스, 타틀린, 게리 리트펠트 등 근대의 건축가들과 함께 욘 웃존, 루이스 칸, 까를로 스까르빠, 빅민스트 풀러, 알도 로시 등 20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건축가들, 그리고 장 누벨, foa, 렘 콜하스, MVRDV, SANAA(세지마 카즈요) 등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일본 건축가를 포함한 전 세계의 건축가들이 소개되었다.

소개된 건축가들은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었는데, 예를 들어 이태리 미래파는 '운동의 다이나믹스 모델', 욘 웃존은 '인덕션 모델', foa는 '공학적 발생 프로그램 모델', 렘 콜하스는 '모델 부정 모델' 등이다. 20세기에서 현 시점에 이르는 다양한 작가들을 건축을 만들어내는 개념과 공간적 특징들에 따라 각자의 특징을 지적하고,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함으로서, 이를 보는 사람들의 건축적 사고를 환기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각 건축가별로 집필한 저자에 따라 논하는 글의 깊이에 차이가 있고, 너무 잘 알려진 일반적인 특징을 지적하거나 필자 개인의 관점이 강하게 작용한 글도 보이고 있어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foa / '공학적 발생 프로그램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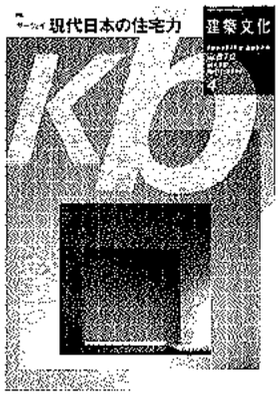
게리 리트펠트의 작품

■특집2: 고잉 오버시즈(going overseas) - 유럽편

해외의 건축사무소, 대학에 재적하였거나 재적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것으로, 보통은 잘 알지 못하는 해외의 설계 및 교육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상황을 역조명하여 그들이 서 있는 곳을 가늠해 보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교육기관에서는 런던대학의 바틀렛 스쿨의 교수인 피터 쿡, 바틀렛의 교장인 크리스티나 홀레이, 런던 AA스쿨의 유니트 마스터인 江頭慎, AA스쿨의 교장인 모센 무스타봐이 등과의 인터뷰가 게재되었고, 그 외에 켐브릿지 대학, 파리 벨빌건축대학 등에서의 경험이 소개되었다. 설계사무소로는 영국의 TOH Architecture, 알바로 시자 아키텍트, 에릭 미랄레스 사무소, 아뜰리에 장 누벨 사무소, 도미니끄 뻬로 사무소에서의 경험들이 소개되었다.

건축문화

2004년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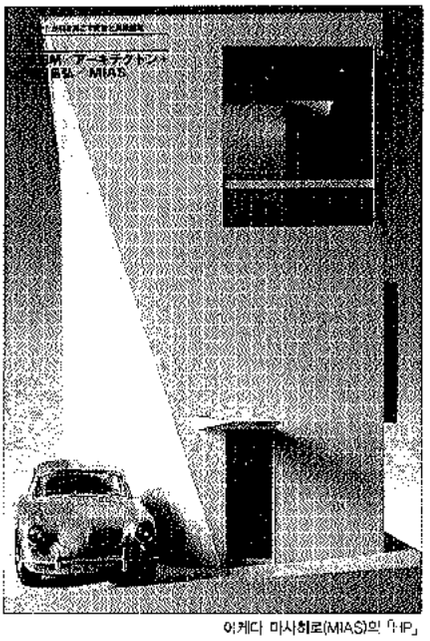
4월호의 특집은 '현대 일본의 주택력(住宅力)'이다. 경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건축가들은 대형프로젝트보다는 주택과 같은 소형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케다 마사히로(MIAS)와 같이 소형 주택으로 명성을 얻은 작가들도 나타나게 된 시점에서 일본의 주택들은 일본 건축계의 에너지가 상당히 집적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번 특집은 일

본 주택 프로젝트들을 통해 일본의 건축계의 한 단면을 살펴보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다.

■특집: 현대 일본의 주택력

일본은 경제의 정체라는 커다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건축의 창조력의 많은 부분이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주택 디자인에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잠재해 있었던 가능성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집에서는 프로젝트 단계에서 준공된 사례에 이르는 여러 사례들로부터 이와 같은 주택의 현재 모습을 들여다봄과 동시에 대담과 인터뷰 등을 통해 일본의 현대 주택이 오늘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건축가들에 의해 어떠한 시도와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각도에서 조명해 본 것이다. 현대 일본의 주택을 둘러싼 프로블레마틱(problematic)을 개관한 특집이라 할 수 있다.

소개된 주택작품들의 작가들은 22그룹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지마 카즈요 건축설계사무소, 야마모토 리켄 설계공장 등을 비롯하여 이리마 히로유키와 Urban Fourth, 이가라시 준 등 일본의 주목받는 신진 건축가들의 작품들도 포함되어있다. 각 주택별로 주된 테마들이 주택의 이름과 함께 부제로 붙어 있지만 가장 공통된 특징은 역시 소규모 대지내의 주택들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주택문화와 환경을 잘 나타내 주는 부분으로 소개된 22개 작품 중 1층의 건축면적이 20평이 채 안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협소한 대지 내에서 거주하게 될 가족의 라이프스타일과 대지의 상황을 반영해가며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모색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이케다 마사히로(MIAS)의 「HP」

▶협소한 대지상황에서의 주거유형 탐구

그 중에서도 협소한 대지의 상황에 대한 극복이 주된 테마가 된 것은 앤도 마사키(EDH)와 이케다 마사히로(MIAS)의 「O-House」와 요네다 아키라(ARCHITECTON)과 이케다 마사히로(MIAS)의 「HP」, 아마테라스의 「EEL」 등을 들 수 있다. 「O-House」는 도로에 접한 면이 2m밖에 안되는, 4면이 인접한 주택들로 둘러싸인 대지에서 건축된 것이다. 건축주는 이러한 대지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차스페이스를 갖출 것과 대지 내에 있던 수목 한그루를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처럼 협소한 대지 내에서 마련될 4인 2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에 대한 요구조건은 더욱 까다로워, '잘 치우지 않아도 정돈되어 보이는' 것이어야만 했다. 이에 대한 건축가의 해결안은 외부 조건에 대해서는 삼각형의 패널을 이용해 자유로운 곡면의 입면을 만들어 변화를 주면서도 조잡한 외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었으며, 내부 공간에서는 규모가 작은 개인 공간에서는 정돈된 격자형의 구성을 갖추고, 규모가 비교적 큰 공용의 공간(LDK)에서는 자유롭고 다이나믹한 공간구성으로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한 것이다.

아마테라스의 「EEL」

「HP」는 대지의 한 면(6m)이 도로에 면해 있어 대지의 개방감은 「O-House」보다는 낫지만 대지의 면적이 15평이 채 안되어 대지의 협소함에 있어서는 더 나을게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도 1대분의 주차면적이 요구되었다. 인접한 주택과 맞닿듯이 건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탈출구는 위로 얼마든지 열려 있는 하늘을 향해 공간을 오픈하는 것이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만들어진 HP(hyperbolic paraboloids)곡면은 이 작은 주택에서 유일하게 공간적 변화를 준 부분이자 이 주택의 주제가 되었다. 이 곡면에 의해 아래는 좁고 위로 올라가며 커지는 주택의 단면이 형성되고, 넓어진 상층부의 천정에는 천창을 설치해 3층에서 1층까지 빛을 도입할 수 있게 하였다. 움짝달싹 할 수 없는 공간의 규모이지만 다채로운 공간감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들이라 할 수 있다. 4면이 주변 건물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하늘을 향해 공간을 오픈하는 수법은 aat +요코미조마코토 건축설계사무소가 설계한 프로젝트 「TEM」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EEL」의 대지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폭 3.1m, 깊이 14m의 대지는 전면도로에 면한 대지의 폭에 있어서나 전체 대지의 면적에 있어서나 설계에 있어서 용이할 것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론 일본에서는 종종 나타나는 주택의 부지 상황이다. '도시의 틈'을 건축화하는 작업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계획안은 평면 계획에서는 좁고 긴 대지의 주택에서 전형적인 해법인 중앙에 계단을 배치하여 공간을 3분할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이 주택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PC유니트의 사용과 전면 파사드. 전면 도로에 대해서는 층별 구획에 상관없이 통일된 입면을 만들어 좁은 대지의 폭에도 위로 상승하는 입면의 느낌을 살려 답답하지 않은 건물의 얼굴을 만들어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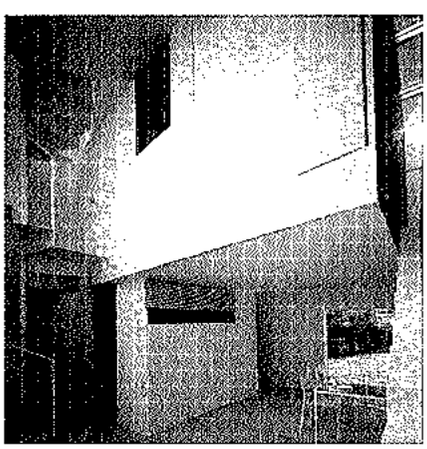
▶다채로운 공간적 실험

이와는 반대로 비교적 넉넉한 대지 면적을 확보하고 다양한 공간적 실험을 행한 작품들도 있다. 마에다 아쯔리에의 「The ROSE」는 내외부 공간의 전환·역전을 의도한 것으로, 바닥이 굽어져 벽, 천정과 일체화되는 형태는 겜 콜하스나 MVRDV의 건물들을 연상시킨다. 여기에 유리로

된 슬래브를 곳곳에 두어 전체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는 형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새로운 공간감을 형성하였다. SUPER-OS의 「드리프트」는 무려 건축연면적 90여 평, 대지는 1000평이 넘는 규모이다. 「드리프트」는 각 실의 구성을 커다란 공간을 구획해 가면 만들어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루이스 칸의 「피셔주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실을 하나의 독립된 공간단위로 하여 이들을 연결 · 조합해가는 형식을 취했다. 결과물은 부르털리즘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매스들의 덩어리이며, 내부는 이리저리 구부러진 동굴과도 같은 공간이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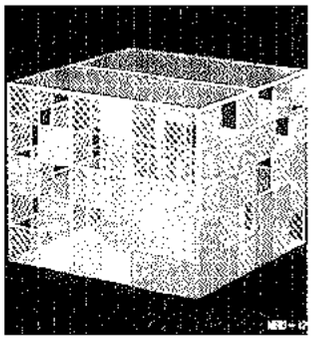
▶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러나 역시 돋보이는 아이디어들은 소규모 주택들에서 더 발견된다. 신건축지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세지마 카즈요의 「梅林의 집」은 백색의 큐브 안에 상하 · 좌우로 서로 다른 스케일의 공간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공간들을 밀도 있게 만들었으며, 좁은 실내공간을 극복하기 위해 칸막이벽으로는 얇은 철제 패널을 사용한 점이나 방들에 문짝이 달리지 않은 창들을 내어 공간들이 서로 관통하게 한 점 등은 돋보이는 부분들이다. 또한 침대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아이방, 이와는 대조적으로 2층 높이의 사치스런 공간규모를 갖는 거실과 서재, 출입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실내의 창들 등은 주거 공간에 대한 세지마 카즈요만의 독특한 해석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다. 아리마 히로유키와 Urban Fourth의 「0 | 8」 또한 주거공간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작지만 개성있는 공간들을 보여준다. 제목인 「0 | 8」은 이 주택에 0번부터 8번까지 붙은 공간의 번호를 뜻한다. 건축가는 단순히 주택의 공간들을 침실, 주방, 거실 등으로 부르지 않고 일련의 번호를 부여하여 각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냈다. 평면도에서는 잘 읽혀지지 않지만 내부 공간의 모습도 작은 실내에 비해 다채로우면서도 조잡하지 않게 구성되어있다.


아리마 히로유키와 Urban Fourth의 「0 | 8」

▶신소재를 사용한 주택의 구법 실험

또한 주택의 구법에 대한 시도들도 나타났다. 야마모토 리켄의 「ecomos house」, 난바 카즈히코+카이 공작사(工作舍)의 「상자의 집-83」, 미캉구미의 「우에하라의 집」 등이 그러한 예이다. 「ecomos house」는 에스유에스와의 협동에 의한 주택개발 프로젝트이다. 에스유에스는 알루미늄을 사용한 가구와 정밀기기의 메이커이지만 2002년부터 알루미늄 구조물의 건설이 일반의 확인신청으로 가능해진 점을 계기로 알루미늄 주택의 양산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먼저 프로젝트의 목표점으로는 알루미늄의 특성을 살려 철골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구조의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X자형으로 압출성형한 알루미늄 형재(型材)를 조합하여 벽체를 만드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미려한 알루미늄 형재의 단면을 강조한 것으로, 자동차 휠에서 알로이 휠이 철제 휠보다 미려한 디자인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제작에 의한 각 변 1200mm의 사각 패널을 현장에서 볼트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재의 가격 저하뿐만 아니라 공기를 단축하여 전체적인 공사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상자의 집-83」은 이와 같은 공업화되고 부품화된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실제로 완성된 주택이다. 정확히는 알루미늄 합금을 주구조체로 사용한 실험주택 「알루미 · 에코하우스(2000)」의 보급판이다. 그러나 이 주택에서 사용된 알루미늄 소재의 부품들은 그 모양에 있어서 철제 소재와 다르지 않다. I형강 모양의 알루미늄 빔, 알루미늄으로 된 바닥 패널, 그리고 창틀 등이 이 주택에 사용된 알루미늄 소재들이다. 여기에 칸막이벽으로 집성목으로 된 파티클 보드를 사용해 서로 다른 재질감의 대비를 이루었다. 「우에하라의 집」은 3층 규모의 작은 주택이지만 철골 I형강을 구조체로 사용하였다. 건축주의 특징은 상당히 많은 수의 책과 CD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이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구조체인 I형강에 철제 선반을 부착하여 주택의 기둥이 서는 곳마다 1층에서 3층에까지 이어지는 책꽂이를 만들었다. 주택의 골조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책꽂이가 함께 만들어진 것이다. 주택이라는 작은 스케일의 건물에서 구조체를 이용하여 공간을 구성한 독특한 예라 할 수 있다.


야마모토 리켄의 「ecomos house」

▶대담에서 논해진 주제들

2~3인씩의 건축가들 간의 대담으로 이루어진 대담기사의 주제들은 일본 주택의 특성에 대해 논한 '「제3의 주거시설」의 행방', 비주거 건물의 주택용도로의 전환을 다룬 '도심주거와 컨버젼(conversion)', 그리고 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들을 논한 '변위하는 현대주거의 제상(諸相)에 대하여' 등이다. '「제3의 주거시설」의 행방'은 서구의 주거가 엄격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는 도시지역의 하우징(집합주거)과 일정규모 이상을 갖추어야만 건축 가능한 빌라로 양분되는 반면, 일본의 대표적 도시주거인 소규모 주택들은 서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는 점을 이야기의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제3의 주거시설」이라는 것도 서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 3의 주거형식이라는 뜻이다. '도심주거와 컨버젼'은 도심부의 쇠퇴하는 사무시설 등을 주택으로 전환하여 도심의 활력을 되찾으려는 움직임 가운데, 실제로 비주거 용도의 주거 용도전환을 실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가능성들을 논한 것이다. (번역 / 강상훈)

제12차 아카시아 포럼 참관기-01

ARCASIA Forum - 12

11월 8일 반 학생들을 이끌고 외암리 마을에 답사를 가는 중 기대하지 않았던 전화를 받았다. 작년 건축문화대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Arcasia Forum 참가자를 선발하는 영어 면접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작년 이맘때 쯤 한창 기대를 하다가 잊혀진 일이었다. 나와의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중에서 선발되어서 갔거니 생각하고 있었다. 나름대로 바쁜 생활에 쫓기다보니 이것저것 제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 형편이었기에 기대를 쉽사리 지워버릴 수 있었다. 막상 이렇게 잊혀졌던 전화를 다시 받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왠지 질긴 인연이니 내가 되겠거니 하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면접 보는 날, 완전히 꼬여버린 날이었다. 밤을 새워 과제를 마치고 면접 준비를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씻으러 집에 들어갔으나 나의 나약한 의지는 여지없이 지침 몸을 침대로 이끌었다. 깜짝 놀라 잠을 깨니 면접보기 2시간 전, 이미 준비는 물 건너 간 것이고, 시간 맞춰가기도 빠듯한 시간이 남았다. 부랴부랴 준비하여 서울로 향하였다. 그래도 약속 시간에 맞추어 도착한 사람은 나뿐이었으니 건축과 학생들의 시간 개념 없음은 여느 학교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비록 아무런 준비 없이 왔지만 최선을 다하리라 굳게 마음먹고 들어갔지만 만만치 않은 영어면접. 다른 학생의 철저한 준비를 보고 들어온 터라 더욱 긴장이 더했다. 하지만 면접을 마친 후 크게 후회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하며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다.

학교로 돌아와 저녁식사 중 받은 합격 전화 후, 12월 8일 Arcasia Forum 참가를 위한 기분 좋은 출발 길 준비를 시작했다.

출발

반갑지 않은 첫 눈

출발 당일이다. 건축이라는 큰 테두리에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약간은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터라 한번의 예비 모임을 이미 가진 상태였다. 본 행사 둘째 날 있는 한국의 장기자랑 준비를 위해 출발 당일 함께 참가하는 김성훈(홍익대학교 석사과정 2학기)씨와 출발 6시간 전 동대문에서 만나 월드컵 응원에 필요한 도구들을 사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첫 눈이 내린다. 늘 기분 좋게 맞이하는 첫 눈이었지만 그날만은 그리 반갑지 않았다. 학교에서 마무리 짓고 가야할 일들이 많았기에 눈이 와서 교통이 막힌다면 시간을 맞춰 출국하기에 시간이 너무 빠듯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건축사협회 담당직원께서 미리 준비를 해서 시간에 쫓기는 부담 없이(물론 경제적 부담도 덜었으니 그 기쁨이 오죽했으랴) 약속 장소로 향할 수 있었다. 이 글을 빌어 여러모로 준비에 수고해 주신 협회 담당직원(김성엽)씨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관문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일 먼저 공항에 도착하여 해양, 항만 병무신고서에 출국신고를 해야 했다. 10월 중국여행에서도 느낀 바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남자가 치러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미리 갔다 왔으면 좋았을 걸 이야기를 듣곤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이런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을 전혀 후회되지 않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을 보면서 좋아지는 기분도 한 몫 할 것이다. 올 때마다 느

인천국제공항

끼는 것이지만, 처음 건물의 웅장함에 한번 크게 놀라고 건물에 들어서면 섬세한 디테일에 다시 한번 놀란다. 한 국가의 관문의 역할을 하는 장소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며 으쓱거리는 듯하다. 해외를 나갔다 들어옴에 매우 기분 좋은 시작과 끝을 지님을 감사한다. 역시 건축의 힘은 대단하다. 한 나라의 관문을 결정하는 일이니 어찌 대단하지 않으랴?

어색한 만남

중요한 약속이어서 그런지 이번엔 어째 다들 시간 맞춰 나오셨다. 두 번째 만남이어서 그런지 아직 모두 서먹서먹하다. Ticketing 후 간단한 간식을 먹고 8시경 Boarding을 마치고 드디어 진정한 여행길에 오른다. 솔직히 수원에서 공항에 오는 일조차 2년전 까지만 해도 공항이라는 곳의 기억도 별로 없었기에 신비했으나, 요즘은 누이가 해외를 밥 먹듯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나 또한 2차례 중국에 간 경험으로 이젠 익숙해진 여행이 되어버렸다.

첫 장거리 비행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는 장거리 여행의 경험은 없다. 상하이를 다녀온 것이 고작이었으니 2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 상하이와 9시간 가까이 장시간 동안의 비행을 해야만 도착하는 다카와는 천지차이다. 장거리 여행을 위한 비행기여서 인지 좋은 환경의 보잉777 이다. 아직까지 타본 여느 비행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비행기였다.

방콕공항 내 Transit area

대접받는 기분은 언제나 사람을 기쁘게 한다. 비행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지금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이며 언제나 기억한다. 이 좋은 기분을 반드시 다음 내 고객에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첫 장거리 비행이 많이 긴장이 되었던지 어제 한숨도 못 잤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온다. 마냥 소녀처럼 들떠있다. 앞으로 있을 7일간의 여행에 한껏 부풀어 터지기 직전이다. 이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며 잠시 눈을 붙인다.

오랜 이동의 시간 끝의 도착

Day room에서의 1박

방콕 도착 후 바로 향한 곳은 잠시 쉬어갈 곳인 Day room. 특이하게도 그 곳은 입국을 거치지 않고도 비행기를 갈아타는 중에 쉴 수 있도록 Transit area 내에 위치해 있었다. 창이 없어 환기도 되질 않고 매우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의 하루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아쉬움이 있다면 아무리 거쳐 가는 손님이라도 그 나라의 첫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곳임에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 안 좋은 인상을 풍길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더불어 국가의 이미지가 달린 이러한 세세한 곳에까지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Transit

태국은 지정학적 위치 상 동아시아에서 유럽이나 아랍 쪽으로 향할 때, 거쳐 가야하는 마치 국제적 관문과도 같은 곳이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입국을 거치지 않고도 쇼핑, 식사,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공항 내에 존재하고 이를 일컬어 Transit area라고 한다. 지정학적 위치도 나라로서는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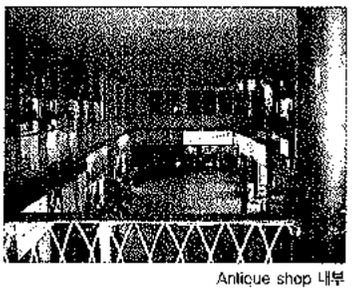
방글라데시와의 첫 만남

총 9시간의 비행과 6시간의 Day room거쳐, 3~4시간의 면세점 관광, 1~2시간의 출입국 심사 등 장장 19시간이 걸려 드디어 방글라데시 다카에 도착하였다. 가장 놀란 사실은 갑작스런 계절의 변화. 분명히 첫 눈이 내리는 날 출발을 했거늘, 이곳은 완전히 우리나라의 늦여름의 날씨였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활씬 후진국이라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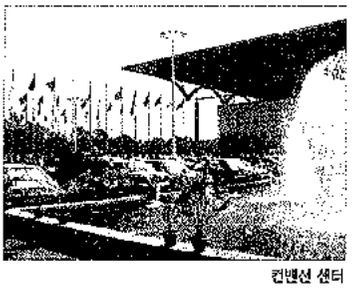
첫 행사 그리고 적응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호텔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하였다. 호텔에 도착한 후부터는 정식 일정의 시작이었다. 바로 Arcasia forum에 등록을 하고 Counsel meeting에 참가를 하여 첫 일정을 시작했다. 모든 진행이 영어로 진행이 되었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모두들 자국어가 아닌 영어로 말을 하니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나의 굳은 믿음은 도착한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깨지고 말았다. 그렇다고 멍하니 앉아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최선을 다해보리라 다짐한다.

뒤늦게 Counsel meeting에 참가한 터라 마지막 발표인 일본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대략 UIA와 비교하여 Arcasia의 부족함을 지적한 내용이었으나 처음 만난 많은 사람들과 도중 인사를 하느라 집중하지는 못했다. 후에 이어진 문화행사와 저녁식사, 짧은 시간 친해진 방글라데시의 새로운 친구 Ayon과 Lazib과 함께한 골동품



Antique shop 내부



컨밴션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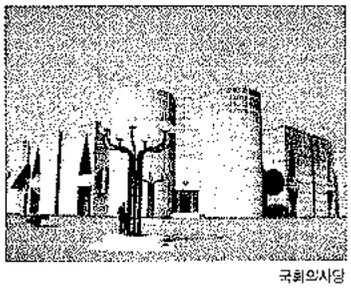
가게 쇼핑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에도 부족한 하루의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정은 빠듯하기만 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들어온 나의 방에서 편안히 잠이 들었다.

Forum

처음 만난 현대 건축물

Asian Pacific 학생들과 함께

홍콩의 장기자랑 모습



국회의사당

Garden Party

Forum opening행사가 열리고 있는 컨벤션센터로 향하였다. 처음 만난 현대 건축물이었다. 약간은 하이테크의 느낌을 얻을 수 있는 본 건물은 아직까지 방글라데시에서 받은 이미지를 조금은 개선시키는 건물 같았다. 최초의 국제 행사(어제 저녁식사 도중 방글라데시의 건축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다.)이어서 인지 많이 신경 쓴 흔적이 보인다. 교육부 장관까지 opening행사에 참석할 정도이니 말이다. 보다 알찬 Arcasia가 되길 바라는 opening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거대함

본래는 없던 일정이었으나, 최근 정부에서 좁은 국회의사당 건물의 확장을 위하여 Renovation을 계획에 반대하는 의사의 표현으로 국회의사당을 애초 일정보다 2일 일찍 방문하게 되었다. 방글라데시로 오기 전 이미 한국에서 루이스 칸이 설계한 건물이라는 기대로 각종 도면, 컨셉 스케치, 사진자료를 보았을 만큼 이번 국회의사당 건물은 매우 기대되는 행사 중의 하나였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도착한 국회의사당 건물.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종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거대함이 우선 나를 흥분시키고, 매우 가난한 나라의 건축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짐이 나를 더욱 흥분시켰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멋진 순간이었다. 과연 우리네 건축인들의 자부심은 이들보다 더한 것이 있는가? 아쉬움도 느껴진다. 거장의 손길은 이토록 다른 것인가? 놀라움과 함께.

Forum

국회의사당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바로 이어지는 일정은 Forum이다. 한글로 진행되어도 어려울 법한 이야기들이 영어로 오간다.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이었다. 영어공부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순간이다. 국제적인 건축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국제화 시대에 대처해야할 아시아 건축에 대한 이야기 들이었다. 특히 방글라데시의 경우 아직 매우 낙후된 상황에서 급진전 되고 있는 세계의 현대건축을 어떠한 방향으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난 것 같았다. 부디 오늘의 토론이 이 나라 건축의 앞걸음에 좋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Garden Party

6시간가량의 열띤 토론을 마친 상태여서 인지 매우 배가 고파왔다. 오늘은 특별한 가든파티가 준비되어 장소를 옮겨야 한단다. 매우 기대가 되는 저녁이다. 장소는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죽어간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곳. 호텔에서 꽤나 먼 거리에 있는 곳이었다. 덕분에 진정한 방글라데시의 모습을 엿볼 수도 있는 기회였다.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들과 전통춤과 음악을 경험할 수 있었던 쇼 모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요건이었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11시가 되어갔다. 벌써 공식일정의 하루가 가는구나. 호텔로 향한다. 돌아와서 내일 있을 장기자랑을 새벽까지 준비하고 파곤에 지쳐 바로 잠이 들었다.

바쁜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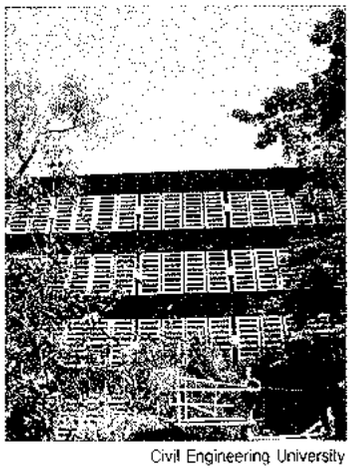
학생들과의 대화

오늘은 Forum을 듣는 도중 잠시 방글라데시의 대학교를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아침 식사 중 들을 수 있었다. 1st session이 끝날 무렵 엄이건축사사무소에 계시는 이근창 선생님과 또 다른 강연자 이신 말레이시아의 건축가 한 분과 함께 Asian Pacific 건축학교를 향했다. 우리나라의 학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규모였다. 학생의 말로는 주택을 리노베이션한 건물이란다. 하지만 학교를 방문했을 때가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40여명 가량의 학생들(이곳의 총 학생은 150여명이니 거의 1/3의 학생이 참여한 것이다.)이 온 것을 보면, 이 곳 학생들의 열기만은 한국의 학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근창 선생님의 동대문 지역의 근린상가 사설에 대한 강연과 말레이시아 건축가의 Sustainable Architecture Project에 대한 강연으로 3시간에 걸친 Asian Pacific 건축학교 방문을 마치고 다시 호텔로 돌아와 점심식사를 한 후 3rd, 4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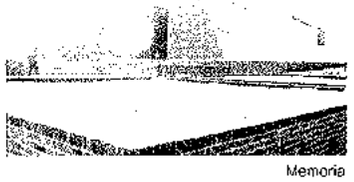
session을 들었다.

특별한 저녁식사

약간은 어렵고 지루한 Forum을 마치고, 어제 밤에 준비한 장기자랑을 보여줄 때가 왔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우리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음악인 아리랑, 태권도, 그리고 붉은 악마 월드컵 응원전이었다. 이미 현지에서 사귄 Volunteer 친구와의 호흡도 완벽하게 맞춘 상태였다. 아상하게도 Korea가 불리질 않는다. 드디어 거의 모든 국가의 장기자랑을 마친 후 방글라데시와 한국만 남았다. 오랜 긴장 끝에 올라간 장기자랑 시간. 음악이 문제였다. 우리 쪽에서 준비한 mp3의 연결 부분이 그 쪽 기기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대로 최선을 다했다. 1등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아쉬움은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 만족한다. 장기자랑 시간이 끝나고 저녁식사 그리고 자기 전 건축사협회 회장님의 방에서 회의가 이어진다. 이번 Arcasia Forum 참가의 소감을 한마디씩 나누었다. 또한 내일 일정이 변경되어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니 비행기 티켓을 구할 수 있다면,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결론이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밤의 아쉬움을 달래며 성훈이형과 간단히 맥주 한잔을 한 후 잠이 들었다. 매우 피곤해서인지 매우 깊이 잠들었다.



Civil Engineering University



Memorial

국립 의료원

국립 의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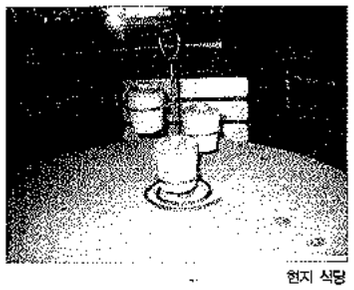
Dacca 기행

처음 걷는 다카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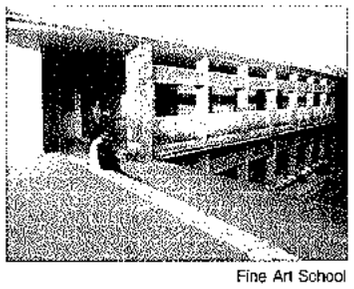
건축물 기행을 위해 준비를 마치고 나선 다카의 거리 첫 기착지는 Civil Engineering University이다. 그곳에서도 건축학교를 볼 수 있었다. 이곳의 건축학교는 오히려 한국보다도 넓은 공간과 좋은 시설을 자니고 있었다. 그 곳에서 만난 학생의 상세한 설명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본 뒤, 다음 행선지인 Memorial로 향하였다. 도착 후 처음으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다카의 거리였다.

동병상련

두 번째 방문한 곳은 Memorial.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던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파키스탄의 무차별적 진압에 목숨을 잃은 곳이란다. 광장과 추모기념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꽤나 세련된 바닥마감재와 기하학적 구성 등이 최근에 지어진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과거 식민지 시대를 겪었던 우리나라와 같이 방글라데시 또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 동병상련의 느낌이 들었다. 이후 향한 곳은 시 한가운데에 조성된 공원. 호수 주변에 산책로와 정자 등을 두어 다카 시민의 매우 좋은 휴식처였다. 함께 동행한 Lazib의 말로는 이곳이 다카 연인들의 가장 좋은 데이트 장소란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두 번째로 들렸던 곳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Memorial. 2000년도 IBA Design Award를 수상한 곳이기도 하단다. 시 외곽으로 30분가량 간 곳에 위치한 Memorial은 매우 섬세한 디자인이 엿보이는 곳이었다. 1/3정도의 커다란 원으로 구성된 벽과 정사각형으로 구성되고 여러 단계 높낮이가 다르게 조성되어 계단으로 연결된 정원이 이루는 조화는 환상적이었으며, 라운드 진 벽에 뚫린 거대한 정사각형의 구멍은 매우 감각적이며 둘 사이의 수공간과 더불어 그들이 갈구하던 자유의 반영인 듯 하였다. 이후 들른 곳은 무슬림 사원. 종교 건축을 치고는 매우 작은 규모였으며, 다카 시내의 1만 명이상을 수용하는 사원에 비한다면 이들의 종교의식이 아직 시외 빈민들에게는 사치일 뿐임



현지 식당



Fine Art School

국립 박물관

을 알 수 있었다. 다음 행선지는 방글라데시 국립 병원. 둘째 날 들렸던 국회의사당과 함께 Louis Khan이 설계한 건물이다. 커다란 원과 정사각형 매스의 조합, 적벽돌의 사용 등 Memorial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이곳 사람들의 Louis Khan과 건축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끼게 해준다. 이곳보다 훨씬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도 거장의 건물은 보기 드문데도 불구하고 이곳의 국립시설에서 거장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니, 부럽기도 하고, 우리네 건축이 매우 아쉽기만 했다.

진정한 현지 음식

병원을 한바퀴 돌아본 뒤, 이근창 선생님께서 국회의사당에 가보질 못하셨다하여 잠시 그곳을 들렀다 점심식사를 하러 인근 식당으로 향하였다. 처음으로 호텔식이 아닌 현지 음식이었다. 처음 식당에 들어서 가장 놀란 것은 식사를 하는 풍경. 모두들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근창 선생님 말씀이 이곳 사람들은 왼손으로는 더러운 것을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깨끗한 것을 만진다는 것이다. 대변을 본 후에도 손을 이용하는데 그때 왼손을 사용하고, 식사 때는 오른 손을 사용한단다. 불현 듯 어제 왼손으로 악수를 청하자 불쾌해 하는 친구의 모습이 떠올라 미안한 마음이 든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회의 끝에 결국 모두 손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오늘의 일정이 힘들어 배고팠던지, 아니면 정말 호텔음식이 형편없어서인지 매우 맛있었다. 처음으로 접한 현지음식에 매우 흡족해하며 다음 행선지로 향하였다.

그뜰의 건축 의식

식사 후 소화도 시킬 겸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 잠시 쇼핑을 하고 오늘의 마지막 행선지인 Fine Art School로 향했다. 지난 중국여행에서도 느끼는 바이지만, 해외여행 경비의 대부분은 선물비용. 그다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거 같은 선물을 그 자리에서는 왜 그리도 사는지 대부분이 충동구매다. 돌아와서의 후회지만 다음 여행에서는 반드시 빈손으로 돌아오리라! 다짐해본다. 우리나라의 서울예술학교와 비슷한 학교로서 순수 예술을 위주로 가르치는 곳이란다. 길게 이어지는 복도와 연결된 2층 roof, 디테일은 없지만 감각적인 매스 구성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는 넓은 공원과 호수 또한 낮은 지가에 가능한 부러운 재산이었다.

좋은 친구

Fine Art School을 마지막으로 하루 동안의 다카기행을 마쳤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녁시간 전까지 모두들 피곤하니 자유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저녁식사는 특별히 IBA 부회장님께서 자택으로 초대를 하였단다. 매우 기대가 되는 바다. 처음으로 개인주택을 들어가 볼 수 있으니. 1시간의 달콤한 낮잠 후 식사를 위하여 IBA 부회장님 자택으로 향한다. 6층의 집이었다. 도착 직후의 느낌은 아쉬움과 놀라움. 일단 방글라데시의 엄청난 빈부의 격차가 바로 느껴지는 집에 대한 놀라움과 방글라데시의 Housing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곳과 전혀 다를 것 없는 호화주택이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하지만 그 곳에서는 필리핀에서 온 좋은 친구를 만들었기에 이정도의 아쉬움은 괜찮았다. 그 친구(사실 20살 차이가 나니 친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사이였다.)는 필리핀에서 그날 있었던 UIA회의를 위하여 온 장님 친구였다. 26살에 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지금의 모습이 전혀 초라함 없이 당당하였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한 모습이 어찌나 멋지던지 3시간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누고 호텔로 돌아와 다카에서의 마지막 밤 보냈다.

아쉬운 이별

짧은 만남

이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할 때다.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인근 국립 도서관과 박물관을 가보았다. 휴일이라 박물관은 열지 않아 들어가 보진 못하였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와 한국으로 향하여야만 했다. 5일 간의 일정이 너무나 짧게만 느껴졌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멋진 추억이었기에 만족한다.

아쉬운 이별

호텔을 나오는 길 5일 동안 함께했던 Volunteer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도 많이 아쉬웠던지 메모지를 들고 다니며 나와 다른 사람들의 메일을 열심히 적는다. 계속해서 연락을 끊지 않자는 굳은 약속과 함께. 특별히 친하게 지냈던 Lazib과 Ayon으로부터 방글라데시의 현대음악 CD 2장과 예쁜 거북이 인형, 그리고 매모장을 선물 받았다. 미리 한국에서 선물을 좀 준비했을 것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는 길

Massage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돌아오는 길. 이근창 선생님께서는 업무 차 라오스에 가시고, 김홍일 교수님께서는 방콕에서 며칠 더 계시는 등 같이 출발한 일행들은 이제 모두 흩어졌다. 성훈이형과 둘만 남아 Transit Area에서의 쇼핑을 하고, 마사지를 받은 후 한국으로 가는 귀국길에 오른다.

다시 한번의 장거리비행

아쉬움에 잠이 오질 않는다. 정말 꿈과 같은 6일이었다. 출발하기 전의 긴장감과 설레임, 처음 만난 분들과의 어색함, 방글라데시 도착 후의 기쁨, Forum의 유익함, 현지에서의 즐거움 모두 이제 기억이 되어 돌아오는 긴 비행시간동안 내 머릿속을 스쳐지나간다. 너무나도 즐거웠기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지겹기만 하다. 하지만 이번 경험으로 더욱 정진하여 국제적인 Architect가 되기로 마음 굳게 다지며, 즐거운 마음으로 귀국을 맞이한다.

마감하며

Globalization and Asian Architecture

정말 이번 기행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진 두 단어이다. 과연 Globalized되는 시대에 Korean Architecture는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많은 Globalization을 보아왔으며 아무런 대책없이 방관하고 있다. 이제 막 현대건축이 도입되는 방글라데시의 철저한 대처와 그들만의 논의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며, 그 안에서 나는 어찌해야 하는지 쉬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이다.

감사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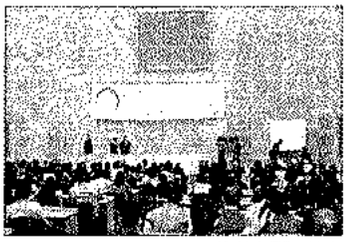
여행을 마치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이 글을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린다. 더욱더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 더욱더 발전해가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린다.(이원석 / 아주대학교 대학원)

제12차 아카시아 포럼 참관기-02

ARCASIA Forum-12

첫 번째 이야기 - ARCASIA FORUM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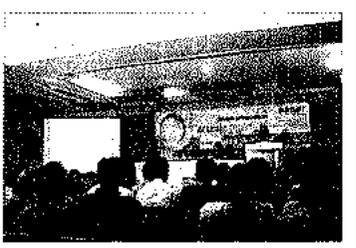
이번 아카시아 포럼은 2003년 12월 8일부터 12일 까지 4박 5일에 걸친 포럼이었다. Globalization and Asian Architecture를 주제를 가지고, 세계화의 변화에 대해서 건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고, 아시아 건축가들이 어떻게 세계화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건축, 교육,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크게 Materials and Technology, Culture and Identity, Social Divide and Responsive Design, City and its Context, Practice and Pedagogy 의 다섯 가지의 소 주제를 가지고 17개국의 아시아 대표들이 토론을 하였다.



아카시아포럼 개최식

두 번째 이야기 - Globalization and Asian Architecture

이번 포럼의 주제는 세계화와 거기에 대처하는 아시아 건축가들의 자세에 대해서 표명을 하였다. 세계화의 과정이 이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닌 지금, 국가적인 자세를 넘어서 서로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 보완을 위해 건축가들이 협소한 시각이 아닌 좀더 넓은 시각에서 건축 및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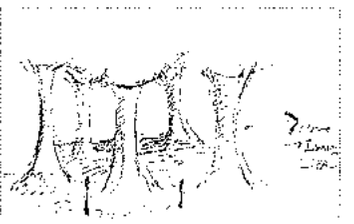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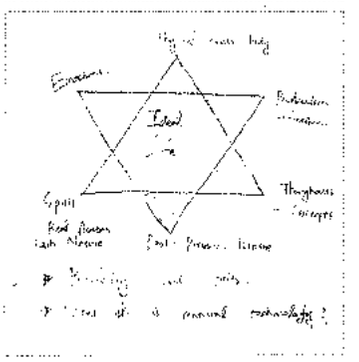
포럼 현장

특히 인터넷 등의 제공으로 인한 on-line 형성으로 인해 과거에 서로 얻을 수 없었던 엄청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서 여러 생각들, 서비스, 상품들이 상호 교환되고, 그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많은 건축가 (발표자) 들이 언급하였다.

이들은 건축이 물질적인 컨텍스트 - 사회, 경제, 상품, 생각들 - 를 창출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Balkrishna Vithaldas Doshi (India)는 건축의 교육이나 건축의 실천에 있어 세계화의 과정에 인간의 정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길, 사람과 건물, 사람과 자연에서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신 (spirits)이 많은 부분을 좌우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신들이 현대의 건축적 이념이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 경제의 이념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건축가들은 세계화의 추세가 아직은 시작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건축가들을 비롯한 각 계층의 리더들이 창조력과 성장의 잠재력을 제공하는 동안 , 세계화는 또한 문화적 다양성, 정체성, 지역적인 시작, 그리고 환경적 지속력까지 수많은 범주의 위협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시에서 세계화의 물리적인 반향 - 건축에 있어 새로운 컨텍스트이기도한 - 은 공간이 광범위해지고, 공간의 특별성내지 개별성 등의 존재나 도시 지역의 특성화와 불평등성의 존재, 그리고 사회적 주거의 잔여화가 없어지면서 현존하는 동질성중에서 서양과 동양의 차이 뿐 만 아니라 아시아 각 나라에서조차도 각각의 손익에 의해서 세계화에 대한 대응자세가 틀려지면서 많은 견해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 부분이 경제가 되든, 사회가 되든, 건축이 되든) 여기에 건축가들은 앞서 말한 Materials and Technology, Culture and Identity, Social Divide and Responsive Design, City and its Context , Practice and Pedagogy 의 소주제를 통해 세계화에 대응하는 아시아 건축가들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 아카시아 포럼을 개최한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기후적이고 위치적인 물리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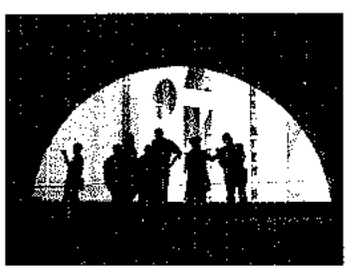
이야기에 앞서 그 나라의 사회현상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방글라데시에 도착해서 느낀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60년대 및 70년대를 보는 것과 같은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의 우리나라 역시 빈부의 차이가 있지만 더 심각한 빈부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거리의 분수대에서 목욕을 하는 아이들, 아직까지 차가 완전히 보급되지 않아 자전거가 주 교통수단이 되는 거리, 수많은 거지들 (이들 중 상당수가 아이들이 많았다), 그들을 통제하는 경찰 및 군인들 특히 교통의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도로는 마치 무법천지 같았다. 우리나라의 도시 계획이 잘 된 경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아직 이 나라에 건축물들이 들어서기에 앞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 간혹 10층에서 20층사이의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왠지 서글픈 풍경화를 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선 희망을 볼 수 있었다. 1억이 넘는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적어도 건축을 공부하는 친구들의 밝은 미래를 보면서 건축을 하는 학생인 나로서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여기 친구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이들이다. (100개 정도의 건축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학교와는 달리 5개의 건축 대학이 있다) 어느 정도 부유한 계층에 속하는 이들은 우리 나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배울려고 하고 있다. 비록 자신의 나라가 아직은 후진국이라는 (그렇다고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몇 몇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에게서 확실한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들 역시 도시 (다카)의 인프라의 공급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으며, 참석한 우리 일행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역사와 그들이 독립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건축적인 견해 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도시조직의 유형이 자체의 고유한 성격을 가지면서 형태 이전에 도시 공간의 형태를 구성하는 논리적인 법칙을 따랐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네 번째 이야기 – 루이스 칸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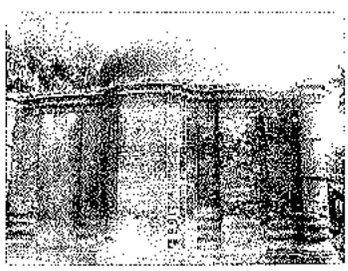
먼저 방글라데시의 모던 건축을 이야기하기 앞서 루이스 칸을 뺄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칸의 입지는 건축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마치 신적인 존재였다. 그들은 루이스 칸의 건물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국회의사당의 장엄한 스케일과 내부의 빛의 적절한 차용은 그의 저서인 '빛과 침묵'이 무엇인지 확실히 느끼게 해주는 건물이었다. 더운 지방에 맞게 설치된 외벽의 깊이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공간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었으며, 그러한 영향은 많은 현대식 건물에서도 볼 수 있었다. 그런 입면의 공간의 깊이는 그들의 매스에 있어 단순히 외장적인 요소가 아닌 살아 있는 삶 그 자체였다. 그 지역 근처는 칸이 설계한 몇 개의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마치 그 지역을 칸에게 헌정하는 공간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칸이 현대에 있어 방글라데시를 있게 한다면 그들에게 오래된 역사가 있었다. 과거가 현재와의 대화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역사속에선 종교란 큰 의식이 살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나간' 이란 다카에서 두 세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우리 일행이 그들의 과거를 느낄 수 있었다. 오랜 사원인 'Goaldi Mosque'란 곳은 정말 자연과 잘 조화된 건물이였다. 가장 오래된 사원이기도 한 이곳은 사원치고는 작은 스케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정한 돔의 크기와 형상, 벽돌의 짜임새 등은 충분히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형세를 가지고 있었다. 재미 있었던 것은 그런 사원과 그곳의 거주민들의 일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주의 경우는 마치 박제한 것처럼 역사적인 건물에 대해서 지나친 보존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오히려 거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모습에서 타임머신을 타는 것 같은 묘한 풍경을 느낄 수 있었다. 숙소를 들어오면서 언제 석굴암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피식 웃음을 지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 아카시아 포럼 참석 후기

포럼을 참석하고 각 국 대표들과 현지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정말 우리 나라 학생들이 국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좀 더 국제적이고 우리의 건축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는 오픈마인드가 많이 필요한 것을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다. 포럼의 주제처럼 국제화의 시대에 앞서 우리 건축하는 학생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건축뿐만 아니라 세계의 건축을 받아 들일 수 있는 폭넓은 견해와 마음가짐이 국제화에 대비한 현 학생들의 의무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세계화에 대한 경쟁력, 그들에 대처할 수 있는 아이템, 세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 등 아직 우리 학생들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는 많지만 이번 대한건축사 협회에서 제공한 좋은 기회들이 많다면 많은 젊은 건축인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대한건축사협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김성훈 / 홍익대학교 대학원)

제3차 "APEC Architect Project" 추진회의 참관기

이 보고서에는 회원의 이해를 돕고자 회의에서 진행된 사항이외에 APEC의 기초적인 정보 사항과 더불어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습득한 "APEC Architect Project"의 배경 및 실체를 좀더 상세히 설명 하고자 한다.(필자 주)

제3차 "APEC Architect Project"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 회의가 2004년 2월 18, 19일 양일간에 걸쳐 Taipei Grand Hyatt Hotel에서 개최되었다.

참가국은 오스트레일리아(5인), 캐나다(3인), 홍콩(2인), 일본(8인), 한국(2인), 말레이시아(4인), 뉴질랜드(2인), 필리핀(4인), 싱가폴(2인), 태국(4인), 미국(5인), 대만(다수)등 12개국이 이었으나, 한국, 캐나다, 상가폴 3국은 참관국 입장이어서 실질적으로 정식 참가국은 9개국이었으며, 참석인원은 공식대표 33인과 약 30인의 옵저버가 참석하였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간 기술협력과 경제교류를 통하여, 그 지역 국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각 회원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9년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오스트레일리아, 브르나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폴, 필리핀, 타일랜드, 미국)을 중심으로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이후 8개국(칠레, 홍콩, 멕시코, 파파뉴기니아, 페루, 러시아, 대만, 베트남)이 추가로 입회하여 총 21개국이 회원국이다.

특히 APEC은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위하여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반 무역 및 서비스에 관한 협정(GATS)의 기본 정신을 토대로 하고 있다.

"APEC Architect Project"는 APEC산하 기구인 인력개발 Working Group(HRDWG)에서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HRDWG에서는 2001년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발족시켜, Project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각 회원국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작성하고 이에 해당되는 자격소지자에 대해 상호 인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 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의 입장과 자격제도를 검토하여, 각 국이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미 2차례의 회의(1차 회의; 오스트레일리아, 2차 회의; 말레이시아)를 가진 바 있다.

그 동안 한국은 관계부처와 협의(건교부 WTO대책반)에 따라 참관국(옵저버)으로 참석하였음을 밝혔으나, 회의 과정에서는 참가자격을 따로 구별하지 않아, 안건에 대한 의견, 동의 여부 등 의사결정에 있어 타 회원국과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졌다.

결국 이번 추진위원회에서는 "APEC Architect"의 기준을 설정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안건별 동의 여부를 파악하여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건축사를 정의하는 준비 위원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모든 APEC회원국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회의 내용

회의는 초청국인 대만의 Mr. Mel Cheng의 주재로 진행되었고, 1차 회의부터 Secretariat (사무국)을 맡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Ms. Fisher가 진행을 도왔다.

회의 안건은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무엇보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2차에 걸쳐 논의되었던 안건 중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특히 건축사 상호일정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 확인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 할 수 있다.

10개 항목을 안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1(대표자의 소개 및 회의 진행 절차) : 각 회원국은 최대 3개의 의석을 가질 수 있으며,

안건은 회원국의 의견 개진을 통해 서로의 공감을 이루어 결정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관례에 따른 발언방법, 의사결정방법 등 회의 진행 절차설명이 있었다.

항목 2(회의 안건 상정) : 본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나 별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

항목 3(제2차 회의록 승인) : 제2차 말레이시아 회의에서 논의된 APEC 건축사의 기준의 승인 절차를 통과 시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수준, 능력수준(기술적 및 미적 요구사항의 충족, 건축역사와 이론의 이해, 인간과 건축물, 주위 환경과의 조화, 지속 가능한 건축의 개념을 도입한 설계능력, 토지이용계획 및 기획기술, 문화 ·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설계능력 등) 둘째, 기술수준의 능력(설계목적과 관련 쟁점의 해석과 개념정립, 프로젝트의 평가 및 타당성 조사능력, 건축물의 구조, 시공 등 공학적 요소의 조합하는 능력, 건축물의 물리적 영향과 쾌적한 실내조성 능력, 설비 시스템의 조정 · 통합능력, 원가요인과 제반 법규의 해석 및 적용능력, 시공 및 조달방법의 이해와 적용능력, 설계개념을 표현하는 문서작성 능력, 조달에 따른 관리 및 계약절차 이해 능력, 시공감리 능력 등) 셋째, 사회가 기대한 건축사의 직업윤리기준의 준수와 지속적인 전문기술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항목 4(2차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의 논의) :

• APEC 건축사 인정을 위한 각 국의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항목별 논의는 없었고 조사내용이 배부되었다. (첨부된 설문서 참조)

• 실무경력 인정의 정의가 논의되었다. 지난번 회의에서 실무경력 인정기준을, 7년 간의 실무기간 중 3년 이상 특별규모 또는 복잡한 건축물의 실무에 참여한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를 논의하였다. 대규모 또는 복잡한 건축물을 고층, 대공간 또는 독특한 구조물, 복합용도, 특수 설비와 관련된 시설로 좀 더 세분화하였으며, 중규모시설 또는 중급 복잡건축물을 저층 또는 주층 건축물의 재래 방식에 의한 구조와 일반건축물의 설계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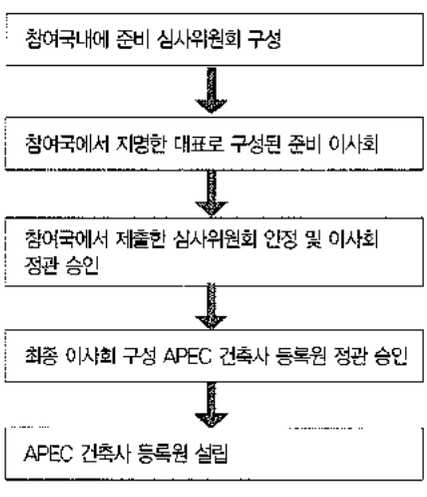
필자 주) 각 국별 설계의 난이도와 적용의 견해의 차이가 있었으나 포괄적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선택 또는 인정의 폭을 넓혀 많은 건축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 APEC 건축p사의 교육 정도를 국제기준(UIA)인 전일제 5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일본과 한국의 상황설명이 있은 후 4년제 대학의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한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각 국의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 기간을 실무 경험 기간으로 대체 하여도, 요구되는 교육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는데도 합의하였다.

필자 주) 교육 이수기간과 대치할 수 있는 동등한 실무 경험의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 회기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였다.

항목 5(추진위원회 향후 추진일정) : 이사회의 구성에 따른 정관 작성과 APEC 건축사의 등록절차에 대한 향후 일정이 논의되었다. 제2차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정의된 APEC 건축사 등록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Monitoring Committee)구성, 이사회의 구성을 위한 절차를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준비 심사위원회와 준비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등록원의 설치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회의에서는 각 참여국은 4개월 이내에(2004년 7월)각 국내에 준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 이사회(Provisional Council)에 참여할 대표를 선정하여 4차 회의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즉 4차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제1차 준비 이사회의 성격을 띄게 될 것이다. 또한 제2차 준비 이사회는 제1차 중앙이사회(Central Committee)가 될 것이다. (2000년 5월경 구성 예정) 결국 4차 추진위원회의 권한은 제1차 준비 이사회로 이관되며, 여기에서 논의될 사항으로는 1) 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승인 2) 중앙이사회 구성 승인 3) 중앙 이사회의 정관 검토 (정관에는 APEC 건축사의 평가기준, 등록원의 Website 관리, 인정 시스템과 기준의 검토, 지위향상 등을 골자로 구성 할 것이다) 4) 준비 이사회의 구성과 업무내용 5) 추진위원회에서 Secretariat(사무국)을 담당한 오스트레일리아 대신 자의에 의한 Secretariat 선출 6) APEC 건축사 Website에 기재할 각 참여국의 문서 등이 논의 될 것이다.



항목 6(심사위원회와 준비이사회의 구성) : 각 참여국은 7월 1일까지 최소한 1인의 준비 이사회에 대표단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심사위원회(Monitoring Committee)는 각 참여국에서 회원수와 현실에 맞도록 구성하고 각 국의 교육, 실무 기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은 각 국의 건축 사항을 종합하여 대표할 수 있는 정부기관, 전문단체, 교육기관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요업무는 1) APEC 건축사 등록을 위한 면허/등록 등을 유지관리 해야 하며 2) APEC 건축사로 등록을 원하는 희망자에 대한 기준의 적합성 여부와 평가 3)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에 적합한 지속 교육 수행여부 확인 4) 이사회에 대표 파견 5) APEC 건축사를 위한 행정 지원이라 할 수 있다.

항목 7(이사회의 구성 및 주요 업무) : 이사회는 각 참여국 1인씩으로 구성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방식과 준비 이사회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회의 운영 방침은,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적절하며, 명쾌히 이해하

고, 모든 참여국에게 동등해야 하는 것으로 하였다. 주요 업무로는 APEC 건축사 등록원을 유지 관리 하기 위한 등록절차와 기준 설정, 각 참여국의 심사위원회 업무지원 및 감독, APEC Website의 유지관리로 하고 각 참여국에게 APEC건축사와 관련된 정보제공, 행정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심사위원회를 평가하여 모든 회원국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항목 8(행정지원(사무국(Secretariat)의 임무와 역할)) : APEC 이사회의 사무국은 이사회를 돕는 역할을 하며, 이사회의 모든 행정지원을 한다. 사무국은 각 회원국의 희망에 따라 이동할 수 있으며, 영구사무국과 실질사무국을 구별하는 것이 논의되었으나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사무국은 2년간 유치될 수 있으며, 참여국의 합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또한 2~3개국이 동시에 사무국을 가질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차기 사무국은 임무를 자청한 대만에게 맡기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중국과 동시에 APEC회원국인 대만이 국제 활동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한 의지를 감지할 수 있었다.

항목 9 : 논의된 사항에 대한 결론을 의장국에서 유인물로 제출하였으며, 모든 참여국이 이를 승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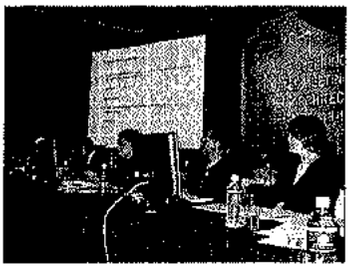
항목 10(차기 회의 장소 결정) : 차기 회의는 미국에서 지원하여 개최를 희망하였고, 그 시기는 2004년 9월 22, 23일 양일에 걸쳐 하와이에서 갖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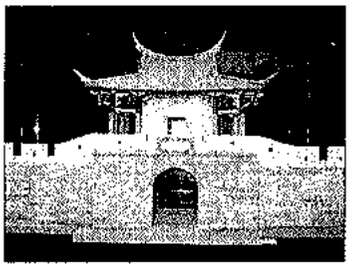
국내 건축계는 UIA의 기준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위한 교육제도를 포함한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을 비롯한 여러 참가국으로부터 UIA 산하 PPC에서 논의되는 항목들은 건축전문가 집단에서 건축사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기본 조건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UIA에서는 건축사의 자질 향상을 통하여 위상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에 임하여 축조되는 건축물을 통한 인류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각 해당국간 건축사 상호 인정을 위한 기본개념을 정립하는 논리적인 근거임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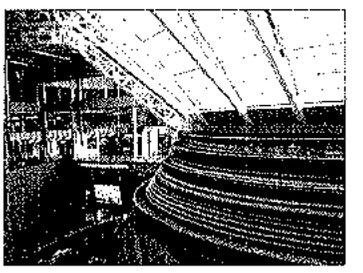
이 APEC 건축사 Project는 이미 APEC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국가 간 상호 합의 할 수 있는 보다 실현 가능한, 아니 보다 근접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모든 참여국의 현실적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있고, 내용 자체에도 규제 또는 강화보다는 최소한의 기준에 의하여 가능한 한 모든 회원국의 제도와 현실을 수용하고자하는 입장(Steering Committee)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미 2차례에 걸쳐 오스트레일리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각 국의 여러 제도들이 많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최소 교육 이수 연한이 4년으로 결정된 데는, 일본의 역할과 영향력이 컸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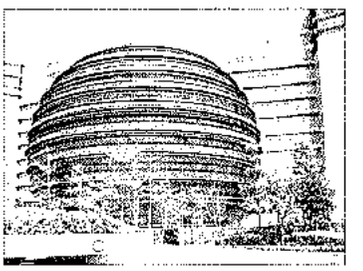
차기 회의가 미국의 적극적인 유치 홍보에 의해 하와이에서 개최되기로 함으로써,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단계에서 준비이사회(Provisional Council)로 발전되는 시점에 우리도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건축사들도 APEC건축사 자격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건축교육 개선과 관련하여 융통성 있는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배출된 졸업생도 국내 심사위원회를 통과하고 APEC 건축사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면 APEC 건축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다만, APCE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양국 또는 다자국간의 합의라는 또 다른 장벽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국내의 건축사들이 APEC 회원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근창 · 민규암 / 본협회 국제위원)









세금포인트제 최초 시행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세금포인트제를 4. 1부터 시행
*항공회사, 백화점 등이 고객관리 및 매출신장을 목적으로 이용규모에 따라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제도와 유사함

시행배경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세금포인트제를 도입하게 되었음
-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대표적 불만사항인 '세금을 성실하게 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고
- 특히, 지난 3. 3 '납세자의 날'부터 법인세를 많이 납부한 고액납세 법인에게 고액납세기념탑을 수여하는 것과 함께 고액납세 개인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기여할 것임

○이번 세금포인트제의 시행으로 개인의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대부분의 소득세 납부액이 개인별로 누적적으로 집계되어 관리되므로
- 국민 누구나 본인이 평생동안 자신의 소득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세를 납부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
- 향후 사회 기여도를 감안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 '평생 소득세 납부액'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세금포인트제 개요

○세금포인트 적용대상
- 모든 국민에게 적용 가능하고 평생에 걸쳐 누적관리의 의미가 있는 소득세를 대상으로 세금포인트가 부여되는데
  - 종합, 근로, 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되며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세는 제외됨
- 새천년의 시작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 이후 소득세 납부액부터 적용

○세금포인트 부여방법
- 세금납부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을 부여
- 조세범칙으로 처벌받은 불성실납세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전부 삭감
- 납세담보제공 면제에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용포인트를 누적포인트에서 차감

○세금포인트 적립실적 통보·확인
- 3월말까지 누계납부세액 1억원 이상인 납세자 3만 7천명에게 납부세액 및 포인트를 등기우편으로 통보
  - 앞으로는 누계세액이 1억원 이상 납세자에게 연 1회 우편으로 통보
- 4월 1일부터 인터넷(HTS : Home Tax Service)을 통하여 자신의 세금포인트와 누계납부세액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세금포인트 이용
-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자납세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신청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면제받는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음
  - 연간 납세담보면제 한도액 :
  적립된 포인트×10만원×50% (연간 2억원 한도)
- 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자납세액 1억원) 이상이 되면 세무서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 등 민원증명 신청 시 세무관서에서 직접 전달해 주는 택배서비스가 제공됨

〈세금포인트 이용 가능 인원〉

-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및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1천점 이상자는 약 3만 3천명
  * 3년간 1억원 이상 납부자는 약 3만 7천명이나, 고지납부세액에는 10만원당 0.3점이 부여되어 인원이 적어짐
- 납세담보 면제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1백점 이상자는 약 68만 3천명

자료제공 및 문의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564)
E-mail : ho25400@nts.go.kr